

*** 오 해 ***

소용녀는 모든 걸 눈치채고 웃었다. 그녀는 곧 양과의 손을 잡고 석실을 나섰다.

이막수와 홍릉파는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뒤에 따라붙어 두 사람이 입구에 모였다. 소용녀가 정말 기관을 움직여 맨 뒷 사람이 무덤 안에 떨어질까 두려워서였다.

이막수가 화를 내며 말했다.

"네가 감히 내 앞에 설 작정이나?"

이막수는 왼손을 뻗어 홍릉파의 어깨죽지를 잡았다. 홍릉파는 사부의 손매가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걸음을 멈추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녀의 손에 죽을 것이므로 사부를 앞에 가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막수는 양과의 등뒤에 바짝 달라붙어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

소용녀는 이리저리 돌면서 자꾸만 밑으로 내려갔다. 발밑이 점점 축축해지는 것이 이미 무덤에서 나온 것 같았다. 은밀히 주위를 둘러보니 도처에 갈림길이 있었다.

다시 한참을 걸어가자 길이 이상스레 경사가 진것이 곧장 밑으로 뻗어 있었다. 만약 네 사람의 무공이 높지 않았다면 벌써 미끄러져 내려갔을 것이다.

이막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종남산은 원래 그다지 높지 않은데 이렇게 내려간다면 곧 산밑에 도달하겠구나. 설마 우리가 산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

약 반 시간쯤 내려오자 길은 점점 평탄해졌으나 습기는 여전했다.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길이 물에 잠기더니 점점 물이 깊어졌다. 물이 발에서 배로 올라오더니 끝내는 허리까지 찼다. 소용녀가 양과에게 물었다.

"폐기비결을 확실히 외었지 ?"

"네에. 염려 마세요."

"호흡을 잘 봉쇄해. 물을 마시지 말고....."

"네 ! 아가씨도 조심하세요."

소용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는 순간 물은 벌써 목까지 찼다.

이막수가 놀라 소리쳤다.

"사매, 해엄칠 줄 알어 ?"

"묘 안에서만 지낸 내가 어떻게 해엄을 쳐요 ?"

이막수는 다소 안심을 하고 한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 발밑이 푹 꺼지면서 물이 입 가까이에서 찰랑거렸다. 그녀는 대경 실색하며 뒤로 물러서려 했으나 소용녀와 양과가 이미 물 속으로 잠수해 버린 판국이 라 설령 앞에 위험이 도사린다고 해도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뒷덜미의 옷깃을 홍릉과가 짝 움켜쥐었다. 급히 일장을 휘둘렀으나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이막수와 홍릉과는 물에는 익숙치 못하여 거센 물살에 부딪치자 서 있지 못하고 떠내려 갔다.

이막수의 무공이 비록 높고 강하여도 이때는 너무나 당황해 허위적댈 수 밖에 없었다. 그 순간 무엇인가 손에 닿아 힘껏 움켜 쥐었다.

양과는 호흡을 멈추고 소용녀의 손을 잡고 물 밑에서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이막수에게 팔을 잡혀 황급히 금나뱀으로 벗어나려 했으나 이막수가 워낙 단단하게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입 속으로 코 속으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해 기절할 지경인데도 여전히 짊 잡고 있었다. 양과는 몇 차례 떨치려고 했으나 떨쳐지지 않자, 힘을 너무 많이 써서 물을 먹게 될 것이 두려워 그냥 잡고 있게 내버려두었다.

네 사람은 물 밑에서 오랫동안 걸었다. 소용녀와 양과는 점점 답답해져 견디 내지 못하고 물을 한바탕 마셨다. 다행히 물살이 완만해지

더니 지형이 높아져 오래지 않아 물 밖으로 나왔다. 또 다시 일주향이 다 탈 정도의 시간을 걸어가자 점점 밝아지더니 끝내 한 동굴에서 나오게 되었다.

두 사람은 마신 물을 힘을 다해 토해 내고는 땅바닥에 누워 숨을 헐떡거렸다.

이때 이막수는 여전히 양과의 팔을 꼭 잡고 있었는데 양과는 그녀의 손가락을 떼 내어 간신히 떨쳐 냈다. 소용녀는 먼저 이막수와 홍릉과의 어깨 위에 혈도를 찍어 놓은 뒤 그녀들을 둥그런 바위 위에 눕혀 놓고 뱃속의 물을 서서히 토하게 했다.

한참이 지나자 이막수가 먼저 깨어났다. 그녀는 햇살이 비치는 것을 보자 정말 하늘을 다시 보게 된 것인지 의아해 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석묘 안에 있다가 물살에 휩쓸리는 위험을 당한 것을 생각하자 이막수는 소름이 끼쳤다. 비록 심신은 녹초가 되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히려 안심이 되었다.

또 얼마가 지나자 홍릉과도 서서히 깨어났다.

소용녀는 이막수에게 말하였다.

"사자, 당신 좋으실 대로 하시구라 !"

이막수와 홍릉과의 두 손은 마비가 되었지만 하반신은 행동이 자유로웠다. 그들은 곧 바로 일어나 소용녀와 양과를 묵묵히 쳐다보고는 떠나가 버렸다.

양과가 주위를 살펴보자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위로 햇살이 떠돌고 있었다. 너무나 기빠 소리쳤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

소용녀도 그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두 사람은 지난 며칠간의 정경이 정말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방은 인적이 끊긴 고요한 곳으로, 원래 이 동굴은 종남산 밑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풀밭의 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깨어나자 양과는 그녀에게 말한 대로 나가서 놀고 싶었지만, 소용녀는 변화한 세상을 본 적이 없어 어찌해야 할지 몰라 두려웠다.

"안 돼 ! 먼저 상처를 치료한 다음 옥녀심경을 연성시켜야만 돼 !"

양과는 자기 머리통을 한 번 탁 치며 말했다.

"이 바보 멧덩구리 같으니라고 ! 아가씨의 상처를 잊어버리다니...
...."

양과는 곧바로 그녀의 운공을 도와 내상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보름이 채 못 되어 소용녀의 내상은 완전히 나았다.

두 사람은 한 그루의 커다란 소나무 아래에다 두 간의 모옥(茅屋)을 지어 비바람을 피했다. 모옥 위에는 등나무를 잔뜩 덮어 놓았다.

양과는 꽃향기가 짙은 것이 좋아 자기의 모옥 앞에 장미와 모리화 같은 향기 나는 꽃들을 심었다. 소용녀는 단아한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솔잎의 푸르른 향기나 멀리서 풍겨 오는 이상한 화초의 꽃향기 따위를 좋아해서 그녀가 사는 모옥 앞에는 자연 야생의 풀들이 많았다.

두 사람은 낮에는자고 밤에는 무공을 익혔다. 수개월 만에 소용녀가 연성하였고, 양과도 다시 한 달 가량이 지나자 충분히 익히게 되었다. 수련에 수련을 거듭하여 막히는 곳이 없게 되자 양과가 다시 세상에 나가는 문제를 꺼냈다.

소용녀는 이처럼 평안하고 활기찬 생활을 이 세상에서 달리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가 강호에 마음이 있어 그를 동떨어진 산중에 끝까지 묶어 두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과아야, 우리 두 사람의 무공이 비록 옛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해졌지만 광백부와 광백모와 비교해 본다면 어떻겠느냐 ?"

"당연히 아직도 멀었지요."

"너의 광백부가 무공을 그의 딸애와 또 무씨 형제들에게 전해 주었을 텐데 그들과 만나게 되면 우린 그들에게 모옥을 받겠군."

이 말을 듣고 양과는 펄쩍 뛰며 말했다.

"그들이 만약 다시 나를 모욕한다면 어찌 그들을 가만 두겠어요 ?"

"그러나 네가 그들에게 이기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러면 아가씨가 도와 주면 되잖아요 !"

"내가 너의 곱백모에게 진다면 그것도 소용없는 일이야."

양과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대책을 생각했다.

(곱백부의 신분을 봐서 그들과 다투지 않으면 그만이지, 뭘 !)

소용녀는 생각하기를, 그가 고묘 안에서 2년여를 살면서 고묘파 무공을 수련했기에 불 같은 성질이 많이 누그러졌다고 생각했다.

사실 양과는 나이도 먹었을 뿐 아니라 사리도 분명해져 곽정이 자기에게 진정을 가지고 대해 주었다고 확실히 생각하자 마음속으로 감격했었고, 또한 곽부와 무씨 형제도 무슨 큰 원수진 일도 없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어렸을 적 귀뚜라미를 갖고 다투었을 따름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었다.

소용녀가 말했다.

"네가 사람들과 경쟁하려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야. 네 말을 듣고 바깥 세상에 나가서 너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고 하여도 다른 사람이 너를 모욕하려 들었을 때, 만약 우리가 왕중양이 남겨 놓은 무공을 연성하지 않고 무공이 강한 사람을 만난다면 결국 그들을 막아 내지 못할 것 아니겠냐 ?"

양과는 그녀가 이 조용한 곳을 떠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가씨 말을 따르지요. 내일부터 우리 그 구음진경을 수련해요."

이리하여 두 사람은 또 1년여를 산중에서 머물게 되었다.

소용녀와 양과는 비밀 통로를 통해 다시 무덤 안으로 들어가 왕중양이 남겨 놓은 유각을 며칠 동안 윈 후 나왔다.

1년여 동안 두 사람의 내공과 외공 모두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무덤 안에 왕중양이 남겨 놓은 것은 단지 옥녀심경을 상대하는 것으로서 구음진경의 한 부분에 불과하므로 두 사람이 수련한 것은 곽정 황

양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는데, 그들 두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무공 수련이 끝나 가자 두 사람 모두 큰 진전이 있음을 느꼈다.

양과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상당히 상쾌했다. 그러나 소용녀는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 양과가 계속해 우스갯소리로 그녀의 마음을 풀어 주려고 했지만 소용녀는 오로지 묵묵부답이었다.

양과는 이제 왕중양이 남겨 놓은 무공을 이미 다 배웠는데 그 것을 좀 더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어느 정도 더 연습해야 할는지 몰랐다. 그러나 결국 가운데의 오묘한 이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날마다 계속해서 수련하기만 한다면 무공은 점차 깊어질 것이고 위력도 당연히 강해질 것이다.

소용녀는 하산하길 원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그를 잡아 둘 적당한 핑계도 없어 그민하고 있었다.

"아가씨, 아가씨가 하산하지 않으면 우리 영원히 있으면 되는 거죠, 뭘 !"

소용녀는 기뻐하며 말했다.

"참 좋지, 그러면....."

소용녀는 단지 이 말만 하고는 입을 다물었다. 양과가 자기 때문에 억지로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내일 다시 얘기하자."

저녁도 먹지 않고 모옥으로 가서 자 버렸다.

양과는 풀밭에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달이 산 위로 떠오르자 방으로 돌아갔다.

한참을 자다가 잠결에 바람소리가 들려 깨어 보니, 보통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소리였다. 그는 급히 일어나 사부의 모옥 앞으로 달려가 불렀다.

"아가씨, 안에 있어요 ?"

장풍소리가 더욱 거세게 들려왔다.

소용녀가 이미 들었을 텐데도 대답이 없자 양과는 두 차례쯤 더 불

러 본 뒤 안을 들여다보았다. 침상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닌가 !

양과는 급히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10여 장을 달려나갔으나 사람은 보이지 않고 장풍소리만 들리는데, 한 사람은 분명 소용녀였다. 상대방의 장풍도 엄청나 무공이 소용녀보다 강한 것 같았다.

양과가 급히 달려가 보니 달빛을 받으며 소용녀가 신체 건장한 사내와 싸우고 있었다. 소용녀의 신법이 비록 날렵하다 하지만 상대방의 무공이 극히 고강해 그의 장력 아래 소용녀는 간신히 버텨 내고 있었다.

양과는 놀라서 소리쳤다.

"아가씨, 내가 왔어요."

두 사람 곁으로 다가가 상대방을 바라본 순간 놀람과 기쁨이 서로 엇갈렸다. 그 사람은 뺨뺨한 수염이 얼굴에 가득한 것이 마치 고슴도치 같았는데 바로 옛날 의부인 구양봉이 아닌가 !

그가 산처럼 우뚝 서서 서서히 일장을 뻗어 내면 소용녀는 피하기만 할 뿐 감히 정면에서 그의 장력을 받아 내지 못하였다. 양과가 소리쳤다.

"모두 같은 편이에요. 잠깐, 손을 멈춰요 !"

소용녀는 이 털투성이의 미치광이가 같은 편이라는 소리를 듣자 피이하게 여겨 잠시 생각에 잠긴 순간 신법이 느슨해졌다. 그 때 구양봉이 우장을 비스듬히 뻗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들이쳤다. 강대무비한 힘이였다.

양과는 놀라서 급히 앞으로 다가섰으나 소용녀의 좌장이 이미 구양봉의 우장을 막아 내고 있었다. 소용녀의 공력은 의부에 훨씬 못 미치므로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내상을 입을 판이었다. 양과는 즉시 다섯 손가락을 뻗어 구양봉의 오른쪽 팔꿈치를 후려갈겼다. 바로 새로 익힌 구음진경 중의 수휘오현(手揮五絃)이라는 상승무공이었다.

비록 그가 수련이 덜 되었다 하더라도 정확히 가격을 했으므로 구양봉은 팔이 시큰하며 전신에 힘이 빠졌다.

소용녀는 적의 기세가 약해진 것을 보고 민첩하게 공격하려 했다. 이 순간 구양봉은 전신을 방어할 수가 없게 되어 비록 가벼운 일장이라도 중상을 입게 될 판이었다. 양과가 소용녀의 일장을 잡아 막고서 두 사람 사이로 끼여들었다.

"두 분 잠시 멈추시오. 모두 한편입니다."

구양봉은 아직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단지 이 소년의 무공이 높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느낄 뿐이었다.

"넌 누구냐? 무슨 자기 편이고 아니고 헛소리를 하는 게냐?"

양과는 그가 평소에도 미친 사람같이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미 자기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되었다.

"아버지, 저예요. 양과예요."

이 한 마디 말 속에는 걱정이 충만되어 있었다. 구양봉은 잠시 멍하니 그의 손을 잡고선 얼굴을 달빛 아래 비추며 살폈다. 그랬더니 바로 수년간이나 찾아 헤매던 양아들이 아닌가! 그가 많이 장성하였으며 또 무예도 대단해져 얼른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는 양과를 부여안고 소리쳤다.

"애야, 내가 얼마나 널 찾아다닌 줄 아느냐?"

둘은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소용녀는 세상에 오직 양과 한 사람만이 불 같은 정열이 있는 줄 알았다가 지금 보니 구양봉도 마찬가지였다. 하산한 후의 일들에 대해 마음속으로 다소 두려움을 갖게 되어 소용녀는 조용히 옆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구양봉은 그 당시 가흥에서 양과와 헤어진 후, 큰 범종 밑에 숨어 신공을 운용해 7일 낮 7일 밤 동안 내상을 치료한 뒤에야 내공이 회복됐다. 그러나 가진악의 철장에 맞아 생긴 외상이 가볍지 않아 여관에서 20여 일 간을 치료했다. 내 외공이 모두 회복되자 구양봉은 양과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망망한 별관에서 양과의 종적을 찾을 수는 없었다.

(이 아이는 십중팔구 도화도로 갔을 것이다.)

구양봉은 조그만 배 한 척을 세내어 타고 도화도에 이르렀다. 낮에는 감히 섬에 가까이 이르지 못하고 있다가 밤을 틈타 뒷산으로 올랐다. 그는 광정과 황용 두 사람의 적수가 아님을 알고 있었으며, 황약사가 섬에 없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낮에는 외딴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밤만 되면 몰래 빠져나와 다녔는데 섬에 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1년 동안 신중히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고 어느날 저녁 무씨 형제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야 비로소 광정이 양과를 전진교에 입문시켰다는 것을 알았다.

구양봉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배를 훔쳐 타고 중앙궁으로 갔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양과가 전진교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활사인묘에 들어간 뒤였다. 이 일은 전진교에서 수치로 여겨 절대로 남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지 때문에 구양봉이 비록 백방으로 수소문하였으나 한마디 소식도 듣지 못하였다.

그날 밤도 우연히 계곡을 헤매던 중 한 백의의 소녀가 달을 쳐다보며 앉아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구양봉이 미친 사람처럼 물었다.

"야. 우리 아들 어디 있냐? 너 혹시 보지 못했느냐!"

소용녀는 그를 힐끗 쳐다보고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구양봉이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팔을 잡고 물었다.

"우리 아들 말이다!"

소용녀는 그의 힘이 대단한 것을 보고 상당한 고수라는 것을 알았다. 소용녀는 즉시 팔을 돌려 빼내었다. 구양봉은 생각지도 않게 그녀가 교묘하게 팔을 빼내자 화가 치밀어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즉각 원손을 들어 그녀를 후려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싸움이 시작됐던 것이다.

의부와 양아들은 각자 이별하고 난 뒤의 이야기를 했다. 구양봉의

정신은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지나간 일들을 그다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양과에게 한 말도 그다지 명료하지 못했다.

"그녀의 무공은 나에게 못 미치던데 어찌 그녀에게 무공을 배웠느냐? 내가 너를 가르쳐 주마."

소용녀는 자신이 그와 비교되는 것을 듣고 나서 담담하게 웃으며 한 쪽으로 걸어갔다.

양과는 뭔가 잘못됐다 싶어 말했다.

"아버지. 용아가씨는 내게 잘 대해 주었어요."

구양봉은 질투가 나서 소리쳤다.

"그녀는 좋고, 그럼 나는 나쁘다는 말이나?"

"아버지도 좋아요. 이세상에서 단지 두 분만이 내게 잘해 주었어요."

구양봉의 말은 비록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양과는 그가 몇 년 동안 자기를 찾아 여러 곳을 다니며 고생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구양봉은 그의 손을 잡고 킬킬거리며 한동안 바보같이 웃다가 말했다.

"너의 무공은 상당하지만 아깝게도 세상에서 최상승의 양대 기공을 할 줄 모르는구나."

"그게 무엇인데요?"

구양봉이 짙은 눈썹을 곤두세우며 소리쳤다.

"무공을 연마하는 사람이 세상의 양대 기공도 모르다니 사부로 모신 그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양과는 그가 웃다가 화를 내다가 하여 자기도 모르게 걱정이 되었다.

(아버지의 병환이 이미 깊어 언제나 치유될지 모르겠구나.)

구양봉이 껄껄 웃더니 말했다.

"이 녀석아. 이 아비가 네게 알려 주마. 양대 기공의 첫번째는 합마공이고 두번째는 구음진경이다. 먼저 네게 합마공의 입문무공부터 가

르쳐 주마."

말을 마치자 구양봉은 구결을 암송했다. 양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예전에 나에게 가르쳐 준 사실을 잊으셨나요 ?"

구양봉이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원래 네가 벌써 배 었구나. 그럼 내게어디 한 번 보여다오."

양과는 고묘에 들어온 이후 구양봉이 옛날에 전수해 준 괴이한 무공을 연습하지 않았는데 이 말을 듣고 나자 흔쾌히 펼쳐 보였다.

그가 도화도에 있을 때 이미 수련을 한데다가 지금은 상승 내공에 운용하여 그 동작이 완숙해져 화려하게 보였다.

"잘 한다. 잘 해 !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보기는 좋은데 쓸모가 없군. 내가 그 오묘한 진수를 너에게 전수하여 주마."

즉시 손발을 움직이며 계속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양과가 기억하든 못 하든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합마공을 강론하고 나서는 다시 복잡한 구음진경을 얘기했다.

양과가 정신을 집중하여 들었으나 매 귀절마다 오묘한 뜻이 무궁무진하고 복잡 괴이하여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것을 도저히 깨우칠 수는 없었다.

구양봉이 한바탕 얘기하고 나서 한쪽에 앉아 있는 소용녀를 힐끗 보았다.

"아이고 맙소사. 너의 갓난아기 사부가 었들었구나."

구양봉이 소용녀의 앞으로 다가갔다.

"야 ! 지금 내 아들에게 무공을 전수하고 있으니 었듣지 마 !"

"당신의 무공이 무엇이 그리 진귀하다고 누가 었듣는단 말이에요 ?"

구양봉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했다.

"좋아, 그럼 너는 멀리 가 있어 !"

소용녀는 나뭇가지 위에 기대어 냉랭하게 얘기했다.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하지요 ? 가고 안 가고는 내 마음인데.

....."

구양봉이 크게 성을 내자 수염과 눈썹이 칼날처럼 곤두섰다.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핏대하려 했으나 이미 소용녀는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 용아가씨에게 너무 그러지 말아요."

구양봉은 손을 도로 거두며 말했다.

"좋아, 우리가 멀리 가자. 漢음쥬?"

소용녀는 이 의부의 사람됨이 극히 못됐다고 생각되었는데 다시 그를 상대하기가 귀찮아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등이 찔려졌다.

구양봉이 갑자기 그녀의 등에 있는 혈도를 찍었기 때문이었다. 이 출수는 대단히 빨라서 소용녀가 전혀 방어할 수가 없었다. 깜짝 놀라 방어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상체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구양봉은 다시 손가락을 뻗어 그녀 허리 혈도를 눌러 놓고 웃으며 말했다.

"이 계집애야. 초조해 하지 말고 내가 아들에게 무공을 전수해 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 와서 풀어 주마."

양과는 의부가 전수해 준 합마공과 구음진경을 한창 암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말한 구결이 어떤 것은 서로 엉켜 똑똑치 못하고 엉망진창이며, 어떤 것은 오묘하여 의심할 바가 없는 것도 있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소용녀가 피습당한 일을 조금도 모르고 있었다.

구양봉이 와서는 그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우리 저쪽으로 가자. 네 사부가 듣지 못하게 해야지. 안 그렇지?"

양과는 소용녀가 어찌 옛들을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 설사 억지로 그녀에게 전수시키려 해도 그녀는 결코 배우려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의부의 정신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그와 말다툼 할 필요도 없고 해서 양과는 그를 따라 멀리 갔다.

소용녀는 맥이 풀려 땅바닥에 힘없이 누워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화

가 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했다. 자기의 무공이 비록 심대했지만 적과 싸워 본 경험이 적어 이막수의 암계에 당한 후, 이수염투성이의 괴인에게 또 암습을 당하였으니 말이다.

그녀는 구음신공을 몰래 운용하여 혈도를 스스로 풀려고 하였다. 한 모금의 기를 흡입하여 혈도에 몇 차례 부딪쳐 갔으나 두 곳의 혈도가 조금도 뚫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몸이 저려 화 크게 놀랐다.

원래 구양봉의 수법은 구음진경과 반대로 운행되었는데, 그녀는 왕중양이 남긴 수법으로 혈도를 풀려고 하였다. 몇 번 시도를 하였으나 오히려 통증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 미친 괴한이 무공을 다 전수해 준 후 와서 풀어 준다 했으므로 소용녀는 점점 느긋해져 나중에는 초조하지도 않게 되었다. 머리를 들어 하늘의 별들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그녀는 그만 잠이 들었다.

한참이 지났을 때 눈 위에 갑자기 어떤 물체가 와 닿는 것이 미약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밤에도 대낮과 같이 볼 수가 있었는데 이때는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두 눈이 천으로 가려졌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누군가가 팔을 벌려 자기를 껴안았다.

소용녀는 질겁을 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였으나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다가와 자신의 뺨에 닿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그녀는 매우 겁이 나다가 차차 느긋해지고 대답해지기까지 했다.

처음에는 구양봉이 폭력을 쓰는구나 생각했으나 그 사람의 넓은 얼굴이 닿았을 때, 그의 얼굴이 매끄러운 게 결코 뻣뻣한 수염이 가득한 구양봉의 얼굴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슴이 울렁거렸다.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고 정욕이 은근히 피어올랐다. 그녀는 이 사람이 바로 양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두 손이 마구 움직여 천천히 자기의 옷을 벗기는 것을 느꼈으나 소용녀는 꿈쩍달짝할 수 없어 그가 하는 대로 놔 둘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했다.

구양봉은 양과가 대단히 총명한 것을 보고 자신의 구결을 전수해 주었다. 그가 비록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매우 빨리 암송하자 마음이 흡족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양대 기공의 요지를 끝마칠 수 있었다.

양과는 오랫동안 말없이 암송하다가 말했다.

"내가 배운 구음진경은 아버지가 말한 것과 사뭇 다르니 무슨 까닭 일까요 ?"

"헛소리, 이것 외에 무슨 구음진경이 또 있단 말이나 ?"

"예를 들면 역근단골(易筋鍛骨)의 수법에서 세번째 단계에 기혈을 역행시켜 천주혈(天柱穴)을 향하라고 했는데, 저의 사부님은 오히려 단전에 힘을 주어 장문혈(章門穴)을 통과하라고 했습니다."

구양봉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냐, 틀려....., 음, 천천히....."

그는 양과가 말한 대로 운공을 해 보더니 갑자기 내공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확정이 양과에게 적어 준 경문이 사실은 내용이 바뀌고 고쳐진 것인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혼란스러워져서 중얼거렸다.

"어째서 ? 도 체 내가 틀린 것이냐, 아니면 너의 갓난아기 사부가 틀린 것이냐 ?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나 !"

양과는 그가 눈에 초점이 흐려지면서 정신나간 모습을 보이자 몇 번이나 그를 불렀다. 그러나 대답이 없자, 그의 정신병이 또 발작할 것 같아 매우 걱정이 되었다.

이때 갑자기 수장 밖의 나무 뒤에서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의 그림자가 번득였다.

꽃무더기 속에서 황색 도포자락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곳은 인적이 드문 곳인데 어떻게 바깥 사람이 이곳에 왔을까 ? 뿐만 아니라 그 사

람의 행동이 사람을 피하는 것 같은 게 결코 좋은 뜻을 가진 사람 같지가 않아 급히 쫓아갔다.

그의 걸음이 빨라서 마치 나는 듯이 앞으로 내달았다. 뒷모습을 보니 도인이었다. 양과가 소리쳤다.

"이봐, 누구냐 ? 무엇하는 거냐 ?"

그 도인은 누군가 외치는 소리를 듣더니 더욱 급히 달렸다. 양과가 가볍게 힘을 주니 신형이 화살처럼 똑바로 내달아, 그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그는 전진교의 윤지평이 아닌가 !

양과는 그의 옷맵시가 단정치 못하고 얼굴에 붉은색과 흰색이 군데군데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여기서 뭘 했느냐 ?"

윤지평은 전진교의 제 3대 제자 중 우두머리로 무공이 높고 평소에도 거동이 당당한데 어찌된 일인지 이때에는 얼굴에 당황한 빛이 역력한 것이 수상쩍었다.

양과는 그가 몹시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그날 그가 손가락을 자르며 맹세했던 일이 생각났다. 그 사람됨됨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되어 손을 놓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무 일도 없다면 빨리 가시오 !"

윤지평은 고개를 돌려 몇 번 쳐다본 뒤 황망히 떠나갔다.

(이 도사놈이 정신이 빠진 것 같은 게..... 참 웃기는군.)

양과는 모옥으로 돌아오기 전, 수풀 속에 소용녀의 두 다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마 잠들어 버린 듯 했다.

"아가씨 !"

양과가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수풀 속을 고 들어가니 소용녀가 땅바닥에 누워 있고 눈에는 푸른 천이 둘러져 있었다.

양과는 나직이 탄성을 지르고 그녀 눈 위의 푸른 천을 풀었으나 눈의 표정이 매우 이상했다. 그녀의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었으며 사뭇

교태로왔다.

양과가 물었다.

"누가 이 천을 매었지요 ?"

소용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질책하는 빛이 흘러나왔다. 양과가 자세히 보니 그녀가 축 늘어진 것이 누군가에게 혈도를 찍힌 것 같았다. 그녀의 팔을 당겨 보았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틀림없이 나의 의부가 역근점혈법(易筋點穴法)으로 그녀의 혈도를 찍었을 거야.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무서운 점혈수법에도 그녀가 스스로 혈도를 풀 수 있을 텐데.....)

양과는 구양봉이 그에게 방금 전수해 준 수법으로 그녀의 혈도를 풀어 주었다.

소용녀는 혈도가 찍혔을 때 전신이 나른하여 있었는데 양과가 혈도를 풀어 준 후에도 여전히 힘없이 양과의 몸에 기대었다. 마치 전신의 골격이 모두 녹아 버린 것 같았다. 양과는 팡릉 뻗어 그녀를 부추기며 부드럽게 말했다.

"의부는 항상 제멋대로예요. 그를 상대 앓는 것이 좋겠어요."

소용녀는 얼굴을 그의 가슴에 기대고 모호하게 말했다.

"자기 자신이 그러면서 딴 사람 애길 하네."

양과는 그녀의 행동거지가 평소와 사뭇 다름을 보고는 당황했다.

"아가씨, 난.....,난....."

소용녀는 머리를 들어 성을 내며 말했다.

"아직까지 아가씨라고 불러 ?"

양과는 더욱 당황했다.

"내가 아가씨라 부르지 않으면 사부라 해야 하나요 ?"

소용녀가 말했다.

"그대가 나를 이렇게 대했는데 내가 어찌 그대의 사부가 될 수 있겠어 ?"

"난....., 그럼 어떻게 하지요 ?"

소용녀는 옷소매를 걷어올려 백옥 같은 흰 팔뚝을 내놓았다. 아무런 흠도 없었다. 은홍색 점인 수궁사가 이미 없어져 버린 것이다. 소용녀는 부끄러운 듯 말했다.

"이것 봐 !"

양과는 이해가 안 가는 듯 컷볼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애긴지....."

"말했잖아 ! 다신 용아가씨라 부르지 말라고....."

그녀는 양과의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 찬 것을 보자 마음속으로 말할 수 없는 온정이 솟아났다.

"우리 고묘과의 문인들은 대대로 처녀였어. 내 사부가 나에게 이 수궁사를 찍어 주었는데, 어젯밤....., 어젯밤 그대가 나를 그렇게 대했는데 어떻게 내 팔뚝에 수궁사가 있을 수 있겠어 ?"

"어젯밤에 내가 뭘 어쨌는데요 ?"

소용녀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만, 그만 !"

잠시 있다가 그녀가 조용히 말한다.

"이전에는 하산하는 것이 두려웠는데 지금은 달라. 그대가 어디를 가든 나는 기꺼이 그대를 따를 거야."

양과는 너무 기뻐 소리쳤다.

"용아가씨, 야, 신난다 !"

소용녀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어쨌서 아직까지 용아가씨라고 부르지 ? 설마 지금 거짓으로 나를 대하는 것은 아니겠지 ?"

양과가 대답이 없자 소용녀는 다급해져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

양과는 성심 성의껏 대답했다.

"당신은 나의 사부이며 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을

존경하며 당신 말을 들겠다고 맹세했었지요."

"설마 나를 아내로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 ?"

양과는 이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받자 당황하여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중얼거리듯 대답했다.

"아니, 아니, 당신은 내 아내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 당신은 사부이며 용아가씨이지요."

소용녀는 화가 치밀어 온몸이 떨렸다. 갑자기 한모금의 선혈을 울컥 토해 냈다.

양과는 몹시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용아가씨, 아가씨 !"

소용녀는 그가 여전히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듣고 원망스럽게 그를 쳐다보았다. 순간 왼손을 들어 그의 천령개를 부수려고 했으나 끝내 내려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이 고민하는 빛에서 원망의 눈빛으로, 다시 연모하는 빛으로 점차 바뀌었다. 길게 탄식을 하더니 그녀는 조용히 말하였다.

"이렇게 된 이상, 다신 나를 보려고 하지 말아라."

긴 소매를 떨치며 몸을 돌리더니 나는 듯이 산을 내려갔다. 양과가 소리쳤다.

"어디 가는 거예요 ? 나도 같이 가요."

소용녀는 몸을 돌리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천천히 말하였다.

"만약 네가 나를 다시 만나게 되면 난....., 난....., 내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너의 목숨을 빼앗을 거다."

"아가씨는 내가 의부에게 무공을 배웠다고 그러는 것이지요 ?"

소용녀가 처연하게 말했다.

"그대가 남에게 무공을 배운 것을 내가 어떻게 나무랄 수 있겠어 ?" 하더니 몸을 돌려 빠른 걸음으로 내달았다.

양과가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사이에 그녀의 흰 뒷모습이 점점 멀어

지더니 끝내는 산모퉁이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양과는 울분이 복받쳐 올라 땅에 엎드려 통곡을 했다.

이리저리 생각을 해 보아도 어째서 사부에게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었고 어째서 그녀의 태도가 그렇게 달라졌는지, 한때는 비단결처럼 부드럽더니 이제와서 원망하며 관계를 끊으려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무엇 때문에 자기의 아내가 되겠다고 말했으며 또 그녀를 용아가씨라 부르지 못하게 했는가. 한참을 생각하고서야 양과는 이 일은 틀림없이 의부와 관계가 있을 터이니 그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구양봉 앞으로 걸어갔으나 그는 두 눈을 멍하니 뜬 채 꼼짝도 안 했다.

양과가 물었다.

"아버님, 어째서 사부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

구양봉이 말했다.

"구음진경, 구음진경 !"

"왜 그녀의 혈도를 찍어 그녀가 화를 내게 했습니까 ?"

"도대체 천주혈을 역행시켜야 되는가 ? 장문혈을 따라가야 되는가 ?"

"아버지. 제 사부님이 왜 떠났습니까 ? 말씀 좀 하세요. 그녀에게 어떻게 했지요 ?"

"네 사부가 누구냐 ? 넌누구냐 ? 누가 구양봉이냐 ?"

양과는 그가 다시 발작이 일어난 것을 보고는 겁이 나고 난감하기도 해 부드럽게 말했다.

"아버지. 피곤하죠 ? 집에 들어가서 한잔 하시죠."

구양봉이 갑자기 물구나무를 서서 머리를 땅에 대고 크게 외쳤다.

"나는 누구인가 ? 나는 누구인가 ? 구양봉은 어디 갔는가 ?"

하더니 쌍장을 휘두르며 몸을 돌려 바람같이 산을 내려갔다.

양과가 소리쳤다.

"아버지 !"

그를 잡으려 했으나 그가 다리로 턱을 치려는 바람에 뒤로 넘어졌다. 양과가 다시 일어났을 때 구양봉은 이미 10여 장 밖에 있었다.

양과가 몇 보를 쫓았으나 헛일이었다. 양과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사방이 고요한 것이 적막만이 감돌았다. 그는 당황하여 크게 소리쳤다.

"아버지 ! 아가씨 !"

조금 지나자 메아리가 계곡에서 울려 퍼졌다.

"아버지이....., 아가씨이..... !"

수년간을 마치 모자(母子)나 오누이처럼 한 발도 그녀와 떨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유도 알 수 없이 그녀가 가 버렸으니 어찌 그의 애간장이 타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

상심한 나머지 양과는 몇 번이나 바위에 머리를 받아 죽으려 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기대가 있었다. 사부는 갑자기 떠났으니 갑자기 돌아올 것이다. 의부가 비록 그녀에게 죄를 지었지만 내가 결코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연히 나를 찾아올 것이다.

이날 밤 양과가 어찌 편히 잠을 이룰 수 있었을까. 수풀에서 벌레소리나 바람소리만 들려도 소용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벌떡 일어나 <아가씨 !> 하고 소리치며 나갔다가 매번 처량하게 실망할 뿐이었다.

결국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산마루에 올라가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살펴보다가 날이 밝았다. 구름은 계곡에서 피어오르고 안개가 산봉우리를 감싸며 천지가 망망한데 오직 양과 혼자만이 그속에 있을 따름이었다.

양과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다가 돌연 생각했다.

(용아가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찾아나서야지. 그녀를 찾아내기만 한다면 그녀가 나를 때리든 욕하든 절대로 그녀 곁을 떠나지 않겠다.)

마음이 정해지자 양과는 정신을 차리고, 소용녀와 자기의 의복, 그리고 물건 등을 아무렇게나 싸서 등에 짊어지고 산을 떠나갔다.

인가에 이를 때마다 사람들에게 흰옷을 입은 미모의 여자를 보지 못했냐고 물었다. 그는 한나절 동안 계속해서 10 여 차례 물어 보았지만 모두들 머리를 흔들고 못 보았다고 했다.

양과는 조금해져서 재차 물어보곤 했는데 예의를 차린 공손한 행동 일 수가 없었다. 어느 산골 사람은 그가 다짜고짜로 어떤 규수를 묻는 것을 보고는 화를 내기도 했으며, 어떤 사람은 그녀와 어떤 관계나 교문기도 했다.

"당신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단지 당신이 그녀가 이곳을 지나는 것을 봤느냐는 것을 물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도리어 욕을 해 댔다.

옆에 있던 한 노인이 그의 옷소매를 잡더니 동쪽의 한 작은 길을 가리키며 웃으면서 말했다.

"어제 저녁 이 늙은이가 선녀 같은 미인이 동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지요. 꼭 관세음보살이 속세에 하강한 듯 신비스런 용모와 ."

양과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황급히 인사를 하고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냅다 달려갔다. 등뒤에서 한바탕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 노인이 양과가 무례한 것을 보고 헛소리로 그를 속였다는 것을 양과가 어찌 알았겠는가 !

차 한잔 마실 시간이 지나자 눈앞에 두 갈래 길이 나타나 양과는 어느 길로 가야 좋을지 모르게 되었다.

(사부는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니 십중팔구 황량하고 외진 길로 갔을 것이다.)

곧바로 왼쪽의 울퉁불퉁한 작은 길로 들어섰는데 갈수록 길이 넓어지더니 몇 번 구부러지자 큰 길이 나왔다. 그는 하루 밤 하루 낮을 물한 방울 먹지 못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뱃속에서는 꾸룩꾸룩 소리가 날 정도로 배가 고팠다. 앞에 집들이 뺑뺑이 줄지어 있는 것이

시장 같았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한 식당에 들어갔다.

"음식 좀 갖고 오쇼 !"

점원은 평범한 음식을 가져왔다. 양과는 몇 입에 급히 음식을 다 쓸
어 넣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어 음식이 내려가지 않았다.

(날은 비록 어두워졌지만 계속해서 용아가씨를 찾아야만 한다. 오늘
밤에 못 찾으면 영원히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곧 음식을 물리고 점원에게 물었다.

"혹시 흰옷을 입은 미모의 여자를 보지 못했는가 ?"

"보기는 봤는데....., 벌써 한나절 전에 지나갔는걸요..... 손님
께 말하겠는데요. 그녀를 찾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양과는 놀랍고도 기뻐 황급히 말했다.

"그녀가....., 어떻게 됐지 ?"

순간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가씨가 무공을 할 줄 압니까 ?"

"물론, 무공을 할 줄 알지."

"그녀를 찾아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 정말 험악하던데....."

"도대체 무슨 일인데 ?"

"먼저 그녀와 당신은 어떤 사이인지요 ?"

먼저 그에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가 결코 소용녀의 행적을 말할
것 같지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말해 주었다.

"그녀는 나의.....나의 누님인데 꼭 찾아야만 돼."

점원은 그 소리를 듣자 숙연해지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냐, 안 닮았어 !"

양과는 초조해져서 그의 먹살을 잡고 소리쳤다.

"도대체 말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

점원은 혀를 길게 내놓으며 소리쳤다.

"맞다. 맞아, 정말 비슷해 !"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또 다르다는 것이냐 ?"

"도련님. 먼저 손을 좀 놓으세요. 목구멍이 썩썩 !말이 안 나와요. 억지로 말을 하자면 못 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

양과는 이 사람의 천성이 이와 같다면 완력을 써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즉시 손을 놓아 주었다.

점원은 기침을 몇 번 하고서 말했다.

"도련님. 제가 다르다고 한 것은 그 여자..... 그 여자..... 에, 그러니까 당신의 누님이 당신보다 젊게 도여 오히려 동생 같지, 누님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슷하다고 한 것은 당신 두 분이 모두 성질이 불 같아 주먹을 휘두르고 몽둥이 쓰기를 좋아하는 급한 성질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우리....., 우리 누님이 사람과 싸움을 하였느냐 ?"

"누가 아니래요 ? 싸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보세요 !"

점원은 탁자에 몇 가닥 칼자국이 난 흔적을 가리키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정말 무서웠어요. 당신 누님의 실력이 워낙 대단해 단칼에 두 도사의 귀를 베어 버렸답니다."

"어떤 도사를 ?"

양과는 속으로 전진교의 도사들이 소용녀에게 당했다고 생각했다.

"바로 저기....."

점원은 말하다 말고 갑자기 얼굴색이 변해 목을 움츠리고는 몸을 돌려 가버렸다.

양과는 이상하다고 느꼈으나 쫓아가지 않고 밥그릇을 받쳐들고 젓가락으로 집어 퍼 먹으면서 바라보니 두 명의 도사가 식당 문 밖에서 어깨를 맞대고 들어왔다.

두 사람은 모두 26,7 세 가량으로 얼굴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다. 눈썹이 무성하고 진하게 생긴 도사가 소리를 냅다 질러 음식끓음을 머금고 다가왔다. 점원은 틈이 날 때마다 양과

에게 눈을 깜박이며 입을 삐죽거렸다.

양과는 머리를 파묻고 먹기만 했다. 그는 소용녀의 소식을 듣게 되어 기분이 좋아 밥 한 그릇을 더 주문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소용녀가 바느질한 투박한 옷으로, 남루한데다가 하루 낮과 밤을 급히 달려왔으므로 온몸이 먼지투성이가 되어 시골 소년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 두 도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조용히 얘기했다.

양과는 일부러 소리를 크게 내어 식사를 했는데 모든 신경은 두 도사의 이야기에 쏠려 있었다.

"피사제(皮師弟), 오늘밤 제 시간에 한 진 두 사람이 온다고 그랬잖아 ?"

입술이 큰 도사가 말했다.

"이 두 사람은 개방에서도 쟁쟁한 사람들로 신사숙과는 상당한 교분이 있는데다가 신사숙이 친히 초청했으니 오지 않을 수 없지."

양과가 비스듬히 두 사람의 얼굴을 힐끗 보니 모르는 얼굴이었다. 양과는 속으로 생각했다.

(중양궁에는 천 명이나 넘는 말코나부랭이들이 있어. 나는 그들을 알아 보지 못하지만 그들은 내가 전진교를 배반한 놈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들과 마주쳐선 안 되지. 흥, 그들이 나의 사부를 당해 내지 못하고 개방의 거지들에게 도움을 청한 모양이로군.)

눈썹이 짙은 도사가 말했다.

"길이 멀어 오늘밤 제때에 도착할지.....원 !"

"흥, 회사형 ! 일이 이렇게 됐는데 걱정해야 소용없지요. 계집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술이나 마십시다 !"

이어서 점원을 불러 좋은 방 하나를 준비하라고 시켜 그날 밤 여관에서 묵으려 했다.

양과는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이 도사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사부를

찾을 수 있겠다고 짐작했다.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가고나자 그들 옆방에 방을 준비할라고 점원에게 당부했다.

그 점원은 등불을 들고서 양과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도련님. 정말 조심하세요. 당신 누님이 두 도사의 귀를 잘라 버려 그들은 틀림없이 보복을 하려 할 거예요."

"누님 성질도 너무 했지, 어떻게 사람의 귀를 벨 수가 있을까?"

점원은 괴상하게 웃으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당신에게는 당연히 잘해 주었겠지요. 당신 누님이 식당에서 한창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에, 그런데 진짜 누님입니까? 저는 정말 못 믿겠어요, 누님이라니. 저 도사가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허벅다리를 몇 번인가 쳐다보자 당신 누님이 화를 내며 칼을 뽑아 들고서....."

그가 계속 말을 하려 하였지만 옆방에서 불을 끄는 소리가 들려 양과는 얼른 그의 입을 다물게 했다.

(이 구린내 나는 도사들이 틀림없이 그녀를 화나게 했을 것이야. 흥. 전진교 안에 어찌 호걸이 있으랴?)

잠시 후, 양과는 또 생각했다.

(사부가 일찌기 중앙궁에서 싸움을 했으니 그 두 도사가 그녀를 알아보았을 텐데 얼굴이 예쁘다고 희롱하다니 이상하군.)

그는 점원이 나가자 불을 끄고 침대에 들었으나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구양봉이 전수해 준 양대 신공을 묵묵히 암송했다. 이 두 구결은 매우 심오한데다 구양봉이 너무 어지럽게 말을 하였기에 그가 기억하는 것은 기껏해야 2,3 할에 불과할 정도였다. 그는 너무 정신을 쏟으면 옆 방의 동정을 놓칠까 봐 겁이 났다.

이렇게 조용히 한밤을 지새고 있는데 갑자기 정원에서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담 밖에서 뛰어들어왔다. 이어 옆방 창문이 열렸다.

"한 진 두 분이십니까?"

"그렇소."

"들어오시지요 !"

가볍게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자 이내 등잔불이 켜졌다.

양과는 정신을 집중시켜 네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빈도들 희청허(姬淸虛) 피청현(皮淸玄)이 한 진 두 영웅을 뵈습니
다."

양과가 생각했다.

(전진교 수하들은 처지청정(處志淸靜) 네 글자로 순서를 짓는데, 이
두 놈은 전진교의 4대 제자들인데 학대통(學大通)과 유처현(劉處玄)
중 누구의 문하인지 통 모르겠구나.)

"우리들은 신사숙의 청첩을 받고 쉬지 않고 달려온 것일세. 그녀가
정말 그렇게 대단하단 말인가 ?"

희청허가 말했다.

"정말 창피합니다. 우리 사형제들이 그녀와 한 차례 겨루어 봤지만
도저히 그녀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그녀의 무공은 무슨 파인가 ?"

"신사숙께서는 그녀가 고묘파의 전인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솜씨가 보통이 넘습니다."

양과는 고묘파라는 소리를 듣자 흥, 하며 자신도 모르게 가볍게 코
웃음을 쳤다.

"그러나 신사숙이 고묘파를 거론하지만 그 계집이 적련선자 이막수
에게 욕하는 것을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구만. 무슨 대마두가 왔나 했었는데..... 내일 어디
서 만나지 ? 상대는 모두 몇 명이나 ?"

"신사숙과 그녀가 내일 정오에 이곳에서 서남쪽으로 사십 리 떨어진
시랑곡(豺狼谷)에서 만나 승부를 겨루기로 약속했지요. 상대방이 몇
명인지 지금은 모릅니다. 우리는 개방의 한 진 두 분 교수께서 도와
주시니 그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두렵지 않게 댔습니다만."

"좋아. 우리 형제는 내일 정오에 정확히 가겠네. 한노제, 이제 갑시

다."

희청허는 문 입구까지 전송을 하면서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이곳은 중앙궁에서 멀지 않으니 우리들 시합에 관한 일을 궁안에 계신 마옥 구처기 왕처일 등 사조님들이 알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벌을 받게 됩니다."

한씨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너희 신사숙의 편지 속에서 이미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중앙궁의 고수가 구름처럼 많은데 우리 두 외인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겠는가?"

"안심하게. 우리 바람도 새지 않을 정도로 입을 다물 테니. 여섯 분의 사조는 알지 못하게 할 것이야. 다른 사백이나 사숙들은 알아도 아마 괜찮을 거야."

양과가 속으로 생각했다.

(그들이 연합하여 우리 사부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교안의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 겁을 내다니. 흥, 도적질을 하면 뒤가 켕기기 마련이지.)

네 사람이 몇 마디 낮은 소리로 의논을 하더니 한 진 두 사람은 담을 넘어갔으며, 희청허와 피청현은 배웅을 했다.

*** 절름발이 소녀 ***

양과는 살며시 창문을 열고 희청허 피청현, 두 도사의 방으로 재빨리 들어갔다. 침상 위에는 두 개의 주머니만이 놓여 있었다. 한 주머니를 열어 보니 안에 20 여 냥의 은전이 들어 있었다.

(여비로나 써야겠군. 마침 돈도 없는데.....)

양과는 은전을 곧 품에 넣었다. 다른 주머니는 4 척 정도의 길이로 두 자루 장검이 싸여 있었다. 그는 따로따로 뽑아서 두 자루의 칼을 각각 분질러서 다시 칼집에 넣고 주머니로 잘 찼다. 방을 나가려고 하다가 두 도사의 이불에 오줌을 갈겼다.

누군가 벽을 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양과는 이들 두 도사의 경신 무공이 별 것이 아니어서 단번에 벽을 뛰어넘지 못함을 알았다. 양과는 그들보다 먼저 벽 위로 뛰어올라 즉시 방으로 돌아온뒤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두 도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양과는 벽에 귀를 기울이고 옆 방의 동정을 살폈다.

두 도사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있을 무예 시합의 약속에 승산을 걸고 있는 것 같았다. 옷을 벗고 침상에 올라가다가 돌연 피청현이 소리쳤다.

"아니, 이불에 축축하게 묻어 있는 것이 뭐지 ? 아이고 이 냄새, 회사형, 어쩌면 어린애처럼 이불에다 오줌을 싸시오 ?"

"아니, 오줌이라니 ?"

희청허가 소리쳤다.

"웬 패썽한 놈의 고양이가 여기에다 오줌을 쌌군."

피청현이 말했다.

"고양이가 이렇게 오줌을 많이 싸요 ?"

"거 참 이상한데..... 그렇다면, 은전은 ?"

순식간에 소동이 일어나더니 두 사람은 은전을 싸 둔 주머니를 여기저기 찾았다. 양과는 그들의 작태가 재미있어 몰래 미소를 지었다. 피청현이 큰 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점원, 점원, 이놈의 여관은 돈만 흠쳐가는 곳이야? 한밤중에 도둑이 은전을 흠쳐가다니..... ? 게다가 오줌까지 ?"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자 점원은 졸음이 가득한 눈으로 황송해하며 다가와서 사정을 물었다. 피청현은 그의 먹살을 움켜쥐고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 점원이 집이 떠나갈 듯 소리를 지르자 놀란 여관의 지배인 요리사 종업원들이 허둥지둥 일어나고 이어서 여관에 묵던 손님들도 모두 일어나 이 소동을 구경했다. 양과도 사람들 틈에 끼여 있었다. 점원은 한바탕 웅변을 늘어놓는데 거침이 없고 끊임이 없었다. 점원의 말솜씨에 희 피 두 도사들은 꿀먹은 병어리처럼 아무런 대꾸도 못 했

다. 이 점원은 평소 남과 말싸움하기를 좋아했다. 근래에 누구에게 트집잡을 만한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손님이 먼저 트집을 잡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 게다가 그는 전혀 끌리는 것이 없지 않은가 ? 점원은 침까지 튀기며 말하면 말할수록 더욱 기승을 부렸다. 피 회 두 도사는 창피하다 못해 화가 나서 대들려고 했지만 전진교의 엄한 규율이 생각났다. 이곳은 종남산의 바로 밑이니 함부로 소란을 피우지도 못했다. 그저 꼭 참고 문을 닫고 잠을 자는 수 밖에 없었다. 떠벌이 점원은여전히 방 밖에서 쉬지 않고 떠들어 댔다.

다음날 아침, 양과는 일어나서 국수를 먹고 있는데, 그 떠벌이 점원은 왔다갔다 하면서 중얼중얼 쉬지 않고 누군가를 욕했다. 양과는 웃으며 물었다.

"두 도사놈들은 어찌 됐소 ?"

점원은 득의양양하여 말했다.

"치사한 놈들 ! 그놈들은 공밥 먹고 공짜로 묵으려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중앙궁 패거리라고 봐줬더니만, 우리가 도둑질을 했다고 끝까지 우기지 않겠어요 ? 오늘 날도 밝기 전에 두 도사 놈들은 떠났어요. 흥, 여차하면 중앙궁에 가서 일러바칠까 보다. 전진교 도사가 천명인지 만 명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계율을 엄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어요 ? 이 두 도사놈들의 못된 짓을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니, 그놈들이 새벽에 분명히 내뺄 줄 알았지."

양과는 슬슬 웃으며 몇 마디 부추겨 주고 방값, 밥값을 치르고 나서 시랑곡으로 가는 길을 물은 뒤 길을 떠났다.

잠깐 사이에 양과는 30 여 리를 갔다. 시랑곡은 그다지 멀지 않았다. 아직도 이른 새벽이었다.

(아가씨가 어떻게 그놈들을 다루는지 한쪽에 숨어서 봐야겠다. 아가씨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

예전에 농가의 소년으로 분장하여 홍릉파(洪凌波)를 약올렸던 일을 떠올리자 매우 흐뭇했다. 한 농가의 뒷마당으로 들어가서 고개를 빼고

바라보니 울 안에 한 마리의 커다란 황소가 머리를 숙이고 뿔을 곧두 세워 울타리를 사납게 비벼 대고 있었다.

(내가 목동으로 분장하면 아가씨가 알아보지 못하겠지.)

그는 살그머니 농가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서 두 여자 아이가 흙바닥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그는 농민의 옷을 찾아서 갈아입고 짚신을 신고 흙을 얼굴에 펴 발랐다. 소 울타리 가까이에 가자 벽에는 삿갓과 피리가 걸려 있었다. 바로 목동이 사용하는 물건이어서 뿔 듯이 기뻐다. 양과는 삿갓을 벗겨 쓰고 새끼줄을 하나 허리에 맨 뒤, 피리를 새끼줄에 꿰고 나서 울타리의 문을 열었다. 황소는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자 씩씩, 성을 내고 있다가 그가 울타리 문을 열어 젖히자 즉시 튀어나와 사납게 그의 몸으로 달려들었다.

양과는 왼손으로 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몸을 날려 소의 등에 올라탔다. 이 황소는 몸이 크고 살이 붙어서 칠백 근은 족히 되어 보였다. 털은 길고 뿔은 날카로운 것이 매우 당당했다. 잠깐 사이에 황소는 대로로 뛰어들었다. 황소는 이제 막 발정이 났는지 난폭하게 굴어, 있는 힘을 다하여 뛰고 뒤흔들며 양과를 등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 양과는 편안히 앉아서 매우 만족한 듯 웃으며 호통을 쳤다.

"너, 말 안 들으면 혼내 줄 테다 !"

손을 들어 장풍을 소의 어깨에 내리쳤다. 그는 5분의 1의 내공만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황소는 아픔을 참지 못하고 고통에 겨운 소리를 크게 지르며 날뛰려고 했다. 양과는 다시 일장을 내리쳤다. 이렇게 계속 10여 차례를 하자 황소는 마침내 함부로 날뛰지를 못했다. 양과가 다시 시험삼아 손가락만으로 황소의 왼쪽 목을 치자 오른쪽으로 돌고, 오른쪽 목을 치자 즉각 왼쪽으로 돌며, 뒤를 치면 앞으로 가고, 앞을 치면 뒤로 가서 마침내 황소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게 되었다.

양과는 크게 기뻐하며 소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사납게 찌르자 소는 앞으로 미친 듯이 달렸다. 너무도 빨라서 마치 달리는 말과 같았다.

얼마 되지 않아 수림을 뚫고 사방에 산이 벽처럼 둘러싸인 골짜기에 이르자, 역시 점원이 말한 것과 틀림이 없는 지형이 나타났다. 양과는 곧 소의 등에서 뛰어내려 소는 언덕에서 마음대로 풀을 뜯어먹게 하고 손에는 고삐를 잡고서 땅에 누워 잠든 척했다.

그는 머리 위의 해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붉은 해가 점점 중천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니 갈수록 마음이 어지러웠다. 소용녀가 상대방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끝내 오지 않을까 봐 걱정되었다. 사방이 온통 고요하고 오직 황소만이 몇 번 우는 소리를 냈다. 돌연 골짜기 어귀에서 누군가 장풍을 날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남쪽의 산 뒤에서도 몇 차례 장풍을 날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양과는 언덕에 몸을 눕히고 진흙이 묻은 한쪽 발을 들어 무릎에 걸치고 샛갓으로 온 얼굴을 가린 채 오른쪽 눈만을 밖으로 내놓았다.

잠시 후, 골짜기 어귀에 세 명의 도사가 들어섰다. 그 중의 둘은 바로 어제 객점에서 보았던 희청허와 피청현이었다. 다른 하나는 나이가 40 쯤 되어 보였는데 몸이 아주 작은 것이 그 신사숙(申師叔)인가 뭔가 하는 자 같았다. 그의 모습을 살펴보니 중양궁에서 본 것 같기도 했다. 이어서 산 뒤에서도 두 사람이 뛰어나왔다. 하나는 몸이 보잘것없고 또 하나는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백발이 성성했다. 둘은 모두 거지 행색을 하고 있었다. 바로 개방(개방)의 한(韓) 진(陳) 두 사람이었다. 다섯 사람이 서로 가까이 가자 말없이 묵묵하게 손을 모으고 한 줄로 늘어서서 서쪽을 향했다.

바로 이때 골짜기 입구 바깥에서 은은하게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다섯 사람은 서로를 한 번 쳐다보고는 일제히 골짜기 어귀를 주시했다. 말발굽 소리는 가늘게 부서지며 점차로 가까이 왔다. 골짜기 입구에 흑색과 백색이 어울려 비추는가 했더니 검은 당나귀 한 마리가 흰 옷을 입은 여인을 태우고 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양과는 멀리 바라보다가 흠칫 놀랐다.

(사부가 아니잖아 ! 그러면 이 여자도 역시 그들의 패거리란 말인

가 ?)

그 여자는 다섯 사람과 몇 장(丈) 되는 거리에 이르자 나귀를 멈추고 냉랭하게 모두를 한 번 쏘아보았다. 얼굴에는 온통 그들을 우습게 보는 듯한 기색이 가득했으며 그들과 말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희청허가 말했다.

"안 나오는가 했더니 마침내 겁도 없이 나오셨군. 빨리 응원군을 모두 나오라고 하시지."

여자는 냉소를 날리고 허리에서 가늘고도 은 만도(彎刀)를 꺼냈다. 만도는 초생달처럼 굽었고 은빛이 번쩍었다. 희청허가 말했다.

"우리는 다섯 명 밖에 오지 않았다. 너의 패거리는 언제 오느냐 ? 우리는 번거롭게 오래 기다릴 수가 없다."

여자는 칼을 치켜들며 말했다.

"이것이 나의 응원군이다 !"

여인이 칼끝을 공중에서 휘두르자 웅웅, 하는 소리가 났다.

이 한 마디에 여섯 명이 모두 깜짝 놀랐다. 다섯 명은 그녀가 한 사람의 응원군도 없이 혼자서 무림의 다섯 고수와 겨루려고 하는 것에 놀랐다. 양과는 실망과 상심이 너무나도 컸다. 이번에는 반드시 소용녀를 만나리라고 잔뜩 기대했었는데 <백의(白衣)의 미모의 여자>가 다른 사람이었을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갑자기 양과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올라 흑흑, 하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가 울기 시작하자 그들 여섯 명도 깜짝 놀랐다. 그러나 언덕에서 소를 몰고 풀을 먹이는 한 목동이라는 癡밭알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시골에서 이 어린 아이가 어떤 일로 억울함을 당해 이곳에서 우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희청허가 한가라는 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은 개방의 한영웅이오."

진가를 또 가리켰다.

"이분은 개방의 진영웅이오."

다시 신사숙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의 사숙 신지범(申志凡) 신도장(申道長)을 만난 적이 있을 것이오."

여자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을 띠며 다섯 사람의 얼굴을 이리저리 훑어보는 품이, 안중에도 없다는 표정이었다.

신지범이 말했다.

"내가 혼자서 왔으니 우리도 대적할 수가 없다. 열흘의 기간을 줄 터이니 열흘 이후에 다시 네 명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만나자."

"내가 이미 더 이상 필요없다고 얘기했다. 술부대 밥자루와 같은 너희 놈들을 상대하는데 누가 더 이상 필요하단 말이냐?"

신지범이 노하여 말했다.

"이놈의 계집애가 정말 미쳐도....."

그는 한바탕 욕을 하려고 하다가 노기를 꺾 참고 물었다.

"너는 도대체 고묘파냐, 아니냐?"

"그렇다면 어떻고, 아니라면 어떻단 말이냐? 이 말코 같은 도사야, 네가 감히 아가씨와 대결하려고 하는 것도 건방진 짓이 아니냐?"

신지범은 그녀가 혼자지만 뭔가를 믿고 두려움이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분명히 고수를 옆에 미리 숨겨 놓은 것 같았다. 고묘파의 이막수는 사악하기 그지없는 인물이었다. 다시 태도를 공손히 하여말했다.

"아가시, 한 가지 묻겠소. 당신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 파의 문인(門人)을 해쳤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오? 만약에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내가 마땅히 당신 사부에게 가 사죄를 할 일이오. 만약 아가씨가 이유를 대 주지 않는다면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니겠소?"

여자는 차갑게 냉소를 날리며 말했다.

"너희 두 놈이 무례하여 당연히 내가 그들을 훈계한 것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천하에 잡털들이 수없이 많은데 왜 하필 그들 둘의 귀를 베었겠느냐?"

신지범은 갈수록 그녀가 큰소리치는 것을 보고 놀람과 의문이 풀리지 않을 줄 알았다. 진가라는 거지가 나이는 비록 들었지만 화기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한 걸음 나서서 호통을 쳤다.

"계집애가 선배와 얘기하는데도 나귀에서 내려올 줄 모르다니....."

말을 하면서 진가는 검은 나귀의 앞으로 다가서서 손을 뻗어 그녀의 오른쪽 팔을 움켜잡았다. 그 손놀림이 너무도 민첩하여 그 여인은 몸을 피할 겨를도 없이 그에게 잡혔다. 그녀는 오른손에 칼을 쥐고 있는데 오른쪽 팔을 잡혔으니 칼을 휘둘러 대들 수도 없었다.

갑자기 차가운 빛이 번쩍 하며 여자의 손과 팔이 움직이려는 듯 했더니 만도가 내려쳐 왔다. 진가 거지는 크게 놀라 급히 손을 거두었다. 그가 눈치가 극히 빠르고 변화가 민첩하다고 하나 두 손가락이 칼끝에 이미 스쳤다. 그는 급히 뒤로 뛰어 물러나 단도(單刀)를 빼들고 소리를 질렀다.

"아니, 이년이,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모양이군 !"

한 거지가 허리에서 연자추(연子錘:저울추) 한 쌍을 꺼내고 신지범은 장검을 빼들었다. 희청허와 피청현도 칼자루를 꼭 움켜쥐고 칼집에서 검을 뽑았다. 손에 느끼는 무게가 이상함을 느끼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어 !>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스라치게 놀랐다. 손에 잡힌 것은 반동강이 난 칼이었다.

여자는 두 도사가 낭패를 당하여 어쩔 줄 모르는 것을 보고 후훗, 하고 웃었다. 양과는 한참 동안 슬퍼하다가 여자의 웃음 소리를 듣고 두 도사의 괴상한 꼴을 보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그치고 웃음이 나왔다. 여자가 허리를 굽혀 획, 칼을 휘두르며 피청현의 머리를 베려고 했다. 피청현은 급히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그녀의 손이 약간 움직이려는 듯 했더니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어 피청현의 오른쪽 이마를 스치자 선혈이 뿜어나왔다. 나머지 4명은 놀람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여 그녀의 검은 나귀를 단단히 둘러쌌다. 두 도사는 뒤로 물러나 손에는 반동

강이 난 칼을 쥐고서 버리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자니 쓸모가 없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여자는 맑은 휘파람 소리를 내더니 왼손으로 고삐를 들고 나귀를 박차 사납게 몇 장을 나갔다. 한 진 두 거지는 즉시 가까이 뒤를 쫓으며 칼과 저울추를 들어 공격을 해 댔다. 신지범도 앞으로 나서서 전진과의 검법을 펴서 한 칼 한 칼 적의 요해를 찔렀다. 양과는 검법이 비록 사나웠지만 윤지평이나 조지경과는 크게 다른 것을 보고 지(志)자 이름을 가진 3,4 류가 가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서야 마음이 안정되어 그녀의 용모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길쭉한 얼굴을 보니 제법 아름다웠다. 나이는 자기보다 한두 살 어린 것 같았다. 그 점원이 이 <백의의 미모의 여자>가 그의 누나임을 믿지 않은 것도 이해가 갔다. 그녀는 비록 하얀 옷을 입고 있었지만 피부가 약간 검은 빛을 띠고 있어서 백설처럼 하얀 소용녀의 피부와는 전혀 달랐다. 그러나 그녀의 도법(刀法)은 경쾌하고도 부드러웠으며 대부분이 검(劍)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찌르는 것이 많고 베는 것도 적었다. 양과는 몇 초를 보고 생각했다.

(그녀가 쓰는 것은 분명히 우리 파의 무공인데, 어쩌면 이막수의 제자가 아닐지 모르겠구나 !)

양쪽이 모두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자 누가 이기고 누가 지든 양과에게는 상관이 없었다.

(네가 무슨 <백의의 미모의 여자>라고 ? 우리 아가씨의 머리를 땅아 주는 여자도 못 될 주제에.....)

양과는 팔로 머리를 베고 하늘을 보고 누워 결눈질로 싸움을 지켜보았다.

처음 10 여 초 동안 그 소녀는 장풍을 날리지 않았다. 그녀의 위치는 나귀의 등에 있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만도를 휘두르고 있었다. 다섯 사람은 이리저리 뛰면서 재빨리 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10 여 초를 싸우자 희청허는 수중의 부러진 검이 실제로 아무 쓸모가 없

음을 알고 소리쳤다.

"피사제, 이리 좀 와 봐."

옆의 숲으로 뛰어가 가늘고 긴 조그만 나무를 한 그루 골라서 부러진 검으로 뿌리 밑동을 잘라 가지와 잎을 제거하니 어엿한 몽둥이가 되었다. 피청현도 그대로 따라 몽둥이를 깎았다. 두 도사가 봉(棒)을 들고 좌우에서 협공하여 검은 나귀를 찔렀다.

"이젠 체면 볼 것도 없다 !"

소녀는 가볍게 호통을 치고는 칼을 휘둘러 쌍봉에 맞섰다. 이렇게 분심(分心)하여 공격하자 한 거지의 저울추와 신지범의 장검이 앞뒤에서 공격했다. 소녀가 급히 위험을 느끼고 고개를 숙이고 몸을 옆으로 하자 저울추가 한 차례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그녀의 얼굴로 날아왔다. 따앙, 하는 소리와 함께 만도와 장검이 맞부딪쳤다. 바로 이때 검은 나귀가 길게 울부짖으며 앞발을 번쩍 들었다. 희청허의 봉에 찔린 것이다. 진거지가 땅을 구르며 지당도법(地堂刀法)을 펴서 칼등으로 나귀의 다리를 세게 치자 검은 나귀는 곧장 땅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되자 소녀는 더 이상 나귀를 타고 싸울 수가 없었다. 검과 추가 나란히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곧장 몸을 날려 일어났다. 왼손은 이미 피청현의 봉을 잡고 있었다. 힘을 주어 비틀자 봉은 두 동강이 뉘로 버티고 서서 칼을 옆으로 휘두르며 진거지의 달려드는 칼을 막았다. 양과는 놀랐다.

(어찌된 일이지 ? 그녀가 이미 상처를 입었나 ?)

원래 소녀는 약간 절어서 뛰는 것이 매우 불편했다. 줄곧 나귀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양과는 순간 의협심이 일어나 도와 주려고 하다가 다시 생각을 돌렸다.

(나와 아가씨가 고묘(古墓) 안에서 암전하게 지낸 것도 모두 그 못된 여자 이막수가 와서 행패를 부릴까 해서였지. 이 여자가 또 감히 아가씨를 사칭하여 사람들에게 자기를 <백의의 미모의 여자>라고 부르게 하다니 정말 뻔뻔스럽기 짝이 없잖아 ! 될대로 되라지, 뭘.)

즉시 고개를 돌리고 양과는 전혀 그녀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칼이 서로 부딪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자 끝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싸움의 형세는 이미 바뀌어 소녀는 동으로 서로 피하면서 막기만 할 뿐, 손을 쓰지 못했다. 돌연 한 거지의 철추가 날아와 소녀가 고개를 옆으로 하여 피하자 신지범의 장검이 찢러와 덩, 하는 가벼운 소리를 내면서 그녀의 머리를 묶은 은고리가 잘려 나갔다. 반쪽의 길다란 머리카락이 흩어져 내렸다. 소녀의 어여쁜 눈썹이 치켜 올라가고 입술이 떨리는가 싶더니 얼굴이 온통 서리를 뒤집어쓴 것 같았다.

양과는 그녀가 눈썹을 치켜올리고 입술을 떨며 노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가씨가 나에게 화를 낼 때도 바로 이 모습이었는데.....)

소녀가 화내는 모습을 보고 양과는 그녀를 도와 주기로 결심하고 7,8 개의 돌맹이를 집어 품에 넣었다. 그녀는 이리저리 밀리며 아주 낯 패스러운 얼굴을 하였다. 신지범이 외쳤다.

"너는 적련선자 이막수와 도대체 어떤 사이냐 ?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 후에 원망하지 말아라 !"

소녀는 만도를 가로로 뉘어 재빨리 그의 뒷골을 활퀴었다. 신지범은 그녀가 갑자기 습격을 할 줄은 생각도 못 했으므로 미처 방어할 겨를이 없었다.

"조심해라 !"

진거지가 급히 외쳤다. 희청허가 봉으로 만도의 등을 맹렬하게 쳐서 간신히 신지범의 목숨을 구했다. 다섯 사람은 그녀의 초수가 이토록 악랄한 것을 보고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다. 순식간에 소녀는 연속하여 위험한 공격을 당했다. 신지범은 이 소녀가 필시 이막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적련 마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끝없는 화를 입을 것 같았다. 그녀가 결코 도와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입을 틀어막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일초 일초를 그녀

의 요해를 찾아 공격했다.

양과는 그녀의 위험이 경각에 달려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 소의 등에 올라타고는 배 아래로 몸을 돌리고 두 발을 소의 등에 걸치고 손가락으로 소의 가슴을 쳤다. 황소는 네 발굽을 박차고 여섯 사람을 향하여 곧장 돌격했다.

여섯 사람은 한참 싸움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돌연 미친 소가 달려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사방으로 피했다.

양과는 소의 등에 얹드린 채 다섯 남자의 등에 있는 혈도를 조준하여 돌맹이를 하나하나 던졌다. 어떤 자는 혼문(魂門)을 맞고 어떤 자는 신당(神堂)을 맞아서 아이쿠, 하는 소리가 연이어 다. 다섯 명의 두 팔이 마비되어 손에 든 칼이 이리저리 땅에 떨어졌다. 양과는 이미 황소를 몰아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그는 소의 등에서 땅으로 뛰어내려 큰 소리로 약을 올렸다.

"어이, 이 큰 놈의 황소가 발광을 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구 !"

신지범은 혈도를 맞고 칼을 놓쳤는데 적이 공격하는 것이 보이지 않자 소녀와 한패의 짓이라고 생각했다. 이자의 무공이 이토록 뛰어나니 어찌 감히 싸울 기분이 나겠는가 ? 다행히도 두 다리는 아직 걸을 수가 있어서 서둘러 달아났다. 그래도 의리는 있는 듯 소리쳤다.

"진대형, 한형제, 달아납시다 !"

나머지도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이 함께 도망했다. 피청현은 허둥지둥하며 동서를 가리지 못하고 소녀가 있는 쪽으로 거꾸로 뛰었다. 회청허가 큰 소리로 불렀다.

"피사제, 이쪽이오, 이쪽..... !"

피청현이 몸을 돌리려고 하는 순간 소녀가 한 걸음 나서서 만도로 내리쳤다. 피청현은 크게 놀라고 손에는 무기도 없어 급히 몸을 옆으로 피했다. 소녀의 만도는 내리칠 때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 동쪽인 듯한데 서쪽으로 가고 위인 듯한데 아래로 가며 차가운 빛을 번쩍이며 그의 면문으로 다가왔다. 피청현은 다급한 나머지 손을 들어 막았다.

사악, 하는 소리와 함께 만도는 이미 그의 네 손가락을 잘라 버렸다.
그는 통증도 느낄 틈이 없이 고개를 돌려 황급히 달아났다.

한 거지는 10 여 보를 달아나다가 소녀가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이 머리를 땀은 절름발이가 어떻게 나를 쫓아와 ?)

그녀가 다리를 절뚝거린다는 것을 생각하고 저도 모르게 그녀의 왼쪽다리를 쳐다보고는 몸을 돌려 다시 뛰었다. 이것이 소녀의 큰 금기(禁忌)를 범한 꼴이 되었다. 소녀는 노기충천하여 더이상 참지 못하고 외쳤다.

"이 거지놈아, 내가 너를 못 쫓아갈 줄 아느냐 ?"

만도를 춤추듯 휘둘러 몇 차례 돌리더니 획, 하는 소리와 함께 사납게 던졌다. 만도는 공중에서 은빛을 번쩍이더니 펍, 하는 소리를 내며 한 거지의 왼쪽 어깨에 꽂혔다. 그자는 휘청거리며 어깨에 만도를 꽂은 채 미친 듯이 달아났다. 얼마 되지 않아 다섯 사람은 이미 모두 숲속으로 숨어 버렸다.

소녀는 잠시 차갑게 웃다가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왼쪽 편에 숨어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그가 왜 나를 도와 주려고 하는 것일까 ?)

그녀는 몸에 익히 지니고 다니던 은호도(銀弧刀)를 한 거지가 가지고 가 버려서 애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진거지가 땅에 떨어뜨린 단도를 집어들고 급히 사방을 살폈지만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어느 곳에도 없었다. 그녀는 다시 골짜기로 돌아왔다. 이때 양과가 울먹이는 얼굴로 땅에 앉아 있다가 하늘을 보고 땅을 치며 울부짖는 것을 보았다.

소녀가 물었다.

"애, 목동아, 왜 그렇게 소란이니 ?"

"이 소가 갑자기 미쳐 날뛰어서 털과 가죽이 상했어. 돌아가면 주인이 날 때려죽이려고 할 거야."

소녀가 황소를 보자 털빛이 빛나고 깨끗하며 다친 데가 없었다.

"좋다, 너의 이 소가 나를 도와 주었으니 은을 한 정(錠) 주겠다."

그녀는 품에서 한 정(錠) 세 냥의 은에 맞먹는 보물을 꺼내어 땅에 던졌다. 그녀는 양과가 크게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눈썹을 찌푸리고 얼굴을 찡그리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은을 줍지 않았다.

"왜 그러니 ? 바보야, 이건 은이야."

"한 정은 부족해 !"

소녀는 다시 한 정(錠)의 은을 꺼내어 땅에 던졌다. 양과는 일부러 그녀를 훑어 주려는 듯 여전히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소녀는 약이 올라 눈썹을 치켜올리고 욕을 했다.

"없어, 이 멍청아 !"

그리고는 몸을 돌려 가 버렸다. 양과는 그녀가 화내는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가슴에 피가 용솟음치며 눈이 시큰했다. 소용녀가 평소에 자기를 꾸짖던 모습을 생각하고는 마음을 다졌다.

(아가씨를 찾을 때까지라도 이 아가씨의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지내야지.)

즉시 손을 뻗어 그녀의 오른쪽 다리를 잡고 소리쳤다.

"못 가 !"

소녀는 힘을 다하여 뿌리쳤지만 단단히 잡혀 빠져나오지를 않아서 더욱 화가 나 소리쳤다.

"놓아 ! 왜 자꾸 잡는 거냐 ?"

양과는 그녀가 발끈 화를 내는 것을 보고 더욱 즐거워하며 말했다.

"나는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 나 좀 살려 줘."

그리고는 더욱 크게 소리쳤다.

"살려 줘, 살려 줘 !"

소녀는 화가 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여 칼을 들고 호통쳤다.

"놓아 주지 않으면 단칼에 너를 죽이겠다."

양과는 더욱 짝 움켜쥐며 거짓으로 울기 시작했다.

"나를 죽여도 좋아. 집에 돌아가도 살지는 못할 테니까."

"어쩔 테야 ?"

"나도 몰라, 너하고 같이 갈 거야."

(어쩌다 이런 바보 같은 촌놈한테 재수없게 걸렸지 ?)

소녀는 칼을 들어 아래로 내리쳤다. 양과는 그녀가 정말로 내리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여전히 그녀의 종아리를 짝 붙잡고 놓지 않았다. 소녀가 사납게도 정말로 칼을 정수리로 내려치자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더라도 정수리에 맞는다면 큰일이 날 듯하여 더 이상 피병을 부릴 수가 없었다. 양과는 단도가 곧장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칼끝이 머리에 몇 촌(寸) 거리에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몸을 굴러 피하며 소리쳤다.

"이 여자가 사람 죽인다, 사람 죽여 !"

소녀는 더욱 화가 나서 다가서더니 다시 칼을 휘둘러 내리쳤다. 양과는 땅에 가로누워서 두 다리를 동동 구르며 크게 소리쳤다.

"아이구, 나 죽네, 나 죽어 !"

그는 진흙 묻은 두 발을 뺀어 어지럽게 흔들며 대며 난리를 폈다. 그러나 소녀는 그가 요동치는 발에 팔뚝을 차여 전혀 내리치질 못했다. 양과는 그녀가 온통 얼굴에 노기를 띤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들여다보려고 멍하게 응시했다. 소녀는 그가 괴이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호통을 쳤다.

"일어나라 !"

"그러면 날 죽일 거야, 안 죽일 거야 ?"

"좋아, 안 죽이면 될 거 아냐 ?"

양과는 천천히 일어나며 훌훌, 큰 소리로 숨을 쉬어 몰래 기를 움직여 혈도를 막았다.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여 혈색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이, 놀라서 혼이 달아난 모양과 마찬가지로 되었다.

소녀는 만족스러운 듯 코방귀를 뀌며 말했다.

"또다시 달라붙을 테냐 ?"

산언덕에 있는 피청현의 잘려 떨어진 손가락들을 칼을 들어 가리키며 말했다.

"이렇게 흉악무도한 놈들도 내가 손가락을 잘라 버렸지."

양과는 짐짓 황공하고 두려운 표정을 지으며 뒤로 주춤 물러섰다. 소녀는 단도를 허리띠에 꽂고 몸을 돌려 검은 나귀를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나귀는 이미 달아나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 걸어서 가야만 했다.

양과는 은을 집어 품 안에 넣고, 소의 고삐를 끌고 그녀의 뒤를 따르며 불렀다.

"아가씨, 날 데리고 가."

소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걸음을 빨리 했다. 얼마 후 눈을 돌려 그를 찾았으나 종적을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서야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그가 멀리서 황소를 끌고 오며 소리쳤다.

"날 데리고 가, 날 데리고 가."

소녀는 눈썹을 찌푸리고 경공을 펴서 단숨에 몇 리를 갔다. 그가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은은하게 <날 데리고 가.>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소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되돌아 뛰어가서는 단도를 빼어 높이 쳐들었다.

"아이쿠 !"

양과가 소리치며 머리를 감싸고 달아났다. 소녀는 그가 다시는 따라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다시 길을 갔다.

한참을 걷자 등뒤에서 다시 소 우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 보니 양과가 황소를 끌고 뒤를 따라오는데 거리 차이가 3,40 보밖에는 안 되어 보였다. 소녀는 멈추어 서서 그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양과는 그녀가 걷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도 역시 걸음을 멈추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앞으로 가면 즉시 뒤따르고, 몸을 돌려 칼을 들고 쫓아오면 그도 몸을 돌려 달아났다. 이렇게 쫓다가 멈추다가 하면

서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도 소녀는 끝내 그를 떼어 버리지 못했다. 그녀는 이 소년 목동이 비록 바보스러운 것 같아도 걸음이 무척 빠른 것을 보고 산에서 뛰어다니는 것이 습관肝되어 그런 줄로 생각하고 쫓아가서 그의 두 다리를 분지르려 하였지만 번번히 그는 몸을 돌려서 빠져나가기만 했다.

그렇게 몇 번 실랑이를 벌이자 소녀는 왼쪽 발을 저는데다가 한참을 걸은 뒤여서 몹시 피곤했다. 소녀는 마침내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내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좋다. 너를 데리고 가면 내 말을 잘 들을 거니?"

양과는 기뻐하며 말했다.

"정말로 날 데려가는 거야?"

"그렇다니까. 왜 너를 속이겠니? 나는 너무 많이 걸어서 지금 피곤해. 나를 좀 소 등에 태워 줘."

양과는 재빨리 황소를 끌고 가까이 가다가 저녁 노을이 비치는 가운데 그녀의 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고, 그녀가 분명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서투르게 소의 등으로 올라 갔다. 소녀는 오른쪽 발을 내디더 가벼이 뛰어올라 양과의 앞에 걸터앉았다.

(내 나귀가 도망가 버렸으니 황소를 타는 것도 과히 나쁘지는 않지.)

발끝으로 소의 겨드랑이를 걷어찼다. 소는 통증을 느끼자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소녀는 살며시 냉소를 흘리며 순식간에 팔꿈치에 힘을 주어 양과의 가슴을 쳤다. 양과는 <어이쿠!> 소리를 지르며 소의 등으로 몸을 굽혔다.

소녀는 득의만면하여 생각했다.

(버릇없이 까불더니 어디 맛 좀 보아라.)

소녀는 손가락을 펴 소의 왼쪽 겨드랑이를 찔렀다. 황소는 더욱 빠르게 내달렸다. 갑자기 등뒤에서 양과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뒤를 돌아보니 그는 두 손으로 소의 꼬리를 꼭 움켜잡고 두 발을 어궁에

떡은 채 공중에 떠서 날아오고 있었다. 얼굴은 온통 진홍과 먼지 투성이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그 낭패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양과는 줄곧 소의 꼬리를 놓지 않았다. 소녀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단도를 들어서 그의 손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소는 이미 시장까지달려온 것이다. 사람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며 뺨뺨이 들어차 더 이상 갈 길이 없자 황소는 멈췄다.

양과는 일부러 소녀를 약올려서 그녀의 화난 모습을 보려고 땅바닥에 누워 크게 소리쳤다.

"가슴이 아파 죽을 것 같아. 네가 나를 때렸어 !"

시장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그들을 둘러싸고 까닭을 물었다.

소녀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틈을 보아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양과가 땅에서 일어나 그녀의 오른쪽 다리를 잡고 크게 소리쳤다.

"가지 마, 가지 마 !"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물었다.

"뭇들 하는 거냐 ? 너희들 무엇 때문에 다투는 거냐 ?"

"이 여자는 내 마누라예요. 그런데 내가 필요없다고 오히려 나를 때렸어요."

"부인이 남편을 때리다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

소녀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왼발로 양과를 걷어찼다. 양과는 옆에 있는 한 건장한 사람을 밀어붙였다. 소녀의 발이 그 사람의 허리를 차고 말았다. 그 사람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욕을 해 댔다.

"이놈의 계집애가 사람을 차 ?"

그리고는 식초 향아리만한 주먹을 번쩍 쳐들어 때리려고 했다. 소녀가 팔뚝을 잡고 힘을주어 휘두르자 그 200 근이나 나갈 듯한 거구의 몸이 갑자기 붕 날았다. 공중에서 <으악 !> 소리를 지르더니 사람들 가운데로 거구가 떨어졌다. 시장바닥은 서로 깔고 뭉개는 사람들로 순

식간에 수라장이 되었다.

소녀는 있는 힘을 다하여 양과를 떼어 버리려고 했지만 양과가 죽을 힘을 다하여 꼭 붙잡고 있으니 도무지 재간이 없었다. 눈앞에 다시 5,6 명이 나서서 소란을 피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나지막히 말했다.

"너를 데리고 갈 테니 빨리 다리를 놓아라."

"또 나를 때릴 거야 ?"

"이제 다시는 안 때리마 !"

양과는 그제서야 손을 풀고 몸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사람들 틈을 뚫고 시장에서 달아났다. 뒤에서 한바탕 떠들어 대는 소리가 들렸다. 양과는 이 상황에도 여전히 황소를 끌고 있었다.

양과는 히히덕거리며 말했다.

"사람들도 부인이 남편을 때리면 안 된다고 하던데....."

소녀가 사납게 말했다.

"못된 녀석 같으니..... 또다시 내가 네 마누라니 뭐니 하는 그런 엉뚱한 수작을 부려 봐라. 네 머리통을 끊어 버릴 테다."

그리고는 칼을 번쩍 쳐들었다. 양과는 머리를 감싸고 옆으로 몇 걸음 피하며 말했다.

"다시는 안 그럴께."

"너의 이런 몰골을 보면 추팔괴(醜八怪)도 너에게 시집오려고 하지 않겠다."

양과는 히히, 하며 멍청하게 웃고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때 하늘은 임 어두워졌다. 두 사람은 멀리 보이는 시장에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몹시 배가 고팠다. 소녀가 말했다.

"애, 이 바보야, 시장에 가서 만두 열 개만 사오렴."

양과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나는 안 갈래."

"왜 안 간다는 거야 ?"

"나는 절대 안 가 ! 나를 속여서 만두를 사오게 하고선 살짝 달아나려고 그러지 ?"

"절대 달아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 ?"

양과는 여전히 고개만 흔들었다. 소녀가 주먹을 쥐어 때리려고하자 그는 재빨리 피했다. 두 사람은 큰 황소를 끼고 뱅뱅 돌았다. 소녀는 한 쪽 발을 절어서 행동이 불편하여 이 아이가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행동을 보자 큰 소리 작은 소리로 부르기만 했다. 그녀가 비록 경신의 수련을 닦았다고는 하지만 그를 따라 잡지는 못했다.

그녀는 화가 치밀어 자기는 헛된 일신의 무공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가지가지 술책과 지혜를 다 부려 보아도 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촌놈 바보에게 속수무책이자 자신이 너무나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과도 역시 겁이 나는 것처럼 가장을 했을 뿐,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가 벌써 몇 번은 죽이려고 했을 것이었다.그녀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일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로를 따라 남쪽으로 갔다. 양과가 황소를 끌고 멀리서 따라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 바보놈을 감쪽같이 없앨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한 식경(食頃)쯤 지났을까. 날은 이미 어두워졌다. 부서진 돌집이 길 옆에 보이는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자. 저 바보놈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한 밤중에 단칼에 없애 버려야지.)

곧장 돌집으로 들어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니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집안의 탁자나 의자가 모두 부서진 것이, 이미 버려진 지 오래 된 집인 것 같았다. 그녀는 풀을 베어다 탁자 하나를 깨끗이 닦고 그 위에 누워 눈을 감고 정신을 가다듬었다.

양과가 뒤따라 들어오지 않자 불려 보았다.

"바보야, 바보야 !"

대답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혹시 내가 죽이려는 것을 알고 도망친 게 아닐까 !)

소녀는 그의 소재 따위는 상관하지 않고 얼마간 누워 있다가 마악 잠이 들려고 할 때였다. 돌연 고기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게 아닌가 ! 그녀는 몸을 일으켜 문 밖으로 나가 보았다. 달빛 아래에 앉은 양과가 손에는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들고 입을 크게 벌려 씹고 있었다. 앞에는 불을 지피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엮어서 고기를 걸어 굽고 있었다. 냄새는 거기에서 풍겨 오는 것이었다.

양과는 그녀가 나오는 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먹을래 ?"

향기가 물씬 풍기는 구운 다리 한 덩어리를 던져 주었다. 손에 들고 보니 노루의 뒷다리인 듯싶었다. 소녀는 너무나 배가 고파 한 입을 깨 물어 보니 간을 하지는 않았지만 무척 맛이 있었다. 곧장 불가에 앉아서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고기를 한 조각 한 조각 잘라서 다시 천천히 씹었다. 그러나 양과는 침을 질질 흘리고 딱딱 소리를 내서 구역질이 나 함께 먹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배가 너무나 고파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지 않고 먹었다.

그녀가 고기 한 덩어리를 다 먹자 양과는 또 한 덩어리를 그녀에게 주었다.

"바보야, 너는 이름이 뭐니 ?"

"너는 신선인가 보다. 어떻게 내 이름이 바보라는 걸 알았지 ?"

"호호, 원래 너의 이름이 바보였구나.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

"다 죽었어. 너는 이름이 뭐니 ?"

"나는 몰라. 그건 왜 묻지 ?"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거지 ? 그렇다면 어디 골탕 좀 먹어 봐라.)

양과는 득의양양하여 말했다.

"아, 알았다. 너도 바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

소녀는 크게 화를 내며 일어나서는 주먹을 들어 그의 머리를 호되게 때리며 욕했다.

"누가 날더러 바보래 ? 네가 바로 바보잖아."

양과는 울상을 하고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사람들이 나보고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 내가 모른다고 하면 바보라고 하는데, 너도 모른다고 했으니 바보지."

"누가 모른다고 했어 ? 나는 너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나는 성이 육(陸)이야, 알겠어 ?"

이 소녀가 바로 옛날 가흥(嘉興)의 남호(南湖)에서 연을 캐던 어린 소녀 육무쌍이었다. 그녀는 사촌 언니 정영(程英)과 무씨 형제와 어울려 꽃을 따다가 다리가 부러져 무삼랑(武三郎)이 접골을 해주었다. 마침 이때 홍릉파(洪凌波)가 사부의 명을 받고 와서 습격을 하는 바람에 접골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왼쪽 발이 약간 짧게 되어 길을 걸을 때 절름거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피부가 희지는 않았지만 용모는 빼어나았는데 자란 뒤로는 더욱 아름다웠다. 다만 한쪽 발을 저는 것이 흠이었다.

그때 이막수는 그녀의 부모와 종들을 죽이고 그녀를 사로잡아 갔다. 원래는 죽이려고 했지만 그녀의 목에 걸린 비단 손수건을 보고 그녀의 백부 육전원(陸展元)과의 옛정이 생각나 차마 죽이지를 못했던 것이다. 육무쌍은 총명하여, 이 여마두의 수중에 떨어졌으니 생사가 한 가득 실에 매달려 있음과 같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마두로부터는 바람처럼 몸을 움직여 도망할 수도 없었다. 육무쌍은 그녀에게 영합하여 비위를 맞추어 마침내는 살인을 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적련선자의 잔인한 마음이 누그러졌던 것이다. 이막수는 때로 그때의 한이 맺힌 일을 생각하면 한바탕 설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일기도 했다. 육무쌍은 고의로 봉두구면(蓬頭垢面)의 행색을 하며 다리를 절름거렸다. 이막수는 그녀의 이런 가련한 모습을 보고 한 차례 욕을 하고 때리면서 화를 풀곤 했지만 심하게 하지는 않았다. 육무쌍은 이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살아 남았고 다행히도 그녀는 너무 어려서 이 대마두의 문화에서 그럭저럭 지내게 된 것이다.

육무쌍은 부모의 원수를 심중에 간직하면서도 조금도 내색을 하지 않았다. 이막수가 그녀의 부모를 물어보면 그녀는 언제나 생각이 나지 않는 체 고개를 가우뚱했다. 이막수와 홍릉파가 무예를 연마할 때 그녀는 옆에서 칼을 나르고, 수건을 전하고, 차를 끓이고, 과자를 보내는 일들을 부지런히 했다. 그녀는 원래 무학의 기초가 있어서 두 사람이 연무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암기해 두었다가 두 사람이 외출을 하고 나면 몰래 연습을 했다. 평소에는 홍릉파의 비위를 더욱 맞추어야 했다. 나중에 홍릉파는 사부의 기분이 좋은 때를 틈타 육무쌍의 애기를 잘 해서 그녀도 문하의 도제로 삼게 되었다.

이와같이 몇 년이 지나자 육무쌍의 무공은 날로 진보했다. 그러나 이막수는 그녀에게 아직도 의심을 품고 있어서 가장 상승의 무공은 물론 제 2류의 공부도 전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홍릉파는 그녀를 보기가 가련하여 몰래 떡엄떡엄 가르쳤다. 이로 인하여 그녀의 무공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단계에 이르렀다.

어느날, 이막수와 홍릉파 사도(師徒)가 모두 활사인묘로 옥녀심경(玉女心經)을 훔치러 갔다. 육무쌍은 그들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이 틈에 마굴을 빠져 달아나 부모의 생사 소식을 알아보려고 한 것이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막수에게 중상을 입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직접 두 눈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은 보지 못했었다. 육무쌍은 마음 한 구석에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진상을 파헤치기로 했다. 떠날 때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쉬지도 못하면서 이막수의 오독비전(五毒秘傳)을 훔쳐 달아났다. 그것은 여러 가지 독약과 해약의 비결을 적은 책이었다.

그녀는 왼발을 절름거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녀의 다리를 저는 것을 보는 것이 제일 싫었다. 그날 여관에서 두 도사가 그녀가 다리를 저는 것을 자꾸만 쳐다보자 그녀는 욕을 해 댔다. 두 도사도 심성이 곱지 못하여 이 말 저 말 오가다가 싸움이 벌어졌다. 그녀는 만도로 두 도사의 귀를 자르고 며칠 후에 시랑곡에서 결투를 약속한 것이다.

그날 이막수가 그녀를 사로잡아 북쪽으로 갈 때 그녀는 동굴 입구에서 양과를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두 사람이 나이가 어렸고 이제는 모습들이 모두 변하여 몇 년 전에 잠깐 본 것으로는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육무쌍은 두 덩어리의 구운 고기를 다 먹자 배가 불러 왔다. 양과는 불빛이 비추는 틈을 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생각했다.

(용아가씨는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있을까 ? 지금 눈앞의 이 여자가 아가씨라면 노루다리를 실컷 구워 드릴 텐데.....)

생각을 하면서 그녀를 멍하게 응시하는 양과의 모습이 꽤나 바보스러워 보였다. 육무쌍은 흥, 코방귀를 끼며 생각했다.

(건방지게 나를 쳐다보다니. 지금은 내가 참고 있지만 한밤중이면 너를 없애 버릴 것이다.)

육무쌍은 곧 돌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잤다.

한밤까지 자고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갔다. 불가에는 양과가 꿈쩍도 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데, 불은 이미 다 사그라들었다. 살금살금 그의 뒤로 다가가서 손에 칼을 들고 그의 등을 내리쳤다. 돌연 팔이 비틀리며 떨어져 몹시 아파 오고 쯤, 하는 소리와 함께 단도가 손을 벗어났다. 칼에 맞은 것이 돌이나 쇠 같았다. 그녀는 적지않이 놀라 급히 몸을 돌려 달아나며 생각했다.

(설마 이 바보가 칼이나 창이 몸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수련을 한 것은 아닐까 ?)

수 장을 뛰다가 양과가 쫓아오지 않아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그는 여전히 불가에 엎드려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육무쌍은 너무도 큰 의문이 일어나 크게 불러 보았다.

"바보, 바보야 ! 네게 할 말이 있어."

그래도 반응이 없었다. 그녀가 정신을 차려 자세히 살펴보니 양과의 몸이 오그라든 것이 모양이 괴이했다. 다시 용기를 내어 가까이 가 보니 사람 같지가 않았다. 손을 뻗어 더듬어 보니 옷 아래에 뭔가 단단

한 것이 짊인다. 옷을 잡고 번쩍 쳐드니 밑에는 돌덩어리만 놓여 있었고 양과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주춤주춤 걸으며 불렀다.

"바보야, 바보야 !"

대답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귀를 가만히 기울이니 돌집 안에서 코고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를 따라 가 보니 양과는 그녀가 자던 탁자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등을 뒤로 하고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한창 단잠에 빠져 있었다. 육무쌍은 화가 잔뜩 나서 그가 어떻게 탁자 위로 왔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려서 단도를 빼어 들고 그의 등을 향하여 내리찍었다.

*** 거지들의 추적 ***

내려친 칼끝이 살에 박혔는데도 손에는 별다른 감각이 없었다. 양과는 다시 몇 번 코를 골더니 잠꼬대를 했다.

"누가 내 등을 간지럽히는 거냐 ? 히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나는 간지럼을 못 견뎌 !"

육무쌍은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손이 부르르 떨렸다.

(아니, 이자는 도대체 귀신이란 말인가 ?)

몸을 돌려 달아나려고 했지만 두 발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다시 잠꼬대를 했다.

"어떤 생쥐가 내 노루 고기를 훔치려고 하는 거야 ?"

손을 등뒤로 뺀어옷 속에서 반 조각 노루고기를 꺼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던졌다. 육무쌍은 서서히 한숨을 내쉬고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바보가 노루고기를 등 위에 놓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 칼은 결국 고기덩어리를 찢어서 내가 기절초풍을 하고 놀랐구나.)

그녀는 두 차례나 실수를 하자 양과를 미워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져 이를 갈며 낮게 말했다.

"교활한 바보 자식 ! 이번에도 네 목숨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어디 보자."

쥬싸게 몸을 날리며 칼을 들어 그의 등을 사납게 찔렀다. 양과는 코를 골며 몸을 뒤척여서 이번에는 팍, 하고 칼이 탁자를 찍어서 나무에 깊이 박혔다.

육무쌍은 손에 힘을 주어 칼을 뽑으려고 하는데 양과가 마침 무슨 악몽을 꾸는지 크게 외쳤다.

"엄마, 엄마. 생쥐가 와서 자꾸 나를 물어요."

진흙이 묻은 두 다리를 쥬싸게 뺏어서 왼쪽 다리를 육무쌍의 팔꿈치에 있는 곡지혈(曲池穴)에 걸고 오른쪽 다리는 그녀의 어깨에 있는 견정혈(肩井穴)에 걸쳤다. 이 두 곳은 모두 사람의 몸의 중요한 혈도로, 흙 묻은 그의 두 다리가 쓸어 내려가자 교묘하게도 두 혈도를 눌린 꼴이 되어 버렸다. 육무쌍은 즉시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하고 뻗뻗하게 서서 그의 다리를 거는 틀이 된 꼴이다.

그녀는 너무도 화가 났다. 몸은 비록 움직이지 못하지만 입은 말을 할 수가 있었다.

"야, 이 바보 자식아 ! 빨리 이 더러운 발을 내려놓지 못하겠니 ?"

소리를 지를수록 메아리만 크게 울릴 뿐이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약이 오르는 김에 침을 입에 잔뜩 모아 그에게 뱉었다. 양과는 몸을 돌리며 오른발 끝으로 무의식 중에 훑어내려오는 듯하다가 바로 그녀의 거골혈(巨骨穴)을 가볍게 찼다. 육무쌍은 온몸이 마비되어 입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코에는 그의 다리에서 나는 지저분한 냄새만이 덮쳐 왔다.

이렇게 다리를 걸고 차 한잔 마실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육무쌍은 화가 치밀어서 몇 번이나 기절할 뻔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

(내일 내 혈도가 풀리면 이 바보 자식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테다.)

다시 한참이 지나자 양과도 이제 그 정도 장난을 했으면 됐겠지 생

각하고 두 발을 내려놓고 몸을 돌렸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화난 기색을 한 그녀의 얼굴이 똑똑하게 보였다. 그녀는 화를 내면 낼수록 소용녀와 너무도 닮은 것 같았다. 양과는 멍하니 바라보며 시선을 땔 줄 몰랐다. 사실 육무쌍과 소용녀는 전혀 닮지 않았다. 다만 세상의 여자들이 화를 낼 때의 모습은 거의가 대동소이(大同小異)한데, 양과가 소용녀를 그리워하는 정이 너무도 깊어서 육무쌍이 화내는 모습을 보고 소용녀를 닮은 것이라 위안을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조금 있으려니 달빛이 서쪽으로 기울어져 대문을 통하여 비쳐 들어왔다. 육무쌍은 양과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미소를 지으며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발견하고는 마음이 섬뜩했다.

(이 바보가 어리석은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것 아닐까? 우연히 내 혈도를 누른 것이 아닌 것 같아!)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저도 모르게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바로 이때 홀연 양과가 고개를 옆으로 돌려 땅을 보았다. 그녀도 눈동자를 돌려 그의 눈길을 따라서 보니 땅 위에 3개의 검은 그림자가 늘어서 있는 것이 보였다. 세 사람이 입구에 서 있었다. 정신을 가다듬어 다시 보니 3개의 검은 그림자의 손에는 모두 무기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몹시 괴로왔다.

(낭패다, 낭패야. 저놈들이 문 앞에 와 있는데 이 바보에게 혈도를 눌렀으니.....)

그녀는 연속하여 괴이한 일들을 당하자 마음에 강한 의문이 일었지만, 이 지저분하고 썩그만 일개 목동이 고명한 무공을 지녔다고 믿기는 힘들었다.

양과는 눈을 감고 큰 소리로 코를 골았다. 입구에서 한 사람이 소리쳤다.

"계집야, 냉큼 나오너라. 꿈쩍 앓고 있으면 도야(道爺)께서 너를 봐줄 줄 아느냐?"

양과는 생각했다.

(또 그놈들이군 !)

또 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다.

"우리도 너의 목숨까지 원하지는 않는다. 다만 두 귀를 자르고 세 손가락만 자르면 되니까....."

세번째가 말했다.

"어르신네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으니 냉큼 나와서 덤벼 보아라."

말을 마치고는 밖으로 물러섰다. 세 사람은 반원형을 그리고 문 밖에 섰다.

양과는 나른한 허리를 쪽 펴고 천천히 앉아서 말했다.

"밖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 육아가씨, 어디 있어 ? 아니, 왜 움직이지 않아 ?"

그녀의 등을 양과가 몇 번 밀었다. 육무쌍은 강한 힘이 전해 오는 것을 느끼는가 했더니 온몸이 부르르 떨리며 놀렸던 세 곳의 혈도가 풀렸다.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굽혀 단도를 집어들고 문 밖으로 뛰어 나갔다. 3명의 남자가 달빛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고 팔꿈치를 날려 원편의 사람을 칼로 찔렀다. 그자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쇠채찍으로, 날카로운 칼이 공격해 오는 것을 겨누어 휘둘렀다. 그의 쇠채찍은 본디 매우 무거운데다 어깨의 힘도 매우 강하고 휘두르는 것도 정확하여 썩, 하는 명쾌한 소리와 함께 육무쌍의 단도가 손에서 벗어났다. 양과는 탁자 위에 가로누워서 육무쌍이 옆으로 뛰어 왼손의 손가락을 기울이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좋아, 저 도사의 장검이 온전하지 못하겠군.)

과연 그녀는 팔꿈치를 날려 이미 고묘파의 무공을 펼쳐서 도사의 수중에 있는 장검을 빼앗아 내려쳤다. 팡, 하는 소리와 함께 도사는 어깨에 칼을 맞았다. 그는 큰 소리로 욕을 해 대며 펄쩍 뛰어 도포를 찢어 상처를 싸맸다.

육무쌍의 춤추는 검과, 채찍을 휘두르는 괴한이 함께 어우러졌다. 또 다른 조그만 자는 손에 화창(花槍)을 들고 있어 동으로 서로 덤벼들면서 찢렸지만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지는 못했다. 채찍을 휘두르는 자의 무예는 결코 약하지가 않아 10 여 합을 싸우자 육무쌍은 점점 밀리는 것을 느꼈다. 그 자는 한걸음 정도 되는 거리에서 골고루 공격을 하면서 제법 체면을 차리고 있는 듯하여 육무쌍이 여러 차례 실수를 했는데도 年裏

도사는 상처를 다 싸매고 빈손으로 육무쌍을 가리키며 욕을 해댔다.

"고묘파의 잡것이 이리도 독하게 대드는구나 !"

팔을 뻗어 주먹을 휘두르며 그녀를 향해 급히 달려들었다. 흰빛이 번쩍함과 동시에 도사는 등에 다시 칼을 맞았다. 하지만 조그만 자의 화창이 육무쌍의 등을 찢어서 채찍을 휘두르는 자의 쇠채찍이 그녀의 어깨로 파고들도록 했다.

"안 돼 !"

양과는 소리치며 두 손에 쥐고 있던 돌을 동시에 던졌다. 하나는 화창을 튕겨 내고 다른 하나는 채찍을 든 맹한(猛漢)의 오른쪽 팔을 때렸다.

오른쪽 팔이 돌에 맞자 맹한의 무공으로도 어쩔 수 없이 쇠채찍이 힘없이 앞으로 뻗었다. 그러나 그의 좌장은 번개같이 빨라서 순식간에 펍, 하는 소리와 함께 육무쌍의 가슴을 때렸다. 양과는 크게 놀랐다. 그는 나이가 어리고 식견이 없어서 이 맹한의 왼손의 상권장(上拳掌) 수련을 알지 못했다. 급히 나서서 그의 뒷덜미를 나꿔채 집어던졌다. 그 맹한은 공중을 날아서 1장 밖으로 나가떨어졌다. 도사와 키 작은 자는 양과가 이토록 무서운 것을 보고 서둘러 맹한을 부축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했다.

양과는 고개를 숙여 육무쌍을 살펴보았다. 얼굴은 백짓장처럼 변하고 호흡이 매우 미약한 것이 경상이 아닌 것 같았다. 왼손을 뻗어 그녀의 등을 받쳐서 천천히 앉도록 했다. 절그럭절그럭 하는 소리가 울

렸다. 뼈가 부딪치는 소리였다. 그녀의 늑골 2 개가 맹한의 일장을 맞고 부러졌다. 그녀는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부러진 뼈 2 개가 움직이자 극심한 고통 때문에 다시 깨어나 낮게 신음했다.

"어떻게 된 거야 ? 많이 아파 ?"

육무쌍은 아파서 생사가 오락가락하면서도 이를 악물고 욕을 했다.

"물으나마나지. 당연히 아픈 거 아냐 ? 빨리 나를 안고 안으로 들어가."

양과가 그녀를 떠받들자 진통이 없을 수가 없었다. 육무쌍은 부러진 뼈가 부딪치자 다시 한 차례 극심한 고통이 밀려와 욕을 해 댔다.

"그래 이 바보놈아. 네.....네가 고의로 날 괴롭혀 ? 그 세 놈들은 어떻게 된 거지 ?"

양과가 손을 쓸 때 그녀는 이미 혼절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녀의 생명을 구한 것을 알지 못했다.

양과는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내가 이미 죽은 줄 알고 손뼉을 치며 가 버렸어."

육무쌍은 마음이 조금 놓이자 다시 욕을 해 댔다.

"뭘 그렇게 웃는 거야 ? 죽일놈의 바보 녀석, 내가 아파 할수록 너 더욱 신이 나는 거지 ?"

양과는 그녀가 매번 한 마디씩 욕을 해 댈 때마다 소용녀가 자기를 꾸짖던 모습이 생각났다. 그는 활사인묘에서 살던 요 몇 년이 그의 일생에서 실로 가장 즐겁던 시절이었다. 소용녀가 비록 꾸짖고 욕을 해도 그는 사부가 진심으로 대해 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내심으로는 따뜻함을 느꼈다. 사부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데 마침 다른 백의의 소녀를 만나서 처량하고 외로웠던 기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사실 소용녀는 성격이 냉담하여 양과를 꾸짖는다고 하더라도 안색의 변함도 없이 담담하게 몇 마디 할 뿐이었다. 육무쌍처럼 함부로 마구 욕을 해 대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양과의 심경으로는 한 어린 여자가 자기를 욕하는 것이 욕하는 사람조차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

왔기 때문에 그녀의 폭언이 계속되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웃기만 했다. 양과는 그녀를 안아서 탁자 위로 데리고 갔다. 육무쌍은 가로 누울 때 부러진 뼈가 다시 절그럭절그럭 소리를 내며 부딪쳐 참지 못하고 괴로운 소리를 토해 냈다. 소리를 지르면 허파로 숨을 들이마시게 되어 늑골이 당기게 되니 더욱 고통스러워 미칠 듯하여 육무쌍은 입을 꼭 다간駭裏 육무쌍의 이마에는 온통 식은 땀이 흘렀다.

"부러진 뼈를 접골해 줄까?"

"바보녀석, 네가 무슨 접골을 해?"

"우리 집에 있던 미친 개가 이웃집의 큰 황구(黃狗)와 싸우다가 다리를 물어 부러뜨렸는데 내가 접골을 해줬어. 또 왕가백(王家伯)의 어미 돼지가 갈비뼈가 부러졌을 때에도 내가 접골을 해준 적이 있어."

육무쌍은 화가 났지만 크게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고 낮게 중얼 거렸다.

"나를 미친 개라고 욕하고 또 어미 돼지라고 욕하다니..... 네가 바로 미친 개요 어미 돼지다!"

양과는 웃으면서 말했다.

"돼지라고 치면 나는 숫놈인걸. 그리고 그 미친 개는 암놈이었어. 수컷은 미치지 않아."

육무쌍은 비록 영리하지만 한 마디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왔다. 그와 입씨름을 한바탕 하고 싶었지만 힘이 없어서 눈을 감고 고통을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양과는 계속 지껄여 댔다.

"그 미친 개는 내가 뼈를 한번 붙여 주자 며칠 지나지 않아 다 나았어. 그리고 다른 개와 싸움을 해도 그곳이 다신 부러지지 않았어."

육무쌍은 생각했다.

(이 바보가 정말로 접골을 할 줄 알 리가 없어. 게다가 의사도 없으니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가 내게 접골을 하려면 내 가슴을 만져야 할 테니 어쩐다? 흥, 그가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면 같이 저 세상으로 가는 거지 뭐. 만약에 다 치료를 한다고

해도 내 몸을 본 사람을 이 세상에 살아 있게 할 수는없지.)

그녀는 어려서부터 비참한 화를 당하고 굴욕을 참으며 목숨을 부지해 온 참이라 성격이 매우 이상하게 변해 있었다. 게다가 이막수와 오래 지내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더욱 잔인한 것들로 익혀 왔다. 어리디 어린 나이에 뱃속에는 악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좋아 ! 네가 만약 나를 속인다면..... 흥, 바보 같으니, 내 결코 너를 편하게 죽게 하지는 않을 거야."

양과는 생각했다.

(지금 곤경에 빠뜨리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차갑게 말했다.

"왕가백의 어미 돼지가 늑골이 부러졌을 때 그의 딸이 내게 애걸복걸하며 나를 <훌륭한 오빠> 라고 백 번도 더 불렀지. 그래서 내가 비로소 집골을....."

육무쌍이 끼여들었다.

"피, 피, 피 ! 못된 바보 같으니....., 지저분한 바보 같으니.... .. 아아....., 또 가슴이....."

가슴이 다시 아파 오는 것 같았다.

"내게 그렇게 안 하면 그만이다. 나는 돌아갈 테니 잘해 봐."

양과는 말을 하고 일어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다.

육무쌍은 생각했다.

(이 애가 떠나가 버리면 나는 이곳에서 고통만 당하다 죽어갈 것이다.)

육무쌍은 화를 참으며 말했다.

"어쩔 셈이나 ?"

"너도 내게 <좋은 오빠>라는 말을 백 번은 해야 해.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욕을 해 댔으니 천 번을 불러야 되겠어."

(다 그대로 들어줬다가 상처가 모두 나은 뒤에 다시 천천히 처치해

도 늦지 않겠지.)

육무쌍은 이렇게 생각하고서 말하기 시작했다.

"너는 참 좋은 오빠야, 좋은 오빠, 좋은 오빠..... 아야....., 아야....."

"좋아, 아직 997 번이 남았어. 장막에 기록해 두었다가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해라."

양과는 가까이 가서 손을 뻗어 그녀의 옷을 풀어 해쳤다.

육무쌍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며 놀라서 말했다.

"저리 가 ! 뭐하는 거야 ?"

양과는 한 걸음 물러서서 말했다.

"옷을 입은 채로는 접골을 할 수가 없어. 그 미친 개나 어미 돼지는 모두 옷을 입지 않았었어."

육무쌍은 그의 얘기가 우스웠지만 그가 마음대로 옷을 벗기도록 한다면 아무래도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한참이 지난 뒤, 육무쌍은 고개를 낮추고 말했다.

"좋아, 방해하지 않겠어."

"치료하는 것이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야. 나도 그렇게....."

여기까지 말하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렸다.

"이 잡것이 반드시 이 사방 이십 리 안에 있을 것이다. 어서 수색을 해 보자."

육무쌍은 이 목소리를 듣자 깜짝 놀랐다. 얼굴에는 핏기까지 가신 채 가슴의 통증도 아랑곳없이 육무쌍은 손을 뻗어 양과의 입술을 막았다. 밖에서 말을 한 사람은 다름아닌 이막수였다.

양과도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또 다른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규화자(叫化殷분명히 사매(師妹)의 은호도(銀弧刀)였어요. 애석하게도 내가 첫눈에 알아보지를 못했으니....."

이 사람은 홍릉과였다.

두 여자는 활사인묘에서 간신히 도망을 하여 적하장(赤霞莊)으로 돌아온 뒤, 옥무쌍이 달아난 것을 알았다. 한 술 더 떠서 그녀는 <오독비전>까지 훑쳐간 것이다. 이막수가 강호를 횡행하는데 무림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것은 그녀의 무공이 아니라 바로 오독신장(五毒神掌)과 빙백은침 때문이었다. <오독비전>에는 신장(神掌)과 은침의 독약과 해약의 특성, 제조법 등이 실려 있었다. 만약 이것이 세상에 퍼지게 되면 적련선자(赤練仙子)는 마치 적련사(赤練蛇)가 독이빨을 뽑힌 풀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비전에 실려 있는 것들을 그녀는 이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몸에 지니지 않고 적하장 깊숙한 곳에 감추어 놓았었다. 이막수는 옥무쌍이 평소에 만사에 신경을 써서 자기가 책을 감추어 둔 곳을 알고 있다가 몰래 도망을 하면서 이 책까지 훑쳐가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이막수의 분노는 대단했다. 홍릉과를 데리고 며칠 낮 며칠 밤을 뒤따라 왔다. 그러나 옥무쌍은 달아난 지 이미 오래 되었고 다녀간 길도 후미진 소로(小路)였다. 사부와 도제 두 여자는 북에서 남으로 다시 남에서 북으로 몇 번을 헤맸으나 끝내 그녀의 종적은 보이지 않았다. 이날 밤 둘은 동관(潼關) 근처에 이르렀다가 개방의 제자들에게서 서로(西路)의 방중 집회를 연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막수는 개방의 무리가 천하에 흩어져 있고 이목이 남달리 예민하여 옥무쌍을 본 자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둘은 집회의 장소로 가서 소식을 탐문하려고 했다가 길에서 우연히도 한 오대제자(五袋弟子)가 방중을 배반하고 달아나는데 다른 17,8 명의 거지가 옆에서 호위하고 가는 것을 만났다. 이막수는 그자의 어깨에 만도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옥무쌍의 은호도임을 알아챘다. 그녀는 몸을 날려 곁에서 몰래 엿듣고는, 그 거지가 분한 어조로 한 발을 절름거리고 머리를 땅은 여자가 만도를 전혀 어깨에 맞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막수는 뭇 듯이 기뻐했다. 이막수는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이 오래

되지 않았으니 육무쌍은 반드시 가까이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즉시 뒤를 쫓아서 이 부서진 집 앞에 이른 것이다. 집 앞에 장작불을 지핀 흔적이 있고 또 약하게 피 냄새가 나는 듯하여 서둘러 불을 켜서 사방을 살펴보니 과연 땅의 여러 곳에 피의 흔적이 보이는데 혈색이 아직도 선명한 것이 악전고투가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이 분명했다. 이막수는 제자의 옷소매를 잡고 부서진 집을 가리켰다. 홍릉과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밀어 열고는 검을 휘둘러 몸을 보호하며 돌격해 들어갔다.

육무쌍은 사부와 사자의 말소리를 듣고 이미 끝장임을 알고서 마음을 굳게 먹은 채 누워서 죽기만을 기다렸다. 가볍게 문이 열리는가 했더니 희미한 누런색의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바로 사자인 홍릉과였다.

홍릉과는 사매에 대한 정의가 꽤 두터웠다. 사부는 반드시 온갖 악독한 수법을 다하여 사매에게 고통을 주면서 천천히 죽게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탁자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본 홍릉과는 즉시 검을 들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었다.

칼끝이 마약 육무쌍의 가슴에 닿으려고 하는 순간 이막수가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짊, 하고 치자 홍릉과의 팔이 힘없이 아래로 늘어졌다. 이막수가 냉소하며 말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줄 아느냐? 왜 그리 서두르지?"

그리고 다시 육무쌍에게 말했다.

"사부를 보고도 넌 절도 하지 않느냐?"

그녀는 지금 화가 나 있었지만 말하는 것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부드러웠다. 육무쌍은 생각했다.

(이미 그녀의 수중에 떨어졌으니 애걸을 하든 대들든 간에 고통을 받으며 죽어갈 것이다.)

그리하여 담담하게 말했다.

"네가 우리 집안에 깊고 깊은 원한이 세세토록 있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단 말이나 ?"

이막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홍릉과는 얼굴에 온통 가련히 여기는 기색이 가득했다. 육무쌍은 윗 입술을 가벼이 떨며 도리어 태연했다.

세 사람이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한참이 지나서 이막수가 말했다.

"그 책은 어찌 됐느냐 ? 갖고 와라."

"못된 도사와 규화자에게 빼앗겼다 !"

이막수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개방과는 연관이 없었으며 전진교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평소에 전진교와 개방이 깊은 관계에 있음을 아는 터라 이 <오독비전>이 이미 그들의 수중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단 말인가 !

육무쌍은 사부가 가벼운 미소를 날리는 것을 보고 독계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가 도망을 할 때에 사부가 추격할까 봐 조마조마했더니 막상 그녀 앞에 서게 되니 처음의 두려움은 사라졌다. 돌연 생각이 떠올랐다.

(바보는 어디로 간 거지 ?)

그녀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 그 지저분하고 어리석은 목동을 생각하자 저도 모르게 따뜻하고 친밀한 느낌이 들었다. 돌연 불빛이 번쩍 빛나는가 싶더니 발굽소리가 둥둥 곧장 울려 왔다.

이막수와 제자가 몸을 돌려 보니 한 마리 커다란 황소가 급히 문으로 뛰어들어오고 있었다. 소의 오른쪽 뿔에는 단도가 한 자루 매여 있고, 왼쪽 뿔에는 한참 활활 타오르는 불더미가 매여있었다. 돌진해 오는 위세가 극히 사나운 것을 보고 이막수는 즉시 몸을 옆으로 날렸다. 그러나 황소는 들어올 때도 마구 날뛰며 곧장 쳐들어 오더니 나갈 때도 미친 듯 뛰어나가 순식간에 몇 장 밖으로 달리고 있었다. 이막수는 황소의 뒤를 바로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어 생각했다.

(누가 손의 뿔에 칼과 불을 묶어 놓았을까 ?)

몸을 돌리자 두 사람은 동시에 깜짝 놀랐다. 탁자 위에 누워 있던 육무쌍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홍릉과는 부서진 집 앞뒤를 빙 둘러 찾다가 지붕으로 뛰어 올라갔다. 이막수는 그 황소가 무슨 곡절이 있다고 단정하고 즉시 집을 나서서 추격했다. 어두운 밤이어서 소의 뿔에서 불빛이 번쩍이는 것만이 보이다가 이내 앞의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불빛이 비치는 중에 소의 등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육무쌍은 소를 타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맞아, 분명히 누군가 밖에서 도와 주어 이 괴상한 소를 들여보내 내 마음을 다른 데로 쏟게 한 다음, 소란한 틈을 타 그녀를 구한 거야.)

이막수는 어느 방향으로 쫓아가야 좋을지를 모르다가 발걸음을 빠르게 하여 순식간에 황소를 쫓아가서 소의 등으로 올라가 보았지만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즉시 내려와 소의 겨드랑이를 한 번 차 버리고 휘파람을 불어서 홍릉과와 신호를 통하고는, 하나는 북에서 남으로, 하나는 서에서 동으로 추격했다.

물론 이 황소는 양과가 집안으로 들여보낸 것이었다. 그는 이막수 일행의 소리를 듣고 즉시 뒷문으로 빠져나가 창 밖에 서서 훑쳐보았다. 한 마디만 들어도 이막수가 육무쌍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즉시 계략을 써서 황소의 곁으로 가 육무쌍이 쇠채찍 때문에 놓쳤던 단도를 집어들고 다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서 각각 소의 뿔에 묶었다. 나뭇가지에 불을 붙인 양과는 소의 배 밑에 달라붙어 손발로 소의 몸을 안고 소를 집안으로 몰고 들어가 단숨에 육무쌍을 나꿔챈 뒤, 소의 배에 붙어 숨어서 집을 빠져나온 것이다. 그의 행동이 워낙 재빠른데다가 황소의 모습도 괴이하여 이막수조차 똑바로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가 황소를 쫓아왔을 때 양과는 이미 육무쌍을 안고 긴풀이 자란 곳으로 들어가 누운 다음이었다.

이번의 소동으로 육무쌍은 벌써 고통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어서 양

과가 어떻게 구조했는지, 어떻게 그녀를 안고 소의 배 밑에 숨었는지, 언제 수풀 속으로 들어갔는지 전혀 알길이 없었다. 한참이 지나자 다시 정신이 드는 듯 <아 !> 소리를 질렀다. 양과는 급히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그녀의 귀에다 낮게 속삭였다.

"소리를 내지마 !"

발소리가 들리더니 홍릉파가 말했다.

"아니, 어째서 한 사람도 보이지 않죠 ?"

멀리서 이막수가 말했다.

"가자, 이 잡것이 분명 멀리 달아난 거야."

홍릉파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육무쌍은 숨도 가쁘고 고통 때문에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양과는 여전히 그녀의 입술을 덮고 놓아 주지 않았다.

육무쌍은 가까스로 기운을 내어 자기가 그의 품 속에 있는 것을 알았다. 부끄럽기도 하고 급하기도 하여 손을 내밀어 때리려고 했다. 양과가 그녀의 귓가에 대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움직이지 마, 사부가 널 속이는 거야."

이 말을 다 하자마자 과연 이막수의 말이 들려왔다.

"정말로 이 부근에는 없군."

발소리가 매우 가까운 것이 바로 두 사람의 곁에 있는 것 같았다. 육무쌍은 깜짝 놀라 생각했다.

(바보가 알아채지 못했으면 이번에는 꼼짝없이 죽었겠구나 !)

원래 이막수는 그녀가 근처에 숨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입으로는 간다고 하고 경공을 펴 다시 몰래 왔던 것이다. 육무쌍은 하마터면 계략에 빠질 뻔했다.

양과는 귀를 기울여 가만히 들어 보니 이번에는 그녀들이 정말로 가버리는 것이었다. 육무쌍의 입에서 손을 떼고 양과는 웃으며 말했다.

"됐어, 이젠 두려워할 것 없어."

"나를 놓아 줘."

양과는 가벼이 그녀를 풀 위에 눕히고 말했다.

"빨리 접골을 해야겠어.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야 해. 날이 밝으면 만사는 끝장이야."

육무쌍은 고개를 끄덕였다. 양과는 그녀가 접골을 할 때 고통때문에 소리를 질러 이막수 일행을 놀라게 할까 봐 그녀의 마연혈(麻軟穴)을 누르고, 손을 뺀어 그녀의 옷을 풀어 헤치며 말했다.

"절대로 소리를 내면 안 돼."

겉옷을 벗기자 달처럼 흰 속옷이 드러났다. 속옷 속에는 복숭아꽃과 같은 색의 가슴가리개가 있었다. 양과는 더 이상 벗기지를 못하고 눈을 돌려 보니 육무쌍이 두 눈썹을 찡그리고 두 눈을 꼭 감은 채 부끄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험상궂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양과는 순간 애정을 느끼며 처녀의 몸에서 풍기는 향기를 맡자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육무쌍은 두 눈을 뜨고 가벼이 말했다.

"어서 치료나 해 !"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고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양과는 두 손을 가벼이 떨며 그녀의 가슴가리개를 벗겼다. 가슴에 솟은 그녀의 젖가슴을 보자 감히 건드릴 수가 없었다.

육무쌍은 한참을 기다려도 미풍이 자기의 벗은 가슴 위로 불어와 약간의 한기만 느낄 뿐이어서, 고개를 돌려 눈을 떠 보니 양과가 멍하니 내려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 그녀는 화가 나서 말했다.

"너.....너, 지금..... 뭘..... 하고 있는거냐 ?"

양과는 깜짝 놀라 손을 뺀어 그녀의 늑골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더없이 매끄러운 피부에 닿자 몸이 떨리며 마치 불 붙은 솥을 만지는 것 같아 양과는 손을 움츠렸다. 육무쌍이 말했다.

"빨리 눈을 감아, 한 번만 더 쳐다보면 나....., 나는....."

여기까지 말한 육무쌍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양과는 어쩔 줄 몰라 말했다.

"그래, 그래. 다신 안 볼게. 우.....,울지 마 !"

정말로 양과는 눈을 감고 손을 뻗어 그녀의 부러진 두 늑골을 더듬어 부러진 곳을 자세히 맞추고 급히 가슴가리개로 젖무덤을 덮었다.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다. 양과는 곧 네 개의 나뭇가지를 꺾어서 두 개는 그녀의 앞가슴에 놓고 나머지 두 개는 등뒤에 놓고서 나무껍질로 단단히 묶어서 부러진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했다. 다시 그녀의 속옷과 겉옷의 옷고름을 매어 주고 혈도를 풀어 주었다.

육무쌍이 두 눈을 떠 보니 달빛이 양과의 얼굴을 비추고 있는데 두 뺨이 온통 붉게 상기되어 있는 것이 부끄러운 모습이 역력했다. 그녀의 얼굴을 훑쳐보다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급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부러진 뼈가 바르게 맞춰지자, 여전히 통증은 있었지만, 아까 부러졌을 때의 지독한 통증에 비하면 한결 상태가 좋아졌다고 생각했다.

(이 바보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때 그녀는 이미 양과가 결코 바보가 아니라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처음부터 그를 조롱하고 멸시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고서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그를 존중해 주고 싶지는 않았다.

"바보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기다릴 거야, 아니면 멀리 가 버릴 거야?"

"어떻게 할 것 같아?"

"당연히 가 버리겠지, 여기서 죽기를 기다리겠니?"

"넌 어디로 갈 건데?"

"나는 강남으로 돌아가야 해. 날 좀 데려다 주겠니?"

"나는 사부를 찾아야 해, 그렇게 멀리까지 갈 수는 없어."

육무쌍은 이 얘기를 듣고 얼굴이 침울해지며 말했다.

"좋아, 빨리 가. 나는 여기서 그냥 죽게 내버려 뒀다!"

육무쌍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애원을 했다면 양과는 당연히 거절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노기를 띠고 눈썹을 곤두세우자 저도 모르게 소용녀의 화내는 모습이 생각나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아가씨가 혹시 강남에 갔을지도 모를 일이지. 내가 육아가씨를 데리고 가면....., 잘은 모르지만 좋은 일을 하면 보답이 온다는데 하늘이 도와서 혹시 아가씨를 만나게 될지도 몰라.)

그는 이 일이 너무나 막막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딱히 육무쌍의 요구를 거절할 방법도 없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위안을 하고는 한숨을 내쉬고 몸을 굽혀 그녀를 안아 일으켰다.

육무쌍이 노하여 말했다.

"나를 안고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

"안고서 강남에 가려구....."

육무쌍은 매우 기뻐하며 피식 웃고는 말했다.

"바보야, 강남이 얼마나 먼데 나를 안고 가려고 그러니 ?"

말은 이렇게 했지만 편안하게 그의 품에 엎드려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황소는 어디로 달아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양과는 이막수 일행에게 발각이 될까 봐 줄곧 황벽(荒僻)한 좁은 길로 갔다. 그는 발이 빠르고 상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 육무쌍의 상처를 조금도 건드리지 않았다. 육무쌍은 길가의 나무들이 쉬지 않고 뒤로 밀려나며 그가 줄곧 달리는 말처럼 나는 듯 가는 것을 보니 자기가 맨손으로 빨리 갈 때보다도 빨라서, 그의 경공이 실로 사부의 아래에 있지 않음을 느끼고 은근히 놀랐다.

(원래 이 바보는 절세의 무예를 몸에 지녔구나.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일신의 무공을 연마했을까 ?)

얼마 가지 않아 날이 밝아 왔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보니 양과는 얼굴이 비록 지저분했지만 용모가 빼어나고 두 눈은 더욱 광채가 일어 자기도 모르게 감동했다. 그녀는 점차 가슴의 통증도 잊어 갔고 조금 있다가 깊이 잠이 들었다.

날이 완전히 밝자 양과는 약간 피로를 느끼어 큰 나무 아래로 가서 가볍게 그녀를 내려 놓고, 자기는 그녀의 옆에 앉아서 휴식을 취했다.

육무쌍은 두 눈을 뜨고 얇은 미소를 띄고 말했다.

"배가 고파. 너는 배고프지 않니 ?"

"나도 물론 고파. 좋아, 어디 음식점을 찾아서 밥부터 먹자."

자리에서 일어나 양과는 다시 그녀를 안아 일으켰다. 반나절을 안아서인지 두 팔이 약간 저려 왔다. 그녀를 번쩍 들어 자기의 어깨에 무등은 태우고 천천히 걸었다.

육무쌍은 두 발로 양과의 가슴을 가볍게 치면서 웃으며 말했다.

"바보야, 도대체 너의 이름이 뭐니 ? 다른 사람이 있는 앞에서도 바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 ?"

"나는 이름이 없어. 사람들은 모두 날 보고 바보라고 해."

"말하지 않아도 좋아. 그러면 네 사부는 누구니 ?"

양과는 그녀가 <사부>라는 말을 꺼내자 소용녀를 매우 공경하기 때문에 감히 장난을하지 못하고 안색을 바로 하여 말했다.

"내 사부는 아가씨야."

육무쌍은 이 말을 믿고 생각했다.

(원래 그는 가전(家傳)의 무예를 익힌 모양이구나.)

"그러면 너의 아가씨는 어느 가(家)의 어느 파(派)니 ?"

양과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말했다.

"그녀는 집에 있어. 파가 뭔지는 나도 몰라."

육무쌍은 버럭 화를 냈다.

"바보인 척하지 마 ! 내가 묻고 있잖아 ? 네가 배운 것은 어느 문하의 무공이냐 말야 ?"

"우리집 대문을 묻는 거냐 ? 물론 종이가 아니라 나무지."

(이자는 정말로 바보인가 ? 무공은 높지만 사람은 정말 바보란 말인가 ?)

그래서 따뜻하게 말했다.

"바보야, 자, 바른대로 말해 봐. 넌 왜 내 목숨을 구해 주었지 ?"

양과는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없어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우리 아가씨가 너를 구하라고 해서 너를 구한 거야."

"너희 아가씨가 누군데 ?"

"아가씨는 아가씨지 누구야 ? 그녀가 하는 말이면 나는 뭐든지 들어."

육무쌍은 한숨을 내쉬고 생각했다.

(이자는 원래 정말로 바보로구나.)

처음에는 그에게 부드러운 감정이 이는가 했더니 다시 미운 감정이 일어났다. 양과는 그녀가 다시 말을 하지 않자 물었다.

"왜 말을 하지 않니 ?"

육무쌍은 흥, 하고 코방귀를 끼었다. 양과가 다시 물으니 육무쌍은 발끈하며 말했다.

"말하기 싫어서 안 한다, 왜 ? 이 바보야, 입 다물어 !"

양과는 이 순간의 그녀의 얼굴이 아주 예뻐서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지만, 그녀가 어깨 위에 앉아 있어서 볼 수가 없으니 애석하기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그만 시진(市鎭)에 이르렀다. 양과는 음식점을 찾아서 밥과 반찬을 주문하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았다. 육무쌍은 그의 몸에서 나는 소풍 냄새 때문에 숨이 막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바보야, 너는 저쪽에 앉아서 먹어. 나하고 같이 앉지 말란 말이야."

양과는 웃으며 다른 탁자로 가서 앉았다. 육무쌍은 그가 여전히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보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보면 볼수록 진저리가 났다.

"날 쳐다보지 마."

그리고는 더 먼 곳에 있는 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쪽에 가서 앉아."

양과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웃고는 밥그릇을 들고 문간에 앉아서 먹기 시작했다. 육무쌍이 말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녀는 배가 몹시 고파지만 가슴이 찢르는 듯아파서 침도 제대로 삼킬 수가 없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양과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지만 그는 또 멀리 앉아 있어서 부를 수도 없었다.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들렸다.

"아가씨, 아가씨, 좋은 일 좀 하소."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노래했다.

"거지에게 밥 한 그릇 좀 주소 !"

육무쌍이 고개를 들자 4 명의 거지가 한일(一)자로 줄지어 서서 일제히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 네 사람이 좋은 일로 온 것 같지는 않아 저으기 놀랐다. 다시 세번째 거지가 노래했다.

"극락에 길이 있어도 못 가지 !"

네번째가 노래했다.

"지옥엔 문이 없어도 들어가지 !"

4 명의 거지가 부르는 노래는 모두가 밥을 구걸하는 연화락(蓮花落)의 곡조였다. 모두들 오른손에는 부서진 밥그릇을 들고 왼손에는 나뭇가지를 쥐고 어깨에는 네 개의 마포(麻布) 자루를 메고 있었다. 육무쌍은 이전에 사자가 한담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개방의 방중은 그들이 지고 다니는 마대의 개수로 신분의 높고 낮음을 표시한다고 했다. 이 네 사람은 각기 4 개의 자루를 메고 있으니 모두가 사대제자(四袋弟子)였다. 어제 시랑곡에서 싸웠던 한(韓) 진(陳) 두 사람은 듣는 5 개의 마대를 지고 있었으니 앞에 있는 네 사람에 비하면 한 등급이 높았다. 자기가 상처만 입지 않았다면 이 네 거지를 두려워할 것이 없었지만 지금은 젓가락할 힘도 없으니 어떻게 대적한단 말인가 ? 바보가 경공은 비록 뛰어나지만 이토록 명칭하니, 무예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높지 못할 것이니 여간 걱정이 아니었다. 육무쌍은 순간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양과는 혼자서 밥을 먹으며 이 네 거지를 못 본 듯했다. 그는 한 그릇을 다 먹고 밥통이 있는 곳으로 가 다시 한 그릇을 가득 담고 손을 뻗어 육무쌍의 앞에 있는 채반에서 생선을 한 마리 집어 들고 탁자에 온통 국물을 튀기며 멍청하게 웃으며 말했다.

"히히 ! 생선 좀 먹어야지 !"

육무쌍은 눈썹을 약간 찌푸렸지만 욕을 할 겨를이 없었다. 네 거지는 다시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아가씨>의 네 구절이었다. 네 거지는 세 번을 연속하여 부르고는 8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노려보았다. 육무쌍은 어떻게 응수해야 좋을지를 몰라 천천히 밥알을 뒤적이며 못 들은 척했지만 마음은 더 할 나위 없이 초조했다.

한 거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밥은 한 그릇도 안 줄 모양이니 만도(彎刀)나 한 자루 주시오."

다른 거지가 말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도 해치지는 않겠다. 다만 옳고 그름을 따져서 공평하게 하자는 거야."

잠시 시간을 두었다가 세번째 거지가 말했다.

"빨리 가자. 설마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을 바라지는 않겠지 ?"

육무쌍은 대답을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네번째 거지가 말했다.

"우리도 그렇게 할 마음은 없어. 네 장정이 한 어린 아가씨를 속였다면 강호에 웃음거리가 될 테니까. 단지 가서 이치를 따져 보자는 거야."

네 명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 금방이라도 덤벼들 기세다. 어려운 적이라는 것은 알지만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도 없었다. 왼손으로 긴 의자를 어루만지며 상대방이 오기만 하면 집어던질 태세를 취했다.

양과가 생각했다.

(빨리 덤벼라 !)

육무쌍의 탁자 곁으로 가서 국그릇을 단정히 들고 입에는 커다란 생선을 물고 우물우물하며 말했다.

"나.....나는 국을 좀더 먹어야겠어 !"

국그릇을 기울이다 반 그릇의 뜨거운 국을 육무쌍의 오른쪽 팔에 쏟았다. 그녀는 서쪽에 앉아 동쪽을 보고 있었는데 오른쪽 팔이 안쪽에 있었다. 국이 흘러내리자 그녀는 즉시 몸을 움츠려 고개를 돌려 보았다.

"아이쿠 !"

양과가 소리치며 조심조심 그녀를 닦아 주었다. 바로 이때 왼손을 밖으로 뿌리치자 네 개의 대나무 젓가락이 날아서 네 거지를 향하여 하나씩 날아왔다.

이 젓가락은 너무도 빨라서 네 거지는 알아차릴 틈도 없었다. 다만 팔꿈치가 아픈가 했더니 쟁그랑 쟁그랑 소리를 내며 네 개의 밥그릇이 일제히 땅에 떨어져 박살이 났다. 양과는 옷을 찢어서 계속 육무쌍의 소매를 닦아 주며 말했다.

"화....., 화내지 마 ! 내....., 내....., 내가 깨끗이 닦아 줄게."

"왜 이러는 거야, 정말 !"

고개를 돌려 네 거지를 바라본 순간 깜짝 놀라 어리둥절할 정도였다.

네 거지의 그림자가 길모퉁이로 황급히 사라지고 땅에는 온통 밥그릇 깨진 조각들이었다. 육무쌍은 너무도 이상했다.

(이상도 하구나. 어째서 까닭 없이 갑자기 도망할까 ?)

그녀는 양과가 두 손에 온통 생선국이랑 나물 등을 묻히고 탁자를 닦는 것을 보고 호통을 쳤다.

"빨리 저리 가, 더럽지도 않아 ?"

"그래, 그래 !"

양과는 두 손을 옷깃에 쓱쓱 문질렀다. 육무쌍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 네 거지는 왜 도망갔지 ?"

"아가씨가 화가 나서 밥도 주려고 하지 않고 다시 졸라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가 버렸겠지."

육무쌍은 곰곰이 생각했지만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은을 꺼내어 양과에게 나귀를 사오도록 하고는 밥값을 치르고 나귀 등에 올라탔다. 그러나 나귀 등에 올라타자 부러진 곳이 다시 아파 와 신음을 토해 냈다. 양과가 말했다.

"내가 냄새나고 더러우니 부축할 수도 없고."

"흥, 그만 두지 못해 !"

고삐를 당기자 나귀는 성질이 매우 고약해서 담장이 있는 곳으로 가더니 그녀를 담장에 비벼 댔다. 육무쌍은 손과 발, 모두 힘이 없어서 놀라 소리를 지르더니 결국 나귀에서 떨어졌다. 그녀는 오른쪽 다리가 땅에 닿자 천천히 똑바로 섰지만 상처가 당기어서 고통을 참을 수가 없었다.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도 왜 부축하지 않냐 ? 이 바보야 !"

"나....., 나는 몸이 더러워서....."

"좀 씻을 수는 없어 ?"

양과는 히히덕거리며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나귀에 올라타도록 부축 좀 해 줘 !"

양과는 그녀를 부축해 태웠다. 나귀는 등에 누군가 올라타자 다시 난동을 부리려고 했다.

"어서 나귀를 끌어."

"싫어, 나귀가 발로 찰까 봐 무서워. 그 큰 황소가 있으면 좋을 텐데."

육무쌍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이놈의 바보가 어리석다고 하면 그렇지 않고, 어리석지 않다고 하면 어리석은 척하니, 분명히 나를 안으려고 하는 수작이럿다 !)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좋아, 너도 나귀 등에 올라타라."

"네가 불렀으니 내가 지저분하다고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때리지도 말아야해. 알았지?"

"그래, 뭘 그렇게 중얼중얼 말이 많아?"

양과는 비로소 웃으며 나귀 등에 올라타서 두 손으로 그녀를 잡고 두 다리에 약간 힘을 주었다. 나귀는 배 근처에 심한 아픔을 느끼고는 다시 소동을 피우지 못하고 슬금슬금 떠났다.

양과가 말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육무쌍은 이미 가는 길을 알고 있었다. 본래는 동쪽으로 동관(潼關)을 지나 다시 중주(中州)를 거쳐서 남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 길은 모두 큰 길이었다. 하지만 개방의 네 거지를 만난 뒤에 앞길에도 반드시 다른 개방의 무리가 기다리고 있을 듯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작은 길로 죽목관(竹木關)을 거쳐서 용구채(龍駒寨)를 지나 다시 자형관(紫荊關)을 지나 남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비록 가는 길은 멀지만 길도 평평했고 이막수가 쫓아오기도 쉽지 않을 듯 싶었다. 잠시 생각하다가 동남방을 가리키고 말했다.

"저쪽으로 가자."

나귀는 발굽소리도 느긋하게 천천히 가서 마약 시내를 벗어났는데, 길가에 한 농가의 아이가 나귀 앞으로 뛰어와 불렀다.

"육아가씨, 줄 물건이 있어요."

말을 하고는 꽃을 한 다발 던지고서 몸을 돌려 뛰어갔다. 육무쌍은 손을 뻗어 받아 보니 유채화였다. 꽃다발에는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다. 서둘러 봉투를 뜯으니 황지(黃紙)가 하나 나왔다. 종이에선 다음과 같이 써어 있었다.

<존사께서 다시 돌아왔으니 즉시 몸을 숨길 것 !>

황지는 매우 거칠었지만 글씨체는 수려했다. 육무쌍은 <아니 !> 소

리를 지르며, 놀라움과 의심이 교차됐다.

(이 아이는 누구지 ? 어째서 내 성이 육씨라는 것을 알지 ? 또 어떻게 사부가 쫓아 오는 것을 알지 ?)

양과에게 물었다.

"너 이 아이를 알지 ? 또 네 아가씨가 보내 온 거지?"

양과는 그녀가 생각하는 사이 이미 편지의 글씨를 살피고 생각했다.

(이 애는 분명히 보통 농가의 아이인데. 분명히 누군가 편지를 부탁하여 보낸 것이다. 그런데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 ? 이막수가 정말로 쫓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

그는 비록 옥녀심경과 구음진경을 배워 일신에 무림의 양대 비전을 수련했지만 시일이 너무 짧아서 그 오묘한 뜻은 알고 있으면서도 공력이 미치지 못했다. 만약 이막수와 대결한다면 전혀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었다. 그렇다고 별건 대낮에 몸을 숨길 곳도 없어서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육무쌍이 묻는 것을 듣고 말했다.

"나도 이 조그만 바보는 몰라. 우리 아가씨가 보낸 아이가 아니야."

이 말을 하자마자 피리를 부는 소리가 들려왔다. 맞은편에 꽃가마가 하나 오고 있었는데 수십 명이 앞뒤에서 에워싸고 있었다. 신부를 데리고 오는 꽃가마였다. 시골 촌부의 서투른 북소리가 오히려 마음을 즐겁게 하여 저절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운치가 있었다. 양과는 한 가지 생각이 난 듯 물었다.

"너 새신부가 되고 싶지 않니 ?"

*** 꽃 가 마 ***

육무쌍은 갑자기 그의 황당한 질문을 듣고는 화가 났다.

"바보 ! 또 무슨 허튼 수작이냐 ?"

양과가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 천지신명께 맹세하여 부부가 되는 거야. 네가 신부로 가장하는 게 어떨까 ? 얼굴에 홍포(紅布)를 뒤집어쓰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너를 볼 수가 없지."

"내가 신부로 가장해 사부를 피하잔 말이지?"

"너는 신부로, 나는 신랑으로 가장하는 거야."

이때는 사정이 긴박해 옥무쌍은 그를 욕할 여유조차 없었다.

(이 바보의 생각이 참으로 엉뚱하지만,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그럼 어떻게 가장하지?"

양과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끌지 않고 나귀 궁둥이에 채찍을 몇 번 가해서 앞으로 내달렸다.

시골길이 좁아서 여덟 사람이 드는 꽃가마가 길을 가로막자 길 양편으로는 빠져나갈 틈도 없었다. 결혼 행렬의 사람들은 나귀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다같이 소리를 질러서 천천히 오도록 했다. 양과는 박차를 가해서 나귀가 더욱 빨리 달리도록 해 순식간에 결혼 행렬의 사람들 앞에 이르렀다. 그러자 두 명의 건장한 사나이가 재빨리 뛰쳐나와 나귀의 고삐를 잡고서 꽃가마와의 충돌을 막으려 했다. 양과는 채찍을 휘둘러서 두 사람의 팔을 감고는 들어서 던지자 그들은 길 옆으로 나가떨어졌다. 양과는 옥무쌍을 향해서 소리쳤다.

"나는 신랑으로 가장하겠다."

몸을 앞으로 내밀고 오른손을 뻗어서 양과는 백마를 타고 있는 신랑에게 다가갔다.

온몸에 새옷을 걸치고 머리에 금화를 쓴 17,8 세 정도의 신랑은 양과에게 잡히자 몹시 놀라 어쩔 줄을 몰랐다. 양과는 그를 공중에 내던져서 그가 1장(丈)정도 날아 다시 떨어질 때를 기다려, 사람들의 놀라움 속에 다시 손을 뻗었 자 다. 30 여 명 정도의 결혼 행렬 인파는 반 이상이 건장한 관서(關西)의 사나이들이었으나 신랑이 다시 그의 수중에 떨어지는 양과의 재능을 보고 감히 그에게 덤비지 못했다. 이러한 일을 많이 겪은 노인들 중의 하나는 강도가 길을 막은 것으로 생각하고는 앞으로 나서서 두 손을 공손하게 모았다.

"대왕께서는 제발 신랑을 용서해 주십시오. 필요하신 돈이 있으면 상관 말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양과는 웃으면서 육무쌍에게 말했다.

"색시, 어찌 이들이 나를 대왕이라 부르는가 ? 나는 성이 왕씨가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이들이 나보다 더 멍청하구나."

육무쌍이 대답했다.

"떠들지 마. 마침 사부의 꽃당나귀 방울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양과는 겁을 먹고 귀를 기울여 조용히 듣자 과연 멀리서 은은하게 방울소리가 들려왔다.

(참 빨리도 오는구나.)

"방울 ? 무슨 방울 ? 엿을 파는 사람의 방울인 모양이지 ? 그럼, 우리 엿이나 사 먹자."

양과는 고개를 노인에게 돌렸다.

"너희들이 모두 내 말을 들으면 신랑을 놓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신랑을 공중으로 던지려 했다. 신랑은 놀라서 소리를 지르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노인이 다시 두 손을 모았다.

"모두 대왕의 분부에 따르겠습니다."

양과는 육무쌍을 가르켰다.

"이 여자는 나의 색시인데 너희들이 결혼식 올리는 것을 보고는 재미가 있어 한몫 끼려고 한다."

육무쌍은 양과를 욕했다.

"바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

양과는 그녀를 무시하였다.

"너희들은 빨리 신부의 의복을 그녀에게 입혀라. 나는 신랑이 되겠다."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며 신랑 신부로 분장하고 결혼식을 올리며 노는 것은 항상 있는 일로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뜻밖에도

길을 가로막은 강도가 갑자기 이처럼 장난을 하자 사람들은 서로 쳐다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양과와 육무쌍, 두 사람을 보니 하나는 약관의 소년이고 다른 하나는 묘령의 아가씨로, 부부라고 해도 그럴 듯했다.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방울소리가 점차 가까와졌다. 양과는 나귀에서 내린 다음 신랑을 안장에서 끌어내려 육무쌍에게 지키게 하고, 꽃가마 앞으로 가서 문을 열고는 신부를 잡아내리려 했다.

신부는 놀라서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으나 얼굴에 홍포를 쓰고 있어서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양과는 손을 뻗쳐 얼굴에 있는 홍포를 잡아당겨서 둥근 보름달 같은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신부가 참 예쁜데....."

양과는 그녀의 얼굴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신부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어리둥절해져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양과는 왼손으로 신부를 번쩍 쳐들었다.

"만약 내가 신부의 목숨을 살려 주기를 원한다면, 내 색시에게 빨리 신부 분장을 시켜라."

육무쌍은 사부의 꽃당나귀 방울소리가 점점 가까와지는 것을 듣고는 양과에게 결눈질을 했다.

(저 바보놈이 세상 모르고 아직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다니 !)

양과는 결혼 행렬 중의 노인에게 계속해서 재촉했다.

"빨리, 빨리 빨리 ! 신랑 신부의 의복을 갈아입혀라."

신부를 따르던 사람들은 황망하게 신부의 봉관하피(鳳冠霞披), 금의 홍군(錦衣紅裙)을 벗겨서 육무쌍에게 입혔다. 양과는 스스로 신랑의 예복을 입고서 육무쌍에게 말했다.

"귀여운 신부, 어서 가마에 타라."

육무쌍은 신부에게 먼저 꽃가마에 타라고 한 뒤, 그녀가 가마 안에 들어가자 꽃가마의 장막을 쳤다.

양과는 짚신을 보고는 얼른 바꾸어 신고 싶었지만 방울소리가 이미

산모통이에서 들려왔다.

"동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라. 빨리 풍악을 울리고. 만약 누가 와서 묻거든 우리를 보았다고 하면 안 된다. 알았느냐?"

말을 마치자 양과는 백마에 뛰어올라 나귀 등에 탄 신랑과 나란히 갔다.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가 모두 그들의 수중에 있음을 보고는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나팔, 징 등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꽃가마가 방향을 바꾸어 10 여 장 갔을때 뒤에서 방울소리가 급해지더니 두 마리 꽃 당나귀가 작은 걸음으로 따라왔다. 육무쌍은 가마 속에서 방울소리를 듣고는 피할 수 없는 큰 위기라고 생각되어서 순식간에 쿵쿵,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귀를 기울여 밖의 동정을 살폈다. 양과는 짐짓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여서 말머리를 보고 있자 홍릉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봐, 절름발이 계집애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느냐?"

결혼 행렬의 노인이 대답했다.

"아....., 아니오!"

홍릉파가 다시 물었다.

"젊은 계집애가 말을 타고 가는 것을 못 보았느냐?"

"네, 보지 못했습니다."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은 결혼 행렬을 지나쳐 앞으로 달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이 당나귀의 머리를 돌려서 다시 왔다. 이막수는 불진을 휘둘러 가마의 장막을 휘감아 잡아당겼다. 북, 하는 소리와 함께 장막의 절반이 찢어졌다. 양과는 크게 놀라서 그녀가 불진을 두 번 휘두를 때를 기다려 즉시 육무쌍을 구하려 했으나 이막수는 웬일인지 가마를 한 번 보고는 웃었다.

"신부가 아주 예쁜데....."

고개를 들고는 양과에게 말했다.

"꼬마야, 너 참 재수가 좋구나."

양과는 고개를 숙이고 감히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으나, 말발굽 소리

를 듣고 그들이 가 버린 것을 알았다.

양과는 매우 이상했다.

(어째서 그녀가 육무쌍을 보지 못했을까?)

가마 안을 들여다보니 신부는 놀라 얼굴이 잿빛이 되어서 벌벌 떨고 있을 뿐, 육무쌍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양과는 더욱 이상하였다.

"이럴 수가? 나의 신부는?"

육무쌍은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보이지 않니?"

신부의 치마가 움직이자 육무쌍이 속에서 나왔다. 원래 그녀는 몸을 낮추고 신부의 치마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사부가 하는 일이 용의주도하여 어느 곳이든 가볍게 지나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녀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살필 것을 알고 몸을 숨긴 것이다.

"편안하게 신부 노릇을 해라. 가마에 앉아 있는 것이 나귀를 타는 것보다는 편안하니까."

육무쌍은 고개를 흔들며 신부에게 말했다.

"여기가 꼭 끼여서 몹시 답답하니 너는 빨리 밖으로 나가라."

신부는 어쩔 수 없이 가마에서 내려서 육무쌍이 타고 온 나귀에 올라탔다.

신랑과 신부는 지금껏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했는데, 이때 신랑은 신부의 진주같이 둥글둥글하고 빛나는 얼굴을 보았고, 신부도 신랑의 늙은 모습을 살며시 보았다. 두 사람은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서 잠시 동안 자신들이 강도에게 잡혀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다.

일행이 20여리 갔을 때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다. 행렬 중의 노인은 양과에게 사람들을 풀어 주어 결혼식 날짜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계속 애원하였다.

양과는 화를 내었다.

"왜 귀찮게 구는가?"

막 이 말을 마치자 갑자기 길 옆에서 그림자가 번쩍 하더니 두 사람이 숲속으로 사라졌다. 양과는 급히 그들을 쫓았다. 그들의 희미한 그림자로 볼 때 의복이 남루하여 마치 거지 같았다. 양과는 고삐를 당기어 나귀를 멈추게 했다.

(개방(개幫)이이상한 것 같은데 어찌 다시 사람을 매복하지 않았겠는가 ? 좀더 앞으로 가 봐야지.)

양과가 꽃가마를 들어올리자 육무쌍이 찢어진 장막 속에서 머리를 내밀었다.

"무슨 일이지 ?"

양과가 말했다.

"가마의 장막이 찢어지고 얼굴에는 홍포도 쓰지 않았군. 신부로 치장하면 항상 훌쩍훌쩍 울면서 여거 가지 생각들로 茶샘肝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감히 밖으로 고개를 내밀지 않는 법이다. 천하에 어찌 너처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신부가 있을까 ?"

육무쌍은 양과의 이 말뜻이 마치 누군가 자기를 본 것으로 생각하여 단지 <바보 !>라고 중얼거릴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얼마를 더 가자 길이 점점 좁아지기도 하고, 고갯길도 있고, 심지어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험하였다. 사람드은 일찍부터 매우 피곤했으나, 양과가 화를 낼까 두려워서 감히 한 마디 불평의 소리도 하지 못했다.

해가 서산에 지자 집으로 돌아가는 까마귀가 공중을 날아갔다. 갑자기 산모퉁이 뒤에서 몇 사람이 함께 소리쳤다.

"새색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 돈 좀 주십시오 !"

육무쌍은 얼굴색이 변했다.

(이제 보니 이 네 놈의 거지가 여기에 매복해 있었구나.)

꽃가마가 산모퉁이를 돌아 눈앞에 3명의 거지가 서 있었는데 모두 건장해 며칠 전 음식점에서 보았던 4명과 확실히 달랐다. 양과는 그들 모두가 어깨에 5개의 마포 자루를 짊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다섯 개의 마포 자루를 짊어지고 있는 이 세 명은 확실히 그 네 개

의 마포 자루를 꿰어진 거지보다 훨씬 강할 것이니 조심해야겠군.)

결혼 행렬의 사람들과 가마꾼은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중 어떤 사람이 채찍을 휘둘러 한 거지의 머리를 쳤다.

"빨리 길을 비켜라 !"

그 거지는 몸을 피하지 않고서 채찍을 붙잡아 당기자 채찍을 휘두른 사람이 땅에 쓰러지면서 개똥을 먹게 되었다. 만약 평소 같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어 일으켜 주었겠지만 사람들은 양과 때문에 놀라서 모두 움직이지 않았다.

(원래 이 세 명의 거지와 저 강도는 한패구나.)

감히 앞으로 나서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몇 걸음 물러섰다.

거지 하나가 외쳤다.

"시집가시는 아가씨 축하드립니다. 이 불쌍한 거지에게 몇 푼 주십시오."

육무쌍은 고개를 돌리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바보야, 내가 상처를 입었으니, 저 거지들을 상대할 수 없다. 네가 처리해야겠다."

"좋아 !"

양과는 말 위에서 말했다.

"오늘은 내가 장가가는 날이다. 너희들은 중얼거리지 말고 어서 길을 비켜라."

한 명의 거지가 양과를 이리저리 살폈으나 한 눈에 구의 내력을 알 수는 없었다. 일전에 죽창으로 네 명의 제자들의 손목을 찢은 것이 모두 육무쌍이라 생각하였고, 사백과 사숙도 결코 양과는 언급하지 않았었다.

한 명의 거지가 오른손을 들어서 양과가 타고 있는 나귀를 놀라게 해 나귀가 앞발을 들었다. 양과는 자세가 안정되지 못하고 몇 번 흔들리더니 나귀의 등에서 떨어져 잠시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이 사람은 진짜 신랑이 맞구나.)

개방은 원래 의협심이 있는 조직으로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서 위기에서 구해 주곤 했었다. 그러나 육무쌍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녀가 개방의 형제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이번 일에 끼여들었는데 양과가 무술을 하지 못하여 이처럼 말에서 떨어지자 모두들 미안하게 생각하였다. 한 거지가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주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너희들, 아이고....., 돈을 달라면 그뿐이지 어째서 내가 타고 있는 말을 놀라게 하느냐?"

하면서 양과는 3개의 동전을 꺼내서 하나씩 주었다. 3명의 거지는 개방의 규칙에 따라서 감사의 인사를 했다.

양과는 웃으면서 육무쌍을 쳐다보았다.

"내가 나를 보내려 했는데, 내가 이미 처리했어."

"넌 가능한 나에게 명칭하게 보이려는데, 그게 뭐 그리 좋은 일이나?"

양과는 한쪽으로 물러서서 소맷자락을 휘저어 몸에 묻은 흙을 털었다.

육무쌍은 3명의 거지가 여전히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한 명의 거지가 대답했다.

"당신은 고묘파의 고수로, 우리 형제 세 사람은 당신을 존경해 몇 수 가르침을 받기를 청합니다."

"나는 몸에 중상을 입었다. 그리고 내가 무슨 고수란 말이나? 당신들이 이처럼 오기를 부린다면 날짜를 약속하여 상처가 치유되거든 한 수 지도해 주지. 당신들은 개방의 고수로 오늘 부상당한 어린 여자를 힘을 합쳐서 상대하려고 하니 어찌 사나이로 할 수 있겠는가?"

3명의 거지들은 그녀의 이 말에 멈칫 하며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 중 두 사람이 함께 말했다.

"좋아요. 당신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다려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외쳤다.

"잠깐, 어디에 상처를 입었습니까 ? 도대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만약 진짜로 상처를 입었다면 오늘은 당신을 용서하지요."

그는 그녀의 가슴에 상처가 있는 것을 모르고 무심히 말한 것이다. 옥무쌍은 즉시 양볼이 달아오르면서 분노가 치밀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호에서 말하는 개방의 영웅호걸이 본래 이처럼 뻔뻔스럽다니."

3 명의 거지는 그녀의 옥이 개방의 명성에까지 이르자 얼굴색이 변하면서 성질 급한 한 거지가 한 걸음 달려 손을 뻗쳐 꽃가마에 있는 그녀를 잡으려 했다.

양과는 사태의 급박함을 알았다.

"잠깐 잠깐 ! 너희들이 구걸을 해서 내가 이미 돈을 주었는데 어찌 다시 우리 신부를 귀찮게 하는가 ?"

양과는 앞으로 달려나가 가마 앞을 가로막았다.

"세 분을 보아하니 비록 거지의 행색이지만 모두가 위풍당당하여 앞으로 벼슬에 오르고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어찌 내 신부를 희롱하여 이처럼 경박 무례한 행동을 하는가 ?"

3 명의 거지는 놀라면서 대답할 말이 없었다. 이때 성질이 사나운 거지가 뛰쳐나왔다.

"길을 비켜라. 우리는 단지 고묘파의 무공을 배우려 했을 뿐, 누가 경박한 짓을 했다고 ?"

그리고 손을 가볍게 밀었다. 양과는 큰 소리를 지르고는 길 옆으로 넘어졌다. 개방은 전해오는 규칙이 있어 무예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결코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단지 가볍게 밀었을 뿐인데 넘어져서 만약 그가 다쳤다면 방중(幫中)에서 중벌을 받으며, 나머지 두 명도 처벌을 면치 못할 일이었다. 세 사람은 크게 놀라서 동시에 달려들어 그를 일으켜 주었다. 양과는 천지가 진동하도록 소리쳤다.

"아이구, 아이야. 엄마야 ! 나 죽는다 !"

3 명의 거지들은 도대체 그가 다쳤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없었다.

양과는 아파서 소리 지르면서 말했다.

"너희들 세 명은 참 멍청하다. 나의 신부는 수줍음이 많은데 어찌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 하겠는가. 너희들이 무엇을 배우려 한다고 ? 우선 내게 말해라. 내가 다시 신부에게 묻고 너희들과 이야기하는 게 어떨는지 ?"

3 명의 거지는 그를 보고 어리둥절했으나 실은 혼인 행렬에서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거지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육무쌍이 신부를 가장하고 이 사람이 진짜 신랑이라면 이처럼 힘껏 그녀를 보호할 까닭이 없고, 만약 가짜 신랑이라면 이처럼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다.)

자세하게 그의 행동거지를 살펴보았지만 결코 단서를 찾아낼 수 없었다.

사나운 성질의 거지가 손을 휘둘렀다.

"비켜 ! 못 비켜 ?"

양과는 두 손을 크게 벌렸다.

"너희들이 내 신부를 모욕하려 하는데 그건 절대로 안 된다."

다른 한 거지가 말했다.

"육소저, 저 바보라 부르는 놈이 방해하는데 설마 그놈 혼자서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가 ? 빨리 나와서 말을 해 봐라."

양과가 끼여들었다.

"당신은 내가 어찌 바보라 불리는지 아는가, 정말로 이상하다 !"

성질이 급한 거지가 육무쌍에게 말했다.

"우리들은 다른 것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칼을 구부려 어깨를 베는 동작을 보려고 할 뿐이다. 그 동작을 뭐라 부르는가 ?"

육무쌍도 양과가 그들을 상대할 수 없음을 알고는 마음속으로 도망

갈 공리를 하다가 거지들의 질문을 들었다.

"그것은 초선배월(貂蟬拜月)이라 하는데 왜 그러느냐?"

양과가 끼여들었다.

"그것 참 훌륭하지. 내 신부의 곱은 칼은 순식간에 너희들의 어깨를 벨수 있지."

하면서 오른손을 내밀어 그 거지의 어깨를 감싸고 순간 손바닥은 그의 어깨를 따라서 가볍게 내려갔다.

이 동작에 3명의 거지는 모두 겁을 먹고 꺾쩍 뛰었다.

(이놈은 원래 신랑으로 분장해서 우리를 희롱했구나.)

성질 급한 거지는 어깨에 일격을 당했으나 양과가 힘을 주어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에 별다른 표정은 없었다.

"좋다, 바보인 척하는 놈아 ! 자, 우선 너에게 한 수 배워야겠다."

"너는 우리 색시에게 배우고자 했지, 언제 나에게 배우고자 했느냐?"

그 거지는 화가 났다.

"너한테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것 참 안됐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고개를 돌려 양과는 육무쌍을 쳐다보았다.

"색시, 나의 귀여운 색시,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지 말 좀 해 봐요."

육무쌍은 이때 아무런 의심없이 그가 뛰어난 무술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단지 그의 무공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서 입에서 나오는대로 지껄었다.

"다시 한 번 초선배월을 !"

"좋아 !"

허리를 굽히며 손을 뻗어서 파, 하는 순간에 다시 그 거지의 어깨에 일격을 가했다. 이 동작에 3명의 거지는 더욱 놀랐다. 양과는정정당당하게 그 거지와 서서 결코 발걸음을 옮기거나 몸을 돌리지 않고 단

지 손을 뻗자 손바닥이 그의 어깨 뒤를 쳤다. 이 장법은 매우 괴이하였다. 육무쌍은 마음속으로 매우 놀랐다.

(저것은 분명히 우리 고묘파의 무공인데 그가 어찌 할 줄 안단 말인가 !)

"자, 다시 서시봉심(西施捧心) !"

"좋지 !"

원주먹을 내밀자 상대방의 가슴에 명중했다.

그 거지는 몸에 주먹을 맞고 단지 큰 힘이 자기를 미는 것처럼 느껴 자기도 모르게 한 장 밖으로 날아갔으나 여전히 중심을 잡고 서 있었다. 가슴에는 아무런 통증이 없어서 마치 누군가 자기를 안아서 이곳에 옮겨 놓은 것 같았다. 다른 두 명의 거지가 좌우에서 날아왔다.

양과는 급하게 소리쳤다.

"색시, 나는 상대할 수 없어. 빨리 내게 가르쳐 줘 !"

"소군출새(昭君出塞), 마고헌수(麻姑獻壽) !"

양과는 왼손을 비스듬히 들고 오른손의 다섯 개 손가락을 튕겨 비파(琵琶)를 타는 동작을 취하고, 다섯 손가락을 오른쪽에 있는 거지의 몸에 대고 하나씩 튕겼다. 이것이 바로 소군출새였다. 그리고 몸을 숙여서 왼쪽의 거지를 한 발로 차고 두 손을 한데 모아 주먹을 쥐고 위쪽으로 공격하여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상대방의 턱에 명중시켰다.

"이것이 마고헌수다. 맞는가, 틀리는가 ? 색시 !"

그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주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 네 개의 동작을 사용했는데 모든 동작이 미녀권법(美女拳法)의 오묘한 무공이었다. 고묘파는 임조영이 시작한 이후 여자에게만 전해지고 남자에게는 전해지지 않았다. 임조영이 만든 이 미녀권법의 모든 동작은 모두 미녀의 명칭에서 취한 것으로, 매우 요염하고 부드럽지만 무서운 동작이었다. 양과는 소용녀에게 무예를 배울 때 이 찌르기 이 권법을 배웠지만 항상 권법이 정묘하지 못하고 비틀비틀해서 남자가 사용할 때는 우아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연습할 때

는 자기도 모르게 부드러운 동작 중에 양강(陽剛)을 첨가하여 부드러운
움을 장쾌함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기운(氣韻)은 비록 달랐지만 권식
(拳式)은 원래 모습과 같았다.

3 명의 거지는 그 오묘함을 알지 못하였고, 통증도 없어 양과의 무술
에 결코 탄복하지 않고 일제히 휘파람을 불면서 공격해 왔다. 양과는
이리저리 피했다.

"색시, 어찌 가만히 있는가 ? 오늘 청상과부가 되고 싶은가 ?"

육무쌍은 가볍게 웃었다.

"천손직금(天孫織錦) !" !"

양과는 오른손을 왼쪽으로 휘두르고, 왼손을 오른쪽으로 보내 베짜
는 모습을 만들어 두 손을 각각 2 명의 거지의 어깨에 내리쳤다.

육무쌍이 다시 소리쳤다.

"문군당로(文君當爐), 귀비취주(貴妃醉酒) !" !"

양과는 손을 들어 술 따르는 모습을 취해 성질 급한 거지의 머리를
짚자, 몸이 흔들거리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쓰러져 어
깨가 다른 거지의 가슴에 가 부딪쳤다.

3 명의 거지는 놀라고 화가 나서 나름대로의 무술을 펼쳤지만 양과의
웃조차 건드리지 못하였다. 양과는 눈이 가는 곳, 손을 휘두를 수 있
는 곳은 어디나 공격했다. 그러나 맞은 곳이 전혀 아프지 않으니 더욱
이상했다.

육무쌍이 계속 세 가지 동작을 주문했다.

"능옥취소(能玉吹簫), 낙신릉파(洛神凌波), 구익악권(鉤익握拳) !" !"

양과는 이에 따라 한 가지씩 해 나갔다. 육무쌍은 이미 감복해서 고
의로 어려운 주문을 하고서 그가 주먹을 뺀어 공격하는 것을 보았다.

"즉천수렴(則天垂簾) !" !"

이때 양과의 자세로는 절대로 이 동작을 취하기 힘들었으나 그는 자
신만만하게 상대방에게 내력을 써 몸이 앞으로 쓰러지며 양손의 수렴
이 마침내 제거되었다. 3 명의 거지는 그의 앞가슴이 큰 약점으로 노출

되자 기뻐하면서 동시에 공격해 왔다. 그러나 그들이 어찌 그의 내력에 의해서 모두가 떠올라서 몇 걸음 밀려나갈 것을 알았겠는가 !

육무쌍은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면서 말했다.

"일소경국(一笑 國) !"

이것은 그녀가 만든 동작으로, 미인이 아름답게 한 번 웃으면 나라가 기울고, 성이 기운다는 것이나, 어찌 여기에서 이것으로 상대방고 맞설 수 있을 것인가.

양과는 놀라면서 큰소리로 웃었다.

"하하하, 후후후 !"

양과는 구음진경(九陰真經) 가운데 극히 심오한 내공을 사용하였다. 비록 그가 아직 경지에 이르지 못하여 진정한 고수와는 상대할 수 없지만, 이들 3 명의 3,4 류 무사들은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서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현란해지면서 몸이 몇 번 흔들거리더니 땅에 넘어지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의 컷속에는 반월형의 조그만 물체가 있어 몸의 균형을 잡아 주는데,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머리가 무겁고 다리가 약해져 다시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다. 양과의 웃음소리는 힘을 주어서 토해 낸 거승로 사람들의 귀는 계속해서 충격을 받아 갑자기 지축이 흔들리는 것같이 느껴졌다. 육무쌍도 어지러워 거의 쓰러질 뻔 했으나 급히 가마의 손잡이를 잡았다. 잠시 후, 이곳저곳에서 사람이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양과가 웃음소리를 멈추자 3 명의 거지는 재빨리 일어나서 얼굴이 잿빛이 되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다.

사람들은 얼마간 쉬었다가 다시 꽃가마를 들고서 길을 떠났다. 이때는 양과를 천지신명같이 받들어 감히 조금도 거역하지 못했다. 이경이 되어 한 고을에 이르자 양과는 결혼 행렬의 사람들을 놓아 주었다.

사람들은 이번에 강도에 붙잡혀서 죽을 고생을 하고 모든 물건을 빼앗길 것으로 생각했지, 어찌 강도들이 거짓으로 신랑 신부로 분장을 하고 장난을 치고 난 후 그들을 풀어 주리라고 생각했겠는가. 뜻밖의

일에 기뻐하면서 사람들은 양과에게 고맙다고 절을 하였다. 신부는더욱 구색을 갖추어 말했다.

"대왕과 마님께서는 백년해로하시고 그저 아들 딸 많이 생산하십시오 !"

양과는 기뻐서 웃었으나 육무쌍은 부끄러워 화를 냈다.

양과와 육무쌍이 객점을 찾아서 음식을 주문해 막 먹으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입구에 그림자가 번쩍하면서 누군가 머리를 내밀고 들어와서 양 육 두 사람을 힐끗 보면서 고개를 움츠리고 몸을 돌렸다. 양과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는 문 앞으로 쫓아갔다. 뜰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그들은 시랑곡(豺狼谷)에서 육무쌍과 대결했던 신지범(申志凡)과 희청허(姬淸虛)였다. 두 도사는 장검을 뽑더니 달려들었다.

(너희들이 기어이 나를 찾아내다니 얼마나 불운한가 ? 스스로 고생을 자처하다니..... !)

두 도사는 伶仃뿔뿔을 스쳐 지나 마루로 뛰어올라 육무쌍에게 달려들었다. 이때 돌연 땡땡, 방울소리가 들려왔다.

방울소리가 들려오는 곳이 이미 가까운 곳임을 안 2명의 도사는 안색이 크게 변하면서 급하게 서쪽의 첫번째 방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놀라는 모양을 보니 이놈들은 이막수에게 크게 한 번 당했나 보구나.)

육무쌍이 낮게 말했다.

"사부가 쫓아오셨다. 바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

"어쩐다 ? 자, 빨리 숨자 !"

양과가 손을 뻗어서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방울소리가 갑자기 여관 앞에 멈추면서 이막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지붕에 올라 가서 지켜라."

홍릉과는 대답을 하고서 지붕에 올라갔다. 다시 주인의 말소리가 들

렸다.

"선고(仙姑) 여기에..... 아....., 나는..... !"

하는 소리와 함께 쿵, 하며 주인은 땅에 쓰러져서 숨소리가 끊겼다.
이막수가 불진을 휘둘러 주인의 숨을 끊은 것이었다. 그녀는 일하는 아이에게 물었다.

"절름발이 소저는 어디에 있느냐 ?"

그러나 이 아이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막수는 왼 발로 그를 차 버리고, 오른발로 서쪽의 첫번째 방문을 찼다. 그곳은 바로 신,회 두 도사가 있는 곳이었다.

양과는 이런 생각을 했다.

(뒷문으로 도망치면 되겠군. 설령 홍릉파에게 들켜도 그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니까.)

"색시, 나와 함께 어서 도망가자 !"

육무쌍은 그를 무시하고 일어나서 생각했다.

(이번에 다시 목숨을 건진다면 나는 정말로 하느님을 존경하겠다.)

두 사람이 막 몸을 돌리자 동쪽 구석의 탁자에서 손님 하나가 일어나서 양 육 두 사람에게 다가와서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그들을 유인할 테니, 빨리 도망갈 생각이나 하시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안쪽의 어두운 곳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생김새에 유의하지 않았다. 그가 말을 할 때도 얼굴은 다른 쪽을 향하고 있었고, 말을 다 하고는 이미 대문으로 달려가서 단지 그의 그림자만 볼 수 있을 따름이었다. 그는 그리 키가 크지 않았으며, 험령한 푸른색 장포(長袍)를 입고 있었다.

양 육 두 사람은 마주 보며 방울소리가 크게 나는 것을 들었다. 방울소리는 북쪽으로 가고 있었다.

홍릉파가 소리쳤다.

"사부. 누가 당나귀를 훔쳐가요 !"

누런 그림자가 번쩍 하더니 이막수가 방에서 뛰쳐나와 쫓아갔다.

"자, 이때다 ! 빨리 가자 !"

육무쌍의 이 말을 듣고 양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막수의 경공이 비할 데 없이 민첩하여 곧 그 사람을 따라잡고 순식간에 돌아올 것이다. 육소저의 행동이 썩 빠르지 못하니 아무래도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군.)

그들은 재빨리 몸을 움직여서 서쪽의 첫번째 방으로 뛰어들었다.

신지범과 희청허가 아직 얼이 빠진 것처럼 멍하니 벽난로 곁에 앉아 있었다. 잠시도 지체할 수 없어서 양과는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팔을 휘둘렀다.

"색시, 들어와 !"

육무쌍도 방으로 들어왔다.

양과는 방문을 닫았다.

"자, 빨리 옷을 벗어 !"

육무쌍은 얼굴이 빨갱게 상기되었다.

"바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

"너는 안 벗을 거니 ? 나는 벗어야겠다."

양과는 즉시 겹옷을 벗고 신지범의 도포를 벗겨서 입고 다시 그의 도관을 자기 머리에 썼다. 육무쌍은 그제서야 알아차렸다.

"좋아 ! 도사로 가장하여 사부를 속이는 거야."

손을 내밀어 단추를 풀면서 육무쌍의 얼굴은 다시 홍조를 띠었다. 그녀는 희청허를 발로 차며 말했다.

"눈을 감아. 죽고 싶지 않으면....."

희청허와 신지범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단지 사지(四肢)이고 오관(五官)이 아닌데, 눈을 감으라 하니 어찌 감히 그녀를 볼 수 있겠는가 !

"바보, 너도 몸을 돌려. 내가 옷 갈아입는 것을 보면 안 되니까."

양과는 육무쌍의 말을 듣고는 웃었다.

"뭘 새삼스럽게 그래 ? 나는 네게 접골을 해 줄 때 이미 봤는데...

...."

이 말은 너무 경박 무례하여 육무쌍은 참지 못하고 눈썹을 찡그리며 팔을 내뻗었다.

양과는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 피했으나 일시에 정신이 몽롱한 것이 그녀의 일격이 양과의 왼쪽 뺨에 명중했다. 육무쌍은 진짜로 그를 때리려 한 것이 아니었으나, 강하게 쳐서 그가 잠시 멍청해지자 마음속으로 미안해 가볍게 웃어 보였다.

"바보, 아프니 ? 누가 너보고 허튼 소리 하라고 했니 ?"

양과는 두 뺨을 어루만지면서 한 번 웃고는 몸을 돌렸다. 육무쌍은 도포를 갈아입었다.

"자, 어때 ? 도사 갈애 ?"

"나느 볼 수 없으니 알 수 없어."

"바보, 몸을 돌려라."

양과가 고개를 돌려 험령한 도포를 입은 그녀를 보고 말하려 하자 육무쌍은 갑자기 난로를 가리켰다. 난로 위의 솥이불에서 한 도사의 머리가 나오고 있었다. 그는 바로 시랑곡에서 그녀에게 몇 개의 손가락을 잘린피청현이었다. 그는 계속 난로 위에 누워서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는데 육무쌍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머리를 움츠려서 이불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양 육 두 사람은 황망히 옷을 갈아입느라 조심하자 앓았던 것이다.

"그....., 그가 !"

(그가 나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훔쳐보았잖아.)

육무쌍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때에 꽃당나귀의 방울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양과는 몇 번 방울소리를 듣고는 이미 이막수가 당나귀를 되찾았음을 알았다. 그 푸른 옷을 입은 사나이가 당나귀를 타고 급히 갈 때의 방울소리는 어지럽게 들렸으나, 이막수가 당나귀를 타고 올 때에는 더 빨리 질주해도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그는 생각을 바꾸어 피청현을 번쩍 들어

그의 혈도를 막아서 난로 문을 열고 난로 밑에 놓았다. 북방은 날씨가 추워서 겨울밤에는 난로 밑바닥에 불을 피워서 난방을 했으나 이때는 날씨가 따뜻해 불을 피우지 않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시꺼먼 재가 가득해 피청현은 얼굴이 까맣게 되었다.

방울소리가 돌연 들리지 않자 이막수가 여관 앞에 온 것으 알았다.

"자, 이제 난로 위에서 잠을 자는 거야."

양과의 이 말을 듣고 육무쌍은 눈썹을 찌푸렸다.

"저놈들이 잠을 잔 곳인데 얼마나 지저분할까. 어찌 여기서 잠을 잔단 말이나?"

"네 편할 대로 해라!"

그 순간 신지범을 난로 밑에 넣고 희청허의 혈도를 풀었다. 육무쌍은 비록 이불과 요가 더럽게 생각되었지만, 사부의 매서운 동작을 생각하고 난로 위로 올라갔다. 막 드러누우려고 하자 이막수가 방문을 차면서 들어와 두번째로 살폈다. 양과는 찻잔을 들고 고개를 숙여 차를 마시고, 왼손으로 희청허의 등에 있는 사혈(死穴)을 누르고 있었다. 이막수는 방안에 여전히 3명의 도사가 있으며 사색이 된 희청허의 얼굴을 보고는 빙긋 웃으면서 두번째 방을 조사하러 갔다. 그녀는 육무쌍이 교묘하게 분장할 것을 두려워 해 처음 왔을 때 그들 3명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기 때문에 두번째에는 자세하게 살피지 않았다.

이날 저녁 이막수와 홍릉과는 고을을 살살이 뒤졌는데 가축들이 줄곧 짖거나 우우거렸다. 양과는 육무쌍과 나란히 난로 위에 편안하게 누웠다. 양과는 그녀의 몸에서 나는 소녀의 향기로운 체취를 맡고 매우 즐거웠다. 육무쌍은 마음속으로 여러 생각이 밀려왔으나, 양과 이 사람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자기가 바보라 하면 비할 데 없이 총명하고, 총명하다고 하면 항상 미치광이짓을 하는 양과! 그녀는 누워서 이 바보가 손을 뻗쳐 자기를 껴안아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양과가 잠이 들었는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자 그녀는 실망했다. 그러나 그의 몸에서

나는 남자의 짙은 내음을 맡고서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다시 열매가 흘러서야 비로소 가물가물 잠이 들었다.

양과가 잠에서 깨어나자 날은 이미 밝아 있었다. 희청허는 탁자에 엎드려 아직 자고 있었다. 육무쌍의 가느다란 숨소리, 양뺨에 불그스레한 반점, 얇은 입술을 본 양과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울렁거렸다.

(만약 내가 가볍게 입을 맞추어도 그녀가 모르겠지.)

양과는 여자를 가까이 해 보지 않았고, 이때 마침 처음으로 양기가 돌기 시작해 강렬한 욕정을 느꼈다. 접골 때 본 그녀의 희고 부드러운 가슴을 떠올리자 양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고개를 들어 그녀에게 입맞추려 했다. 입술에 닿기도 전에 달콤한 향기를 맡고는 마음이 움직이고 혈기가 용솟음쳤다. 그녀는 마치 꿈 속에서 뼈가 부러진 곳의 통증을 느끼고 있는지 눈썹을 찡그렸다. 이 모양을 보고 양과는 즉시 소용녀가 생각났으며, 그녀에게 한 맹세가 떠올랐다.

(나는 일생 동안 오직 용아가씨 혼자만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만약 변심하면 아가씨가 나를 죽일 필요도 없이 내가 스스로 죽을 겁낸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며 즉시 자기의 따귀 두 대를 치고 양과는 난로 아래로 뛰어내렸다.

이때 육무쌍은 놀라면서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바보, 너 무슨 짓을 하려고 했니?"

양과는 부끄럽고 난감하였다.

"별 거 아냐! 모기가 내 얼굴을 물려고 하잖아!"

육무쌍은 밤새 그와 한자리에서 잔 것을 생각하고는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르자 고개를 숙였다.

"바보, 바보!"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바보, 너는 어찌해서 우리 고묘파의 미녀권법을 할 줄 알지?"

"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서시(西施), 초선(貂蟬) 등 많은 미인

이 와서 나를 지도해 줬어. 그래서 할 수 있게 된거야."

육무쌍은 다시 물어도 그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는 화제를 다른 것으로 바꾸려 했다.

돌연 서북쪽으로 향하는 이막수의 당나귀 방울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왔던 길을 다시 조사하러 가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육무쌍의 손에 들어간 오독비전(五毒秘傳)을 하루라도 늦게 되찾으면 그만큼 더 많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날이 밝아 오자 잠시도 지체없이 나귀를 타고 떠난 것이다.

"그녀가 우리를 찾지 못하면, 다시 쫓아올 텐데..... 네가 몸에 상처가 있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애석하구나. 그렇지 않으면 두 마리 준마를 타고 단숨에 하루밤낮을 달리면 그녀가 어찌 우리를 쫓을 수 있겠는가 !"

양과의 이 말을 듣고 육무쌍은 화를 냈다.

"너는 몸에 아무런 상처가 없으니 한 마리 준마를 훔쳐 하루밤낮을 달리면 될 것 아니냐 ?"

(육소저는 조심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곧 화를 낸단 말이야.)

그러나 양과는 그녀가 화난 모습이 보고 싶어서 오히려 그녀를 자극했다.

"만약 내 혼자였다면 강남에 벌써 갔을 것이다."

"가라, 가 ! 이 바보야. 네가 화내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스스로 죽는 편이 낫겠다."

양과는 웃었다.

"히히, 네가 죽는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그는 육무쌍이 진짜 크게 화를 내어 부러진 뼈에 충격을 받을까 걱정되어 웃으면서 방을 나와 계산대에서 붓고 벼루를 빌려서 돌아왔다. 곧 먹을 갈아 두 손으로 먹물을 찍어 갑자기 육무쌍의 얼굴에 칠했다.

육무쌍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막지 못하고 황급하게 손수건을 꺼내서 닦았다.

"바보, 나쁜 놈 !"

양과는 난로 속에서 석탄을 꺼내어 물과 함께 범벅을 해 얼굴에 발라 얼굴 전체가 마치 종기가 난 것처럼 울퉁불퉁해졌다. 그런 모습의 양과를 육무쌍은 천천히 바라보았다.

"우리가 비록 도사의 의복으로 갈아입었지만, 얼굴을 변장하지 않았으니 만약 사부가 따라온다면 금방 들킬 것이 아니겠느냐 ?"

육무쌍도 얇은 먹물을 골고루 얼굴에 발랐다. 바르는 모습이 마치 얼굴에 분을 칠하는 것처럼 진지했다.

화장을 마친 뒤, 양과는 다리를 뻗쳐 난로 밑에 있던 두 도사의 혈도를 눌렀다. 육무쌍이 그들을 보려고 했으나 보이지 않는다. 몇 번을 누르자 2명의 도사는 신음소리를 냈다.

(저 바보의 무공이 나의 열 배 정도는 되는구나 !)

그러나 육무쌍은 조금도 놀라는 기색을 나타내지 않고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옥했다.

양과는 시장에 가서 큰 마차를 한 대 빌리려 했으나 빌릴 수가 없어서, 별로 좋지 않은 두 마리의 말을 사 가지고 왔다. 이때 육무쌍의 상처는 이미 치유되어, 두 사람은 각각 말을 타고 천천히 동남쪽으로 갔다.

얼마 가지 않아 양과는 그녀가 견디지 못할 것을 염려해 그녀를 말에서 부축해 내린 뒤, 길 옆의 돌 위에서 쉬게 했다. 그는 오늘 아침 육무쌍에게 가졌던 경박한 마음을 생각하고는 그녀에게는 별다른 미안한 마음이 없었으나, 용아가씨에게는 공연히 미안하여 자기는 정말로 못난 자식이라고 깊이 자책하였다.

"바보야, 왜 아까부터 말이 없지 ?"

양과는 가볍게 웃으면서 육무쌍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양과는 갑자기 한 가지 일이 생각났다.

"아, 나는 정말로 바보 멍꽂이다 !"

"너는 원래 바보잖아 !"

"아무래도 변장을 다시 해야겠어 ! 세 명의 도사가 눈앞에 어른거리. 만약 그들이 너의 사부와 이야기하면 어찌 되겠어 ?"

육무쌍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웃었다.

"그 세 명의 도사는 이미 말을 타고 우리를 지나갔고, 사부는 아직 뒷쪽에 있어. 얼빠진 바보야 !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거냐 ?"

양과는 <아 !>하는 소리를 내면서 그녀를 보고 웃었다. 육무쌍은 그의 미소 가운데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느끼고, 자기가 방금한 말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다. 육무쌍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이때, 말 한 필이 길게 울었다. 육무쌍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니 도로 모퉁이에 2명의 늙은 거지가 나란히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양과는 산허리 뒷쪽으로 두 사람의 머리가 숨는 것을 보고는 그들이 신지범과 회청허라고 생각했다.

(저 세 명의 도사놈들이 개방에 가서 알렸구나. 우리는 스님의 흉내를 내자.)

두 손을 공손히 모으면서 양과가 말했다.

"두 분의 늙은 거지 양반들은 팔방(八方)에서 구걸하지만, 우리들은 십방(十方)에서 시주를 구합니다. 오늘 시주 좀 하하지요."

한 거지가 크게 소리 질렀다.

"너희들이 머리를 깎고 중과 비구니의 분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못 속인다. 다른 허튼 짓 하지 말고 빨리 우리의 집법장로(執法長老)에게 가서 심판을 받기로 하자."

(이 두 명의 늙은 거지는 여덟 개의 마포 자루를 짊어지고 있으니 무공이 대단할 것이다.)

이 두 사람은 바로 개방의 여덟 마포 자루의 늙은 고수로, 이들이 스무살도 채 안 된 아이들임을 보고는 그들의 제자들이 계속 당한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이 이러한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서북쪽에서 방울소리가 찼렁 찼렁 천천히 들리더니 이윽고 가까이 다가왔다.

(아뿔사 ! 우리가 비록 얼굴 모양을 바꾸었지만 마침 이 두 명의 거지를 만나서 신분이 폭로되었으니 어찌 사부의 독수(毒手)를 피할 수 있단 말인가 ? 아, 정말로 재수가 없구나. 액운이 이처럼 겹치다니..... 많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이 살아들 가는데 나는 어째서 그렇지 못한가 !)

순식간에 방울소리가 가까와졌다.

(이막수를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 아무래도 먼저 도망치는 게 상책이겠다.)

양과는 두 늙은 거지에게 말했다.

"두 분이 시주하지 않는 것은 대수롭지 않으니, 어서 길이나 비켜 주시오."

하면서 양과는 앞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두 거지는 그의 발걸음이 경박한 것을 보고는 그가 무술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알고, 각자 오른손을 뻗쳐서 잡으려 했다. 양과도 오른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의 손과 양과의 손이 부딪치자 양과가 세 걸음쯤 뒤로 밀려났다. 이 여덟 마포 자루의 고수들은 수십 년간 무술을 연마해서, 내력도 심오하여 강호에서는 이미 적수가 적었다. 무공의 소양을 논한다면 양과를 훨씬 능가하였고, 동작의 기묘함도 양과가 따를 수 없었다. 그러나 양과가 이처럼 그들을 상대하자 그들은 마음속으로 매우 놀랐다.

이때 이막수가 홍릉파와 함께 도착했다.

홍릉파가 물었다.

"여보시오. 거지 양반과 어린 스님들 ! 혹시 절름발이 계집애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소 ?"

두 늙은 거지는 무림 중의 대선배로 홍릉파의 이 같은 건방진 질문을 받고는 화가 났으나, 개방의 엄한 규칙에는 개방의 사람들이 함부로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었기에 순순히 대답했다.

"못 보았소."

이막수는 날카로운 눈으로 양 육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는 의심이 생겼다.

(저 두 사람을 어디선가 본 것 같다.)

다시 그들 네 명이 마주 보고 서서 칼을 뽑아 싸우려는 것을 본 이막수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말하기로 생각했다.

양과는 결눈질로 그녀가 얼굴에 얹은 미소를 흘리며 팔짱을 끼고 싸움을 구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좋다 ! 기왕 이렇게 된 것, 그녀의 의심을 풀어 주자.)

몸을 돌려서 홍릉파의 앞으로 가 양과는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도우(道友)께 문안드립니다."

홍릉파도 도가의 예절로 답례했다.

"소승이 마침 이곳을 지나가는데, 이 두 명의 나쁜 거지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길을 막고는 싸움을 걸었습니다. 소승은 무기가 없으므로, 청하건대 노군(老君)의 면전에서 보검을 한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께서 빌려주셨으면 합니다."

몸을 깊숙이 숙여서 인사를 했다. 홍릉파는 그의 얼굴이 시꺼멓고 추하며 울퉁불퉁했으나, 공손한 태도에 도가의 조사인 태상노군(太上老君)을 언급하자 거절하지 못하고 장검을 뽑아서 사부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칼자루를 돌려서 그에게 넘겨 주었다. 그는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장검을 받아서 칼끝이 땅으로 가게 했다.

"도우께서도 도가의 일파를 공부하셔서, 이렇게 도와 주시다니.....
.."

홍릉파는 눈썹을 찡그리며 대답하지 않았다.

양과는 몸을 돌려서 옥무쌍에게 크게 소리쳤다.

"사제, 거기에 서서 움직이지 말고 보기만 해 ! 이 개방의 거지들이 우리 전진교의 무술을 알도록 해 줄 테니....."

이막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제 보니 이 두 명의 중은 전진교파로구나. 그러나 전진교와 개방은 원래 사이가 좋은데 어찌 두 파의 사람들이 싸우려 하지 ?)

양과는 2명의 늙은 거지가 욱하여 혹시 욱무쌍의 비밀이 노출될까 두려워 급히 칼을 쳐들었다.

"자 덤벼라, 나 혼자서 너희 둘을 상대하겠다."

욕무쌍은 크게 걱정이 되었다.

(바보, 우리 사부는 일찌기 전진교의 도사들과 여러 번 싸움을 해서, 전진파의 한 동작 한 동작을 모두 알고 있는데 어찌 그녀의 눈을 속일 수 있단 말인가 ? 정을(正乙), 대도(大道), 태일(太一)등 천하 도교의 파가 수두룩한데 하필이면 전진교를 사칭하다니, 바보는 역시 할 수 없군.)

2명의 늙은 거지는 그가 전진파라는 소리를 듣고 모두 크게 놀랐다.

"네가 정말로 전진파의 문인이냐 ? 그럼 너와 우리는....."

양과는 그들이 욱무쌍을 언급할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서 칼을 휘둘러 두 사람의 가슴과 배를 나누어 공격했다. 이것이 바로 전진의 정통 검법이였다. 두 늙은 거지는 고수로서 둘이 함께 하나의 애송이를 상대하려고 하지는 않았으나, 양과의 동작이 너무 빨라 어쩔 수 없이 동시에봉(棒)으로 상대하였다. 철봉을 막 들자 양과의 장검은 이미 철봉의 빈틈을 뚫고서 두 사람의 가슴을 찌르려 했다. 거지들은 생각 밖에도 그의 검법이 이처럼 신속하자 급히 뒤로 물러났다. 양과는 잠시도 여유를 주지 않고서 앞으로 나가 순식간에 계속해서 18번을 찌렀다. 매 한 번마다 검은 하나가 둘로 나뉘어졌는데, 찌를 때에는 단지 한 동작인데 곧 손목이 떨리면서 칼의 동작이 둘이 되었다. 이것은 전진파의 최고 무술인 일기화삼청(一氣化三清)으로서 매 동작이 모두 세 동작으로 변하는 것이다. 양과가 칼을 한 번 찌를 때마다 두 늙은 거지는 세 걸음씩 물러나 18번을 찌르자 거지들은 한 동작도 반격하지 못하고 결국 54보를 후퇴했다.

옥녀심경의 무공은 전진파를 압도할 수 있으나 양과는 아직 옥녀심

경을 익히지 못하고 먼저 전진의 무공을 익혔다. 그러나 그것도 완전하지 못해, 일기화삼청이 제대로 되지 않아 화이청(化二淸)했으나 모습은 비슷비슷했다.

이막수는 양과의 검법이 정기(精氣)한 것을 보고는 놀람을 금치 못하였다.

(전진교의 명성으로 저러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은 당연하지. 앞으로 10여 년이 지나면 감히 누가 그를 상대할 수 있겠는가? 보아하니 전진교의 장교는 아무래도 저 젊은이가 맡게 될 것 같구나.)

그녀가 만약 양과와 대결한다면 몇 동작만에 그의 전진검법이 사이비이고, 근본이 실은 고묘파의 공부인 것을 알 수 있을 테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좀처럼 알 수 없었다. 양과는 조지경에게서 전진과 무공의 구결을 배운 이후 더욱 수련을 쌓았기 때문에 그의 전진과 무공자 아니었다.

홍릉과와 육무쌍은 자연히 넋이 빠져 쳐다보았다.

양과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만약 동작을 늦춘다면 두 거지가 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되지 !)

18번의 공격이 끝난 후, 양과의 장검이 떨어지면서 다시 두 거지의 뒷쪽으로 돌진하여 공격했다. 두 거지가 재빨리 몸을 돌려서 상대하려 하자 양과는 그들의 철봉과 장검이 채 부딪치기도 전에 그들의 몸뒤로 몸을 번쩍 움직였다. 그들은 황망히 몸을 돌렸으나 양과는 이미 그들의 배후를 찔렀다. 그는 만약 제대로 맞서자면 혼자서 도저히 둘을 상대할 수 없고, 한 거지조차 상대할 수 없음을 알고는 빙빙 급하게 돌아서 그들 두 명의 거지를 혼란에 빠뜨렸다.

전진파의 모든 문인들은 무공의 수련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반드시 경공을 연습해야 하는데, 천강북두진을 연습할 때는 더욱 더 그랬다. 이때 양과의 보법(步法)은 전진과 무공이었으나, 호흡 운기는 오히려 옥녀심경의 심법을 사용했다. 고묘파의 경공은 천하제일로 그의 발걸

음은 이 2명의 개방 고수도 따를 수 없어 단지 양과가 번개처럼 질주하여 백광이 번쩍이고 장검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을 따름이었다. 만약 그가 정말로 두 사람의 생명을 노렸다면 20여 명의 거지조차 모두 죽었을 것이다. 두 거지는 급히 몸을 돌려서 철봉을 휘둘렀으나 대항한다기보다는 단지 힘을 다해서 방어하면서 하느님의 가호를 바랄 뿐이었다.

이처럼 재빨리 수십 번을 돌자 두 거지는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눈이 아찔하며 다리가 비틀거리 곧 쓰러질 것 같았다. 이막수는 웃으면서 말했다.

"이봐, 개방의 친구들 ! 내가 한 수 가르쳐 주지.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서 ! 그러면 움직일 필요가 없지."

이 말에 그들은 매우 기뻐하며 그대로 따랐다.

(안 돼 ! 그들이 이처럼 한다면 내가 움직여야지.)

양과는 곧 칼을 흔들어 그들의 등을 나누어 찌르려 했다.

두 거지는 등뒤에서 급한 바람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는 봉으로 상대할 틈도 없이 앞으로 한 걸음 황망히 내딛자 등뒤에 칼이 이르렀음을 알고 크게 놀라서 황망히 달아났다. 양과의 칼끝은 두 사람이 아무리 민첩하게 뛰어도 시종일관 그 두 사람의 등뒤에서 마치 그림처럼 번쩍었다. 두 거지의 발걸음이 느려지면 등 뒤의 피부가 칼끝에 찢려서 아팠다. 두 거지는 양과가 그들을 해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지 않다면 손에 가볍게 힘을 주어 칼끝을 앞으로 한 척만 민다면 칼끝이 어찌 가슴을 꿰뚫지 못하겠는가 ! 그렇다고 잠시라도 멈추고 있을 수는 없었다. 세 사람은 모두 힘을 다해 질주해서 잠시만에 몇 리(里)를 달려서 이막수를 처 멀리 뒷쪽에 둘 수 있게 되었다.

양과는 돌연 다리에 힘을 주어 두 사람의 앞을 막아섰다.

"천천히 달려요, 쓰러지지않게 조심하구요 !"

두 거지는 약속한 듯 두 자루의 봉을 내밀었다. 양과는 왼손을 뺀 한 자루의 철봉을 잡고, 동시에 칼자루로 다른 한 자루의 철봉을 왼쪽

으로 밀어 왼손을 크게 벌리면서 두 자루 철봉을 함께 잡았다. 두 거지는 크게 놀라서 급히 힘을 주어 잡아당겼다. 양과는 공력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한다다가 그들과 역지로 대항하고 싶지 않아서 장검을 철봉에 따라서 아래로 내리그었다. 두 거지가 만약 손을 놓지 않았다면 손가락이 즉시 절단됐을 것이다. 봉을 놓고 뒤로 물러선 두 거지의 얼굴에는 겁먹은 표정이 역력했다. 싸우지 않고 이처럼 도망가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창피한 일이었다.

"우리 전진교와 귀방은 원래 사이가 좋으니 두 분께서는 옆 사람의 선동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 원수인 고묘파의 적련선자 이막수가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찌 그녀를 찾지 않으십니까 ?"

두 거지는 전혀 이막수를 알아볼 수 없었으나 일찌기 그녀의 명성을 알고 있었다. 양과의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함께 소리쳤다.

"그 말이 사실이나 ?"

"내 어찌 속이겠습니까 ? 제가 두 분을 아무도 없는 이곳에 모시고 온 것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하고 양과는 두 손에 철봉을 받들고 공손하게 두 거지에게 돌려주었다.

"이것은 또 적련선자가 몸에 지니는 유명한 물건인데, 두 분께서 설마 모르시지는 않겠지요 ?"

한 거지가 눈치를 채고서 말했다.

"아, 알지요. 그녀의 손에 있는 불진, 꽃당나귀의 방울..... 그렇다면 그 누런색 옷을 입고 있던 그녀가 ?"

양과가 대답했다.

"네, 맞아요. 은호비도(銀弧飛刀)로 귀방의 제자를 해친 사람이 바로 이막수의 제자이지요."

양과는 다시 깊이 생각했다.

"그런데 무서워요....., 안 돼....., 안 돼요 !"

목소리가 큰 성격이 급한 거지가 물었다.

"무엇이 두려운가 ?"

"안 돼, 안 돼 !"

"무엇이 안 된다는 말이나 ?"

"이막수가 천하를 횡행하며, 강호상의 인물들이 모두 겁을 먹고 있는데 비록 귀방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그녀의 적수는 하나도 없지요. 이미 귀방의 문하들이 그녀의 제자에게 당했으니 아무래도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 거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철봉을 들었다.

"흥, 그가 적련선자든 흑련선자든 오늘은 반드시 요절을 내고야 말겠다."

말하고는 온 길을 급히 돌아가려 했다. 다른 신중한 거지는 <우리들은 이 조그만 아이에게도 패했는데 만약 적련선자와 시비가 생기면 어찌 헛되이 죽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다. 즉시 그의 팔을 잡았다.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다. 오늘은 일단 돌아가서 신중한 계획을 세우자."

양과에게 두 손을 모으면서 말했다.

"도우의 존함을 알고 싶습니다."

"저의 성은 살(薩)이고, 이름은 화자(華滋)라 합니다. 인연이 있으면 후일 다시 만나겠지요."

대답하고 고개를 돌려서 갔다.

두 거지는 서로 쳐다보다가 말했다.

"살화자, 살화자 ? 그런 이름은 들어 본 적이 없는데..... 나이가 아직 어린데도 무공이 것처럼 뛰어나다니....."

한 거지가 펄쩍 뛰었다.

"나쁜 놈, 죽일 놈 갓갓灸箚癡....."

"왜 그래 ?"

"그의 이름이 살화자라 했지 ? 그것은 거지를 죽이자는 뜻이 아닌가 ? 그놈이 우리를 옥해도 우리는 몰랐다니....."

두 명의 거지는 크게 양과를 욕했으나 그를 쫓아가서 복수할 생각은 감히 하지 못했다.

*** 양과, 영웅으로 불리다 ***

양과는 속으로 웃으면서 갑자기 육무쌍의 일이 걱정이 되어서 급히 돌아왔다. 육무쌍은 말에 탄 채 이쪽을 계속 바라보면서 초조해 하고 있었다. 그녀는 양과를 보고 기뻐서 급히 말을 타고 달려와 속삭였다.

"바보, 참 잘 했어 ! 잘 했어 ! 그러나 나를 팽개쳐 버리다니...."

양과는 웃으면서 양손에 장검을 비스듬히 움켜쥐고 칼자루를 홍릉과에게 건네 주면서 몸을 굽혀 인사했다.

"칼을 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홍릉과는 손을 뻗어 칼을 받았다. 양과가 막 몸을 돌리려는데 이막수가 갑자기 말했다.

"잠깐만 !"

그녀는 이 어린 도사의 무공이 훌륭함을 보고는 생각했다.

(이놈을 살려 둔다면 후일에 반드시 걱정거리가 되리라. 그의 무공이 아직 내 수준에 못 미칠 때에 걱정거리를 제거해야겠다.)

양과는 <잠깐만 !>하는 소리를 듣고 이미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음을 느끼는 즉시 장검을 몇 촌(寸) 앞으로 뻗쳐 홍릉과 수중에 놓고는 곧 칼에서 손을 떼었다. 홍릉과는 겨우 칼자루를 움켜 쥐며 웃었다.

"어린 도인의 무공이 무척 훌륭하구나 !"

이막수는 원래 손을 써서 그를 불진으로 쳐 죽이려 했으나 그의 수중에 아무런 무기가 없음을 보고는 자신의 신분으로 어찌 무기를 써서 그를 해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불진을 목 뒷덜미에 꽂고는 물었다.

"너는 전진철자 중 누구의 문하인가 ?"

"나는 왕중양의 제자요."

그는 전진도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마음속으로 조금도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다. 구처기가 비록 꽤나게 자기를 대해 주었지만 그와 함께 지낸 시간은 매우 짧았다. 작별에 이르러서는 무섭게 한바탕 교훈을 주었으나, 원래 그가 조금도 악의를 갖고 있지 않음을 알고서 마음은 오히려 조금도 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대통과 조지경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가 갈렸다. 그가 고묘에서 왕중양이 예전에 손수 새겨 놓은 구음진경요결(九陰眞經要訣)을 연마하였으니, 만약 그의 제자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나이에 비추어 볼 때 조지경 윤지평의 제자뻘 밖에 안 되니 이막수가 그의 무공이 약하지 않음을 보고 그가 전진칠자 중 누구의 문하냐고 물은 것은 사실 그를 추켜 세운 것이었다. 양과가 만일 입에서 나오는 대로 구처기나 왕처일의 이름을 댔더라면 이막수는 오히려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양과는 손노파를 죽인 학대통보다 후배뻘이 되기가 싫어서 즉시 왕중양을 꼬집어 낸 것이다. 중양진인은 전진교의 창교조사로서 평생에 단지 7명의 제자를 거두었을 뿐이라는 사실은 무림에 이미 두루 널리 알려진 일이었다. 이 어린 도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중양진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이막수는 생각했다.

(이 어린 놈이 하늘 높고 땅 넓은 줄 모르는구나.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면전에서 수작을 부리다니.....)

그러다가 다시 생각을 바꾸었다.

(전진교의 도사가 어찌 함부로 조사를 거들먹거리며 우스갯소리를 하겠는가? 어찌 감히 <왕중양>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단 말이나? 그러나 그가 만일 전진교의 제자가 아니라면 어째서 무공의 방식은 전진파의 것일까?)

양과는 그녀의 얼굴이 비록 웃음기가 있지만 눈썹을 찌푸리고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이 그때 시골 아이로 분장하고 홍릉파와 한바탕 소동을 벌인 일과, 고묘에서 그들과 몇 차례 싸

운 일이 생각나 불안해졌다. 그들에게 언행 중에 조그마한 결점이라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일이 여의치 않으면 도망가는 게 상책이라고 여겨 양과는 두 손을 들어 인사를 한 다음 몸을 돌려 말을 타고 질주하려 했다.

그러자 이막수가 가볍게 펼쩍 뛰어 그의 말 앞을 가로 막으며 말했다.

"내려와라, 물어 볼 말이 있다."

"뭘 물어 보시려는지 저는 알아요. 왼쪽 다리가 절룩거리는 계집애를 보았는지, 그녀가 지닌 그 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 보시려는 거죠?"

이막수는 매우 놀랐으나 냉담하게 말했다.

"그래, 넌 참 총명하구나. 그래, 그 책이 어디 있지?"

"때마침 저와 제 사제가 길가에서 쉬고 있는데 그 계집애와 세 거지가 다투고 있는 걸 보았지요. 한 거지가 그녀의 칼에 베었는데, 또 다시 두 명의 거지가 접근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들의 적수가 되지 못해 마침내 거지들에게 사로잡혔지요....."

이막수는 평소 감정을 잘 억제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일이 닥쳐도 목소리나 안색이 변하는 법이 없었으나, 육무쌍이 이미 개방에 사로잡혀 그 오독비전이 그들의 수중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자 자신도 모르게 초조한 기색을 보였다.

양과는 자신의 거짓말이 효력이 있음을 알고는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 거지가 그녀의 품안에서 무슨 책인가를 끄집어 내자 그 계집애가 악착같이 내주려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결국 그 거지에게 따귀를 맞고 말았지요."

육무쌍은 그를 한 번 흘겨 보았다.

(바보 자식 ! 허튼 소리해서 나를 깔보면 내가 가만 놔 두나 봐라.)

양과는 육무쌍이 속으로 놀라고 두려워함을 알고는 일부러 그녀에게 물었다.

"사제, 그걸 보고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생각나지 ? 그 거지가 계집애의 손발을 만지작거리 아주 골탕을 먹었어, 그렇지 ?"

육무쌍은 고개를 숙이고 다만 응, 하고 대답했다.

여기까지 말하자 산모퉁이에서 말발굽소리가 나면서 말을 탄 한 떼의 무리와 호위 병사가 기세 높게 몰려 나왔다. 바로 몽고의 관병(官兵)들이었다. 이때 금나라는 이미 멸망하고 회하(淮河) 이북은 모두 몽고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 이막수는 원래 이러한 관병을 눈앞에 내버려두지 않지만, 육무쌍의 종적을 찾기에 급급하여 말썰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길 옆으로 피했다. 쇠발굽이 먼지를 일으키며 1 백여 명의 몽고 병사들이 관원 한 명을 둘러싸고 질주해 가고 있었다. 그 몽고 관원은 몸에 금포를 입었으며 허리에는 활을 매달고, 기마술이 매우 정교하였고, 얼굴은 비록 준수하지는 않았으나 말을 몰 때의 태도는 매우 민첩하고 용맹스러웠다.

이막수는 말을 탄 무리가 지나가자 곧 불진을 써서 말들이 뒤집어씌운 먼지를 몸에서 털어냈다. 육무쌍은 만일 그녀가 먼지를 털어내지 않고 자신의 머리에 불진을 휘두른다면 뇌수가 터져 버릴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몹시 뛰었다.

이막수는 먼지를 다 털고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지 ?"

"몇몇 거지가 그 계집애를 사로잡아 북쪽으로 갔어요. 제가 보고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저지하려 했지만 그 두 거지가 남아서 결국 저와 한바탕 싸우게 됐지요."

이막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웃었다.

"좋다. 매우 고맙구나, 내 이름은 이막수라 한다. 강호에서는 나를 적련선자, 혹은 적련마두라고 부르지. 넌 내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있느냐 ?"

"아직 못 들어 봤어요, 아가씨는 마치 하늘의 선녀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듯이 예쁜데 어떻게 마두(魔頭)라고 불릴 수가 있나요 ?"

이막수는 이때 이미 30 여 세였으나 내공이 심후하여 피부는 눈같이 희고 연하며, 얼굴에는 주름살이 하나도 없어 20 여 세 가량으로 보였다. 그녀는 평소 자신의 미모를 자부하였는데, 양과가 이처럼 면전에서 아첨하는 말을 듣고서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불진을 흔들었다.

"네가 나와 함께 농담이나 지껄이며 자칭 왕중양의 문인이라 하니 내 본래 마땅히 너를 고생시키다 죽여야겠지만, 네가 말을 잘 해 줬으니 단지 이 불진으로 약간 맛만 보여 주겠다."

양과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안 돼요, 안 돼 ! 저는 까닭 없이 후배와 다툴 수 없어요."

"죽음이 목전에 닥쳤는데 이놈이 아작도 농담을 하는 구나. 내가 어떻게 너의 후배란 말이냐 ?"

"나 사부는 중양진인이고, 그는 당신의 도사 노파와 동년배이니 내가 어찌 당신의 선배가 아니겠어요 ? 이같이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를 내가 어찌 속일 수 있겠어요 ?"

이막수는 미소지으며 홍릉파에게 말했다.

"다시 그에게 칼을 빌려 줘라."

"안 돼요, 안 돼 ! 나는....."

그가 미처 말을 다 마치기 전에 홍릉파는 칼집에서 칼을 끄집어 냈으나 치륵,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손에는 칼자루만 쥐어져 있고 칼날은 여전히 칼집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당황해 하다가 곧 깨닫는 바가 있었다. 아까 양과가 칼을 되돌려 줄 때 몰래 손을 써서 칼날을 비틀어 끊어서, 칼날이 간신히 붙어 있었는데 힘을 주어 칼을 끄집어 내자 곧 절단된 것이었다.

이막수는 안색이 변하였다.

"본래 나는 후배뻘 되는 젊은 아가씨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나와 겨루자고 한 이상, 이렇게 합시다. 내가 빈 손으로 당신

의 불진을 세 동작에 막아 내도록 하죠. 우리 우선 말을 확실하게 해
듭시다. 세 동작을 넘겨서 당신이 받아 내기만 하면 당신이 길을 가게
내버려주죠. 단 세 동작을 넘기기만하면 당신은 나에게 다시는 공격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때요 ?"

형세를 보고는 손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양과는 진짜 실력을
겨루면 절대 그녀의 적수가 수 없음을 알고 오히려 노련하게 선배
로 가장하여 그녀로 하여금 세 동작을 넘긴 뒤, 네번째 동작의 공격을
못 펼치도록 강요함으로써 칼을 쓰나 안 쓰나 어차피 그녀의 상대가
안 되는 자신을 그녀의 그 무서운 불진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계략이었
다.

이막수가 어찌 그의 의도를 모르겠는가.

(이 어린 놈이 나의 세 동작을 받아 내겠다고 ?)

"좋아요 선배님, 그럼 어디 한번 후배를 지도해 주시죠 !"

"별 말씀을..... !"

돌연 누런 물체가 움직이기에 바라보니, 앞뒤가 모두 불진의 그림자
였다. 이막수의 첫 동작은 무공불입(無孔不入)이라는 것으로서 적의
몸 주변에 있는 경골을 찢러 가는 것이었다. 비록 한 동작이라고는 하
나 변화무쌍하여 그 한 동작에 수십 동작이 포함되어 있으니, 동시에
적의 몸의 곳곳의 대혈(大穴)을 찢러 들어갔다. 그녀는 양과가 두 거
지와 싸울 때 그 검법이 정묘하고 비범한 것을 보았기에 세 동작 내에
그에게 상처를 입히기가 쉽지 않자 평소 가장 좋아해 온 삼무삼불수
(三無三不手)를 능숙하게 펼쳤다.

이 세번째 동작은 그녀가 창안한 것으로 소용녀조차도 아직 보지 못
한 것이었다. 양과는 깜짝 놀라 펄쩍 뛰었다. 이 동작은 실로 막은 수
없는 동작으로 왼쪽으로 피하면 오른쪽 혈도를 찢리고, 앞으로 피하면
뒷면의 혈도가 부상을 입게 되니, 무공이 이막수보다 한참 위인 고수
가 매서운 동작으로 정면에서 찢러 들어가야만 가까스로 그녀의 불진
을 되돌리게 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양과는 이러한 무공

을 지니고 있지 않았으므로 급한 김에 돌연 공중제비를 넘으며 머리와 다리를 거꾸로 해 구양봉이 전수해 준 무공이 경맥역행(經脈逆行)을 운행하여 전신의 혈도를 힘껏 봉쇄했다. 무수한 혈도가 동시에 마비되는 듯 하다가 곧 나아졌다. 그는 몸을 급히 되돌려 거꾸로 서서는 발을 날려 찼다.

이막수는 이미 그의 혈도가 여러 군데 적중된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그가 여전히 반격을 해 오자 몹시 놀라 무소부지(無所不至)의 한 동작을 펼쳤다. 이 동작이 적중한 곳은 그의 몸에 있는 여러 군데의 편문혈도(偏門穴道)였다.

양과는 머리로써 몸을 지탱하며 왼손을 뻗쳐서 손가락을 펴서 그녀의 우측 무릎에 있는 위중혈(中穴)을 찔렀다. 이막수는 더욱 놀라면서 급히 몸을 피해 삼무삼불수(三無三不手)의 세번째 동작인 무소불위를 펼쳤다.

이 동작은 다시 혈을 찌르지 않고 오로지 눈 목 아랫배 아랫도리 등 인체의 연약한 곳만을 공격함으로써 무소불위라 불리는 것으로 아주 매서운 동작이었다. 그녀가 이 동작을 익힐 때 어찌 머리를 땅에, 다리를 하늘로 향하고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랴. 급히 한 동작을 펼쳐 평소 익숙하게 연습한 대로 적의 몸의 각 부위를 찌르니, 눈을 공격하면 발등에 맞고, 목을 공격하면 종아리에 맞고, 아랫배를 공격하면 발등에 맞고, 목을 공격하면 종아리에 맞고, 아랫배를 공격하면 넓적다리에 맞고, 아랫도리를 공격하면 가슴에 맞는 등, 약한 곳을 공격하면 단단한 곳에 부딪치니 조금도 효과가 없었다.

이막수의 이번 놀라움은 정말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적지 않은 싸움을 해 오면서 무공이 그녀보다 뛰어난 사람도 만난 적이 있었지만 미리 적을 상세히 예측하여 혹은 치고, 혹은 막고, 공격하고, 피하는 등 항상 대책이 서 있었다. 그러나 이 어린 도사가 이같이 불가사의한 무공을 지니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잠시 멍청하게 서 있는 판에 양과가 갑자기 입을 벌려 그녀의 불진 끝

을 물고는 몸을 뒤집어 바로 섰다. 이막수의 손끝이 한 번 떨어지더니
그에게 결국 불진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때 제 2차 화산논검(華山論劍) 때에 구양봉은 경맥을 역운하여 황
약사의 손가락을 물어 뜯음으로써 하마터면 그의 생명을 빼앗을 뻔한
적이 있었다. 대개 경맥을 역운할 때에는 입술로 기를 보내어 입을 펼
치고 모으고 하기 때문에 자연히 사람을 물어뜯으려는 생각이 들게 된
다. 한 사람의 온힘이 이빨의 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
의 이빨로써도 호도를 부술 수 있지만 대역사(大力)의 손힘으로도
호도껍질을 깰 수가 없는 이치가 그것이다. 양과의 내력이 이막수에
한참 못 미치지만 이빨로 불진을 뿔으로써 결국 그녀가 10여 년 동안
써 오면서 명성을 떨친 병기를 빼앗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다가 홍릉파와 옥무쌍은 동시에 고함을 질
렀다. 이막수는 비록 수상쩍게 생각했으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서 두 손을 가볍게 쥐고 적련신장(赤練神掌)을 펼쳐 그녀의 불진을 빼
앗으려 공격해 들어갔다. 그녀가 일장을 막 공격해 들어가려 하다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아니, 이제 보니 바로 네놈이구나 ! 네 사부는 어떻게 됐느냐 ?"

원래 양과는 얼굴에 진흙을 발랐으나 거꾸로 몇 번 회전하는 바람에
진흙이 벗겨져서 반쯤 얼굴이 노출된 것이다. 홍릉파도 옥무쌍을 알아
보고 고함쳤다.

"사부님, 바로 사매(師妹)입니다."

그동안 옥무쌍은 줄곧 이막수나 홍릉파를 정면으로 대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이때 양과와 이막수가 싸우는 것을 정신을 집중해 관전하느
라 홍릉파의 시선을 피하는 것을 잊은 것이다.

양과는 왼발을 차서 이막수의 당나귀로 몸을 날리며 동시에 왼손을
뻗겨 옥봉침 한 개를 홍릉파가 타던 당나귀의 머리를 향해 날렸다.

이막수는 크게 노하여 몸을 날려 양과를 찔러 들어갔다. 양과는 몸
을 앞으로 하여 안장에서 떨어진 다음 불진자루를 거꾸로 뒤집어 팍,

하는 소리를 내며 당나귀의 머리를 쳐서 뇌수가 튀어나오게 한 뒤 크게 고향을 질렀다.

"색시, 빨리 신랑을 따르시오."

몸을 말등에 내려놓으며 뒤를 향해 불진을 휘둘렀다. 육무쌍은 즉각 나귀를 몰아 질주했다. 이막수는 경곡을 펼쳐 1, 2 리(里)내에서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지만 방금 양과의 괴상한 동작에 놀라서 감히 가까이는 접근을 못 하였다. 단지 소금나수(小擒拿手)를 펼쳐 불진을 되찾기 위해 네번째 동작을 써서 왼손의 세 손가락을 불진의 실오라기에 미치게 하여 손을 뒤집고 꼭 잡아당기니, 양과는 움켜잡지 못하고 이막수에게 불진을 건네 주고 말았다.

홍릉파가 탄 나귀의 머리에 옥봉침이 적중하자 나귀가 발광하더니 이막수를 향해 맹렬히 전진해서 입을 벌리고 크게 물었다.

"홍릉파, 어찌 된 일이나?"

"나귀가 고집을 부립니다."

힘껏 고삐를 조이며 잡아당기니 나귀의 입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다. 곧 나귀의 네 다리에서 힘이 빠지더니 몸을 뒤집고 죽고 말았다.

"사부님, 쫓아잡시다."

그러나 이때 양 육 두 사람은 이미 반 리 밖까지 질주하여 더 이상 쫓아갈 수 없었다.

육무쌍은 양과와 더불어 한참 나귀를 몰다가 고개를 돌려 사부가 더 이상 추격하지 않음을 보고는 말하였다.

"바보야, 가슴이 몹시 아파 더 이상 못 건디겠어."

양과는 말등에서 내려 귀를 땅에 대자 발굽소리가 들리지 않는게,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음을 알았다.

"걱정하지 마, 천천히 가자."

두 사람은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육무쌍은 크게 한숨을 쉬었다.

"바보야, 어떻게 우리 사부가 불진마저 너에게 뺏기게 되었지?"

"내가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지. 그래서 그녀의 마음이 잠시 즐거웠을 때 나에게 불진을 빼앗겼지. 이 어르신네는 그 독한 아가씨의 물건이 갖기 싫어 도로 돌려주었어."

"흥, 그녀가 왜 잠시 즐거워했지 ? 네가 잘 생겼다고 생각한 모양이지 ?"

그녀는 이 말을 하면서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내가 바보처럼 보이니까 재미있어서였겠지."

"흥, 재미있다고 ?"

두 사람은 한참을 가다가 이막수가 추적해 올까 두려워서 또 다시 나귀를 몰아 질주했다. 그런 식으로 한참은 빨리, 한참은 느리게 하면서 색시, 생명을 보전하고 싶으면 상처가 좀 아픈 정도는 꼭 참고 밤새 달려야 해 !"

"다시 한 번 그딴 허튼 소리를 하면, 상대해 주나 봐라."

양과는 혀를 내밀며 말했다.

"나귀를 오래 탔더니 피곤해서 밤새 달리다간 아깝게도 늘어서 죽겠군."

이때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며 앞에서 멍렬한 말울음소리가 들렸다.

양과는 기뻐서 말했다.

"우리 말을 바꾸러 가자."

두 사람이 나귀를 재촉해 앞으로 1리 정도 나아가자 어떤 집 앞에 말 1백여 필이 매여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아까의 몽고기병 무리들의 말이었다.

"넌 여기서 기다려. 내가 들어가서 살펴볼 테니까."

양과는 즉시 나귀에서 내려 마을로 들어갔다. 큰 집의 창에서 등불이 새나오는 것을 보고 양과가 창 밑에 몸을 숨겨 안을 들여다보니 한 몽고 관원이 창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양과는 생각했다.

(말을 바꾸는 것보다 사람을 바꾸는 게 낫지.)

잠시 후, 그 몽고 관원이 일어서서 방안을 이리저리 거니는 게 보였

다. 그 사람은 20 세가 안 되어 보였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그 금포의
관원임에 틀림없었다. 게다가 행동거지나 풍채 매우 좋은 것이 관직이
낮지는 않아 보였다.

양과는 그가 등을 돌리기를 기다려 창틀을 살며시 떼어 내고는 몸을
비스듬히 해 들어갔다. 그는 등뒤의 바람소리를 듣고는 별안간 한 걸
음을 내디디며 흔들면서 몸을 돌렸다. 순간 열 손가락을 매 발톱 모양
으로 하고 맹렬하게 찔러 왔으니, 이것이 바로 매서운 대력응조공(大
力應爪功)이 몽고 관원이 무공을 지녔으리라고는 생각
지 못한 터라 약간 당황했으나 곧 몸을 비스듬히 해 그의 쌍수를 피했
다. 그 관원은 계속해서 할퀴어 들어왔으나 양과는 모두 가볍게 물리
쳤다.

그 관원은 계속해서 할퀴어 들어왔으나 양과는 모두 가볍게 물리쳤
다.

그 관원은 어렸을 때 응조문(응爪門)의 명사에게 전수를 받아 무공
이 웬창다고 자부해 왔는데 양과와 몇 동작 맞붙자 결국은 조금도 손
을 놀릴 수 없게 되었다. 양과는 그가 또 쌍수를 사납게 꽂아 오는 것
을 보고 돌연 뛰어올라 왼손은 그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은 그의 오른
쪽 어깨를 누르고는 내력을 양어깨에 집중시키며 고했다.

"앉아라 !"

그 관원은 두 무릎에 힘이 빠져 땅 위에 주저앉으며 온 가슴의 피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양과가 손을 뺀어 그의 유하혈(乳下穴)을 몇 번 주무르자 그 관원은
가슴이 느슨해지면서 숨을 내쉬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일어나 양과를 두려운 모습으로 쳐다보고는 잠시 후 입을 열었
다.

"당신은 누구신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

이 한마디의 말은 어조가 매우 매끄럽게 들렸다.

양과가 웃으면서 물었다.

"당신은 이름이 뭐요 ? 어떤 관직을 맡아 보고 있소 ?"

그 관원은 노란 눈을 둥그렇게 부릅뜨며 또 공격하려 했다. 양과는 그를 상대하지 않으면서 그가 조금 전에 앉았던 의자에 가서 앉았다. 그 관원은 양어깨를 아래위로 흔들면서 맹렬히 공격해 왔으나 양과는 밀어서 떼어내며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그의 공격을 저지시켰다.

"이봐, 당신의 어깨는 부상을 입었으니 힘을 안 쓰는 게 좋을 걸 !"

"무슨 부상을 입었던 말이냐 ?"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만져 보니 은근한 통증이 있어, 급히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만졌더니 마찬가지로 같은 곳에 통증이 느껴졌다. 이 두 곳은 조금 전에 부딪친 곳도 아니어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손가락으로 눌러 보니 아주 깊은 곳의 뻗속까지 아파 왔다. 관원이 크게 놀라 급히 의복을 잡아 찢고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왼쪽 어깨 위에 침구멍만한 흠지비 있었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상대방이 방금 그의 어깨를 누를 때 즉시 암기를 감추었다. 그를 공격한 것을 알고는 고함을 질렀다.

"어떤 암기를 사용했느냐 ? 독이 있는 것이냐 ?"

"무예를 배웠다는 사람이 어찌 이런 규칙도 모른단 말이오 ! 큰 암기는 독이 없고, 작은 암기는 자연히 자연히 독이 있소."

그 관원은 마음속으로는 거의 이 말을 믿었으나 겉으로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단지 말로만 겁주는 것이기를 바랐다.

"당신 어깨에 내 신침이 적중했으니 독기가 매일 1촌씩 뻗어나가 옛새를 못 넘겨 독기가 심장까지 뻗어 곧 죽게 될 것이오."

그 관원은 속으로는 살려 달라고 빌고 싶었으나 차마 입을 못 열고 있다가 헛김에 소리쳤다.

"이렇게 된 이상, 어봐 함께 죽어야겠다."

몸을 비스듬히 해 공격해 들어왔다. 양과는 급히 몸을 피하면서 양손에 각각 1개의 옥봉침을 지니고 그가 다시 손을 들어 할퀴려 하자 두 손을 뻗어 2개의 옥봉침을 각각 그의 손바닥에 꽂았다. 2개의 옥봉

침에 관원은 통증을 느끼고 즉시 발을 멈춰 서서 손을 들어 가느다란 침을 보고는 두 손이 마비됨을 느꼈다. 그는 놀라서 다시는 곧세게 나서지 못하고 잠시 후 말했다.

"내가 졌다고 하자."

양과는 히하, 웃으면서 물었다.

"당신 이름이 뭐요 ?"

"야율진(耶律晉)이라 합니다. 영웅의 높으신 존함은 어떻게 됩니까 ?"

"나는 양과라 하오. 당신은 몽고에서 어떤 관직을 맡아 보오 ?"

원래 그는 몽고의 대승상인 야율초재(耶律楚材)의 아들이었다. 야율초재는 징기스칸과 와활태(窩闊台)를 도와서 사방을 평정한 공이 매우 커, 나이 어린 그의 아들 야율진으로 하여금 벌써 변량경략사(변 梁經략使)가 되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 남하해 하남(河南)의 변량(변梁)에 취임하게 된 것이다.

양과는 변량경략사가 어떤 관직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좋아 !"

"본인은 어리석어서 어떻게 영웅에게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양영웅께서 뭐든지 시키실 일이 있으면 분부만 내려 주십시오."

양과는 웃으면서 말했다.

"죄는 무슨 죄를 지었던 말씀이오 ?"

말을 마치자 돌연 몸을 내밀어 창 밖으로 뛰쳐 나갔다. 야율진은 크게 놀라 급히 고함쳤다.

"양영웅..... !"

급히 창가에 다가가서 보니 양과는 이미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야율진은 놀라움과 의심이 가라앉지 않았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와서 갑자기 가 버렸으니 내 몸에 맞은 독침을

어찌해야 종단 말인가 ?)

급히 손바닥에 박혀 있는 침을 뽑으니 어깨와 손바닥이 점점 마비되면서 간지러워 견디기 힘들었다.

마음이 마구 어지러울 때 창틀이 움직이더니 양과가 한 소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서는데, 바로 육무쌍이었다.

"아, 돌아오셨군요 !"

"이 여자는 내 아내이니, 이 사람에게 절을 하도록 하시오 !"

육무쌍이 고함쳤다.

"무슨 소리야 ?"

손을 뒤집어 한 번 올려쳤다. 만일 양과가 피하려고 했다면 그녀가 어떻게 양과를 건드릴 수나 있겠는가 ? 어찌 된 일인지 그녀가 한 번 때리면서 옷을 해 대면 아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양과는 피하지 않고 서 있다가 철썩, 하는 소리를 내면서 이마에 후끈하게 한 대 얻어맞고 말았다.

야율진은 두 사람만 평소 장난치는 게 습관이 된 줄은 모르고 단지 육무쌍의 무공이 양과보다 강한 줄로만 알고 멍청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소리도 내지 못하였다. 양과는 그녀한테 얻어맞은 이마를 문지르며 야율진에게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이 나의 신침에 중독되었지만 일각에 죽는 것은 아니요. 말만 잘 들으면 내 치료해 드릴 수 있소."

"본인은 평소에 영웅 호걸을 우러러보았으나 여지껏 진정 재능있는 분을 못 뵈었는데 오늘 이렇게 고귀한 분을 알게 되니 정말로 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양영웅이 비록 저를 살려주지 않더라도 저는 눈을 감고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신분을 높이면서, 동시에 상대에게 아첨하는 말이었다.

양과는 여지껏 관리들과 교제해 본 적이 없어서 관리들의 가장 큰 일이 바로 상사에게 아첨하는 것이며, 관리노릇에 정통하면 할수록 그

아부하는 게 남에게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 몽고의 관원은 본래 거칠고 꾸밈이 없었는데, 중원에 진입한 이후 점차 중국의 악습에 물들었다. 양과는 그가 몇 마디를 칭찬하자 곧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그를 칭찬했다.

"당신은 매우 기개 있는 사나이군요. 즉시 치료해 주겠소."

양과는 곧 자석을 써서 어깨에 박힌 2 개의 옥봉침을 뽑아 내고는 다시 그의 어깨와 손바닥에 해약을 발라 주었다.

육무쌍은 여태 옥봉침을 못 보았는데, 이때 2 개의 침의 가늘기가 머리카락 같아서 물 위에 놓아도 뜰 것 같은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침이 날아갈 텐데, 어떻게 암기로 쓸 수 있단 말인가 ?)

양과에 대해 탄복하는 마음이 저절로 깊어 갔으나 오히려 말은 거칠게 했다.

"이런 흉악한 암기를 쓰는 것은 남자의 기개라곤 조금도 없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는 게 두렵지도 않아요 ?"

양과는 육무쌍의 힐책에는 상관하지 않고 웃으면서 야율진에게 물었다.

"우리 두 사람은 대인에게 의지하여 시종이 되고자 하오."

야율진은 매우 놀랐다.

"농담도 잘 하십니다. 분부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대인의 시종이 되고자 합니다."

(이제 보니 이 두 사람은 벼슬아치가 되려 하는 천한 출신이구나 !)

야율진은 자신도 모르게 즉시 빠기면서 기침을 한 번 하고는 정색을 했다.

"흠, 일신의 무예를 익혔으면 제왕을 위해 바치는 게 바로 올바른 길이지요."

"당신이 잘못 생각하셨소. 우리는 아주 무서운 원수가 있는데 줄곧

뒤에서 우리를 추격하고 있소. 우리는 그녀와 싸울 수가 없어 당신의 시종으로 가장하여 잠시 몸을 감추고자 하오."

야율진은 매우 실망하였으나 어색한 표정을 다시 너그럽게 고치면서 따라 웃었다.

"두 분의 이 정도의 무공이 어찌 하찮은 원수에게 적합하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강하다면 본인의 병사들을 풀어서 그들을 처치하도록 하면 됩니다."

"나조차도 그녀를 치지 못하는데 대인께서 굳이 수고하실 필요는 없소이다. 빨리 시종에게 분부해 우리가 갈아입을 옷을 가져오도록 해 주시오."

그는 이 몇 마디의 말을 매우 가볍게 하였지만 말투 가운데 위엄이 서려 있어 야율진은 연방 <예예> 하며 시종에게 명하여 옷을 가져오도록 했다. 양 육 두 사람은 옆 방에 가서 옷을 갈아입었다. 육무쌍이 거울을 들어 비추어 보니, 거울 속에 금포 입은 사람이 서 있는데 맑은 눈동자와 흰 이빨을 하고 있어 버젓한 미모의 소년 몽고군관으로 보여 매우 재미있게 느껴졌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들은 출발하였다. 양과와 육무쌍은 각각 가마꾼이 둘러멘 가마를 타고, 야율진은 여전히 말을 탔는데 정오가 못 되었을 때 말고삐에 맨 방울소리가 먼 곳에서부터 가까이 은은히 다가와서는 일행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 가마 안에서 편안하게 상처를 치료하니 정말 더 할 나위 없이 좋구나. 바보가 생각해 낸 방법이 아주 쓸 만하군. 이런 식으로 강남까지 메고 가도록 해야겠구나.)

그런 채로 이틀을 더 가자 더 이상 말고삐의 방울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생각컨대 이막수는 계속 쫓아 내려가서 다시는 되돌아 올 것 같지 않았다. 육무쌍에게 복수하려는 도사들이나 개방 사람들도 그녀의 종적을 찾지 못했다.

3 일째 되는 날, 일행은 진(秦)과 변(변) 사이에 있는 교통요지이며

매우 번창한 도시인 용구채(龍駒寨)에 도착했다. 저녁을 들고 나서 야울진은 양과의 방으로 건너가 양과를 살살 꺾어 기분 좋게 아침하면서 무술을 가르쳐 주기를 청했다. 양과는 되는 대로 한두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야울진이 정신을 집중하여 경청하려 할 때 시종 하나가 총총 걸음으로 방으로 들어와 말했다.

"대인께 아뢰입니다. 수도의 노대인께서 서신을 보내셨습니다."

"좋아, 내 곧 가지."

막 몸을 일으켜 양과에게 사과하고 자리를 뜨려다가 야울진은 문득 생각을 다시 했다.

(내 이곳에서 서신을 받아 봄으로써 그들을 조금도 소홀히 대접하지 않음을 보여야겠다. 그렇게 하면 그가 나에게 무공을 가르쳐 줄 때 필히 전력을 다할 것이 아닌가.)

"그를 이곳으로 들라 해라."

그 시종은 얼굴에 이상한 기색을 띠며 말했다.

"그게....., 그러나....."

야울진은 손을 휘두르며 말했다.

"그 편지를 갖고 온 사람을 빨리 데려와라 !"

"노대인께서 직접....."

야울진이 성난 모습을 하며 말했다.

"귀찮게 하지 말고, 어서 분부대로 해라."

말을 미처 마치기도 전에 돌연 문이 열리더니 한 사람이 웃으면서 들어왔다.

"진야, 내가 올 줄은 생각 못 한 모양이구나 !"

야울진이 바라보더니 한편으로는 놀라고 하년으로 기뻐하며 급히 서둘러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어떻게 아버지께서.....?"

"그래, 내가 직접 왔다."

그 사람은 바로 야울진의 부친인 몽고국 대승상인 야울초재였다. 당

시 몽고의 관제로는 중서령(中書令)이라 불리었다.

양과는 야율진이 그 사람을 부친이라 부르는 것을 듣고는 이 사람의 권세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대와 바로 아래에서 만백성 위에 군림하는 가장 권세있는 대승상임을 모르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나이가 별로 많아 보이지도 않고 용모가 우아하며 위엄 중에 자비스러움이 스며 있음을 보고는 마음속에 저절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 사람이 막 의자에 앉자마자 문 밖에서 또 두 사람이 들어서서 앞으로 나서더니 야율진에게 예를 올리면서 그를 큰 형이라 불렀다. 이 두 남녀는 남자가 23,4 세 정도이고, 여자는 양과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다. 야율진이 기뻐하며 말했다.

"오 ! 내 동생과 누이, 너희들이 왔구나 !"

부친에게 말했다.

"아버님께서 서울을 떠나셨다는 걸 저는 조금도 몰랐습니다."

야율초재가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큰일이 하나 있는데 만약 내가 직접 와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어서 왔단다."

그는 양과 등의 무리와 시종들을 한번 쳐다보고는 그들이 나가 주었으면 하는 눈치를 보였다.

야율진은 입장이 매우 난처하게 되었다. 손을 저어서 시종들을 내보내려 하였으나, 양과에게 다시 실례를 범하게 될까 자신도 모르게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양과는 그의 마음을 알아채고는 웃으면서 스스로 밖으로 나갔다.

야율초재는 양과의 태도가 이상함을 즉시 눈치챘다. 자기가 방에 들어올 때 다른 시종들은 모두 엎드려 인사를 했는데 이 한 사람만이 몸을 꼴꼴이 세워 서 있다가 이때 홀연히 나가는 등 어딘지 모르게 으스스대는 품이 몹시 궁금하여 야율진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구냐 ?"

야율진은 개부건절(開府建節)의 봉강대리(封疆大吏)로서 만약 동생

과 누이의 면전에서 양과의 내력을 직접 말하면 체면이 서지않는 일이라 애매모호하게 적당히 둘러 댔다.

"제가 노상에서 우연히 알게 된 친구입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무슨 일로 이렇게 친히 남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야율초재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한숨을 쉬고 나서, 천천히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했다.

몽고국의 대한(大汗) 징기스칸[成吉思汗]이 세상을 뜬 이후에 세째 아들 와활태(窩闊台)가 그 자리를 계승했다. 와활태도 13년 간 대한의 자리를 지키다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귀유(貴由)가 한위(汗位)를 이었다. 귀유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술주정만 하다가 3년만에 죽었다. 이에 귀유의 황후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소인배를 신임하여 선대의 대장과 대신들을 배척하여 조정은 매우 혼란스러워졌다. 재상 야율초재는 3대에 걸친 원로이며 개국공신으로 황후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때때로 충언과 직간(直諫)을 하곤 했다. 황후는 그가 항상 자기의 뜻에 거슬리는 것을 보고는 번번이 노기가 치밀었으나 그의 지위가 높고, 언행 또한 이치에 틀리지 않는지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다. 야율초재는 자신이 황후의 미움을 받고 있어서 전가족의 생명이 풍전등화(風前燈火)에 이르자 위급함을 느끼고 곧 황후에게 <하남 지방이 평안치 못하여 대신을 파견하여 선무(宣撫)해야 된다>고 상주하면서 자신이 칙명을 받들어 기꺼이 가겠다고 했다. 황후는 크게 기뻐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멀리가면 갈수록 자신을 노하게 하는 일이 없어질 것임을 알고는 즉시 그것을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야율초재는 둘째 아들인 야율제(耶律齊)와, 삼녀 야율연(耶律燕)을 거느리고 즉시 하남으로 오게 된 것이다.

양과는 자신의 거실로 돌아와 육무쌍에게 농담을 걸었으나, 그녀는 머리를 돌리고는 상대를 해 주지 않았다. 양과는 그녀를 몇 번 더 집적거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즉시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용공을 하기 시작했다.

육무쌍은 양과가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반나절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자 말을 걸었다.

"이봐, 바보야 ! 어떻게 이런 판국에 용공을 하고 있는 거냐 ?"

아무런 대답이 없자 육무쌍은 화를 냈다.

"용공이 급한 것도 아닐 텐데 어디 나와 함께 얘기 좀 하지 않을래 ?"

육무쌍이 막 그에게 손을 뻗으려 할 때 양과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낮은 소리로 말했다.

"지붕 위에서 누군가 우릴 엿보고 있어 !"

육무쌍은 아무런 소리를 못 들은지라 머리를 들어 지붕을 한 번 쳐다보고는 중얼거렸다.

"너 또 사람을 속이는구나."

"여기가 아니라 저쪽의 집 밖이야."

육무쌍은 더 이상 양과의 말을 믿지 않고 웃으면서 낮은 소리로 그를 욕했다.

"바보 같으니라고....."

그녀는 그가 바보인 양 농담하는 줄로 알았다.

양과는 그녀의 옷소매를 잡아끌었다.

"혹시 너의 사부가 찾아온 것인지도 모르니 우리 우선 숨도록 하자."

육무쌍은 <사부>라는 말을 듣자 즉시 식은 땀을 흘리면서 그와 함께 창가로 다가갔다. 양과가 가리키는 서쪽을 육무쌍이 머리를 들어 쳐다보니 과연 두 집 건너 지붕에 시커먼 그림자가 엮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이때는 마침 그믐께라 별빛마저 없어 정신을 집중시켜 보지 않으면 정말로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속으로 감탄했다.

(이 바보가 어떻게 알아챘는지 모르겠군 !)

그녀는 지난날 사부가 지나가는 얘기처럼 한 말이 생각났다. 밤길에

는 누런색 도포를 입지, 결코 검은색 도포를 갈아입으면 안된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양과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우리 사부가 아니야."

막 말을 마치는 순간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돌연 지붕에서 몸을 일으켜 몸을 날렸다. 그는 야율 부자(父子)가 있는 방의 창틀을 발로 건너차면서 칼을 들고 창문으로 뛰어들었다.

"야율초재 !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죽어야 하겠다."

가만히 들어 보니 여자의 목소리였다.

(이 여자의 몸놀림이 보통 빠른 것이 아니야. 무공이 야율진보다 한 수 위인 것 같구나. 아무래도 노인장의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겠는걸.. ..)

육무쌍이 급하게 소리쳤다.

"빨리 가 보자."

두 사람은 재빨리 달려가서 창 밖에 기대어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야율진이 절상을 들고 앞뒤를 가로막으며 그 검은 옷을 입은 여자와 싸우는 것이 보였다. 여자의 나이는 매우 어려 보였으나 칼을 쓰는 것이 매서웠다. 그녀가 예리한 유엽도(柳葉刀)를 연이어 휘두르자, 절상의 네 다리가 다 베어져 나갔다. 야율진은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아버님, 빨리 피하십시오 !"

또 고함을 질러 댔다.

"아무도 없느냐 ?"

소녀가 갑자기 발을 나려서 야율진의 허리를 차자 야율진은미처 막지 못하고 땅에 엎어지고 말았다. 소녀는 그 기세로 한 걸음 나서더니 칼로 야율초재를 향해 찔러 들載T裏

(그러면 안 되지 !)

양과는 일단 사람을 구해 놓고 보자는 생각으로 수중에서 옥봉침 하나를 움켜쥐고 막 그 소녀의 손목 위로 날리려 했다. 그때 야율초재의

딸인 야율연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무례한 짓 하지 말아라 !"

야율연은 오른쪽 손바닥으로는 그 소녀의 얼굴을 찌르며, 왼손으로는 공수탈백인(空手奪百刃)의 수법으로 그녀의 칼을 빼앗으려 하였다. 이 두 공격은 매우 교묘하게 어우러져서, 소녀는 머리를 비스듬히 하여 손을 피하려 하였으나 이미 손목이 야율연에게 잡힌 뒤였다. 급한 김에 그녀는 발을 날려 야율연으로 하여금 부득불 후퇴하게 해 단도가 빼앗기는 것을 간신히 모면했다. 양과는 이 두 소녀의 동작이 모두 민첩함을 보고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두 사람은 이미 베고 찌르고 하면서 몇 동작을 겨루었다.

이때 문 밖에서 10 여 명의 병사들이 몰려와서는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앞으로 다가가려 했다.

"멈춰라, 내 누이는 어희들의 도움이 필요없다 !"

양과는 육무쌍에게 속삭였다.

"색시, 이 두 소저의 무공이 당신보다 훌륭한데 !"

육무쌍은 크게 노하여 몸을 비스듬히 해 일격을 가했다. 양과는 웃으면서 가볍게 육무쌍의 손을 피했다.

"흥분하지 마 ! 사람들 싸움이나 구경하는게 훨씬 낫지."

"그럼 나에게 사실대로 말해 봐. 도대체 내가 센지 아니면 그들이 더 센지를 ?"

"하나씩 놓고 보면 이 두 소저는 색시에게 미치지 못해. 색시 혼자 저들 두 명과 싸운다면, 단지 무공으로만 따지면 당신이 곧 지겠지. 그렇지만 그들의 동작은 너무 순진해서, 색시의 다양한 간계와음험하고 매서운 지략에는 미치지 못할 테니 결국은 색시가 이기겠지 !"

육무쌍은 마음속으로 무척 기뻐다.

"무슨 다양한 간계니, 음험이니 그래 ? 듣기 곤란하게 말야. 간계의 다양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 바보를 못 따라올 텐데....."

양과는 썩곳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색시는 어찌 바보 아가씨가 아니지 ?"

육무쌍은 가볍게 침을 한 번 탁 뱉었다.

두 여자의 싸움은 계속되었다. 야율연은 무기가 없는지라 몇 번이나 상대방의 유연도를 뺏으려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오히려 이쪽저쪽으로 몰려서 반격을 못 하고 있었다.

"비켜 서라, 누이야 ! 내가 한 번 해 보마 !"

야율제가 몸을 비스듬히 하여 쳐들어가며 오른손으로 세 가지 동작을 펼쳤다.

야율연은 벽으로 물러서며 말했다.

"좋지요. 구경해 볼까요."

양과는 야율제가 세 동작을 펼치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놀랐다. 그는 왼손을 허리에 꽂고는 오른손은 뻗고 당기고 하면서 발걸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 소녀의 단도에 대항하는데 그 동작이 매우 세밀하고 정확하여 평범하지 않았다.

(이 사람의 무공이 매우 훌륭하구나, 전진파의 무공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데 ?)

"바보야, 저 사람의 무공이 너보다 훨씬 강한 것 같구나."

육무쌍의 이 말을 양과는 듣지 못했다.

*** 가는 곳마다 미녀 ***

야율제가 말했다.

"연아, 자세히 봐라. 내가 그녀의 비유혈(臂儒穴)을 치면 그녀는 분명히 비스듬히 물러서며 피할 것이야. 이어서 그녀의 거골혈(巨骨穴)을 공격하게 되면 그녀는 부득불 칼을 들어올리게 될 거다. 그때 신속하게 손을 쓰면 그녀의 칼을 능히 빼앗을 수 있게 되지."

검은 옷의 소녀가 성을 내며 말했다.

"흥, 그렇게 쉽게는 안 될걸 !"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야율제가 말하면서 우장으로 그녀의 비유혈을 쳤다. 이 일장은 비스듬히 뺀어 나가 그녀의 전후좌우의 출도를 모두 봉쇄해 버렸다. 단지 좌측 후방의 사각(斜角)에 빈틈이 있을 따름이었따. 소녀는 그의 일장을 피하기 위해서 비스듬히 두 걸음을 물러서야 했다.

야율제는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정말 그녀의 거꿀혈을 공격했다. 그 소녀는 마음속으로 <절대로 칼을 들어올리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으나 사태가 급박해져 하는 수 없이 칼을 들어올려 연속적인 공격을 막아 내야만 했다. 오래 지체할 수 없으므로 바로 칼을 들어올려 내려칠 자세를 취했다.

야율제가 말했다.

"그 다음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람들은 모두 그가 손을 뺀어 소녀의 칼을 빼앗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두 손을 맞잡아 소매 속에 집어넣었다. 그녀는 그가 두 손을 소매 속으로 감추는 것을 보고서는 망연해져 있었다. 순간 야율제가 오른손을 쥘싸게 뺀어 두 손가락으로 칼등을 잡아당기자 그 소녀는 견뎌 내지 못하고 칼을 그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사람들은 이러한 신기에 가까운 행동을 보자 일순 멍하니 있다가 모두들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소녀는 낭패스런 표정으로 멍하니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했다.

(그가 그녀를 잡아채지 않은 것은 분명 그녀를 봐 준 것인데, 저 소녀는 냉큼 사라지지 않고 또 뭘 기다리고 있지 ?)

야율제가 서서히 뒤로 물러서며 야율연에게 말했다.

"그녀도 무기가 없어졌으니 맘을 크게 먹고 다시 한번 해 봐라. 그녀의 장중퇴(掌中腿)를 조심해라."

야율연이 몇 걸음 다가섰다.

"완안평(完顏萍) ! 우리가 누차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도 너는 한결

같이 달려드는구나. 설마 오늘은 체념한 것이 아니겠지 ?"

완안평은 고개를 떨군 채 대답을 못 했다.

"네가 기왕 나와 승부를 내기로 했다면 어서 빨리 손을 써라 !"

야율연이 말하면서 두 차례 주먹을 날렸다. 완안평이 뒤로 피하며 쓸쓸하게 말했다.

"칼을 돌려다오."

야율연은 순간 생각했다.

(오빠가 네게서 칼을 빼앗은 것은 맨손으로 둘이 겨루라고 그런 것인데 어째서 칼을 돌려달라는 것이냐 ?)

"좋다 !"

야율연은 오빠에게 유엽도를 건네 받아 그녀에게 던져 주었다. 병사 한 명이 단도를 건네 주며 말했다.

"아가씨도 무기를 쓰세요 !"

"필요없어 !"

그러나 그녀는 생각을 바꾸었다.

(무기로 겨뤄야지, 빈 손으로는도저히 그녀를 이길 수 없다.)

칼을 받아 허공을 두 차례 갈라 보았다. 다소 무거운 듯했지만 그런 대로 쓸 만했다.

완안평의 얼굴빛이 창백해졌다. 왼손으로 칼을 잡고 오른손으로 야율초재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야율초재, 너는 몽고인과 협잡해 우리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했다. 오늘 살아서 네게 복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저 세상에 가서 빚을 갚겠다. !"

말을 마치자 완안평은 왼손의 칼로 목을 내리쳤다.

양과는 그녀의 처절한 말을 듣자, 심장이 뛰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순간 실성한 듯 소리쳤다.

"아가씨 !"

이 순간, 야율제는 급히 오른손을 내뻗어 그녀의 유엽도를 빼앗으며

그녀의 혈도를 찔렀다.

"까닭도 없이 자살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

그녀가 자살하려고 칼을 내리친 것과 야율제가 손을 뻗어 칼을 빼앗은 것 모두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칼이 다시 야율제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것을 사람들은 확실히 보았다.

이때 실내의 사람들이 모두 탄복을 하는 통에 양과가 <아가씨 !>하고 소리친 것을 아무도 듣지 못했다. 육무쌍만이 그의 곁에서 그 소리를 확실히 들을 수가 있었다.

"뭐라구 ? 저 여자가 너의 아가씨란 말이나 ?"

양과가 급히 말했다.

"아니, 아, 아니야 !"

그는 만사를 체념한 듯한 처연한 완안평의 눈망울을 보자 소용녀가 그와 이별할 때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그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잊은 채 그만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야율초재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완안평 ! 너는 벌써 세 차례나 나를 죽이려 했다. 나는 대몽고국의 재상으로 너의 대금국을 멸망시켰으며 너의 부모를 해치웠었지. 그러나 너는 우리 조상이 어떤 사람들에게 멸문의 화를 땅했는지 아느냐 ?"

완안평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야율초재가 계속 말했다.

"우리 조상은 대요국(大遼國)의 황족이었다. 대요국은 바로 너의 대금국에게 망하였지. 우리 대요국의 야율씨의 자손들은 너의 완안씨들에게 살륙되어 몇 남지 않게 되었지. 나는 어렸을 적부터 원수를 갚겠다고 결심했다. 그리하여 몽고의 징기스칸을 보좌해 너의 금나라를 멸망시킨 것이다. 아아, 원수는 원수를 낳는다더니 언제나 그 끝이 있을 것인가 ?"

말을 마친 야율초재는 창 밖을 바라보았다. 생각해 보면 몇몇 사람들이 오로지 제왕이 되기 위해 싸우는 바람에 온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시신들은 산을 이루었으며 그들의 피는 강을 이루지 않았는가 !

완안평은 아무 소리도 없이 하얗게 빛나는 이빨로 윗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세 차례나 복수에 실패한 것은 다만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따름이다. 이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데 도대체 무슨 상관이나 ?"

야율제가 말했다.

"이후로는 다신 복수하지 않겠다면 지금 바로 떠나시오 !"

완안평이 <흥 !>하고 코웃음을 치며 쳐다보았다. 야율제는 유엽도를 돌려 칼자루로 그녀의 허리를 몇 차례 가볍게 쳐서 그녀의 혈도를 풀어 주고 나서 유엽도를 그녀에게 건네 주었다. 완안평은 받을까 말까 잠시 망설이다가 끝내 받아 들며 말했다.

"야율공자 ! 당신이 누차 온정을 베푸는 사실을 내 어찌 모른다 하겠어요 ? 다만 우리 완안씨 가문과 당신네 야율씨 가문 사이의 원한이 바다와 같이 깊으니 당신이 여하한 의협호걸이라 해도 우리 부모의 깊은 원한은 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율제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자는 끝내 원한을 풀지 않는구나. 그녀의 무예가 결코 약하지 않으니 아버지 곁을 조금도 떨어질 수가 없겠구나. 만약 뜻하지 않은 위험이 닥치면 어찌지 ? 그녀를 자극시켜 나를 상대하게 만들어야겠구나.)

이어 낭랑한 목소리로 야율제가 말했다.

"완안 아가씨. 당신이 부모님을 위해 복수하려는 생각은 정말 가상하오. 그러나 세대의 빚은 윗세대에서 끝내야 하는 것이오. 우리 세대에선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 있소. 우리 집안과 당신 집안의 원

한 관계는 나와 해결하면 될 것ियो. 만약 또다시 우리 아버님을 찾는다면, 그래서 이후로 아가씨를 만나게 되면 정말 대단히 곤란해질 것ियो."

"흥, 나의 무예는 당신에게 훨씬 못 미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복수할 수 있겠소 ? 집어치우시오, 알량한 소리일랑 !"

말을 마친 완안평은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섰다.

야율제는 그녀가 이렇게 가 버리면 또 자살을 기도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후하하, 완안가의 여자들은 기상을 다 버렸구나 !"

완안평이 순간 몸을 뒹 돌렸다.

"어째서 기상을 다 버렸다는 말ियो ?"

야율제가 냉소를 띠며 말했다.

"내 무공이 아가씨보다 높지. 그런데 그게 어쨌단 말ियो ? 그건 단지 내가 훌륭한 스승에게 지도를 받아서이지 결코 내가 남들보다 잘 나서가 아니란 말ियो. 아가씨가 익힌 철장(鐵掌)무공도 원래는 당세를 주름잡던 무공이었소. 그러나 아가씨의 사부가 완전히 익히지 못했으며 아가씨 또한 수련한 기일이 미천하여 적을 당해 내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지. 아직 젊으니 부지런히 훌륭한 스승을 찾아 나선다면 어찌 좋은 스승을 찾을 수 없겠소 ?"

완안평은 가슴에 원한이 가득차 있는 차에 이 말을 듣자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야율제가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매번 아가씨와 상대할 때마다 나는 단지 오른손만을 사용했소. 이는 내가 오만무례해서가 아니라 나의 왼손 힘이 대단하여 종종 사람을 못 쓰게 만들기 때문ियो. 아가씨가 훌륭한 스승을 만난 후, 나를 찾아와 나의 왼손을 사용하게 만든다면, 내 목 을 비틀어 죽인다 해도 결코 원망을 하지 않겠소."

그는 완안평의 무공이 자기에게 훨씬 못 미쳐 설령 고수에게 지도를

받는다 해도 자기의 한쪽 손을 상대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자살하려고 하는 것은 일시의 분노 때문일 따름으로, 만약 그녀가 좋은 스승을 만나 전심으로 무예를 익혀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다면 다시 자살할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여겼다.

완안평이 생각했다.

(너 또한 신선이 아닌데 내가 죽어라 무공을 쌓으면 두 손으로 설마 네 한 손을 堅誰堞못하랴 ?)

칼을 뽑아 들어 허공을 한 차례 긋고 나서 완안평은 음성을 내리깔았다.

"좋소 ! 군자일언은....."

야율제가 이어받았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快馬一鞭)이라 !"

완안평은 사람들에게 눈 한 번 주지 않고 고개를 꺾고 걸어 나갔다. 그러나 얼굴에는 처량한 빛이 역력했다.

주위 사람들은 둘째 공자가 그녀를 놓아 주자 감히 막지를 못했다. 사람들은 분분히 야율초재에게 인사하고 방을 나갔다. 야율진은 이곳에 야단법석이 났는데도 양과가 시종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

야율연이 말했다.

"둘째 오빠 ! 어째서 그녀를 놓아 주는 거예요 ?"

"놓아 주지 않으면, 그녀를 죽인단 말이냐 ?"

야율연은 입술을 쭈긋거리며 웃었다.

"그녀를 놓아 주는 것은 옳지 않아요 !"

"뭐라고 ?"

"그녀를 내 올케로 만들려면 그녀를 가게 해선 안 되잖아요 !"

야율제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허튼소리말아라 !"

야율연은 그가 심각하게 화를 낼까 봐 더 이상 우스갯소리를 하지

못했다.

양과는 창 밖에서 야율연이 말한 <그녀를 내 올케로 만들려면.....>이라는 소리를 듣자, 돌연 까닭없이 마음이 아려 움을 느꼈다. 완안평이 동남방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자, 양과는 바로 육무쌍에게 말했다.

"따라가 봐야지."

육무쌍이 물었다.

"누굴?"

양과는 대답도 않고 경공을 전개하여 완안평의 뒤를 왔다.

완안평의 무공은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았지만 경공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양과는 내공을 끌어올려 급히 따라갔다. 용구채진(龍駒寨鎭) 밖에 이르러서야 겨우 그녀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가 어떤 집의 뜰로 들어서서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양과도 따라 뛰어 들어가 담벽에 몸을 숨겼다.

얼마가 지나자 서쪽 방에서 등불이 새어 나왔다. 이어 긴 탄식 소리가 들려왔다. 이 탄식 소리 속에는 온갖 원망과 비애가 섞여 있었다.

창 밖에서 바보처럼 얼이 빠져 있던 양과는 자신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었다. 완안평은 창 밖에서 누군가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리자 황급히 등불을 붙여 켜다. 재빨리 벽에 기대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나?"

"당신과 마찬가지로 상심한 사람ियो."

완안평은 상대방의 말투에 악의가 없는 것 같아 다시 물었다.

"도대체 뉘시오?"

"옛말에 이르길, 복수를 하려면 십 년도 늦지 않다고 했소. 당신은 몇 차례 시도했다가 이루지 못하자 자살을 하려고 했으니 자신의 생명을 상당히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겠소? 이는 또한 부모님의 복수도 너무나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겠소?"

<아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완안평이 등잔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어르신네, 어서들어오시지요 !"

양과는 문 밖에서 두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완안평은 몽고 군관 복장을 한, 나이가 어려 보이는 양과를 보자 조금은 놀란 듯했다.

"당신의 말씀이 옳아요. 존함이 어떻게 되는지요 ?"

양과는 대답을 하지 않고 두 손을 소매 속에 집어넣었다.

"야율제가 큰 소리를 친 것은 오른손만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요. 사실 상대방의 검을 빼앗는 것이나 혈도를 찍는 것 따위는 한 손조차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뭐 그리 어려울게 있겠소 ?"

완안평은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었지만, 상대방의 저의를 아직 확실히 몰라 반박하지 않을 따름이었다.

양과가 말했다.

"내가 소저에게 무공을 삼초만 가르친다면 야율제가 두 손을 모두 사용하게 만들 수 있소.. 지금 바로 상대해 보는 게 어떻겠소 ? 손도 사용하지 않고 발도 사용하지 않고 나와 몇초를 겨루어 보는 것이 어떻소 ?"

완안평은 상당히 기이한 젊은이라고 생각했다.

(설마 내가 마법을 사용해 단숨에 나를 쓰러뜨리려고 ?)

양과는 그녀가 의심하는 듯하자 말했다.

"소저는 검을 사용해서 나를 공격하여도 좋소. 피하지 못하고 죽는 다 해도 내 원망하지 않으려오."

"좋아요. 나도 칼을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만 상대하겠어요."

양과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오. 내가 손발을 쓰지 않고 소저의 검을 빼앗아야 소저가 승복할 수 있지요."

완안평은 그의 비양거리는 듯한 표정을 보자 약간은 화가 났다.

"귀하가 그토록 자신 있다니, 정말 전대미문의 실력이군요."

단도를 뽑아 그의 어깨죽지를 베어 나갔다. 그녀는 그가 두 손을 소매 속에 감추고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는 것 같자, 그가 다칠까 걱정이 되어 칼의 목표를 약간 비껴 찔렀다. 양과는 이러한 것을 눈치채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말했다.

"봐 주지 말고 정말로 찌르시오."

유엽도는 그의 어깨죽지 곁으로 아슬아슬하게 비껴 지나갔다. 완안평은 그가 조금도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이자 그의 담력에 탄복했다.

(설마하니 바보 멍청이는 아니겠지 ?)

완안평은 유엽도를 비스듬히 잡고 찔러 들어갔다. 이번에는 조금도 인정사정이 없었다. 양과는 급히 몸을 수그러 칼끝이 머리 위로 아슬아슬하게 스터 지나게 했다.

완안평은 정신을 가다듬어 재차 찔러 들어갔다. 양과는 검세를 피하며 말했다.

"장법까지 함께 사용해 공격하십시오."

"좋아요 !"

검을 휘두르며 완안평은 함께 좌장을 격출했다.

양과가 번개같이 몸을 틀면서 소리쳤다.

"좀더 빨리 공격하십시오 !"

완안평은 도법을 시전하면서 계속 장법을 빠르게 공격했다.

"소저의 장법은 도법을 능가할 만큼 대단하구료. 야율제가 말하길 철장무공이라던데 맞소 ?"

완안평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매섭게 공격했다. 양과는 시종 두 손을 소매 속에 감추고는 장영(掌影)과 칼끝 사이를 춤추듯 누비고 다녔다. 완안평의 단도와 철장은 그의 옷자락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그녀가 한참을 도법을 사용하게 한 후, 양과가 말했다.

"조심하십시오. 삼초 이내에 당신의 검을 빼앗을 테니....."

완안평은 이때 이미 그에게 탄복하고 있었지만 그가 3초 이내에 자신의 검을 빼앗겠다고 한 말은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칼자루를 힘껏 움켜쥐고서는 소리쳤다.

"어디 빼앗아 봐요 !"

완안평은 운횡진령(雲橫秦嶺) 1 초를 전개해 그의 목을 찢러 나갔다. 양과는 고개를 숙여 칼 밑으로 파고들어가 머리를 껍 돌려 그녀의 오른손 팔꿈치의 곡저혈(曲池穴)을 때렸다. 완안평은 이내 팔꿈치가 시큰거리며 손가락에 힘이 빠졌다. 양과는 고개를 들어 칼등을 입으로 짹 물어 가볍게 칼을 빼앗았다. 이어 머리를 들어 칼자루로 그녀의 옆구리를 찢었다. 벌써 그녀의 혈도를 찍어 버린 것이다.

양과는 고개를 들어 유연도를 공중으로 던져 버렸다. 그가 칼을 던져 버린 것은 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다.

"어때 ? 승복하겠소 ?"

이 한마디를 마쳤을 때 칼이 떨어져 내려와, 양과는 다시 입으로 칼을 물고서는 히히, 웃으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완안평은 놀람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 고개를 끄덕였다.

양과는 그녀의 눈매와 눈썹이 매혹적이어서 그녀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났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황당하고 똥판지 같은 생각인가 ! 칼등을 입에 문 채 양과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다.

완안평은 그의 이러한 심사를 알 길이 없었다. 다만 그의 표정이 이상해지자 자신의 마음도 이상해지는 것이, 전신에 맥이 빠지며 두 다리에 힘이 없어 쓰러질 것 같았다. 양과가 한 발 다가섰다. 생각 같아서 칼을 버리고 그녀의 눈꺼풀에 입을 맞춰 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야율제가 예절바르게 대하 준 데 감격하고 있다. 내가 그만 못하단 말인가 ? 천만에 ! 나는 모든 점에서 그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못하진 않아 !)

고개를 숙여 칼자루로 그녀의 허리 사이를 쳐서 혈도를 풀어 주고 나서 칼자루를 그녀에게 건네 주었다.

완안평은 칼을 받지 않고 두 무릎을 꿇었다.

"사부님께 지도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원한을 풀 수 있게 해 주신다면 그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양과는 크게 낭패해져 급히 완안평을 붙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입의 단도를 집어들고 나서 말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의 사부가 될 수 있겠소 ? 하지만 당신에게 야율제를 이길 수 있는 방도는 가르쳐 줄 수 있소 !"

완안평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야율제를 죽일 수만 있게 된다면 그의 형이나 누이동생은 걱정이 안 돼요. 능히 그의 부친을....."

여기까지 말하더니 갑자기 생각이 난 듯이 조용히 말했다.

"아,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는 실력을 갖추 때까지 그 늙은이가 세상에 살아 남아 있을까 ? 우리 부모님의 원수를 결국 갚지 못하고 마는구나....."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그 야율씨 늙은이의 목숨이 촌각을 헤맨다 해도 시간은 충분한 것이지."

완안평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어쨌서요 ?"

"야율제를 죽이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그러오 ? 지금 당신에게 삼초만 가르친다면 오늘밤이라도 능히 그를 처치할 수 있을 것이요."

완안평은 이미 세 차례나 야율초재를 공격했지만 그때마다 야율제에게 낭패를 당하곤 했다. 그의 실력이 자기보다 열 배는 더 강하다고 알고 있었다. 지금 이 몽고 군관 복장을 한 소년의 무공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야율제를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령 이긴다고 해도 자기에겐 3초를 가르쳐 주어 그것으로 그를 죽일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오늘밤에 그를 죽인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녀는 양과가 화를 낼까 두려워 감히 반박은 하지 못하고 가볍게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다.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이리저리 눈망울만 굴릴 뿐이었다.

양과는 이러한 그녀의 심사를 눈치채고 말했다.

"종소. 내 무공이 그보다 반드시 낫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겨루어서 내가 진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यो.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3초만 알려준다면오늘밤 중으로 그를 처치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요. 그가 세 차례나 당신을 풀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손을 쓰지 않을까가 걱정될 따름이지."

완안평은 가슴이 뛰어 마음을 굳게 먹고 말했다.

"그가 비록 내게 덕을 베풀었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원수는 갚지 않을 수가 없어요 !"

"종소 ! 그럼 당신에게 삼초를 가르쳐 주겠소. 만약 당신이 능히 그를 처치할 수 있는데도 손을 쓰지 않으면 어떡하겠소 ?"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고강한 실력이 있는데 내가 어찌 도망갈 수가 있겠어요 ?"

양과가 속으로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너를 때리고 괴롭히겠어 ? 네가 그를 죽이고 안 죽이는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

"사실 이 삼초는 뭐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요. 자, 잘 보시오."

곧바로 검을 들고 천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베어 가며 말했다.

"제 일초 운횡진령(雲橫秦嶺) !"

(이 일초는 이미 나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내게 가르칠까 ?)

양과는 돌연 왼손을 뺀어 그녀의 우장을 움켜쥐며 말했다.

"제 이초, 방금 당신이 두 번 사용한 고등전수(枯藤纏樹)요 !"

완안평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그것은 철장무공의 금나수(擒拿手) 중의 일초예요."

양과는 그녀의 부드럽고 매끄러운 손바닥을 잡자 마음이 뛰어, 웃으

며 말했다.

"당신은 양지옥장공(羊脂玉掌功)을 배웠어야 적격이었을 텐데, 어떻게 철장금나수를 배우게 됐지요 ?"

완안평은 그가 희롱하는 말을 하는 줄은 모르고 물었다.

"양지옥장공이 뭐예요 ? 이름 하나는 참 예쁘네요."

그가 자신의 손을 잡고 힘을 쫓다가는 놓곤 하는 힘이 상당히 미약한 듯 느껴졌다. 이러한 수법은 자신이 배운 철장금나수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제 일초와 제 이초, 모두 내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설마 제 삼초 하나만으로 야율제를 처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

양과는 그녀의 눈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자세히 보시오 !"

돌연 손목을 꺾 뒤집더니 칼을 들어 자신의 목을 찔러 들어갔다.

완안평이 그만 놀라서 소리쳤다.

"뭐하는 짓이에요 ?"

그녀의 오른손은 양과가 꼭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쥐고 있는 단도를 집히 왼손으로 빼앗았다. 위급한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철장금나수는 매우 정확하여 양과의 손목을 부여잡고 바깥으로 밀쳐내 칼끝이 목에 다다르지 못했다. 양과는 손을 놓고 뒤로 두 발자국 물러서며 말했다.

"할 수 있겠소 ?"

완안평은 너무 놀라 가슴만 두근 거릴 뿐 그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다.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먼저 운형진령 초식으로 비스듬히 찔러 들어간 다음, 고등전수 초식으로 그의 오른손을 꼭 움켜쥐는 것이요. 제 삼초로 검을 들어 자살하려 든다면 그는 할 수 없이 왼손을 이용해 당신을 구하려 할 것이요. 그가 당신에게 맹세하길, 그의 왼손을 사용하게만 한다면 당신에

게 죽더라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했소. 그렇다면 다 된 것이 아니겠소 ?"

완안평이 생각해 보니 틀린 얘기가 아니라 멍청하니 그를 바라다보고 있었다.

"이 삼초가 만일 실수가 없었는데도 효력을 거두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큰 절을 하겠소."

양과의 말에 완안평이 고개를 가볍게 가로저으며 말했다.

"그가 왼손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니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어떡하지요 ?"

"뭐가 어떡한단 말이오 ? 그러면 당신은 영원토록 복수를 못 하게 되는 것이지."

완안평이 처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옳아요. 지도해 줘서 고마와요.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죠 ?"

양과가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창 밖에서 돌연 여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바보예요. 그의 엉터리 말을 믿지 마세요."

양과는 육무쌍의 목소리임을 알아채고는 웃기만 할 뿐 대꾸를 하지 않았다. 완안평이 창가로 가서 보니 검은 그림자가 희끗 하더니 한 사람이 담장 밖으로 뛰어나갔다.

완안평이 쫓아가려고 하자 양과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쫓아갈 필요 없소. 내 동료이니까. 그녀는 나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오."

완안평은 그를 쳐다보면서 한동안 신음하더니 말했다.

"당신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면 그만두세요. 당신이 내게 호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요."

양과는 그녀의 표정이 청초하고 가냘프게 보이자 가엾은 생각이 일어났다. 얼른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와 나란히 침상에 걸터 앉았다.

"나는 양과라 하오. 몽고인이 아니라 한인이지. 나의 아버지, 어머니 모두 돌아가셔서 당신과 마찬가지로 신세요 그가 이처럼 말하는 것을 듣자 가슴이 아려 구슬 같은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양과도 설움이 복받쳐 그만 울어 버렸다. 완안평이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에게 건네 주었다. 양과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자 눈물이 더더욱 건잡을 수 없이 자꾸만 흘러내렸다.

완안평이 그만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양나리, 저를 돌봐 주다가 그만 당신이 울어 버리는군요."

"양나으리라 부르지 말아요, 당신 올해 몇 살이지?"

"열 여덟 살이에요. 당신은요?"

"나도 열 여덟이지."

양과는 말하면서 생각했다.

(만약 내 생일이 그녀보다 늦다면 우린 서로 남매지간을 맺는다고 낭패로군.)

이어 말했다.

"나는 생일이 정월생으로 이후에 나를 양오빠라고 불러. 나도 너에게 예의를 차리기보다도 그냥 완안누이라 부르겠어."

순간 완안평의 얼굴이 붉어졌다. 양과가 상당히 단도직입적으로 나가자 다소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가 자신에게 결코 악의가 없음이 확실했으므로 그녀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자 양과는 마음이 뒤숭숭해졌다. 완안평은 용모가 청초하며 몸매가 가냘퍼 사람들로 하여금 가엾은 감정을 불러 일으키게 했다. 특히 그녀의 둥근 눈매는 소용녀와 상당히 닮아 있었다. 사람이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자연 눈빛에 처연한 빛을 띠게 마련이다. 그녀의 눈매가 소용녀와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양과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려는 생각에서일 따름이다.

그는 그녀의 눈을 계속 응시했다. 별안간 그녀의 흑의가 백의로 변

하더니 그녀의 가냘픈 계란형 얼굴이 소용녀의 청아하고 절세미모의 용모로 변하는 것이다. 양과의 얼굴은 끊임없이 갈구하고 사모하는 갖가지 표정들로 가득 찼다. 그는 오랫동안 멍하니 그녀를 바라다보았다.

완안평은 다소 두려움을 느껴 가볍게 그의 손을 놓고 조용히 물었다.

"왜 그래요 ?"

양과는 꿈에서 깨어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것도 아냐. 완안누이는 그르 처치하러 안 갈 거야 ?"

"지금 갈 거예요. 오빠는 같이 안 갈래요 ?"

양과는 <물론, 같이 가지>라고 말하려다가 잠시 생각했다.

(만약 내가 곁에 있으면 그녀가 두려움이 없어져 자살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야율제를 처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안 갈 거다."

완안평의 눈에 순간 실망하는 기색이 떠올랐다. 그것을 본 양과가 마음이 약해져 가겠다고 대답하려는 순간 완안평이 나지막히 말했다.

"좋아요, 이젠 아마도 오빠를 만나지 못할 거예요."

양과는 황급히 말했다.

"무슨 ? 무슨 소리야 ? 나는....."

완안평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방을 나갔다. 그녀는 순식? 야율진의 거처로 달려갔다.

야율초재를 위시한 사람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가 막 자리에 들려는 순간이었다. 완안평이 대문을 두 차례 두드리며 낭랑하게 소리쳤다.

"완안평이 야율제 공자를 만나뵙고자 한다."

몇 명의 병졸들이 벌써 달려나와 저지하려고 했으나, 야율제가 문을 열어 주며 말했다.

"완안 아가씨가 무슨 볼 일이 있지요 ?"

"당신의 가르침을 얻고자 다시 왔어요."

야율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어째서 너는 이처럼 천방지축 자신의 능력에 대해선 생각지도 않는 거지 ?)

몸을 비키며 오른손을 뺏으며 말했다.

"들어오시오."

완안평은 안으로 들어서자 검을 뽑아 연달아 삼초를 휘둘렀다. 중간 중간 또한 철장장법을 6 초나 격출시켰다. 이 일도협쌍장(一刀夾雙掌)을 좌우로 섞어 공격해 들어갔다. 야율제는 왼손을 늘어뜨린 채 오른손으로 그녀의 3 초의 검 공격과 6 초의 장법을 모두 무너뜨렸다.

(무슨 방법을 찾아내 그녀를 물러나게 만들어, 영원히 귀찮게 굴지 못하게 해야 될 텐데.....)

두 사람이 한 차례 격돌하고 난 후, 완안평이 막 양과가 알려준 3 초를 전개하려는 순간, 문 밖에서 돌연 여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야율제 ! 그 여자는 당신이 왼손을 사용하도록 당신을 속이려 들 거예요. 조심하세요."

바로 옥무쌍의 음성이었다.

야율제는 순간 주춤하였다. 완안평은 그가 의심할 틈도 주지 않고 즉시 운룡진령 일초를 전개했다. 그가 몸을 틀어 피하자 별안간 왼손을 뺏어 제 2 초 고등전수를전개해 그의 오른손을 짝 움켜쥐었다. 이어 자신의 오른손을 돌려 자신의 목을 힘껏 찢러 들어갔다.

이러한 전광석화 같은 순간 순간에도 야율제는 머리를 굴려 생각했다.

(그녀를 구해야 하는가 ? 그러나 그녀는 내가 왼손을 사용하게끔 속이고 있다. 내가 왼손을 사용한다면 내 목숨을 그녀에게 내주어야 한다. 대장부가 죽으면 죽었지 어찌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구하려 들지 않는단 말인가 ?)

양과는 야율제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 이 3 초를 갑자기 사용한다면

그가 왼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육무쌍이 뛰어들어 이를 알려준 것이다. 이제는 이 방법은 효력이 없게 된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야율제는 호걸대협이었다. 왼손을 뺀 그녀를 구한다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위기의 순간, 왼손을 뺀 완안평의 오른손을 막아 내고는 손목을 비틀어 그녀의 유연도를 빼앗았다.

두 사람은 이 3초를 교환한 후 각자 뒤로 두 발자국 물러섰다. 야율제는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칼을 던져 주며 말했다.

"네가 이미 나로 하여금 왼손을 사용하게 만들었으니 나를 죽여도 좋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할 것이 있다."

완안평의 얼굴빛이 창백했다.

"무엇을 ?"

야율제가 말했다.

"아버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완안평은 콧방귀를 끼며 천천히 다가와 검을 높이 들었다. 쫓불 아래 그의 표정이 추호의 두려움도 없이 담담했다. 완안평은 이러한 남자의 기개를 보자 일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나를 구하기 위해 왼손을 사용하였는데 어찌 그를 단칼에 베어 버릴 수가 있으랴 ?)

살기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빛이 돌연 고통스럽게 일그러지면서 부드러워졌다. 이윽고 칼을 땅바닥에 던져 버린 완안평은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다.

그녀는 정신없이 교외로 내달려 한 개울가 옆에 다다랐다. 차가운 별빛이 개울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이 마구 뛰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돌연 등뒤에서 탄식소리가 들려왔다. 완안평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다보니 바로 양과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 그녀는 <양오빠 !>하고 부르더니 이내 머리를 떨구고는 아무 소리도 못 했다. 양과가 다가와

그녀의 두 손을 잡아 주며 부드럽게 그녀를 위로해주었다.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야. 또한 급히 서둘러서는 안 되는 것이지."

"양오빠는 모두 다 봤군요 ?"

양과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같이 재주 없는 몸으로는 복수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해요. 내가 당신의 절반 정도의 무공만 갖추었어도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양과는 그녀의 손을 잡고서는 그녀와 나란히 큰 나무 밑에 앉았다.

"내 무공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 너는 지금은 비록 복수를 하지 못했지만 원수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이후라도 다시 기회가 올 수 있지 않겠어 ? 나는 말이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조차 몰라. 또 누가 그분을 해쳤는지도 모르니, 복수니 원한 따위는 전혀 거론할 수도 없어."

"그럼 양오빠의 부모님도 남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나요 ?"

"어머니는 병사하셨지만 아버님의 죽음은 확실치가 않아.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어떻게 ?"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나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으며 원수는 누구냐고 어머니께 종종 물었었지. 내가 물어볼 때마다 어머니는 눈물만 흘릴 뿐 대답을 안 하시길래 이후에는 다시 묻지 않았어. 내가 좀더 자란 후에 물어도 늦지 않을 거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었는데, 별안간 어머니께서 병이 들어 돌아가시게 됐지 뭐겠어 ! 어머니가 임종하실 즈음 나는 도 물었었지. 어머니는 고개만 가로젓다가 말씀하셨어. <네 아버지는....., 네 아버지는....., 아....., 애야. 너는 일생 동안 절대로 복수를 생각지 말아라. 아버지의 복수를 절대로 생각지 않겠다고 말해 다오.> 나는 상심한데다가 난감해져 소리쳤지. <싫어요, 싫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더 이상 숨을 쉬

지 못하고 돌아가셨지. 아, 내가 어찌 좋은 자식이라 할 수 있겠어 ?"

그는 원래 완안평을 위로하려고 이 말을 꺼냈는데 끝까지 말해 버리자 오히려 자신이 더 괴로워졌다. 속담에 이르기를 <부모님의 원수와는 한 하늘 아래 같이 지낼 수 없다> 하였다. 만약 부모님의 원수를 갚지 못한다면 이는 최대의 불효이다. 평생토록 굴욕을 당한능 D戀넵 세상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양과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이름조차도 모르니 이러한 한(恨)들이 가슴속에 오랫동안 깊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쌓이고 쌓였던 한들이 이때 터져나와 말투 속에 상심과 비분의 감정이 충만해 있었다.

완안평이 말했다.

"누가 당신을 키웠지요 ?"

"누군 누구야 ! 당연히 내가 스스로 자랐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강호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여기서 밥 한 술, 저기서 하룻밤을 지냈지. 어느 때는 배가 너무나 고파 남의 수박이나 고구마를 훔 쳤다가 사람들에게 잡혀 초죽음이 되도록 얻어맞곤 했어. 잘 봐, 여기에 난 상처들. 그리고 여기 뼈가 불거져 나온 것들이 모두 어렸을 때 얻어맞아 생긴 것이야."

한편으로는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매를 걷어올려 그녀에게 보였다. 별빛이 희미하여 완안평이 자세히 볼 수가 없었다. 양과는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다리의 상처를 만져보게 했다. 완안평은 그의 다리에 울퉁불퉁한 상처들을 만져보고는 마음이 아팠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가문도 기울어졌으나 자신에게는 아버지가 남겨 놓은 친구나 옛 부하들이 있지 않은가. 금은보화는 계산에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신세와 비교해 볼 때 자신은 얼마나 행복한 편인가.

두 사람은 잠시 묵묵히 있었다. 완안평이 손을 살며시 움츠려 그의 다리에서 손을 뗐다. 그러나 여전히 양과는 그녀의 손을 쥐고 있었다. 완안평이 살며시 물었다.

"어떻게 것처럼 높은 무공을 배웠어요 ? 그리고 어째서 몽고인의

복장을 하고 있지요 ?"

양과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나는 몽고의 군관이 아니야. 내가 몽고 의복을 입은 것은 단지 적을 피해 다니기 위해서야."

완안평이 기뻐하며 말했다.

"그거 잘됐군요 !"

"뭐가 잘 돼 ?"

완안평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몽고인은 저의 대금국의 숙적이잖아요. 그래 저는 양오빠가 몽고의 군관이 아니길 바랐어요."

양과는 그녀의 매끄럽고 부드러운 손바닥을 매만지며 말했다.

"내가 만약 대금국의 군관이었다면 어찌려고 ?"

완안평은 애초에 그를 처음 보았을 때 그의 용모가 준수하고 무공도 강해 호감이 갔었다. 게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성심성의껏 도와 주었으며 또한 나중에 그의 불우했던 과거를 듣고 나선 더욱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가 지금 농담조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도 조금도 화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탄식조로 말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아버지께서 다 해 주셨을 거예요. 지금은 모두 안 계시니 말한들 뭐하겠어요 !"

양과는 그녀의 말투가 부드럽자 그녀의 어깨를 끌어당겨 귓속말로 소곤거렸다.

"누이,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어."

완안평은 무슨 부탁일까 혼자 헤아려 보면서 절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무슨 부탁을 ?"

"네 눈에 입을 맞추고 싶어. 안심해 ! 오직 눈에다만 입맞춤 뿐 다른 짓은 하지 않을 테니까."

완안평은 그가 구혼을 하고 나서 몸을 요구하려는 줄 알았다. 만약

자기가 거절한다 해도 그가 완력을 쓴다면 어떻게 그를 당해 낼 것인가? 이미 한 손은 그의 강하고 투박한 손에 잡혀 있으니 소녀의 가슴은 벌써 쿵다쿵다 뛰기 시작했다. 설령 거칠게 행동하지 않는다 해도 실제로는 거절하기 힘든 형편이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눈에다 입을 맞추고 싶다고 하자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가슴속으로는 다소 실망하는 기분도 없지 않았다. 마음이 정말 겹잡을 수 없이 뒤숭숭해졌다. 그녀는 귀여운 두 눈을 굴리며 그를 뵈히 바라다보았다.

양과는 그녀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순간 소용녀와 자신이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의 소용녀의 교태스럽고 정이 듬뿍 담긴 눈매를 떠올렸다. 양과는 별안간 소리를 냅다 질러 대면서 펄쩍뛰었다.

완안평은 깜짝 놀라 왜 그러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양과는 정신이 혼란해 지면서 눈앞에 소용녀의 눈매가 어른거렸다. 그 당시 그녀의 그러한 눈빛을 대했을 때 양과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에 지나지 않았다. 소용녀에 대해서 한결같은 존경심만 품었을 뿐 전혀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산을 내려온 후 옥무쌍과 며칠을 지냈으며 또한 지금 완안평과 이처럼 가까이 있게 되자 돌연 마음속에서 번쩍 빛이 나며 모든 것을 깨달았다. 소용녀의 그러한 부드럽고 따듯한 정을 비로소 깨닫게 되자 온갖 슬픔과 회한이 밀려와 양과는 나무에 머리라도 박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용아가씨는 내게 그토록 깊은 정을 갖고 있어 내 아내가 되겠다고 한 것이었구나. 그녀의 아름다운 뜻을 저버리고 이제 와서 어디서 그녀를 찾는단 말인가?)

돌연 소리를 냅다 질러 대면서 양과는 완안평을 끌어안고는 그녀의 눈꺼풀에 입을 맞추었다.

완안평은 그가 미친 듯이 달려들자 놀랍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다. 그의 두 팔이 강철처럼 자신의 허리를 꽉 껴안자 두 눈을 감고 내맡기

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양과의 입술은 시종 자신의 양눈에만 머물 뿐이었다. 완안평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길, 이 사람은 비록 광폭하게 행동은 하지만 자신이 한 말에 신용은 지키는구나, 하고 여겼다. 그러나 그가 왜 자신의 눈에 입을 맞추는지는 알지 못했다.

갑자기 양과가 소리쳤다.

"아가씨, 아가씨 !"

그 목소리는 열정이 들끓는 그것으로서 매우 통한스럽게 들렸다. 완안평이 아가씨가 누구냐고 물어 보려는 순간, 등뒤에서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

"두 분 수고가 많으시군요 !"

양과와 완안평은 동시에 얼른 떨어져 섰다. 한 그루 나무 옆에 청포를 입은 사람이 서 있었다. 완안평의 가슴이 마구 떨렸다. 얼굴이 온통 빨개져 고개를 떨구고 옷자락만 만지작거릴 뿐 감히 그 사람을 쳐다볼 수 없었다. 양과는 확실히 알아 보았다. 바로 여관에서 당나귀를 훔쳐 이막수를 피하게 해 주었던 그 사람이었다. 자기와 육무쌍이 구명지은(救命之恩)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녀는 머리에 쪽을 지고 있었다.

양과는 즉시 깊숙이 몸을 숙여 인사를 했다.

"일전에 도와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공손히 답례를 하며 물었다.

"양나으리, 그때 생사고락한 동료들 기억하는지요 ?"

"바로....., 육..... !"

"이막수 무리가 방금 그녀를 잡아갔어요 !"

양과는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이요 ? 그녀....., 그녀가 그렇다면 지금 위험하지 않겠소 ?"

"당장은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 육씨 아가씨가 그 비밀 서류를 개방에게 빼앗겼다고 했으니 적련선자는 아마 그녀를 가두고 심문하겠지

요. 생명이야 상관없겠지만 고통은 면하지 못할 거예요."

"그녀를 구하러 빨리 가야겠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가로 저으며 말했다.

"양나으리의 무공이 비록 강하다 해도 적련선자의 상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공연히 목숨만 버린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지요."

별빛에 푸르게 빛나는 청의(靑衣)를 걸친 여자의 얼굴은 말할 수 없을 만큼 기괴 망측했裏 얼굴의 근육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죽은 사람 같았다. 누구나 그녀를 한 번 본다면 두려운 나머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

(이 아가씨는 사람됨은 이렇게 좋은데 얼굴이 이토록 괴이하게 생겼으니 정말 애석하구나. 내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놀라는 표정을 짓는다면 그녀에게 죄를 짓게 되겠지 !)

"아가씨의 성함을 여쭙도 되겠습니까 ?"

"널리 알려진 이름도 아니에요, 제 이름은..... 후에 저절로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보다 사람을 구하는 방법을 찾는 일이 더 급해요."

말하면서도 얼굴의 근육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 만약 그녀의 입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지 못했다면 그 누구도 그녀를 살이 붙은 강시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말소리는 기이하게도 맑고 깨끗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쾌하게 느껴지게 하였다.

"기왕 이렇게 됐으니 아가씨께서 계책을 마련해 주시면 소인은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양나리는 너무 겸손하십니다. 당신 무공은 나보다 열 배나 강하고 총명재지는 내가 근처에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당신은 게다가 나보다 나이도 많고 또한 당당한 대장부이므로 당신이 하는 대로 이 몸은 그 대로 따라 할 것입니다."

양과는 그녀가 이처럼 겸손하면서도 예의바르게 말을 하자,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편해졌다. 이 여자의 얼굴은 무섭게 생겼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온화하니 사람이란 정말 얼굴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양과는 생각했다.

"그러면 우리가 몰래 뒤따라가다가 기회를 틈타 그녀를 구하지요."

"그것이 좋겠군요. 완안 아가씨의 의향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

말을 마치고는 양과와 완안평이 상의하도록 조금 앞서 걸어나갔다.

"누이동생, 나는 지금 동료를 구하러 가야 해 ! 우리 나중에 만나 !"

완안평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내 실력이 비록 낮지만 아마도 조금은 힘이 될 거예요. 양오빠, 당신과 함께 가겠어요."

양과는 기뻐서 잇달아 소리쳤다.

"좋지, 좋아 !"

목청을 높여 청의의 여자에게 말했다.

"완안 아가씨도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하오 !"

그 여자가 가까이 와서 완안평에게 말했다.

"완안 아가씨, 당신은 금지옥엽(金枝玉葉)의 신분이요. 재삼 숙고해 보세요. 우리들 상대는 매우 악랄무비하여 강호에서 모두들 적련마두라 부르지요. 정말 절대로 무심히 상대할 수 없는 일이지요."

"양오빠가 제게 은혜를 베푼 것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의 일은 바로 저의 일이에요. 언니와도 친교를 맺고 싶어요. 조심 조심해 가며 언니를 따라가면 될 거예요."

그 여자는 돌아서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렇다면 더 좋은 일이 없지요. 언니는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 날 동생이라 불러요."

완안평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추한 용모를 보지 못하고 단지 그녀의 옥 같은 목소리를 듣자, 자기 손을 쥐고 있는 한 손을 살며시 매만졌다.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것이 미모의 소녀처럼 느껴져 대단히 기뻐

다.

"당신 금년에 몇 살이지요 ?"

그 여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나이를 따지는 일은 바쁘지 않아요. 양나리, 먼저 사람을 구출하는 것이 더 급하지 않겠어요 ?"

"맞아요, 아가씨가 어서 길을 안내하시지요 !"

"그녀들이 동남방으로 가는 것을 봤어요. 곧장 대승관(大勝關)으로 갔음이 분명해요."

세 사람은 곧장 경공을 펼쳐 동남방을 향해 급히 달려갔다. 고묘과는 경공술에 있어서 천하 제일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뛰어났다. 완안평의 무공은 그리 대단하지는 않았지만 경공술은 정말로 상당했다. 그 청의의 여인도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완안평의 뒤를 따랐다. 완안평이 빨리 가면 그녀도 빨리 달렸으며, 완안평이 천천히 가면 그녀도 속력을 줄어,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은 시종 한두 걸음을 유지했다. 양과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가씨는 어느 파의 제자인 줄은 모르겠으나 경공술을 보니 완안평을 능가하겠구나.)

그는 두 여자들 앞에 나서길 꺼려해 줄곧 뒤에 처져 따라왔다. 날이 흰하게 밝아 오자 그 여자는 주머니에서 건빵을 꺼내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청포는 비록 무명이었지만 바느질이 정교하게 되어 있어 몸에 딱 맞았다. 그 여자의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게 만들어져 야들야들한 자태는 비단옷을 능가했으며, 건빵이나 물병 등 필요한 물건들이 적재적소에 안배되어 있었다.

완안평은 그녀의 얼굴을 보자 심히 놀라 다시 쳐다보지를 못하였다.

(세상에 이토록 못생긴 여자가 있을 수 있을까 ?)

여자는 두 사람이 다 먹기를 기다렸다.

"양나으리, 이막수가 당신을 알고 있죠 ?"

"몇 번 만났었지."

그 여자는 품에서 얇디 얇은 천 같은 것을 꺼내 들었다.

"이것은 바로 인피면구예요. 이것을 쓰고 다니면 그녀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양과가 받아 들고 보니 면구 위에 구멍이 네 개 나 있었다. 바로 얼굴에 뒤집어썼다. 울퉁불퉁한 것이 꼭 맞았다. 마치 원래의 모습인 양 전혀 표가 안 났다. 양과가 이 인피면구를 착용하자 그의 모습이 상당히 추하게 변했다. 순간 완안평이 깨달은 듯이 말했다.

"동생, 원래 당신도 인피면구를 착용하고 있었군요. 나도 참 바보지.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이 지독히 못생겼다고 여겼으니 정말 미안해요."

여자가 말했다.

"양나리께서는 이 인피면구를 착용했기 때문에 못나게 변해 보이지만 나는 쓰나 안 쓰나 똑같아요."

완안평이 말했다.

"그래도 못 믿겠어요. 동생, 면구를 벗어서 원래 모습을 보여줘요, 네 ?"

양과도 호기심이 일어나 빨리 그녀의 용모를 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뒤로 두 발자국 물러서며 웃었다.

"안 돼요, 안 돼 ! 내 못생긴 얼굴을 본다면 당신들은 놀라 자빠질 거예요."

그녀가 한사코 안 된다고 하니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정오 무렵, 세 사람은 무관(武關)에 도착했다. 중심가의 한 주루에 들어가서 그들은 점심을 들었다. 주루의 주인은 양과의 몽고 군관 복장을 보자 조금도 소홀하게 대할 수 없어 극진히 봉사했다.

세 사람이 반쯤 먹었을 때 문의 휘장이 열리며 3명의 여자가 들어왔다. 바로 이막수와 홍릉파, 그리고 육무쌍이었다. 양과는 이막수가 비록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는 못한다고 해도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추아게 생긴 인피면구로 인하여 그녀의 주의를 끌게 될까 봐 행동을 조심

스럽게 했다. 고개를 돌려 오로지 밥만 먹는 채 하면서 주의깊게 그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육무쌍은 시종 아무 소리도 안 했으며, 이막수와 홍릉파도 요리를 시킨 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완안평은 그녀들이 바로 이막수 일행이라는 것을 알아채곤 얼른 젓가락을 국물에 적서 탁자에다 글을 썼다.

<공격할까요 ?>

양과가 잠시 생각했다.

(우리 세 사람의 힘에 육무쌍까지 합한다 해도 이막수와 그녀의 사도를 당해 내기는 힘들 것이다. 이 일은 지략에 의존해야지 힘으로는 안 될 일이야 !)

양과는 젓가락을 가볍게 몇 차례 가로 흔들었다.

계단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르더니 두 사람이 올라왔다. 완안평이 힐끗 보니 바로 야율제, 야율연 남매였다. 두 사람은 완안평을 발견하고는 다소 놀란 듯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인 다음 자리를 잡았다. 그들 남매들은 완안평이 그날 그렇게 떠난 후, 다시는 복수하러 오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아버지와 이별한 후, 함께 강호를 유람중이었는데 뜻밖에 이곳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자 마음이 느긋해졌다.

이막수는 오독비전(五毒秘傳)을 개방의 수중으로 넘겨주고 난 후 걱정이 태산같아서 요 며칠 간은 식사도 제대로 못 하던 터였다. 지금도 반 그릇도 채 다 못 먹고 젓가락을 놓고선 밖을 내다보는 중이었다. 순간, 등에 다섯 개의 보따리를 메고 있는 거지 2명이 길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바로 개방의 5대제자(五袋弟子)였다. 잠시 생각에 젖더니 이막수는 창쪽으로 다가가 두 거지에게 손짓을 해 불렀다.

"개방의 두 영웅분들 이리로 좀 와 보세요. 빈도가 할 말이 있어요. 이 말을 귀방의 방주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녀는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면 그 두 사람이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개방의 방주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개방의 제자로서 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육무쌍은 그녀가 개방의 무리를 불러들여 틀림없이 오독비전의 거처를 물어 볼 것이라 생각되자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야율제는 개방의 무리가 북방에서 세력이 강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용모가 뛰어난 여도사가 그들 방주에게 전할 말이 있다는 소리를 듣자 그녀가 어떤 신분인 줄은 몰라도 저절로 호기심이 일어나 잔을 멈추고는 귀를 기울였다.

잠시 후, 계단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2명의 거지가 올라왔다. 이막수에게 절을 한 후 말했다.

"도사께서 무슨 분부가 있으신지 당연히 받들어야죠."

두 사람은 인사를 한 후 몸을 일으켰다. 한 명이 육무쌍의 옆모습을 보자 순간 안색이 변하더니 후다닥, 동료와 함께 계단 쪽으로 뛰어갔다. 원래 그는 길에서 그녀를 가로막은 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막側 웃으며 말했다.

"두 분 손등 좀 살펴보실까요 !"

두 거지의 눈빛이 동시에 자기들의 팔 위로 향했다. 손등 위에는 세 줄기의 붉은색 지인(指印)이 찍혀 있었다. 정말 그녀가 이토록 신속하게 수를 쓸 줄은 몰랐었다. 귀신도 모르게 벌써 오독신장(五毒神掌)을 펼친것이다. 두 개방의 거지는 물론 양과와 야율제조차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두 거지는 놀란 표정으로 동시에 물었다.

"당신은....., 당신이 바로 적련선자 ?"

이막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가서 당신네 방주에게 전하시오. 평소 당신네들 개방과 이몸은 아무런 마찰도 없었으며, 나는 당신들 개방의 영웅들을 늘 존경해 왔다고. 단지 인연이 없어 교분을 쌓지 못한 것이 정말 애석한 일이지...."

두 거지는 서로를 쳐다보며 생각했다.

(그렇게 좋게 말하면서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어째서 독수를 펼쳤지 ?)

이막수가 잠시 뜸을 들인 후 말했다.

"두 분은 오독신장에 격중되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탈취해 간 책만 돌려준다면 빈도가 두 분을 치료해 주지요."

거지가 말했다.

"무슨 책 ?"

이막수가 웃으며 말했다.

"다 낡은 책이지. 돈으로 치면 몇 푼 안 되는 것으로, 귀방에서 돌려주지 않는다 해도 뭐 대수롭지는 않아요. 빈도는 다만 당신들 개방의 무리 중 천 명의 목숨을 잡아 놓으면 그만이니까....."

두 거지는 손등에 아무런 이상도 못 느꼈는데 그녀가 이처럼 말하는 것을 듣자 자신도 모르게 손등을 살펴보았다. 적련신장은 매우 독이 심해 중독이 되면 죽을 때 무지무지하게 고통을 받게 된다고 전부터 들어 왔다.

바로 이때 손등 위의 세 줄기 붉은 지인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 환상이 떠올랐다. 그녀가 악랄하게 말하는 것을 듣자, 어서 돌아가 장로에게 보고하여 계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 안색을 살피더니 후다닥 뛰어 내려갔다.

이막수가 생각했다.

(너희 방주가 너희 두 명의 목숨을 구하려면 공손히 오독비전을 들고 와 내게..... 아 참 ! 만약에 그들이 이미 베껴 놓고 되돌려주면 어떡하지 ? 그 책에는 오독신장 등 제반 독성을 푸는 법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 책을 갖고 있다면 내게 다시 올 필요가 없잖아 ?)

*** 지네와 수탐 ***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이막수는 돌연 얼굴빛이 확 변하더니 몸을 날려 개방 두 거지의 머리를 스쳐 계단 중간을 가로막았다.

이막수는 쌍장을 격출해 두 거지를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했다. 돌연 누런 그림자가 번개같이 움직이더니 한 거지의 팔꿈치를 움켜쥐고 계단 위로 돌아왔다. 이내 그 거지는 뚜뚝, 소리를 내며 팔뚝이 부러져 팔을 축 늘어뜨렸다. 나머지 거지는 그래도 의리가 있어 도망치지 않고 달려와 부상을 당한 동료들을 돌봐 주었다. 그는 이막수가 앞으로 다가서자 황급히 주먹을 뻗어 공격했다. 이막수는 가볍게 그의 팔목을 잡더니 비틀어 버렸다. 그의 팔도 간단하게 부러졌다.

두 거지는 단 한 번의 공격에 부상을 당하자 서로 등을 맞대고 나머지 무상당하지 않은 손을 들어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 이막수가 맑고 우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은 그냥 여기 있어요 ! 당신들 방주께서 곧 책을 갖고 올 테니....."

그녀가 그들과 등지고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하자 그들은 한 발 한 발 계단으로 다가가 도망치려 했다. 이막수가 몸을 돌리며 웃으면서 말했다.

"보아하니 두 분께선 다리뺄마저 부러지고 싶은 모양이군요."

홍릉파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사부님 ! 제가 그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이막수가 냉소를 띠며 말했다.

"홍, 네가 웬일이냐 ?"

하더니 천천히 두 거지에게 다가섰다. 두 거지들은 분하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다.

야율제 남매는 줄곧 방관하고 있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동시에 벌떡 일어섰다. 야율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먼저 가라. 이 여인은 상당히 지독하구나."

야율연이 물었다.

"오빠는 ?"

"나는 두 개방 거지를 구한 후 바로 도망칠께."

야율연은 둘째 오빠가 세상에 적수가 거의 없는 줄 알았는데 그가 도망치겠다는 말 르 하자 믿기지가 않았다.

바로 이때 양과가 탁자를 힘껏 치면서 야율제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야율형, 나와 함께 공격해 사람을 구하는 게 어때요 ?"

그는 육무쌍을 구출하려면 조만간 이막수에게 손을 써야만 했다. 그런데 야율제와 같은 좋은 협력자가 나타났으니 영리한 양과가 이 때를 놓칠 리가 없었다.

야율제는 몽고 군복에 용모도 추한 그의 신색을 훑어보았다. 이막수의 무공이 자신과도 상대가 안 되는데 일개 군병에 불과한 보통 사람이 덤벼든다면 공연히 목숨만 잃게 될 뿐이라, 야율제는 순간 대답을 못 하고 주저주저했다.

양과의 목소리를 듣자, 이막수는 그를 아래위로 살펴보았다. 목소리가 매우 귀에 익은 것 같은데 용모는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양과가 말했다.

"병기가 없으니 잠시 빌려 쓰겠소."

말하면서 홍릉과의 곁을 스터 지나면서 그녀의 허리띠에서 칼집을 때내며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고는 소리쳤다.

"냄새 좋고 !"

홍릉과가 일장을 뻗었으나 그는 머리를 숙여 피해 버리고는 두 거지와 이막수 사이에 섰다. 이 신법은 바로 고묘석설에서 참새를 잡으며 연마했던 무공이었다. 야율제가 크게 기뻐하며 쳐다보았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

양과는 왼손을 휘두르며 말했다.

"성씨가 양씨지요."

칼집을 들며 말했다.

"이 안에는 부러진 검이 있을 거요."

칼을 쏙 잡아 빼니 과연 부러져 있었다.

홍릉과는 순간 알아차린 듯 소리쳤다.

"사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양과는 얼굴의 인피면구를 벗겨 내며 말했다.

"사백, 사제 ! 양과가 인사드립니다."

그가 <사백, 사제>라고말하자, 야율제는 그만 오리무중 속을 헤매는 것 같았으며, 육무쌍은 놀람과 기쁨이 서로 교차되었다.

(어째서 저 바보가 그녀들에게 사백, 사제라 부르지 ?)

이막수는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흐음, 네 사부도 잘 있냐 ?"

양과의 마음이 저러 오며 동시에 눈동자가 붉어졌다.

이막수가 차갑게 말했다.

"네 사부는 정말 제자를 잘 가르쳤구나 !"

일전에 양과는 괴이한 초식으로 그녀의 평생의 절기인 삼무삼불수(三無三不手)를 와해시켰다. 또 최후엔 이빨로 그녀의 불진을 빼앗기지 않았던가. 그러나 비록 양과가 불진을 빼앗았더라도 그의 무공은 자신에게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막수는 알고 있었다.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서 이막수는 생각했다.

(이 녀석의 실력은 정말 빠르게 진보했구나. 사매는 더 굉장해졌겠군. 원래부터 옥녀심경의 무공이 대단했었으니까. 다행히도 그날 이후 사매는 이 녀석과 같이 있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다면..... ?)

이막수는 다소 두려움을 느끼며 연신 사방을 둘러보았다. 소용녀가 이곳에 와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였다.

양과는 그녀의 이러한 심사를 눈치채고 배시시 웃으며 말했다.

"사부께서 사백에게 안부를 전합디다."

"그녀는 어디 있지 ? 우리 자매는 서로 못 본지 꽤 오래 되었는데....."

"사부는 요 옆에 있지요. 잠시 후면 만나 보게 될 텐데요, 뭘 !"

그는 자신이 이막수의 상대가 안 된다고 믿었다. 설사 야율제가 가세한다 해도 이기기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공성계(空城計)를 이용하여 사부를 들먹여 그녀를 놀라게 하려던 것이었다.

이막수가 말했다.

"나는 내 제자만을 가르칠 뿐인데 네 사부와 무슨 일이 있겠나 ?"

"저의 사부님은 사백에게 간청할 일이 있지요. 옥무쌍을 풀어 달라는 것이지요."

이막수가 미소를 띠었다.

"너는 예절도 없이 사부와 금수처럼 정을 통하고선 감히 사람들 앞에서 사부를 들먹이다니 부끄럽지도 않느냐 ?"

그녀가 사부를 욕하는 소리를 듣자 양과는 가슴에 뜨거운 피가 끓어올라 칼집을 들어 맹렬한 기세로 찔러 들어갔다.

이막수가 웃으며 말했다.

"부끄러운 짓을 해 놓곤, 왜 ? 남들이 들을까 겁이 나니 ?"

양과는 칼집을 사용해 잇달아 급히 공격했다. 전에 없이 매서운 것이 바로 중양이 남겨 놓은, 임조영의 옥녀검법을 억제시키는 무공이었다. 이막수도 소홀히 대할 수 없어 불진을 흔들며 정신을 바짝 차려 접전했다.

이막수의 불진을 사용하는 초식은 모두 옥녀검법에서 나온 것이었다. 수초가 지나자 상대방의 검법이 정교한 것이 자신의 초식을 전부 알고 있는 듯했다. 계속 기선을 제압당해, 만약 자신의 무공이 강하지 않았다면 벌써 나가떨어졌을 것이다.

이막수는 속으로 한스런 소리를 했다.

(사부는 너무 편파적으로 이러한 검법을 사매에게만 남겨 주었구나. 흥, 나를 제압했겠다 ? 이 검법이 기이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

초식을 변화시킨 이막수는 돌연 몸을 날려 탁자 위로 올라섰다. 오

른쪽 발을 비스듬히 뻗고 왼쪽 발로는 탁자를 밟고선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마치 풍랑에 흔들리는 연잎처럼 이막수의 몸이 흔들렸다.

"그 정부년이 네게 이 한 수를 가르치진 않았느냐 ? 아마 그년도 사용하지 못할걸 ?"

양과는 일순 화를 버럭 냈다.

"뭐라고 ? 정부라고 ?"

이막수가 웃으며 말했다.

"일찌기 사매는 맹세하길 그녀를 위해 기꺼이 죽겠다는 남자가 없으면 평생토록 고묘 안에서 살겠다고 했었어. 그런데 그녀가 하산한 뒤에 너희 둘이 부부가 안 되었으니 네놈의 정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나 ?"

양과는 극도로 화가 나 대답도 않고 칼집을 휘두르며 냅다 탁자 위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그의 경공은 상대방에 미치지 못하여 감히 탁자 가장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두 발로 몇 그릇의 밥사발을 밟아 부수고 나자 좀 안정된 자세로 설 수 있었다.

이막수는 불진을 흔들어 양과의 칼집을 막아내며 말했다.

"경공술도 제법인데 ! 네 정부년이 과연 네게 잘해 주었구나."

양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 악귀 같은 년아 ! 너도 사람이냐 ?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이면 다 말이냐 ?"

양과는 칼집을 쳐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막수는 목소리를 착 가라앉혀 말했다.

"사람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선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우리 고묘파의 체면을 손상시킨 너희 둘의 패륜아들이 나왔으니 말이다."

그녀는 계속 양과를 자극하는 소리를 해 냈다. 그녀는 싸움할 때는 비록 악랄했지만 말투는 부드럽고 공손했었다. 그런 그녀가 이렇게 말을 마구 하는 것은 소용녀가 나타날까 두려워서였다. 만약 그녀가 별안간 나타나 공격해 온다면 당해 내기 힘든 일이어서 계속 그녀를 욕

되게 하여 소용녀가 감히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녀가 점점 더 심하게 욕을 해 대자 양과는 미칠 것만 같았다. 만약 자신에게 욕을 해 댄다면 그냥 참을 수 있어도 이처럼 소용녀를 욕하는 데에는 미칠 듯이 화가 치밀어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다. 순간, 아찔해지더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휘청거리는 순간, 탁자 위에서 넘어져 밑으로 떨어졌다. 이막수가 잽싸게 불진을 들어 그의 천령개를 냅다 내리쳤다.

야율제는 사태가 급박해진 것을 보자 탁자 위의 술잔 두 개를 들어 이막수의 등을 향해 뿌렸다. 이막수가 암기의 바람소리를 듣고 힐끗 보니, 술잔이었다. 즉시 등뒤의 혈도를 숨을 들이마셔 막아 놓은 다음 양과를 먼저 처치한 후 상대하려 했다. 이막수는 이 조그만 두 잔의 술잔이 뭐 대단하랴,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술잔이 도달하기도 전에 술이 먼저 몸에 닿았다. 지양(至陽), 중추(中樞) 두 혈맥이 술에 맞아 다소 찌릿했다. 놀라서 생각하길,

(맙소사 ! 사매가 왔구나. 술이 이토록 강한데 술잔은 더 하겠지 ?)

급히 불진을 돌려 술잔 2 개를 떨구는 순간, 손목이 낫핵裏 마음속으로 더욱 걱정이 되었다.

(이 계집애의 힘이 어째 이토록 강하지 ?)

몸을 돌려 보니 술잔을 던진 사람은 소용녀가 아니라 몽고 복장을 한 장신의 소년이었다. 그녀는 경이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후배들 가운데 이토록 많은 호적수가 있구나.)

그는 장검을 뽑아 들고 낭랑하게 소리쳤다.

"도사께서 꽤나 악랄하다 하니 몇 초 가르침을 받을까 합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섰다. 발걸음도 욱중해 보였으나 나이는 불과 스무 살 남짓 해 보였다. 그러나 방금 술잔을 내던진 손힘, 그리고 검을 뽑고 다가서는 자세며 모두 그의 나이만큼의 세월 동안 무공을 쌓은 것 같았다. 그녀는 웃으며 물었다.

"귀하는 누구시죠 ? 스승은 어느 분입니까 ?"

야율제가 몸을 굽히며 대답했다.

"야율제라 합니다. 바로 전진파의 문하생입니다."

이때 양과는 이미 한쪽으로 피했다가 야율제가 전진파 문하생이란 소리를 듣자 속으로 생각했다.

(그가 전진파 제자라면, 설마 유처현(劉處玄)의 제자란 말은 아니겠지 ? 학대통도 이 같은 수법을 가르칠 수는 없을 텐데.....)

이막수가 물었다.

"스승이 마옥인가, 아니면 구처기인가 ?"

"아니오."

"그럼, 유 왕 학 중 어느 분이지요 ?"

"모두 아닙니다."

이막수는 깔깔거리며 웃더니 양과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녀석은 자칭 왕중양의 제자라 하는데 그럼 당신과 저 녀석은 사형제간이 되겠군요."

야율제가 이상한 듯 물었다.

"그럴 리가 ? 중양진인이 세상을 떠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그의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

이막수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흐흥, 전진파 문하생들은 모두 거짓말장이들이니 전진파는 일찌감치 전가파(全假派)로 개명이나 하시지. 자, 초식이나 배워라 !"

말을 마친 이막수가 불진을 가볍게 들어올려 공격해 들어왔다.

야율제는 왼손으로 칼을 잡고 왼발로 쪽 뺨어 정양침(定陽針) 일초를 위로 비스듬히 뺨어 올렸다. 바로 정통 전진검법이었다. 이 일초는 족(足) 경() 공(功) 식(式) 력(力) 모두가 꼭 알맞게 배합되어 평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조금도 하자가 없이 연마하려면 천부적 자질이 없는 자는 평생토록 연마해도 해낼 수 없는 것이었다.

양과는 고묘 속에서 전진검법을 배웠기에 자연 그 묘수를 알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무공을 이것저것 배웠기 때문에 이 정양침 일초는 물론 이처럼 중후하게 펼쳐 낼 수가 없었다.

이막수는 그의 일초를 받자 가벼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비스듬히 내달린 다음 불진을 휘둘렀다. 희끄무레한 그림자만 번쩍 거릴 뿐 불진의 끄나불이 좌우 사방팔방에서 스쳐 지나갔다. 그는 접전한 경력이 적어 처음으로 강적을 맞이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력을 다해 응전했다. 순식간에 두 사람은 40여 초를 나누었다. 이막수의 공격이 갈수록 가까와져 야율제는 검의 범위를 좁혔다. 패색이 점점 짙어졌다. 그러나 이막수가 당장 이기기도 힘들었다. 그녀는 속으로 감탄을 했다.

(이 조그만 녀석의 정교한 전진무공은 비록 구 왕 유 등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손불이에게는 지지 않겠구나. 전진문하는 정말 인재를 배출했구나.)

다시 수초를 겨루고 나서 이막수는 일부러 허점을 보였다. 야율제는 그 계락을 알지 못하고 검을 들고 곧장 찔러 들어갔다. 이막수는 돌연 왼발을 날려 그의 손목을 걷어찼다. 야율제는 그만 통증을 느끼며 장검을 놓쳤다. 그러나 그는 당황하지 않고 왼손을 비끼며 오른손으로 금나법을 이용해 그녀의 불진을 빼앗으려 했다. 이막수가 웃으며 칭찬을 했다.

"훌륭한 솜씨 !"

불과 몇 초 사이에 야율제의 금나수법 가운데 힘을 다하지 않은 부드러운 힘이 축적돼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유처현이나 손불이 등에게는 없었던 것이기에 기이하게 생각되었따.

양과는 입이 찢어져라 욕을 해 댔다.

"야, 이 도둑년아 ! 오늘 이후론 너를 더 이상 사백으로 여기지 않겠다."

양과는 칼집을 추켜세워 앞으로 협공을 했다. 이막수는 떨어지는 야율제의 장검을 불진으로 휘감아 올려 양과의 얼굴에 던져 버렸다.

"너는 네 사부의 남자니까 나에게 사제라 불려도 될 거야."

양과는 장검이 날아오는 것을 칼집을 들어 맞이했다. 옥무쌍 완안평이 동시에 소리를 지르는 순간, 스르륵 소리와 함께 장검은 칼집 안으로 쏙 들어갔다. 이처럼 칼집으로 검을 맞춰 집어넣는 것은 조금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것으로 만약에 조금이라도 비껴 지났다면 이막수가 던진 힘에 의해 그대로 양과의 가슴을 뚫고 지날 것이었다. 그러나 양과는 고묘 속에서 암기를 연마했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시각과 힘의 경중, 정확한 방향 등 모두 조금의 오차도 없는 경지까지 연마하였다.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옥봉침도 연습하였는데 장검을 받는 것쯤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칼집에서 검을 뽑아 야율제와 함께 협공을 했다.

주루 위에서 접시가 깨지고 탁자가 엎어지는 등 소란이 일어나자 손님들은 벌써 다 도망쳐 텅 비어 있었다. 홍릉과는 사부와 함께 출도한 이래로 그녀가 싸움에서 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고묘 한에서 소용녀에게 당한 것은 단지 물의 성질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불진을 비록 양과에게 빼앗긴 적이 있지만 순식간에 도로 되찾아 양과를 도망치게 만들었다. 지금 비록 두 사람이 그녀에게 협공을 가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도 걱정을 하지 않았다. 단지 옆에 서서 관전할 따름이었다. 세 사람이 한바탕 어우러져 싸우더니 이막수의 초식이 또 변하였다. 불진에서 강한 바람이 일더니 두 사람을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게 하였다. 순식간에 야율제와 양과가 위기에 빠졌다.

야율연과 완안평이 소리쳤다.

"큰일났군 !"

동시에 앞으로 나와 거들었다. 삼초만에 야율연의 왼쪽 다리가 불진에 차여 넘어지려는 순간, 탁자 끝에 허리가 부딪쳐 다행히 넘어지지 않는 않았다.

야율제는 동생이 상처를 입는 것을 보자 마음이 다소 흔들렸다. 그러나 이막수에게 계속 공격을 받아 할 수 없이 뒤로 밀렸다.

청의의 소녀는 정세가 위급해지자 앞으로 뛰쳐나와 야율연을 부축해

뒤로 물러섰다. 이막수는 격투 중에도 사방팔방을 살피고 있었는데 그 소녀의 몸놀림이 가벼운 것을 보자 명가의 제자라고 느꼈다. 불진을 휘둘러 그녀의 얼굴을 휘갈기며 물었다.

"아가씨는 누구냐 ? 스승이 어느 분이냐 ?"

두 사람의 거리는 1여 장 떨어져 있었는데, 말하는 순간 불진의 꼬트머리가 이미 그녀의얼굴 앞을 스쳐 지나갔다. 청의의 소녀는 놀라 오른손을 급히 올려 소매 속에서 무기를 꺼내 들어 불진을 막아냈다.

이막수가 보니 병기가 실로 괴이하기 짝이 없게 생겼다. 수정처럼 빛이 났으며 크기는 약 3척 정도 되는 것이 마치 옥통소와 비슷했다.

(이것은 어느 가문의 어느 파의 무기일까 ?)

몇 차례 맹공을 가해 그녀의 장기를 펼쳐 보이게 만들려 했다. 그 소녀가 당해 내지 못하고 있자 양과와 야율제가 급히 달려와 거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난적 이막수는 동에 번쩍 일초를 발하고 서에 번쩍 일장을 격출하는 등 민첩한 전법을 구사하며, 마치 이 순간에 환생한 것 같았다.

양과가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다소 떨어져 있다가 각자 도망쳐야겠구나.)

양과가 크게 소리쳤다.

"모두들 빨리 밑으로 내려가 흩어져요 ! 이 여마두는 매섭기 그지 없어요."

네 여자들은 그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는 모두 눈썹을 찌푸렸다. 그러나 정세가 하도 급박해져 옥무쌍이 먼저 내려갔다. 이어 청의의 소녀가 야율연을 부축해 내려갔다.

2명의 개방 거지들은 이 소년 영웅들이 자신을 위해 이막수와 격투를 벌이자 그들을 도와 주고 싶었으나 팔뚝이 부러져 있어 꿈쩍할 수가 없었다. 그 두 사람은 의리가 깊었다. 이막수가 살피보지 않는데도 두 사람은 시종 꿈쩍도 않고 서 있었다. 그들은 결코 먼저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다.

양과와 야율제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갈수록 매서워지는 이막수의 초식을 막아 냈다. 이어 완안평도 밑으로 내려갔다.

양과가 말했다.

"야율형, 여기서는 손발을 시전할 수 없으니 밑에 내려가 싸웁시다."

그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르러 기회를 틈타 빠져나가려고 생각했다. 야율제가 말했다.

"종소 !"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한 발자국씩 계단 밑으로 내려갔다. 이막수는 계속 공격을 해 댔다.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화가 치밀었다.

(나는 지금까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처치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놈들 때문에 실패해 버렸으니, 만약 육무쌍 이년이 도망쳐 버린다면 적련선자의 위명은 말이 아니겠구나.)

그녀는 육무쌍을 도로 잡아들이기 위해 쫓아 내려갔다.

모두들 전력을 다해 주루에서 길 한복판에 이를 때까지 싸웠다. 다시 그들은 큰 길에서 교외로 나갔다. 양과가 계속 외쳐 댔다.

"어서들 빨리 떠나라. 여기는 우리 두 남자가 맡겠다."

야율제는 한마디도 안 했다. 그의 나이는 양과보다 몇 살 위였으며 위엄 있는 자태하며 중후한 몸매 등 전혀 양과처럼 출랑거리지 않았다. 두 사람이 길을 막아 섰다. 야율제는 억지로 적의 독초를 막아내고 있었으며 양과는 앞뒤로 뛰어 달리며 상대방의 심신을 교란시켰다.

이막수는 소용녀가 끝내 나타나지 않자 더욱 자신을 얻어 전력으로 공격했다. 양과와 야율제의 공력은 그녀에게 훨씬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에 이르러 두 사람 모두 심장이 뛰며 호흡이 곤란해졌다. 이막수는 희색이 만면해졌다.

(반 시간도 안 돼 이 두 녀석을 처치할 수 있겠구나.)

바로 이 순간 공중에서 청아한 새울음 소리가 들렸다. 두 마리의 커

다란 수리가 그녀의 머리를 향해 질풍처럼 날아 내려왔다. 날개를 퍼덕이자 순간 온통 먼지가 일어났다.

양과는 이 수리들이 광정 부부가 키운 것임을 알았다. 어렸을 때 양과는 도화도에서 한 쌍의 수리들과 함께 놀았던 적이 있었다. 수리들이 왔으니 분명 광정 부부가 근방에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그는 중앙궁을 나오면서 그를 만나 보길 원하지 않았었다. 급히 뒤로 몇 보 물러나 인피면구를 꺼내 썼다.

두 마리의 수리는 상하 좌우에서 별안간 날아와 이막수를 계속해서 쫓아냈다. 원래 이 수리들은 기억력이 좋았다. 예전에 그녀의 빙백은 침의 매서운 맛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줄곧 양심을 품고 있었는데, 이때 공중에서 그녀를 발견하고는 순간 날아와 공격한 것이다. 그러나 수리들은 그녀의 은침을 무서워해 그녀가 손을 드는 것을 보자 곧바로 위로 날아갔다.

야율제는 신기한 듯 보고 있다가 수리가 당해 내지 못하는 것을 보자 소리쳤다.

"양형, 우리 다시 사면에서 협공을 해 그녀가 어찌 하나 봅시다."

몸을 돌려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동남방에서 말발굽소리가 나더니 한 필의 말이 질풍처럼 달려왔다.

말은 쾌속무비하게 빨라말발굽소리를 듣는 순간, 어느새 앞에 다가왔다. 말은 큰 덩치에 온몸에 붉은 털이 나 있는 게 어딘가 비범해 보였다. 이막수와 야율제는 모두 놀라는 표정이었다.

(이 말은 어째서 이처럼 빠르단 말인가 !)

말 위에는 홍의의 소녀가 타고 있었다. 사람도 말도 마치 화염 속을 뚫고 나온 듯했다. 오직 그녀의 순백색의 얼굴만이 붉은색이 아니었다. 양과는 수리와 홍마를 보자 말 위의 홍의의 소녀가 바로 광정 황용의 딸인 광부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말고삐를 당기자 홍마가 별안간 멈춰 섰다. 사람이 내려서지 않으면 울지도 않았으며 태연자약했다. 야율제는 어려서부터 몽고에서

자라 준마를 수도 없이 봐 왔지만 이 같은 영물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야율제는 자신도 모르게 경탄했다.

이 말은 곽정이 몽고의 대막에서 얻은 말로서 그 당시는 새끼였는데 지금은 나이를 먹어 이미 말년에 들어섰다. 그러나 영물은 보통 말과는 달라,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여전히 근골이 강인하며 다리 힘도 튼튼해 조금도 노쇠해지지 않았다.

양과는 곽부를 몇 년 간 만나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연히 그녀가 생각날 때면 으레 버릇없는 개구장이 계집아이로만 기억되었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봄꽃 같은 미모의 소녀로 성장해 있었다.

급히 달려온 탓인지 이마에 송송 땀이 맺혀 있었으며 홍의에 비쳐진 두 뺨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수리들은 잠시 살핀 후, 야율제 등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양과의 얼굴에 눈길이 닿았을 때는 이미 인피면구를 착용한 후라 용모가 추하게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두 눈을 찌푸리며 업신여기는 표정을 지었다.

양과는 어려서부터 그녀와 친하지 않았다. 여기서 다시 만나 그녀가 자신을 업신여기는 듯하자 자격지심이 더욱 강하게 일어났다.

(네가 날 우습게 여기는데 나라고 널 우습게 보면 안 된단 법은 없지. 네 아버지는 당세의 영웅이고 엄마는 개방의 방주, 외할아버지는 무학의 대종사니, 모두 천하의 무학지사로서 아무도 너희 곽씨 집안을 존경하지 않는 이가 없지. 그러나 내 부모는 ? 우리 엄마는 시골 여자이고 우리 아버지는 누군지도 몰라. 또 어떻게 죽었는지도 확실치 않고..... 흥, 날 당현히 너와 비교할 수 없지. 나는 고생스럽게 자랐으며 사람들에게 굴욕을 받아 왔어. 네가 다시 조롱한다고 해도 난 개의치 않아.)

그는 조금은 상심해 우두커니 서 있었다. 천지지간에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질 않는다면 세상에 살아 있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졌다. 오로지 소용녀만이 자기에게 진심으로 대해 주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니, 살아 생전에 그녀를 다시 만날 날이 있을지 없을

지..... ?

마음속으로 난감해 있을 때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두 마리의 말이 달려왔다. 한 마리는 검고, 다른 하나는 누런 색으로, 모두 우수한 품종이었다. 그러나 광부의 홍마와 비교해 볼 때는 차이가 한참 났다. 말위에는 두 소년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노란 옷을 입고 있었다.

광부가 소리쳤다.

"오빠 ! 또 이 못된 여잘 만났어요."

말 위의 소년은 바로 무돈유 무수문 형제였다. 두 소년은 이막수를 보자 말에서 냅다 뛰어내려 장검을 뽑아 들고 좌우에서 공격해 들어갔다. 이막수는 바로 어머니를 죽인 원수로 몇 년 동안 꿈에도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었다. 광부가 소리쳤다.

"나도 갈께."

광부는 말안장 옆에서 보검을 꺼내들고 뛰어내려 거들었다.

이막수는 점점 상대가 많아졌다. 모두들 나이가 어렸지만 두 소년이 얼굴이 시뻘개져 죽어라 하고 달려든다. 검법은 정통인것을 보아 명문 자제임에 틀림없었다. 이어서 미모의 홍의의 소녀도 달려들었다. 칼끝이 약간 떨리며 비스듬히 곧바로 찔려 들어오는 것이 매우 매서운 검법으로, 비록 공력은 알았지만 매우 오묘했다. 속으로 놀라면서 물었다.

"너는 도화도의 광가의 딸이냐 ?"

광부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눈은 제대로 박혔군 !"

광부는 쌍검을 휘두르며 그녀의 가슴과 배 사이의 급소를 향해 찔렀다. 이막수는 불진을 들어 막아내며 생각했다.

(조그만 계집애가 상당히 거만하구나. 네 알뜰한 재주를 믿고 감히 내게 무례하게 덤비다니. 만약 내가 네 부모를 겁내지 않는다면 열이라도 한꺼번에 처치해 버릴 텐데.....)

불진을 돌려 그녀의 장검을 빼앗으려는 순간 양 옆구리에서 바람소

리와 함께 무씨 형제의 장검이 동시에 찢러 들어왔다. 그들 둘과 곽부는 모두 곽정이 친히 무예를 전수해 주었으며, 세 명은 모두 도화도에서 조식으로 함께 같은 검법을 연마했다. 세 사람의 검법은 상당히 잘 배합되어 비록 무슨 특별한 진법은 아니었지만 세 자루 검이 일시에 공격해 들어오자 그 위력은 대단했다.

세 사람과 두 마리 수리가 잇달아 공격하여 이막수를 곤경에 빠뜨렸다. 만약 세 사람이 자신의 실력만 믿고 시간을 길게 끌었다면 이막수는 분명 한 사람 정도는 다치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두 명도 위험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막수는 상대방의 수자가 너무 많아 그들 모두가 에워싸 공격해 들어오면 상대하기가 쉽지 않겠다고 느꼈다. 또한 곽정 부부가 끼여들게 되면 더욱 힘들게 될 일이었다. 바로 불진을 휘두르며 웃으며 말했다.

"애송이들아 ! 적련선자가원숭이를 갖고 노는 기술을 잘 봐라 !"

휘이익, 연달아 육초를 펼쳤다. 매초식마다 급소를 노렸으므로 곽부와 무씨 형제가 황급히 손발을 놀려 이리저리 패해 날뛰는 꼴이 정말 원숭이 모양 같았다. 이막수는 우뚝 서서 긴 웃음을 뿌리더니 살며시 몸을 돌려 소리쳤다.

"능파야, 가자 !"

둘은 서북쪽으로 달려갔다.

곽부가 소리쳤다.

"저 여자가 도망친다, 쫓아가자 !"

검을 들고 앞으로 급히 내달았다. 무씨 형제도 경공을 펼쳐 뒤를 따랐다. 이막수는 불진을 몸 뒤로 휘둘러 먼지 하나 일으키지 않고 가볍게 달아났다. 홍릉파도 힘을 주어 급히 내달았다. 곽부와 무씨 형제도 힘을 다했으나 갈수록 멀리 떨어질 따름이었다. 단지 두 마리 수리만이 이막수보다 빨리 날아 계속 그녀를 공격해 댔다. 무돈유는 오늘은 아무래도 복수할 가망이 없음을 알자 휘파람을 불며 수리를 불러들였다.

야율제는 세 사람을 놓칠까 봐 뒤를 쫓아갔다. 곽부가 돌아오는 것을 보자 다가가 인사를 했다. 모두들 소년의 심성을 갖고 있어 한두 마디에 바로 의기투합하였다. 야율제가 갑자기 생각난 듯이 물었다.

"양형은 ?"

완안평은 대답했다.

"그 사람은 혼자 갔어요.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말하면서 완안평은 고개를 떨구었다.

야율제가 급히 조그만 언덕 위로 달려가 사방을 살펴 보았으나 멀리 청의의 소녀와 육무쌍이 어깨 나란히 하고 걸어가고 있었을 뿐 양과의 그림자는 찾을 수 없었다. 야율제는 크게 실망했다. 그와 양과는 이번이 처음 만남이었지만 서로 협력해 적을 막아내는 와중에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차 생사를 같이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말도 없이 떠나가 버리자, 마치 몇 년간 사귀던 친구와 헤어진 것 같았다.

양과는 무씨 형제가 와서 곽부와 함께 이막수를 협공할 때 그들의 표정이 매우 친밀해 보였으며, 그들이 펼친 검법도 오묘하여 수초 사이에 이막수를 도망가게 한 것을 보았다. 이막수가 곽정 부부를 두려워해 떠난 줄은 모르고 세 사람의 검법 가운데 감추어진 어떤 내력으로 그녀가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양과는 생각했다.

몇 해 전, 곽정이 그를 데리고 종남산에 오를 때, 무수한 전진교 도사들을 곽정이 물리치던 그 인상이 어린 양과의 마음속에는 아주 깊이 각인(刻印)되어 있었다. 그때, 무섭고도 뛰어난 곽정의 무공을 보았으므로 그가 가르친 제자들은 자신보다 열 배도 더 무공이 강하다고 양과는 생각했다. 이러한 선입관을 갖고 곽부나 무씨 형제가 검법을 펼치는 것을 보자 그들에게 어떤 오묘한 실력이 숨겨져 있으리라고 여긴 것이다.

그는 생각할수록 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 어린 시절, 도화도에서 두

차례나 무씨 형제들엑 구타를 당했던 일이 생각났다. 그 때 곽부난 옆에서 소리쳤었다.

"잘 한다. 더 세게 때려 !"

황용은 고의로 자기에게 무공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며, 곽정도 자신의 고강한 무공을 전수해 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중앙궁으로 자신을 보내 수모를 당하게 하지 않았던가. 양과는 온통 비분한 감정에 젖었다. 완안평 육무쌍 청의 소녀 야율연, 모두 이상한 얼굴로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다.

(이막수가 더러운 말로 내 사부를 욕한 것을 너희들은 모두 믿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깔보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어째서 나의 사부를 깔보는 거지 ? 내가 지금 얼굴색을 붉히며 무씨 형제와 곽부에게 화를 내거나, 곽백부와 곽백모에게 화를 내면, 너희들은 내가 사부와 정을 통했다고 여기겠지. 아아..... !)

양과는 갑자기 미친 듯이 길도 아닌 벌판으로 마구 달려갔다. 이때 그의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여기는 것이었다. 자기 자신이 인피면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다. 설령 얼굴에 불만스러운 표정이 가득 차 있다 한들 완안평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들이 왜 그를 조롱한단 말인가 ? 이막수의 악명은 강호에 널리 퍼져 모든 사람들의 공적(公的)인데 그녀의 말을 누가 믿겠는가 ?

그는 본래 서북에서 동남쪽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이들과 더욱 멀어지려고 서북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이, 세상이 싫어졌다. 면구를 벗어 버리고는 험준한 야산을 정신없이 달렸다. 배가 고파 오면 과일이나 채소를 따 공복을 채웠다.

점점 더 멀리 나가 양과는 한 달이 채 못 되어 몸이 비쩍 말랐으며 옷도 다 떨어져 갔다. 이윽고 한 높은 산림 속에 다다랐다. 그는 이 산이 천하의 오악 중의 하나인 화산(華山)인 줄 몰랐다. 산세가 험준한 것을 보자 미친 듯 정상에 향해 기어 올라갔다.

그의 경공이 비록 대단했지만 화산은 천하의 험산이라 그렇게 쉽게 오를 수는 없었다. 반쯤 올라가자 날씨가 추워지더니 구름이 낮게 깔리고 북풍이 점점 거세지면서 하늘에서 송이송이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초조해졌다. 눈을 피할 곳을 찾아야 했는데, 눈발이 점점 거세져 앞을 분간할 수 없었다. 눈은 퍼붓고, 날은 어두워지고, 발밑은 미끄러웠다. 길은 더욱 알아보기 힘들어져 만약 허공을 딛는다면 만 길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몸이 가루가 될 판이었다. 그러나 양과는 자신의 생명을 가볍고 천하게 여겼다. 그는 악천후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고개를 들어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얼마를 더 갔을까. 갑자기 등뒤에서 극히 미약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무슨 동물이 눈길을 지나는 것 같았다. 양과가 즉각 고개를 돌려보니, 한 사람이 계곡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양과는 크게 놀라 급히 달려가 계곡 안을 쳐다보았다. 한 사람이 세 손가락으로 돌을 잡고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양과는 만 길 계곡에서 그가 세 손가락의 힘으로 전신을 지탱하고 있는 것을 보자 그의 무공이 불가사의한 경지에 도달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공손하게 절을 한 후 말했다.

"위로 오르시지요 !"

양과의 말에 그가 크게 웃자 산이 떠나갈 듯이 울렸다. 이윽고 손가락을 밀쳐 그가 절벽에서 뛰어 올라왔다. 갑자기 노한 음성으로 물었다.

"너는 장변오추(藏邊五樞)의 무리렸다 ? 눈보라가 휘날리는 야밤중에 예서 살금살금 뭘 하고 있는 중이냐 ?"

양과는 느닷없이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이렇게 질책을 당하자 어이가 없었다.

(이 사람 말마따나 눈보라가 휘날리는 야밤중에 나는 도대체 여기서 살금살금 뭘 하고 있는 것이지 ?)

그런 생각이 들자 심사가 뒤틀린다. 양과는 돌연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다. 생각해 보면 불행하게 세상에 태어나서 온갖 고초를 다 겪었다. 자신이 지극히 좋아하고 존경하였던 소용녀마저도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질책하고선 결연히 떠나가지 않았던가. 울다 보니 더욱 설움이 복받쳐 그의 울음 소리는 사람의 애간장을 들쭉실 듯했다.

그 사람은 양과가 방성대곡하는 것을 보자 멍하니 있다가 그가 점점 더 구슬프게 울어 대자 이상스레 여겼다. 그러다가 양과가 좀처럼 울음을 그치려 들지 않자 돌연 너털웃음을 날렸다. 웃음과 울음이 뒤섞여 심산 계곡을 메아리쳐, 쌓여있던 눈들이 우수수 밀으로 떨어져 내렸다.

양과는 그가 웃는 소리에 그만 울음을 멈추고 물었다.

"왜 웃어요?"

그 사람이 말했다.

"넌 왜 우냐?"

양과는 울화가 치밀었지만 이 사람은 무공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고수라고 생각되어 분노감을 억제하고 공손하게 절을 하며 말했다.

"소인 양과, 선배님께 인사올립니다."

그 사람이 죽봉(竹棒)을 들어 양과의 팔을 가볍게 들어올렸다. 양과는 어떤 큰 힘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저절로 뒤로 넘어졌다. 자빠지는 힘 때문에, 즉각 일어선다는 것은 원래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일찌기 합마공을 연마하였기에 공중에서 공중회전을 하여 단정하게 섰다.

이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의외의 일이었다. 양과가 방금 무공으로 공중회전을 한 것은 비록 이막수나 구처기의 후예라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그가 공중회전을 하여 안전하게 서 있는 것을 보자 양과를 달리 볼 수밖에 없었다.

"왜 울었느냐?"

양과가 그를 살펴보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으로 의복이 남루한게 마

치 거지 같았다. 비록 캄캄한 밤이었지만 눈빛으로 어렴풋이나마 보이는 그의 얼굴은 온통 붉은 빛이 감돌았으며 기운이 가득 차 보여 마음이 숙연해졌다.

"나는 원래 박복하여 세상에 오래 살아 봤자 낙이 없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그 늙은 거지는 그의 말투에 쓰라린 어조가 깃들어 있는 것이니, 정말 깊은 한이 있는 듯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너를 괴롭혔느냐? 속 시원히 얘기해 보아라."

"아버님은 누군가에 의해 돌아가셨는데 누가 르를 해쳤는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또 병으로 돌아가셨구요. 세상에는 나를 아껴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지요."

그 늙은 거지는 음, 하는 소리를 내더니 물었다.

"정말 안됐구나! 네게 무공을 전수해 준 사부가 누구냐?"

양과는 생각했다.

(곽백모는 이름만 사부였지 전혀 내게 무공을 가르치지 않았어. 전진교의 도사들도 생각해 보면 한스럽기만 하고, 구양봉은 내 의부였지, 사부는 아니지. 나의 무공은 소용녀가 가르쳐 준 것인데, 그녀는 내 아내가 되겠다고 말하였으니 내가 만약 그녀를 사부로 한다면 그녀가 화를 낼 게 아닌가. 그렇다고 왕중양 조사, 임노파의 석실에 남긴 경전을 어찌 사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사부가 비록 많지만 오히려 한 명도 거론할 수가 없구나.)

그 거지의 한 마디 질문이 그의 심사를 건드리게 되자 그는 또 한바탕 방성대곡을 했다.

"나에겐 사부가 없어요!"

"없으면 없는 것이지 올 것까지야 없지 않느냐? 너는 장변오추를 아느냐?"

"몰라요."

"이렇게 캄캄한 밤중에 너 혼자서 가는 것을 보고 난 네가 장변오추

의 무리가 아닌가 했다. 아니라니 잘 됐구나."

이 사람은 바로 구지신개 홍칠공(洪七公)이었다. 그는 개봉 방주의 자리를 황용에게 넘겨 주고 난 후 홀로 천하를 유랑하며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녔다. 광둥지방은 기후가 온화해 진귀한 음식이 많았다. 그는 영남지방으로 온 후 10 여 년 간을 북쪽 중원으로 가지 않았었다. 간가니 개봉 제자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엿들어, 개봉은 황용과 노유각의 지도 아래 무사태평하다는 것을 알았다.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파와 더러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양 파의 다툼이라든가, 밖으로는 금나라와 철장방들의 공격을 격퇴시켰다는 것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매일 같이 그저 마구 먹어치우며 지낼 따름이었다.

그런데 장변오추 중 제 2 추가 광둥지방에서 흉폭하게 날뛰어 많은 선량한 사람을 죽였다. 홍칠공은 마치 원수처럼 그를 미워하게 돼 즉각 그를 없애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하나를 해치는 일이야 쉽겠지만 나머지 네 명이 골치였다. 따라서 남 몰래 미행하여 그들 오추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제거해 버리려고 했다. 그리하여 남에서 북으로 천 리가 멀다 않고 이곳 화산까지 따라온 것이다. 지금 이미 사추는 모였으나 한 사람이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중 양과를 만나게 된 것이다.

홍칠공이 말했다.

"자, 그만 얘기하기로 하자. 보아하니 배가 고픈 것 같은데 우선 배 불러 먹고 나서 보자."

하더니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양과도 나뭇가지를 주우며 물었다.

"무엇을 삶아 먹으려고요 ?"

"지네 !"

양과는 그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걸로 알고 답답히 웃고는 다시 묻지 않았다.

홍칠공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생고생 영남에서부터 장변오추를 따라왔지. 화산에 도착한 후 기이한 음식을 찾지 않는다면 어찌 홍칠공이라고 하겠느냐 !"

하고 말하면서 배를 탁탁 쳤다. 그의 전신골격은 강인해 보였는데 그 뚱뚱한 배만이 둔해 보였다. 홍칠공이 또 말하였다.

"황산의 음식은 천하의 극음한지(極陰寒地)이지. 때문에 이곳 지네들은 가장 살이 썩어 있지. 광둥지방은 날씨가 무더워 모든 것이 빨리빨리 자라지. 지네 고기도 푸석푸석해 !"

그가 신중하게 말을 하자 양과는 그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다소 호기심이 일어났다.

홍칠공은 돌맹이 네 개를 불 주위에다 놓았다. 등 뒤에서 화로 하나 꺼내 돌 위에 걸쳐 내려놓았다. 눈 한 움큼을 화로 속에다 집어 넣은 뒤 홍칠공이 말했다.

"나와 지네를 잡으러 가자."

몇 차례 오르락 내리락하자 두 장 가량 되는 절벽 위로 올라섰다. 양과는 산세가 험준한 것을 보자 감히 뛰어오르지 못했다. 홍칠공이 소리쳤다.

"이런 쓸모없는 녀석, 빨리 올라와 !"

양과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경멸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 이말을 듣자 이를 악물고 위로 올라갔다.

(무엇을 두려워하랴 ? 죽게 되면 죽는 거지 !)

그런 생각을 하며 경공을 펼치자 뜻대로 잘 되었다. 양과는 홍칠공의 뒤를 바짝 따라갔다. 매우 미끄럽고 험준한 곳도 이상하게 그에게 정복되어져 갔다.

차 한잔 마실 시간쯤 지났을까. 두 사람은 이미 아무도 사람이 온 적이 없는 산 정상에 올랐다. 홍칠공은 양과가 이처럼 대담한 경공을 지니고 있음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는 보고 들은 것이 많으나 이 소년의 무공내력을 알아 낼 수가 없어 물어 보고 싶었지만 그보다 먼저 미각을 충족시켜야 했다. 커다란 바윗덩어리 곁으로 간 홍칠공은

두 손으로 흙을 파내기시작했다. 잠시 후, 흙 속에서 죽은 수탉 한 마리가 나왔다. 양과는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어, 어떻게 닭이 있었을까?"

홍칠공은 미소를 지으며 수탉을 꺼냈다. 허연 눈빛의 수탉이 분명하게 그 형체를 드러냈다. 닭의 몸 전체에 7,8촌 가량 자란 100여 마리의 지네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검고 붉은 꽃무늬 같은 지네들이 연신 꿈틀거렸다. 그는 어려서부터 강호의 밑바닥을 전전하였기에 본래 독충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많은 지네들을 보게 되자 순간 섬뜩했다.

홍칠공이 만족스러운 듯말했다.

"지네와 닭은 서로 상극이지. 내가 어제 여기에 닭 한 마리를 묻어 놓았더니 과연 사방의 지네들이 다 모여들었군."

홍칠공은 바로 보자기를 꺼내 닭과 지네를 함께 싸고는 신나게 산을 내려갔다. 양과는 뒤를 따라가며 걱정이 되었다.

(설마 정말 지네를 먹을 것인가? 그의 표정을 보니 나를 놀라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닌데.....)

화로에 집어넣은 눈은 벌써 펄펄 끓고 있었다. 홍칠공은 보따리를 풀어 지네의 꼬리를 잡아 한 마리씩 화로에 집어넣었다. 지네들은 한 바탕 난리를 치더니 모두 삶아졌다. 홍칠공이 말했다.

"지네는 죽을 때 자신의 독을 다 뱉어내지. 이 탕 속의 물은 상당히 극독 무비한 것이야."

양과는 독물을 쏟아 부었다.

홍칠공은 칼을 꺼내 지네의 머리와 꼬리를 잘라 내곤 가볍게 비틀어 껍질을 손으로 벗겨 냈다. 투명한 백색 살점이 마치 새우처럼 맛있게 보였다. 양과가 생각했다.

(아무리 맛있게 보인다 해도 정말 먹을 수 있을까?)

홍칠공은 또 눈을 녹여 두어 차례 끓여 지네고기를 깨끗이 씻어 냈다. 독액을 다 씻어내자 등뒤에서 크고 작은 일곱 개의 철로 된 그릇

을 꺼냈다. 그릇 속에는 기름, 간장 등의 조미료가 있었다. 그는 화로에 기름을 치곤 지네고기를 쏟아내고 볶아 대기 시작 했다. 맛있는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다. 그가 정신없이 군침을 흘려 대며 입맛을 다셔 대자 양과는 우습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

홍칠공은 지네가 노랗게 튀겨지자 조미료를 고루 뿌렸다. 그러더니 한 마리를 손으로 집어들어 입에 쏙 집어넣었다. 천천히 몇 번 씹더니 두 눈을 살며시 감고는 탄성을 질렀다. 천하의 즐거움 중에 이보다 더한 것이 있으랴, 하는 그런 표정이었다. 등뒤에 매고 있던 호로병을 꺼내 옆에 놓은 뒤 홍칠공이 말했다.

"지네고기를 먹을 땐 술을 마셔선 안 돼 ! 그렇지 않으면 지네고기의 미각이 변하게 되지."

그는 단숨에 10 여 마리를 먹었다. 양과를 쳐다보며 말했다.

"먹어, 체면차리지 말고 !"

양과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난 안 먹어요."

홍칠공이 순간 껄껄 웃으며 말했다.

"좋아, 좋아. 많은 영웅 호걸들은 사람이 나자빠져 피를 흘려도 눈썹 하나 찡그리지 않지만, 나와 함께 지네를 감히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보지 못했지. 하하, 너도 필경은 담이 작은 녀석이겠구나."

양과는 그에게 조롱을 당하자 이렇게 생각했다.

(두 눈을 질끈 감고 씹는 척하다가 그냥 꿀꺽 삼켜 버리면 놀라지 않겠지.)

나뭇가지를 젓가락 삼아 지네 한 마리를 잡아 올렸다. 홍칠공은 이미 그의 의중을 알아채고는 말했다.

"네가 두 눈을 감고 씹지도 않은 채 단숨에 십여 마리를 삼킨다면 이는 결코 영웅 대장부의 행동이 아니지."

"그렇다고 독충을 먹어야 뭐 영웅 대장부인가요 ?"

"천하에는 자칭 영웅 대장부라 하는 이가 꽤 많지. 그러나 용기 있

게 지네를 먹을 수 있는 자는 몇 명뿐이야."

양과가 생각했다.

(죽는 것도 아닌데 뭐 큰일이 날려고 ?)

양과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곧장 지네를 입에 넣고 씹었다. 일단 씹기 시작하자 산뜻하면서도 향기로운 것이 달콤하면서 감칠맛이 있었다. 일생 동안 이 같은 맛은 처음이었다. 다시 몇 모금 씹어 대자 저절로 목구멍으로 내려갔다. 두 마리째를 집어 먹고는 탄성을 연발했다.

"야하 ! 최고군요, 최고 !"

그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보자 홍칠공은 흡족해 했다. 두 사람은 다투어 가며 100 여 마리의 지네를 깨끗이 먹어치웠다. 홍칠공은 입가에 묻은 찌꺼기를 혀로 훔쳤다. 100 마리쯤 더 먹어야 양이 찰 듯이 보였다. 양과가 말했다.

"제가 수탉을 다시 묻어서 지네를 끌어모으겠어요."

"안 돼 ! 첫째, 수탉의 효용이 이미 다 됐고 둘째, 그 근처에는 살쥔 지네들이 이미 남아 있지 않아."

돌연 기지개를 켜며 하품을 해 댔다.

눈 위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놈들을 따라오느라고 닳새 동안 잠 한숨 못 잤어. 오늘 포식을 잘 했으니 함 삼일간 편히 잘 수 있겠군. 날이 밝더라도 나를 깨우지 마라. 너는 곁에서 어디 짐승이 달려드나 잘 살펴보아라."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

홍칠공은 눈을 감더니 잠시 후 깊은 잠에 빠졌다.

양과는 생각했다.

(이 노선배는 정말 기인이군. 설마 정말 3일 동안 잘 수 있는 건 아니겠지 ? 그가 정말인지 아닌지, 갈 곳도 없는데, 3일간 기다려 보면 알 수 있겠지.)

화산의 지내는 천하의 극한(極寒) 성질을 지닌 것으로 양과는 뱃속이 서늘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암석을 찾아 앉아서 한동안 운기를 하자 전신이 편해졌다. 하늘을 뒤덮었던 응모 같은 눈발은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홍칠공의 몸 위에 면화처럼 흰 눈이 가득 덮였다. 몸의 열기 때문에 눈이 녹을 텐데 어째서 녹지 않고 있을까 ? 양과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잠시 생각을 해 보다가 깨달았다.

(그렇구나. 그는 잠을 잘 때는 신공을 운행해 열기를 모두 체내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잘 때는 마치 시체처럼 되는 것이지. 이 정도의 내공이라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용아가씨가 날더러 한옥침상(寒玉寢牀)에 자라고 한 것은 바로 내가 후에 이런 심후한 내공을 연마할 수 있기를 바라는였지. 아, 한옥침상, 그 한옥침상 !)

날이 밝아 오기 시작했다. 홍칠공은 이미 눈 속에 파묻혔다. 단지 땅 위가 좀 튀어나와 보일 뿐 전혀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다. 양과는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다. 사방이 어둑어둑한데 갑자기 동북쪽에서 사각사각 눈 밟는 소리가 들렸다. 자세히 보니 다섯 사람이 급히 오고 있었다. 모두 신법이 쾌속했으며 등에는 칼이 번쩍거렸다. 양과는 순간 생각했다.

(아마도 노선배가 말한 장변오추인 모양이다.)

급히 바윗덩이 뒤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다섯 명은 바위 앞에 다다랐다. 한 명이 <어 !> 하며 소리쳤다.

"그 늙은 거지의 술 호로병 아냐 !"

다른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그가 화산에 ?"

다섯 명의 표정에 일순 공포감이 일었다. 조용히 의논을 하더니 돌연 다섯 명이 동시에 밀으로 달려 내려갔다. 길이 좁아 한 명이 몇 발 자국 뛰다가 홍칠공의 몸을 밟았다. 발 밑이 물렁하자 <어 !>하고 소리쳤다. 나머지 네 명이 걸음을 멈추고 에워싸 눈을 파헤쳤다. 이미

죽은 지 오래 된 것 같은 홍칠공이 땅바닥에 누워 있었다. 다섯 명은 대단히 기뻐하며 손을 뻗어 그의 코에 갖다 대 보았다. 호흡이 이미 끊어졌으며 몸도 얼음 같았다. 다섯 명은 기뻐서 마구 날뛰었다. 진기한 보물을 얻었다 한들 저렇듯 기뻐 날뛰라 !

한 명이 말했다.

"이 늙은 거지가 여기까지 따라오더니 결국은 뺏아 버렸군."

"홍칠공, 이놈의 무예는 실로 대단한데, 어째서 아무 까닭 없이 죽을 수 있단 말이나 ?"

"무공이 아무리 놓아도 죽지 않을 순 없잖아 ? 잘 보라. 이 킁봉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가 !"

나머지 네 명이 일제히 소리쳤다.

"염라대왕이 그를 잡아간 거야. 그렇지 않다면 대적하기가 정말 어려웠을걸....."

처음 그 사람이 말했다.

"자, 모두들여리 와 ! 이놈을 베어 버려야지 ! 구지신개 홍칠공이 한때 세상을 풍미했지만 결국은 장변오웅(藏邊五雄)에게 구천을 헤매는 귀신이 되는구나."

양과는 생각했다.

(원래 그 노선배는 바로 홍칠공이었구나. 어쩐지 무공이 고강한다 했지.)

홍칠공이 이름과 강룡십팔장(降龍十八掌) 등 절기는 일찌기 소용녀와 담화하던 중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홍칠공이 하도 살이 썩어 임조영이라도 알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소용녀도 당연히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는 손에 옥봉침을 잡고서 기회를 틈타 암기를 발출시켜 세 놈을 해치운 후 나머지와 싸우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방금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들이 홍칠공을 다치게 할까 두려워 암기를 발사할 수가 없었다.

양과는 즉각 함성을 질러 대며 바위 뒤에서 뛰어나왔다. 그는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아 편한대로 나뭇가지 두 개를 집어들고는 빠르게 다섯 명을 찔러 들어갔다. 이 다섯 초는 빠르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아깝게도 그가 고향을 먼저 질러 댔기 때문에 그들 오추는 방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한두 명은 맞아 떨어졌을 것이다. 뜻하지 않은 공격에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겨우 막아내고는 재빨리 피했다.

다섯 명이 몸을 돌려 보니, 다 떨어진 옷을 입은 소년이 마른 나뭇가지를 꼬나잡고 있었다. 순간 두려운 마음은 벌써 사라졌다. 제 일추가 말했다.

"꼬마놈아, 네놈도 개방의 거지였다? 너의 거지 도사는 황천길로 갔어. 어서 꿇어 앉아 다섯 영감님들께 절이나 하여라."

양과는 방금 다섯 명이 피하는 신법을 보아 그들의 무공을 대략 알 수 있었다. 오추들은 모두 등에 큰 검을 메고 있었다. 무공은 모두 한스승 아래 배운 것이지만 깊고 낮은 차이는 있었다. 만약 단독으로 한 명씩 싸운다면 분명 승산이 있었다. 그러나 다섯이 함께 덤벼든다면 당해 내지 못할 것이었다.

"네에, 소인 다섯 분께 절 올립니다."

한 발 다가서며 절을 했다. 절을 하며 펼치는 전공후거(前恭後踞) 일초식은 일찌기 손노파가 사용했던 것으로 당시 전진도인 장지광(張志光)이 여기에 당해 하마터면 장님이 될 뻔한 일이 있었다.

이때 양과는 전공후거 초식 후에 일초 추창망월(推창望月)을 전개했다. 돌연 쌍수를 휘둘러 양과는 마른 나뭇가지를 좌우로 격출했다.

그의 왼쪽에 이추가, 오른쪽에는 삼추가 있었다. 이 일초 추창망월은 매우 지독스러워 삼추의 무공이 비교적 강했지만 황망히 검을 세워 막아 냈다. 나뭇가지가 칼등을 때렸지만 하마터면 칼을 놓칠 뻔했다. 오추는 발빠에 얻어맞아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너무 아파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나머지 네 명이 화가 나 단도를 휘두르며 베어 들어왔다. 양과는 신법을 재빨리 놀려 이리저리 번개같이 피하자 그들도 순간 어찌

지를 못했다. 한 차례 싸우고나자 오추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화가 몹시 났는지 죽어라 하고 공격해 들어왔다.

양과의 경공은 그들보다 위에 있어서 도망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홍칠공을 염려해서 멀리 가지 못하고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했다. 양과는 점점 다섯 명의 협공을 당해 내지 못하고 위기에 몰렸다. 양과는 즉시 몸을 굽혀 홍칠공을 끌어안았다. 오른손을 휘둘러 길을 뚫고서 달렸다. 힘을 주어 10 여 장 달아났다. 장변오추들이 뒤에서 따라왔다.

양과는 수중의 홍칠공의 몸이 차갑게 느껴지자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가 아무리 깊이 잠들었기로서니 이 와중에 깨어나지 못할 리가 없을 터인데, 정말로 죽은 것이나 아닐까 ?

"노선배님, 노선배님 !"

홍칠공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시체와 다름없었는데, 다만 시체처럼 단단하지 않을 따름이었다. 양과는 손을 뻗어 그의 가슴을 짚어 봤다. 약간 미동이 있을 뿐 호흡은 전혀 없었다.

잠시 멈추어 서 있는 사이에 제 일추가 벌써 쫓아왔다. 그는 양과의 무공이 상당하다고 느껴 감히 단독으로 덤벼들지 못하고 나머지 무리를 기다렸다. 양과가 또 10 여 장 밖으로 달아났다. 양과가 산봉우리로 올라가는 것을 보자 이곳에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설마 체까짓 게 날아서 도망가랴 싶어 느긋하게 천천히 쫓아왔다.

산길은 갈수록 험해졌다. 양과가 한 귀통이를 돌자 길이 더욱 좁아져 한 사람이 통과하기도 어려운 지경이었다. 좁은 길 옆에는 천길만길 운무가 자욱하여 끝이 안 보이는 심연이었다.

(여기가 제일 좋겠군. 여기서 그들을 막아내야지.)

급히 좁은 길을 통과해 홍칠공을 바위 위에다 내려놓고 몸을 돌려 보니 벌써 한 명이 좁은 길 입구에 들어선다. 양과가 달려들며 말했다.

"이 괴물아, 감히 맞설 테냐 ?"

그는 양과와 무뎛쳐 함께 절벽으로 떨어질까 무서워 뒤로 물러났다. 양과는 입구에 우뚝 섰다. 아침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눈발은 이미 멎어 온산에 수정같은 구슬방울이 맺혀 있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아 백설로 뒤덮인 천지가 그지없이 아름다웠다.

양과는 인피면구를 얼굴에 뒤집어쓰며 말했다.

"내가 더 추해 보이냐, 아니면 어희들이 더 추해 보이냐?"

장변오추의 용모는 보기 흉하긴 했어도 인피면구를 쓴 양과보다 추하지는 않았다. 추해 보인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행동거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양과가 두 손으로 얼굴을 한 번 만지자 돌연 용모가 변하여, 표정이 하나도 없는 납빛으로 바뀌어 마치 무덤을 뚫고 나온 강시와 같이 보였다. 오추들은 서로 마주보며 놀라는 듯했다.

양과는 천천히 협도의 가장 좁은 곳으로 물러나 괴성척두세(魁星剔斗勢)를 사용해 왼발로 땅을 딛고 오른발로 하늘을 걷어찼다. 몸은 바람에 가볍게 흔들거렸다. 순간적으로 영웅의 기운이 가슴 가득히 충만됨을 느낄 수 있었다.

(적들이 설령 천군만마로 밀려온다 해도 나는 이렇게 막아 설 것이다.)

오추가 중얼거렸다.

(개방 가운데 어디서 이처럼 괴이한 소년이 나온 것일까?)

그들은 지세가 험준하여 감히 협도로 들어오지 못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우리들이 여기를 지킬 테니 내려가 먹을 것을 갖고 오시오. 이틀이 안 돼 녀석은 배가 고파 기운이 떨어질 것이오."

네 명이 일자로 늘어섰다. 이추가 음식을 가지러 산을 내려갔다. 쌍방은 서로 이처럼 대치하고 있어 양과도 가지 못하고 사추들도 이지 못하게 되었다.

이틀째가 되자 이추가 음식을 갖고 와 다섯 명이 우물우물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양과는 벌써 시장기가 돈 지 오래 되었다. 머리를 돌

려 홍칠공을 보니 하루 전의 자세와 조금도 다름없어 보였다.

(만약 그가 잠이 든 것이라면 잠결에 조금이라도 몸을 뒤척일텐데 이처럼 꼼짝도 안 하니 정말 죽은 것이 아닐까 ? 하루가 더 지나면 배가 고파 힘이 다 빠질 텐데..... 그러면 더욱 적을 막아내기 힘이 들테니 아무래도 지금 공격해 도망하는 것이 낫겠군.)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양과는 다시 생각했다.

(그가 3일간 자겠다고 하고선 나보고 잘 보살펴 달라고 분부하였지. 그렇게 내가 대답을 해 놓고서 어떻게 지금 와서 그를 버리고 도망친단 말이나 ?)

양과는 허기를 참으며 눈을 감고 운기를 했다.

사흘째가 되었다. 홍칠공은 여전히 이틀 전과 마찬가지로 꼼짝않고 누워 있었다. 양과는 볼수록 의심이 일어났다.

(그는 죽은 것이 분명하다. 시체를 지키며 떠나지 않은 것은 바보스러운 짓이었다. 반나절만 더 지나면 저 다섯 명의 공격도 필요없이 스스로 굶어 죽을 것 같구나.)

바위 위의 눈을 한 움큼 집어 입에다 털어 넣었다. 뱃속의 공복감이 다소 누그러 들었다.

(나는 부모에게 효도도 다하지 못했다. 용아가씨에게도 잘 하지 못했고, 또 형제자매도 없다. 친한 친구 한 명조차 없어, 그러니 <의리>라는 말도 사용할 건덕지가 없지. 믿음을갖고 어쨌든 그를 지켜보자.)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이었다.

(곽백모가 내게 글을 가르칠 때 말했지. 옛날에 미생(尾生)이라는 청년이 여자와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지. 여자가 오지 않았는데 그만 홍수가 나서 범람했다는군. 미생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리 난간을 끌어안고 죽었다고 했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이름을 후세에 남기게 되었다고 했다. 나 양과는 비록 세상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왔지만 노선배와의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욱 사람들에게 경시받을 것이다. 설사 여기서 죽는다해도 삼일을 견디고 볼 일이다 !)

하루 밤낮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나흘째 아침이 되었다. 양과는 홍칠공의 몸 앞에 다가가 그의 호흡을 자세히 살펴 보았지만 여전히 호흡이 없었다. 그만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그에게 절을 하였다.

"홍 노선배님, 저는 이미 삼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애석하게도 선배님은 고인이 되셨군요. 제자가 무력하여 당신의 유해를 간수하지 못하고 오직 깊은 계곡으로 던져 간악한 무리들로부터 욕됨을 막을까 합니다."

그의 몸을 끌어안고 협도로 나갔다.

오추들은 그가 허기를 참지 못하고 도망치려는 줄 알고 소리소리 지르며 달려들었다.

양과는 고향을 지르며 홍칠공을 계곡 속으로 던져 버린 뒤, 오추를 향해 질풍같이 쳐들어갔다.

*** 북개와 서독(西毒)의 최후 ***

양과가 두 걸음 정도 나섰을까, 돌연 머리 위로 한 줄기의 거센 바람이 지나가더니 한 사람이 그의 머리 위에서 내려와 그와 오추의 사이에 서서 웃으며 말했다.

"잠 한 번 개운하게 잘 잤다."

바로 구지신개 홍칠공이었다.

양과는 그를 보자 뿔 듯이 기뻐했지만 오추는 아연실색했다.

홍칠공은 눈더미에서 정말로 잠이 들었었다. 오추가 그의 몸을 밟자 그제서야 깨어난 것이다. 누워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 이 소년이 사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양과가 와서 그의 호흡을 살펴볼 때마다 호흡을 멈추고 죽은 척하다가 이제서야 의젓하게 방금 깬 것처럼 일어나 협도의 입구에 서 있게 된 것이다. 그는 왼손으로 반원을 그리며 오른손으로 일장을 내 보냈다. 바로 그의 평생에 절세의 무공인 강룡십팔장 중의 항룡유희였다. 일추는 피할 수도 없었다.

이 일초가 견디기 어려움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쌍장으로 맞서지 않을 수 없었다.

홍칠공은 장력을 마음대로 거두고 펼치며 자유자재였지만 일추는 이미 팔이 저려 오고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이추는 그가 위급한 것을 보자 홍칠공의 장력에 깊은 골짜기로 떨어질까 봐 황망히 쌍수를 뺨아 그의 등을 밀었다. 홍칠공의 장력이 더욱 강해졌다. 이추는 뒤를 한번 올려다보더니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사추는 그 뒤에 서서 팔을 뺨아 부축해 주었다. 홍칠공의 장력이 사추를 이어서 삼추로, 삼추를 이어서 맨 뒤에 있는 오추의 몸에까지 전해졌다. 이들 다섯 사람은 도망칠래야 도망치지도 못하고 피할래야 피하지도 못하여 순식간에 홍칠공의 단장(單掌)의 힘에 맞아 죽을 판이었다.

홍칠공이 웃으며 말했다.

"너의 다섯놈들, 못된 짓거리만 골라서 하더니 오늘 노규화(老叫化)의 일장에 죽는구나. 죽어도 눈이나 편안히 감아라."

다섯 사람은 한에 얹혀, 기운을 북돋우고 눈을 부릅뜨며 힘을 합하여 그의 단장에 맞섰다. 그러나 압력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하여 나중에는 숨조차 제대로 쉬기가 어려웠다.

"아니 !"

홍칠공이 돌연 소리를 지르며, 이상한 생각이 드는 듯 장력의 8할 정도를 거두어 들이고 물었다.

"너희들의 내공은 보아하니 특정한 문하에서 배운 듯한데, 너희들의 사부는 누구냐 ?"

일추가 쌍장으로 여전히 그와 맞서며 호흡이 곤란한 듯 헉헉거리며 말했다.

"우....., 우리는....., 달이파(達爾巴) 사부.....의문하이다."

"달이파 ? 들어 본 적이 없는데. 음 너희들이 내공을 서로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을 보니 그 문하의 공력이 보통이 아니로구나."

양과는 생각했다.

(홍노선배께서 <보통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보통이 아닐 텐데..... 하지만 내가 보기엔 이 다섯 놈들은 그저 평범하기만 할 뿐 별다른 것이 없잖아. 아까 나를 한 번도 제대로 때리지 못했잖아 !)

홍칠공이 다시 묻는다.

"너희들은 무슨 문파(門派)냐 ?"

"우리의 사부는 서장(西藏)..... 성승(聖僧)..... 금륜법왕(金輪法王)문하의..... 이....., 이제자(二弟子)....."

홍칠공은 다시 고개를 흔들었다.

"서장성승, 금륜법왕 ? 들어 본 적이 없다. 서장에 영지상인(靈智上人)인가 뭔가 하는 화상은 본 적이 있지. 그의 무공은 너의들보다 훨씬 강해. 그렇지만 상승의 무공을 배우지는 않았어. 너희가 배운 것은 매우 훌륭한데..... 음, 뭔가가 있을 것이다. 가서 너희들 조사야(祖師爺)께 아뢰어라. 나와 한번 겨루어 보라구."

일추가 말했다.

"우리 조사야는 성승....., 살아 있는 보살로 몽고 제 1국사 (國師)요.神通광대(神通廣大)하고 천하무적인데 어....., 어떻게.....?"

이추는 홍칠공의 말투에서 자기들의 목숨을 살려 주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일추의 이 말은 스스로 활로를 뚫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서 황급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가서 조사야께 부탁하여 홍노선배와 겨....., 겨....., 겨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사야만이 홍노선배와 적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조무라기들은....., 당신과....., 술....., 술잔....., 도....., 제....., 제....., 대로....."

여기까지 말하는데 <탁 탁 탁> 소리를 내며 산모퉁이 뒤에서 한 사람이 돌아나왔다. 몸을 거꾸로 하고 두 손에는 각각 돌덩이를 잡고 땅

을 찍으며 오고 있었다. 바로 서독(西毒) 구양봉(歐陽鋒)이었다.

"아버지 !"

양과가 크게 소리 질렀다. 구양봉은 듣지 못한 듯 오추의 등뒤로 몸을 날려 오른발을 뺀어 그의 등을 한 번 치자 거대한 힘이 다섯 사람의 몸을 통하여 곧장 앞으로 전해졌다.

홍칠공 역시 구양봉이 갑자기 나타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양과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이 소년이 그의 아들이었다는 생각을 해 보니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손이 뜨끔하며 상대방의 힘이 전해 오자 서둘러 힘을 더하여 반격했다.

화산(華山)에서 2차 논검(論劍)이 있는 뒤에 10여 년 동안 홍칠공과 구양봉은 만나지를 못했다. 구양봉은 정신은 비록 흐렸지만 구음진경을 거꾸로 수련하여 무공은 연마할수록 괴이해졌고, 괴이해질수록 강해졌다. 홍칠공은 일찌기 광정 황용이 진경 중의 한 부분을 암송하는 것을 들어 자기의 원래의 무공에 더하여 큰 진전이 있었다. 정(正)은 W 생m² 뺄잔역(逆)을 이길 것이므로 그가 아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구양봉에게 뒤지지는 않을 것이었다. 두 사람의 수십 년 전의 무공은 그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다. 이 이후로 각각 만나기도 했지만 오늘 화산에서 세번째로 서로 만나, 공력을 겨루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상하를 가리기가 힘들었다. 불쌍한 것은 장변오추였다. 그들은 당대의 양대 고수의 사이에 끼여 초술을 시험하는 깔개가 되고 권술을 연마하는 모래주머니가 되어 몸이 한 차례 차가워졌다가는 뜨거워지고, 호흡이 가빠졌다가는 다시 느려지며 온몸의 뼈가 끼익끼익 소리를 내는 것이, 어떠한 가혹한 형벌을 받는 것보다도 백 배나 더 처참했다.

구양봉이 갑자기 물었다.

"이 다섯 놈이 배운 내공이 매우 뛰어나군. 대체 어느 문파냐 ?"

양과는 생각했다.

(외부까지도 그들이 배운 내공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보니 이 호추는 과연 보통 무리가 아니구나.)

홍칠공의 말만이 들렸다.

"그들은 무슨 서장성승 금륜법왕인가 뭔가 하는 자의 도손(徒孫)이라고 하네."

"금륜법왕을 그대와 비교하면 누가 더 무서울까?"

"모르지.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군."

"나하고 비교하면 ?"

"그대보다는 약간 무섭지."

구양봉은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릴 리가 ?"

두 사람은 말을 하는 동안에도 손과 발은 여전히 힘을 겨루고 있었다. 홍칠공은 여러 번 연속하여 서로 다른 장력을 폈지만 모두 구양봉이 발의 힘으로 풀어 버렸다. 이어서 그의 발에 힘을 더하여 공격했다. 그러나 구양봉도 홍칠공을 조금도 물려서게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한 수를 교환하면 서로가 감탄을 하며, 동시에 하하, 하고 크게 웃고는 뒤로 펄쩍 뛰었다.

장변오추는 몸에서 갑자기 압력이 풀어지며 어지러운 듯이 흔들거리는 것이, 마치 술에 취한 것과 똑같았다. 다섯 사람은 양대 고수의 내력을 앞뒤에서 번갈아 받아서 오장육부가 골고루 중상을 입고 근육이 풀리고 뼈가 약해져 이미 폐인이 되다시피 했다. 7,8세의 어린아이도 대적하지 못할 정도였다. 홍칠공이 호통을 쳤다.

"다섯 간적(奸賊)은 들어라. 너희들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이후로는 절대로 사람을 해칠 수 없을 것이다. 어서 내 앞에서 썩 사라져 버려라. 돌아가면 너희 조사야 금륜법왕에게 반드시 전해라. 어서 빨리 중원(中原)으로 와서 나하고 실력을 겨뤄 보라고 말이다."

구양봉이 말했다.

"아하고도 겨뤄 보라고 해라."

장변호추는 연이어 대답을 하고 절뚝절뚝 걸음을 옮기며 서로를 부축하여 봉우리를 내려갔다.

구양봉은 몸을 돌려 똑바로 서서 홍칠공을 바라보고 안면이 있는 듯 하여 소리쳤다.

"어이, 그대의 무공이 실로 대단하구나, 이름이 무엇이나 ?"

홍칠공은 이 말을 듣고 다시 그의 얼굴을 보니 아직 정신이 혼란해 보여서 그가 10 여 년 전에 기억 상실증에 걸린 이후로 아직 다 낫지 않았음을 알수 있었다.

"나는 구양봉이라고 한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나 ?"

구양봉은 가슴이 철렁 하면서 이 <구양봉>이라는 세 마디가 웬지 매우 친숙함을 느꼈다. 그러나 자기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전혀 생각이나지 않아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나는 몰라. 어이, 내 이름이 뭐지 ?"

홍칠공은 큰소리로 웃었다.

"하하, 자기 이름도 모르다니 ! 어서 집에 돌아가 곰곰히 생각해 보아라."

구양봉은 화가 났다.

"너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어서 알려주지 않겠느냐 ?"

"좋다. 너의 이름은 취합마(臭蛤馬)이다."

<합마>라는 두 글자는 구양봉에게 매우 낯이 익어서 그럴 듯도 하였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었다. 그와 홍칠공은 수십 년 동안의 철천지 원수여서 증오하는 감정이 골수에 깊이 새겨졌다. 지금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지만 그를 보자 저절로 화가 나는 것이었다. 홍칠공은 그가 멍하게 서 있다가 눈에 갑자기 살기가 도는 것을 보고 은근히 경계를 하고 있었다. 과연 그의 대갈일성이 들리며 무섭게 공격을 해 왔다. 홍칠공은 감히 얹잡아볼 수 없어서 즉시 강룡십팔장의 장법으로 맞섰다. 두 사람은 차가운 북풍을 맞으며 겨우 한 자 남짓 되는 좁은 길의 얼음 위에 서서 각기 평생의 절기로 혼힘을 다하여 맞섰다. 한쪽 옆은 만장(萬丈)의 심연으로, 자칫 잘못하면 온몸이 가루가 될 것이니 평지에서 싸우는 것보다 몇 배나 위험했다. 둘은 이

제 나이가 많아 정력은 비록 이미 쇠퇴했지만 무학의 수양은 모두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 초수는 정밀하고 심오하여 그 깊이와 오묘함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10 여 초를 겨루고 나서는 모두가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 구양봉이 말했다.

"노가화(老加化)가 대단히 무섭구나."

홍칠공이 웃으며 말했다.

"취합마도 보통이 아닌데....."

양과는 지세가 험악한 것을 보고 구양봉이 산골짜기에 떨어지거나 앓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때로 홍칠공이 궁지에 몰리는 것을 보면 저도 모르게 은근히 벗어나기를 바랐다. 구양봉은 그의 의부여서 정의(情意)가 자연히 깊었다. 그러나 홍칠공은 호방강개하여 당세 대협의 풍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은근히 마음이 끌렸다. 그는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서 큰 위험을 무릅쓰고 홍칠공과 사흘 낮 사흘 밤 동안 고통을 겪었다. 사흘 동안 두 사람은 단 한 마디의 말도 주고받은 적이 없었지만 양과는 그와 함께 몇백 번은 죽을 고비를 겪은 것인 양 생각이 되었다.

수십 초를 싸우자 양과는 두 사람이 비록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치열한 공방전을 치르면서도 위험을 잘 벗어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쌍방의 안위(安危)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그들의 기묘한 무공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구음진경은 천하의 무술을 총망라한 것으로, 그가 아는 것은 아주 작은 단편에 지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초수가 진경의 요의(要義)와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자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진경 안에 있는 평범하기만 한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도 무수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구나.)

1 천여 초를 다투었다. 두 사람의 무공은 아직 다하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어 숨이 차고 가슴이 뛰어 손과 발이 느려지지 않을 수 없었다. 양과가 외쳤다.

"두 분은 반나절을 싸웠으니 배가 몹시 고프시겠지요 ? 모두 밥을 먹고 다시 겨루면 어떨까요 ?"

홍칠공은 <먹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즉시 뒤로 물러서며 외쳤다.

"좋지, 좋아 !"

양과는 오추가 대나무 도시락에 냉식(冷食)을 잔뜩 가지고 와서 한 쪽에 놓는 것을 보아 두었다. 즉시 뛰어가 뚜껑을 여니 뽕뽕 언 닭과 고기, 백주(白酒)와 찬 밥이 들어 있었다. 홍칠공은 뿔 듯이 기뻐하며 언 닭을 집더니 입을 크게 벌려 물어뜯고는 꼬옥꼬옥 소리를 내며 먹어 댔다.

양과는 언 고기 한 덩어리를 가져다 구양봉에게 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버지, 그 동안 어디 있었어요 ?"

구양봉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말했다.

"너를 찾았다."

양과는 가슴이 찡했다.

(세상에 이토록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아버지, 아버지가 바로 구양봉이에요.이분 홍노선배는 좋으신 분이니 서로 싸우지 마세요."

구양봉은 홍칠공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가 구양봉이다. 구양봉은 못된 사람이야."

양과는 그의 정신이 정상이 아닌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홍칠공이 웃으며 말했다.

"옳다. 구양봉은 못된 사람이야. 구양봉은 죽어야 해."

구양봉은 홍칠공을 바라보다가 양과를 뚫어지게 보며 두 눈을 치켜 뜨고 아무리 생각을 해 보려고 했지만 머리가 너무나 어지러 다.

양과는 구양봉이 다 먹도록 옆에서 돌봐 주다가 몸을 일으켜 홍칠공을 향하여 말했다.

"홍노선배, 저분은 저의 의부예요. 그가 중병에 걸려 정신이 혼미한

것을 가엾게 여기시고, 해치지는 마세요."

홍칠공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착한 소년이로다. 이제 보니 너의 의부였구나."

이때 구양봉이 돌연 뛰어 일어나며 말했다.

"구양봉, 주먹과 발로는 승패를 가릴 수 없으니 병기로 다시 겨뤄 보자."

홍칠공은 고개를 저었다.

"그만두자, 그대가 이긴 것으로 하지."

"이기고 지는 게 무슨 문제냐? 나는 너를 죽이고야 말테다!"

구양봉은 손을 돌려 나무 하나를 꺾어서 가지와 잎을 쳐 곤봉을 만 들어서 홍칠공의 머리를 내리쳤다. 옛날 그의 사장(蛇杖)이 천하를 휘 두를 때는 더 할 나위 없이 무시무시했다. 지금은 끝에 뱀은 없었지만 이 지팡이를 내려치자 끝이 닿기도 전에 한 줄기 거센 바람이 몰아쳐 양과는 숨도 제대로 쉬기가 어려웠다. 양과는 급히 몸을 날려 피하고 홍칠공을 보았다. 그도 땅에서 나뭇가지를 주워 단봉으로 삼아서, 두 사람은 이미 격투를 벌이고 있었다. 홍칠공의 타구봉법은 세상에 당할 자가 없었지만 함부로 이 봉법을 펴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외에도 적지 않은 정묘한 봉법이 있어서 그것으로 공격했다.

이번의 격투는 주먹과 발로 겨루는 것과는 또 다른 장관을 이루었다. 지팡이는 신룡(神龍)이 교태를 부리듯, 봉은 영사(靈蛇)가 춤을 추듯, 길다란 무지개가 하늘을 가르는 듯하면 유성이 달을 쫓듯 하여 그 변화무쌍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양과는 경이로움에 넋을 잃고 취한 듯 멍하農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지팡이를 내치며 봉을 내뺏으며 저녁까지 다투었지만 여전히 승패를 가리기가 힘들었다. 양과는 지세가 험악하고 온산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매우 미끄러운데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 더 이상 격투를 벌이면 실족을 할까 봐 걱정이 되었다. 양과는 큰소리로 외쳐서 싸움을 멈추도록 했다. 그러나 홍칠공과 구양봉은 싸움에 한창 신이

나는데 멈추려고 할 리가 없었다. 양과는 홍칠공이 게걸스럽게 음식을 먹던 광경을 떠올리고는 음식으로 홍칠공의 구미를 당기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곧 여기저기서 산약(山藥)과 고구마 등을 캐다가 불에 구워 냄새를 피웠다.

홍칠공이 향기를 맡더니 외쳤다.

"취합마, 그만 싸우겠다. 뭘 좀 먹는 것이 더 급해 !"

양과의 곁으로 달려와 산약 2 개를 집어들고 먹기 시작했다. 너무 뜨거워서 혀가 아플 정도였지만 연방 맛있다고 칭찬만 하는 것이었다. 구양봉은 뒤따라와서 나무지팡이로 그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했다. 홍칠공은 피하지도 않고 산약 하나를 집어 그에게 던지며 말했다.

"먹어라 !"

구양봉은 멈칫하며 손으로 그것을 받아 들고 먹기 시작했다. 둘은 홀연 방금 전의 치열한 싸움도 잊어버렸다.

밤이 되어 세 사람은 바위 굴에서 잠을 잤다. 양과는 의부가 기억을 회복하는 것을 도우려고 예전에 있었던 여러가지 일들을 얘기해주었다. 구양봉은 멍하게 듣고는 때로 주먹을 뺨어 힘껏 자기의 가슴을 때리며 있는 힘을 다해 생각을 하려고 애썼지만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해 고통스러워했다. 양과는 그의 병이 더욱 심해질까 봐 즉시 편안히 자도록 권했다. 양과는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 사람의 장법과 권법을 생각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흥분이 되어, 참지 못하고 일어나 조용히 흥내를 내기도 했지만 그 오묘함이 끝이 없었다. 한참 동안을 연습하자 피로가 몰려와 곧 잠이 들었다.

다음날 새벽 이른 시각, 양과가아직 잠에서 깨지도 않았는데 굴 밖에서 확확 바람소리와 함께 소리치고 뛰는 소리가 들려왔다. 급히 뛰어나가 보니 홍칠공이 다시 구양봉과 결투를 벌이고 있었다. 양과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드니 도리어 어려워지나 보다. 이렇게 다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지 ?)

양과는 옆에 앉아서 구경만 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홍칠공은 한 초(招) 한 식(式)이 모두 조리가 정연한데 구양봉의 초수는 종잡을 수가 없었다. 매번 홍칠공은 상풍(上風)을 차지하고서도 구양봉의 괴초(怪招)에 의하여 평수(平手)로 되곤 했다.

두 사람은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잠을 자며 4일을 계속했다. 둘 다 심신이 극도로 피곤하여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기도 했지만 끝내 반초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다.

양과는 생각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두 분이 다시 싸우지 않도록 해야겠다.)

양과는 이날 밤 구양봉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홍칠공에게 말했다.

"노 선배님, 굴 밖에서 얘기 좀 나눌까 하는데요."

홍칠공은 그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굴에서 10여 장이 떨어지자 양과는 돌연 무릎을 꿇고 연방 머리를 조아리며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홍칠공은 깜짝 놀라면서 그가 구양봉이 병이 든 것을 가엾게 여겨 진 것으로 하고 양보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하늘을 보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그렇게 하지."

홍칠공은 나무지팡이를 끌면서 산을 내려가 버렸다.

몇 장을 걸어가는데 돌연 옷깃에 바람이 스치며 구양봉이 굴에서 빠져나와 지팡이를 휘두르며 노하여 호통을 쳤다.

"노가화, 도망을 가려고 하느냐?"

홍칠공은 3초를 양보하며 틈을 노려 달아나려고 했지만 구양봉이 사방팔방으로 장풍(杖風)을 휘두르며 막아서 몸을 빼낼 수가 없었다. 고수들이 무예를 겨룰 때에는 긴장이 조금만 풀어져도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홍칠공은 양보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곧장 하풍(下風)으로 떨어져 견뎌 내지 못하고 여러 차례나 지팡이에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가 지팡이를 치켜들고 질풍같이 돌진하여 자신의 복부를 치

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일장의 무시무시함을 알아챈 홍칠공은 피하지도 양보하지도 못하고 봉을 세워 맞섰다. 문득 그의 지팡이에 거센 내력이 전해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와 내력을 겨루잔 말이나 ?"

순간 적의 내력이 이미 공격을 해 와 내력으로 맞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곧 그는 내력을 움직여 대항했다.

이제 내력으로 겨루게 되자 양보할 수도 없고 어느 한 쪽이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두 사람이 이전에 여러차례 무예를 겨룰 때는 모두가, 상대방을 이길 승산이 도저히 없을 경우에는 감히 경솔하게 위험한 수를 써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양봉은 혼신의 힘을 다해도 며칠동안의 결투에서 이기지 못하자 돌연 내력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었다.

10 여 년 전에라면 홍칠공도 구양봉을 뼈에 사무치도록 미워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이도 들어서 이미 불 같은 성질도 줄어들었다. 그가 기억상실증에 걸려 전전긍긍하고, 양과도 재차 부탁을하여 그를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다. 즉시 기를 단전에 모아 방어만 하고 공격은 하지 않으며, 조용히 구양봉의 내력이 다 소모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상대방의 내력은 장강의 물결과 같이 끊임없이 솟아올랐다. 한 물결이 지나가면 또 한 물결이 일어나 조금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갈수록 사나워졌다. 홍칠공은 스스로 내력이 심후함을 믿고 있었고, 수십 년 동안 용맹한 정진을 거듭했지만 그렇다고 서독을 이길 승산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전력으로 방어하면 어쨌든 패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했건만 어찌 된 일인지 몇 번을 싸워도 구양봉의 내력은 점점 강해지기만 했다. 홍칠공은 그와 장변오추를 사이에 놓고 내력을 겨루던 일을 생각했다. 그는 발에 연속하여 세 번 내력을 움직여 회수를 더할수록 강해졌었다. 이제 생각해 보니 그는 첫번째 공격한 내력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을 때 두번째 공력이 이미 이르렀고, 두번째 공력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을 때 세번째 공력이 이어서 날아왔었

다. 방어의 태세로만 버티다가는 연속하여 몰려서 결국은 당해내지 못할 것이니, 틈을 타서 반격을 가하여 그가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해서 갈수록 강하게 공격해 오는 힘을 막아야 했다. 즉시 힘을 움직여 반격을 가하자 두 사람은 평, 하고 거세게 마주치며 온몸이 한 차례 떨렸다.

양과는 두 사람이 내력으로 목숨을 다투는 것을 보고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가 만약 손을 써서 홍칠공의 뒤를 습격한다면 의부가 이기는 것을 도울 수가 있었다. 그러나 백발이 무성한 홍칠공의 얼굴을 보니 위엄속에도 자상함과 친절함이 흐르고 있었고, 강한 의협심에도 불구하고 조화와 구속이 없는 자태가 있어 실로 저도 모르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이었다. 하물며 그는 이미 자기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받아들여 기꺼이 양보를 하고 있지 않은가 ! 어찌 차마 손을 써서 가해할 수가 있단 말인가.

두 사람이 다시 얼마 동안 버티자 구양봉의 머리에서 한 줄기 하얀 기(氣)가 피어오르더니 점점 짙어져서 마치 찜통과도 같았다. 홍칠공도 전력으로 버티고 있어서 이제는 상대방의 목수를 해치느냐 마느냐를 돌아볼 겨를도 없었다. 자기만 보호할 수 있다면 다행일 뿐이었다.

새벽부터 진시(辰時)에 이르기까지 버티고 다시 진시부터 한낮에 이르기까지 버티자, 홍칠공은 내력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구양봉의 힘은 성난 파도처럼 용솟음치기만 했다.

(늙은 독물이 바보스러워질수록 무서워지는구나. 노규화의 목숨도 오늘로 끝이로구나.)

이번의 결투는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물러설 방법도 없어서 있는 힘을 다하여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구양봉도 역시 기력이 다하여 지탱하기 힘들어 하는 것을 아직 알아채지 못했다.

다시 두 시각을 싸우자 이미 신(申)시에 이르러 있었다. 양과는 두

사람의 안색이 크게 변한 것을 보니 다시 1시 3각(刻)을 싸운다면 둘다 목숨을 잃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앞으로 나서서 풀어 놓으려 해도 자기의 공력이 그들과 너무나 차이가 나서 제대로 풀어 놓지도 못하고 도리어 자기의 한 가닥 목숨마저 버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구양봉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홍칠공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큰 모험을 해야만 저들의 생명을 건지겠구나.)

그리하여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두 사람 사이로 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공력을 움직여 전신을 보호하면서 이를 악물고 나뭇가지를 뻗어 두 사람의 지팡이와 봉 사이로 끼여 들었다.

조금도 힘을 쓰지 않았건만 두 사람의 내력이 나뭇가지로 전해오면서 그가 움직인 내력이 부딪치자 곧 풀어져 버렸다. 북개, 서독이 아무리 당세의 영웅이라고 해도 서로가 여러 날 동안 힘을 소모해서 이미 모두 힘을 다 썼는데다가 그의 내력의 반격을 받자 동시에 땅에 고꾸라져 얼굴은 잿빛으로 변하고 움직이지도 못했다.

"아버지, 홍노선배님 ! 별 탈은 없으십니까 ?"

두 사람은 숨을 쉬기조차도 힘이 드는 듯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양과가 그들을 부축하여 동굴 안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게 하려고 하는데 홍칠공이 가볍게 고개를 흔들었다. 양과는 두 사람이 입은 내상이 극히 심하여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이 한밤중에 또 일어나 싸움을 벌일까 봐 양과는 아예 두 사람 사이에서 잠을 잤다. 하지만 두 사람은 내공을 움직여 상처를 치료할 수도 없는 형편인데 어떻게 다시 싸울 수가 있단 말인가 ! 다음날 새벽에 양과는 두 사람의 호흡이 가냘퍼 전날보다도 더욱 약해진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여 산약을 캐어다가 삶아서 그들에게 먹였다. 사흘째 되자 두 사람은 비로소 약간 생기를 회복한 듯했다. 양과는 그들을 부축하여 동굴로 들어가서 양쪽 옆에 나누어 눕히고 자기는 중간에 누웠다.

이렇게 며칠을 쉬자 홍칠공은 식욕이 다시 일어나며 회복하는 것이 빨랐다. 구양봉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종 침울했다. 양과가 그에게 말을 시키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두 사람이 서로 마주하고 놓자 홍칠공이 갑자기 외쳤다.

"취합마, 이제 지지 않았느냐?"

"지다니? 무슨 소리냐? 나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많은 무공이 있다. 만약 그 초수를 모두 사용한다면 너를 일패도지(一敗塗地) 시킬 수가 있다."

홍칠공은 크게 웃었다.

"마침 나도 아직 사용하지 않은 무공이 있다. 너는 개방의 타구봉법에 대하여 들어 본 적이 있느냐?"

구양봉은 흠칫하며 생각했다.

(타구봉법이란 말을 들어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무시무시한가 보다. 그런데 이 노가화가 그것을 쓴단 말인가? 그렇다면 나와 이토록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도 왜 사용하지 않았단 말인가? 아마 이미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타구봉법이라고 무슨 대수라더냐?"

홍칠공은 이미 매우 후회하고 있었다. 일전에 그와 다툼 때 타구봉법을 조금만 썼더라면 분명히 그를 제압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제정신이지 못하고, 자기는 이미 적지 않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다시 개방의 지보인 타구봉법으로 상대한다면 이겨도 몇몇하지 못하고 영웅호한의 행실에도 벗어날 것이었다. 그러나 구양봉이 비록 정신은 흐려도 무공은 결코 그로 인하여 감소되지 않았음을 홍칠공이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둘 다 패하여 상처를 입은 것이다. 당장 이 봉법을 사용하려 했지만 이제 힘이 없었다. 홍칠공은 그가 빈정거리는 것을 듣고 마음이 몹시 편하지 못하여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하여 양과를 불러서 귀를 갖다 기울이도록 하고 말했다.

"나는 개방의 전임 방주였다. 너는 나를 알고 있느냐?"

양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전진교 중앙궁에서 사형들이 당세의 인물에 대하여 담론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모두들 개방의 전임 방주 구지신개 홍칠공의 무공은 천하를 뒤덮어서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니 이자가 곧 위대한 영웅 호한이라고 말했었다.

홍칠공이 말했다.

"지금 네게 전수해 줄 무공이 하나 있다. 이 무공은 지금까지 오직 본방의 방주에게만 전해 주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는 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너의 의부가 느를 얹잡아보는 말을 하니 내가 너에게 전수하여 그 매서운 맛을 보여 주도록 하겠다."

"노선배께서는 지금까지 이 무공을 다른 외인에게 전하지 않으셨으니 이 후배는 배우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다. 저의 의부께서 아직 정신을 되찾지 못하셨으니 보여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홍칠공은 고개를 저었다.

"너는 비록 기초는 배웠지만 내력을 운용하는 비결을 모르니 적과 마주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 나도 네가 의부를 꼭 때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다만 몇 가지 자세를 보여 주어 그에게 똑똑히 알도록 하려는 것뿐이지. 그러니 너에게 꼭 전수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지."

양과는 생각했다.

(이 무공은 이미 개방에서 방을 통솔하는 보배이니 우리 의부가 분명히 당해 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왜 하필 홍선배가 우리 의부를 이기는 것을 도와야 한단 말이나 ?)

즉시 부탁을 거절하며 감히 개방의 비전(秘傳)을 배울 수 없다고 말했다.

홍칠공은 그의 심중을 간파하고 소리쳤다.

"취합마, 네 양자가 네가 나의 타구봉법에 대적할 수 없음을 알고 너에게 시범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군."

구양봉은 대로하여 외쳤다.

"애야, 나는 아직도 사용하지 않는 신기의 무공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를 두려워 하느냐 ? 어서 시범을 보여라. 신경쓰지 말고....."

두 사람이 한결같이 심히 몰아세우자 양과는 어찌할 수 없어 홍칠공의 곁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홍칠공은 그에게 나뭇가지를 가져오도록 하여 타구봉법 중의 봉타쌍견(棒打雙犬)을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양과는 한 동작을 배우면 곧 익혀서 즉시 시범을 보였다.

구양봉은 봉초(棒招)의 신기함을 보니 과연 무시무시하여 선뜻 대책할 용기가 없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장법(杖法) 하나를 양과에게 들려주었다. 양과는 그 말대로 시범을 보였다. 홍칠공은 미소를 띄며 찬사를 보냈다.

"좋아 !"

그리고는 다시 한 초의 봉법을 설명했다.

두 사람이 이렇듯 농입만을 가지고 무공을 겨루자 저녁때까지도 10 여 초밖에 겨루지를 못했지만 양과는 도리어 극도로 피곤하여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흘렀다. 다음날에도 다시 겨루어 사흘이 지나서야 36 로(路)의 봉법을 다 얘기해 주었다. 봉법은 비록 36 로지만 그 중의 정미한 변화와 오묘함은 끝이 없어 회수를 더할수록 구양봉이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기만 했다. 그러나 그가 반격하는 초수도 모두가 공수(攻守)를 겸비하고 위력이 무시무시하게 뛰어난 것이어서 홍칠공은 탄복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날 저녁에 이르러 홍칠공은 제 36 로의 봉법 천하무구(天下無狗)의 여섯번째 변초를 설명했다. 이것은 타구봉법 중 마지막 일초로서 최후로 변하는 절기이다. 이 일초를 퍼내면 사면팔방이 봉으로 힘이 이르는 곳은 수십 마리의 사나운 개도 일제히 죽어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이른바 <천하무구>는 바로 이런 의미이다. 봉법의 정묘함은 이미 무학중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 구양봉은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다. 그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날 아침 양과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구양봉이 돌연 크게 소리를 질렀다.

"있다, 있어. 애야, 이 방법으로 그를 격파해라 !"

부르는 소리가 흥분과 긴박함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았다. 양과는 그가 부르는 소리가 이상함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원래 구양봉은 나이가 많았지만 내공을 깊이 수련하였기 때문에 수염과 머리카락이 약간 희끗희끗할 뿐이었다. 이날 밤 지나치게 마음을 써서 하룻밤 사이에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여 갑자기 10 여 년은 더 늙은 것 같았다.

양과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쉬었다가 다시 겨루자는 말을 홍칠공에게 하려고 했지만 구양봉이 계속하여 재촉하는 바람에 그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일초는 너무 복잡하여 구양봉은 몇 번을 반복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했다. 양과는 한참 후에야 이해를 하고 그 방식대로 시범을 보였다.

홍칠공은 이것을 보자 안색이 크게 변하여 본래는 꼼짝달싹못하고 땅에 누워서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었는데 어디서 신력이 솟았는지 벌떡 뛰어 일어서며 소리쳤다.

"노독물, 구양봉 ! 노규화가 오늘 너를 이기고야 말겠다."

앞으로 달려들어 그를 단단히 움켜 안았다.

양과는 너무나 놀랐다. 그가 의부를 해치려고 하는 것을 알고 급히 그의 등을 잡았다. 그러나 그는 너무도 단단히 잡고 있어서 전혀 요지부동이었다. 홍칠공이 우하하, 크게 웃으며 말하는 소리만이 들렸다.

"노독물 구양봉, 네가 이런 절초를 생각해 낼 줄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 좋아, 구양봉 ! 좋지, 좋아 ! 구양봉 !"

구양봉은 수일 동안의 악전고투를 겪고 밤새도록 괴롭게 생각을 하여 정신과 기력이 이미 쇠할대로 쇠해졌는데 그가 연달아 세 번이나 <구양봉 !>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자, 돌연 머릿속에 한 줄기 빛이 번쩍이는가 싶더니 마음속에 수십 년 동안의 일들이 거울처럼 분명하

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가 ! 그도 역시 하하,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구양봉이다 ! 나는 구양봉이야 ! 너는 노규화 홍칠공이고 !"

두 백발의 노인이 함께 얼싸안고 큰 소리로 웃어 댔다. 그렇게 한참 웃더니 소리가 점차 낮아지며 돌연 웃음소리가 뚝 끊기면서 두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 노선배 !"

양과는 깜짝 놀라 계속하여 불렀지만 한 사람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뻗어 홍칠공의 팔을 잡았다. 홍칠공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이 이미 죽어 있었다. 양과는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몸을 굽혀 구양봉을 살펴보니 그도 이미 숨을 쉬지 않았다. 웃음소리는 비록 멎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고, 산골짜기에서는 은은하게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되어 되돌아왔다.

북개와 서독이 수십 년 동안 계속하여 악전고투하면서 서로 조금도 양보함이 없더니 마침내 함께 화산의 꼭대기에서 귀천(歸天)할 줄이야 어찌알았겠는가 ? 두 사람은 평생을 분노와 원한으로 서로 얹히었는데 죽음에 임하여서는 도리어 서로 얼싸안고 크게 웃었다. 수십 년의 깊고 깊은 원한을 한바탕 웃음으로 끝맺고 말았다.

양과는 순식간에 놀랍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여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다. 홍칠공이 일찌기 사흘 낮 사흘 밤을 거짓으로 죽은 척한 것을 생각하고 두 노인이 또 죽은 척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정황을 보니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았다.

(혹시 그들이 잠시 죽었다가 되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 두 노인의 무공이 이토록 높은데 죽을 리가 없어. 혹시 그들은 누가 더 오랫동안 죽은 채 하는가를 가지고 다시 겨루는 것은 아닐까 ?)

그는 두 사람의 시신 곁에서 7일 낮 7일 밤을 지켰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희망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두 시신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진정으로 죽었음을 알고는 그 자리에서 한바탕 대성통곡을 했다.

양과는 동굴 옆에 두 개의 구덩이를 나란히 파서 무림의 두 기인을 묻었다. 홍철공의 술호리병과, 두 사람이 무예를 겨룰 때 사용했던 곤봉 등도 모두 함께 묻었다. 두 노인이 당일 악전고투하면서 눈을 밝았던 발자국은 주위가 온통 단단한 얼음으로 변했어도 여전히 남아 있건만, 그 몸은 이미 황토로 돌아갔다. 양과는 발자국을 밟으며 당일의 정경을 회상하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파 왔다. 이토록 경세해속(驚世駭俗)의 무공을 지닌 두 대협도 이 보잘것 없는 어린 아이의 손에 묻히게 되다니..... 세상의 엄청난 영명(榮名)도, 커다란 위풍도 모두가 일장춘몽에 불과했다.

그는 두 노인의 묘 앞에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덟 번 머리를 조아렸다.

(의부가 비록 대단하다고는 하나 결국은홍노선배께 한 수 뒤진 것이다. 그 타구봉법을 사용할 때에 의부는 반나절을 생각하고서야 그것을 물리쳤다. 만약에 실제로 대적을 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할 여유가 있었겠는가?)

한숨을 길게 쉬고는 양과는 길을 찾아 산을 내려왔다.

산을 내려와서는 여전히 발길 닿는 대로 걸으며 동서남북도 가리지 않았다. 대지가 이토록 넓고 넓은데 자기는 혼자이니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수명이 다하면 아무곳에서나 쓰러져 죽을 생각이었다. 이번 화산의 정상에서 채 한 달도 있지 못했는데 그에게는 수년의 세월이 지난 것만 같았다. 산을 올라가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경시하고 천시하면 가슴 가득히 원망과 분노를 품었었다. 산을 내려올 때는 세상 모든 일이 단지 뜬구름과 같다는 것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중시해도 좋고 경시해도 좋고 무슨 상관인 있느냐는 생각이들었다.

어리고 어린 나이에 분세질속(憤世嫉俗)하여 세상을 등한시하기 시

작한 것이다.

하루가 채 되지 않아 양과는 섬남(陝南)의 어느 황야에 이르렀다. 사방을 둘러보니 모두가 마른 나무와 쓰러진 풀이요, 삭풍이 좌악좌악 불어 길다란 풀들이 계속 물결처럼 일렁거렸다. 돌연 서쪽으로부터 말 발굽소리가 은은히 들리고 안개가 자욱하게 일어나더니 얼마 되지 않아 수십 필의 야생마가 미친 듯이 동쪽으로 내달리며 1리(里) 전방으로 지나갔다. 못 야생마들이 황야의 벌판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유자재인 것을 보자 양과는 저도 모르게 호연지기가 생겨 마음이 편안해져 평야로 계속 눈길을 주었다. 말들이 멀리 가 버리자 천지는 참으로 넓어서 구속도 장애도 없음을 느껴 한창 득의만면한데 돌연 뒤에서 구슬프게 우는 말울음소리가 들렸다.

몸을 돌려 보니 노란 털에 수척한 말 한 필이 나무를 한 수레 끌고 대로를 천천히 오고 있었다. 그 말은 동료들이 산과 들에서 마음껏 즐겁게 뛰노는 것을 보고 힘들여 일하고 고통스러운 멍에를 쓰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여 그렇듯 슬프게 우는 것 같았다. 그 말은 너무나 비쩍 말라서 갈비뼈가 튀어나왔고 네 다리의 살은 모두 빠져서 마른 나무처럼 굵었으며, 털은 다 빠져버리고 가죽에는 온통 부스럼이나 있었으며 온몸에는 진흙과 똥이 묻었고 피가 맺힌 채찍 자국이 무수하게 나 있었다. 한 건달이 수레에 앉아서 말이 꾸물거리는 것이 짜증나는 듯 계속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다.

양과는 사람들에게 수모를 많이 당하여 이 비쩍 마른 말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자 채찍 하나하나가 마치 자기의 몸을 내려치는 듯하여 가슴이 시큰거리고 자꾸만 눈물이 흐르려고 했다. 두 손을 허리에 대고 길 가운데 서서 노하여 소리쳤다.

"이놈아, 채찍으로 이 가엾은 말을 때려서 어찌겠다는 거냐?"

건달은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 행색을 하고 있는 소년이 길을 막자 말채찍을 들며 소리쳤다.

"어서 길을 비터라. 조그만 녀석이 목숨이 아깝지도 않으냐?"

말을 하고는 채찍을 휘둘러 다시 말의 등을 세게 내리쳤다. 양과는 대로하여 소리쳤다.

"다시 한 번 말을 때리면 너를 죽여 버리겠다."

건달은 하하, 웃으며 채찍을 휘둘러 양과의 머리로 내리쳤다.

양과는 쥔싸게 손에 채찍을 끼워 빼앗은 뒤, 말채찍을 거꾸로 돌려 휘, 하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원을 그리고는 건달의 목을 감아서 말에서 끌어내렸다. 그리고는 채찍으로 머리와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비쩍 마른 말은 모양은 비록 추했음매우 영리한 것 같았다. 건달이 얻어맞자 좋아서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뺀 양과의 다리에 대고 씩씩 비벼 대는 게, 매우 흡족해 하는 것 같았다. 양과는 말을 수레에 맨 줄을 당겨서 꿰고, 말 등을 두드리며 말때가 뛰어간 뒤에 남겨 놓은 먼지구름이 있는 먼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네 마음대로 가거라. 다시는 너를 괴롭힐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말은 앞발을 들고 길게 한 번 울고는 곧장 앞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말은 허약한데다가 갑자기 뛰니까 근육이 마비되었는지 10여 장 쯤 뛰다가는 앞발이 꺾여 땅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양과는 참다 못해 뛰어가서 말의 배를 두드리며 소리쳤다.

"일어나 !"

그리고는 말을 일으켜 세웠다. 건달은 그가 이토록 힘이 대단한 것을 보고 놀란 나머지, 수레와 나무도 필요없다는 듯 몸을 일으켜 허둥지둥 달아났다. 반 리(里) 밖까지 달아나서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강도다 ! 말을 뺏아간다 ! 나무를 뺏아간다."

양과는 웃으며 푸른 풀을 뜯어서 비쩍 마른 말에게 먹였다. 이 말이 고통을 당했던 것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동병상련의 마음이 일어나 말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말아, 말아 !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

고삐를 끌고 천천히 시진(市鎭)으로 가서 콩과 보리를 사서 말에게 배불리 먹였다. 다음날이 되자 깡마른 말이 어느 정도 원기가 회복되

었기에 양과가 올라탔다. 처음에는 다리를 절어서 헛발을 내딛거나 넘어지기만 했다. 그러나 걸으면 걸을수록 좋아지더니 7,8일 뒤에는 완전히 원기를 회복하여 걷는 것이 나는 듯했다. 양과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하며 더욱 먹이를 충분히 먹었다.

이날 그는 한 조그만 주점에서 쉬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깡마른 말이 갑자기 탁자 곁으로 가 옆자리의 그릇에 술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계속 울어 댔다.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양과는 호기심이 일어나 점원에게 술을 가지고 오도록 하여 탁자 위에 놓고 말의 머리를 몇 번 쓰다듬었다. 말은 단숨에 술 한 그릇을 다 마셔 버리고는 꼬리를 흔들고 이리저리 뛰며 매우 기뻐했다. 양과는 재미있어 다시 술을 가져오도록 했다. 말은 계속 열 그릇 정도 마시고도 흥이 다하지 않았다. 양과가 다시 술을 가져오라고 하자 점원은 그의 옷이 다 떨어진 것을 보고 돈이 하나도 없을까 봐 술이 없다고 말했다.

밥을 먹은 뒤에 말에 올라타니 말은 술기운이 올라 큰 걸음을 내딛는게 펄떡펄떡 뛰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길 옆의 나무들이 어지러이 뒤로 물러서는 것이 그 빠름이 비할 데가 없었다. 보통의 준마는 달릴 때 편안하기도 하고 빠르기도 했다. 이 말은 빠르기는 빨랐지만 몸이 갑자기 높아졌다 갑자기 낮아졌다 하면서 기복이 너무나 심하여 양과가 일신에 그토록 높은 경공을 지니지 않았다면 타지도 못할 뻔했다. 이 말은 더욱 괴이한 점이 있었다. 길에서 앞에 가는 동물을 보면 죽어라 뛰어서 맨 앞에 나서지 않으면 성이 차지 않았다. 언제나 제일 앞으로 나선 뒤에 쉬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토록 기필코 이기기를 좋아하는 패기는 평생토록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 생겨난 것인 듯했다. 양과는 이 천리양마(千里良馬)가 촌부의 손에 억눌려서 반생을 억울하게 살아오다가 이제야 그 뛰어난 걸음을 내딛게 되자 이토록 날고 뛰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열등의식조차도 그와 의기투합되는 것이어서 사람과 말이 좋은 친구나 마찬가지로 되었다. 그는 원래 성격이 매우 우울했는데 도중에

말을 길들여 즐거워지자 며칠 되지 않아 다시 소년의 심정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양과는 줄곧 남쪽으로 가서 한수(漢水)에 이르렀다. 오는 길에 육무쌍을 놀리고 이막수를 희롱한 일을 생각하니 말 위에서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도 소용녀는 어디에 있는지, 언제쯤 그녀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문득 수심에 잠기곤 했다.

*** 간특한 소년 거지 ***

이날은 길을 가는 도중 정오까지 계속해서 거지를 만났다.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니 모두가 적잖이 몸에 무공을 지니고 있었다.

(용아가씨와 개방의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단 말인가? 아니면 개방에서 무리를 모두 모아 이막수와 한번 자웅을 겨루려고 하는 것일까? 이 한 판 소동을 이 양과가 놓칠수야 없지.)

그는 본래 개방에 대하여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홍칠공을 흠모함으로 인하여 자기도 모르게 개방에 친근감을 갖게 되었다. 이 거지들이 육무쌍과 소란을 피운 자들만 아니라면 가서 그들에게 홍칠공이 세상을 떠난 소식을 알려 주고 싶었다.

다시 한참을 가는 동안, 길에는 거지들이 갈수록 늘어났다. 거지들은 양과를 보자 모두 이상하다는 눈길을 던졌다. 그는 차림새를 변장시켜 거지와 닮이 없는 차림이었지만 개방의 무리들은 마치 당장 긴박한 일은 없다는 듯 결코 말을 타지 않았다. 양과도 까닭을 모르고 고삐를 늦추어 천천히 나아갔다.

신(申)시 정도까지 걸었을까, 갑자기 공중에서 꾸르륵 꾸르륵 수리우는 소리가 들렸다. 두 마리 하얀 수리가 날아서 돌연 앞으로 내려왔다. 한 거지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황방주께서 오셨다. 오늘밤까지는 거의 다 모여야 한다."

또 한 거지가 말했다.

"곽대협(郭大俠)께서도 오셨는지 모르겠구나."

"그들 부부는 저울대가 가면 저울추가 따라가고, 저울추가 가면 저울대가 따라가듯....."

양과가 고삐를 잡아 말을 멈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는 것을 힐끗 보더니 그들은 양과를 한번 쏘아보았다. 그리고는 입을 다물었다.

양과는 걱정과 황용의 이름을 듣자 약간 놀랐지만 마음속으로는 차갑게 웃었다.

(이전에는 내가 그들 집에서 공밥을 먹으며 그들에게 천시당하고 희롱을 당했었지. 그때는 내가 나이도 어리고 능력도 없어서 많은 괴로움을 겪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천하가 다 내 집인데 내가 왜 또 그들에게 의지하겠는가?)

그러다가 다시 생각을 돌렸다.

(아니야. 실의에 빠진 것처럼 가장하여 그들에게 의지해 보자. 그들이 어떻게 나를 대접하는지 보는 것도 꽤 은 일일 거야.)

양과는 후미진 한쪽을 찾아서 머리를 요란하게 흔들리고 왼쪽 눈두덩을 몇 번 주먹으로 때렸다. 얼굴을 여러 번 핥자 왼쪽 눈이 퍼렇게 멍이 들고 얼굴에는 핏자국이 몇 줄 생겼다. 그는 본래 옷이 깨끗하지 못했던데다가 다시 갈기갈기 찢고 진흙과 먼지를 몇 번 뿌리니, 온몸에 부스럼이 난 추한 말과 어울려 과연 곤궁의 말뼉물골이 되었다. 분장 肝모두 끝나자 일부러 절뚝거리면

서 큰 길로 돌아와서 말도 타지 않고 거지들을 뒤따르기 시작했다. 그가 고삐를 끌지 않아도 그 추한 말은 저절로 그의 뒤를 따라왔다.

개방의 어떤 사람이 그에게 대연회에 참석하는 거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다. 양과는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할뿐 대답을 하지 않고 거지떼에 섞여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걸아갔다.

행렬이 꾸불꾸불 이어지며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 무렵, 한 부서지고 낡은 대묘(大廟) 앞에 이르렀다. 두 마리 흰 수리가 묘 앞에 있는 소나무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무씨형제는, 한 사람은 손에 쟁반을 받쳐 들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쟁반에서 고기 덩어리를 집어서 수리에

게 던져 주고 있었다. 일전에 그들 형제와 곽부가 이막수와 싸울 때 양과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줄곧 곽부에게만 정신을 집중하고 있어서 두 사람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을 힐끗 보니 무돈유는 표정이 사납고 일거수 일투족에 정신을 모으고 있었지만, 무수문은 가볍고 영리하게 몸을 움직여 동분서주하는 게 잠시도 가만 있지를 못했다. 무돈유는 몸에 짙은 자색의 견조포자(繭조袍子)를 입고 있었고, 무수문은 보라색의 산동대조포자(山東大조袍子)를 입고 있었는데 허리에는 모두 꽃을 수놓은 금단영웅조(錦緞英雄조)를 묶고 있어서 과연 소년 영웅이요, 위풍이 늠름했다.

양과는 앞으로 몸을 가볍게 굽히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두....., 두 분 무(武)형께서는 그동안....., 그동안 별고 없으셨는지요?"

이때 묘의 앞과 뒤에는 모두 거지들이 가득 모여 있었는데 모두들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고 있었다. 양과는 비록 흙을 얼굴에 처발랐지만 거지들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게 눈빛이 번뜩였다. 무돈유가 답례를 하고서는 양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으나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해 물었다.

"소제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만 존형은 누구신지요?"

"천한 이름은 깨념하실 것 없습니다만, 소제....., 소제는 황방주를 찾아 뵙고 싶습니다."

무돈유는 그의 목소리가 어딘가 귀에 익어서 캐물으려고 하는데 홀연 묘문에서 은방울 같은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대무(大武) 오빠 ! 내가 좀더 부드러운 말채찍을 사 달라고 그랬는데 사 가지고 왔어요?"

무돈유는 급히 양과로부터 시선을 거두고 그 은방울 같은 목소리를 내는 소녀를 향해 말했다.

"으응, 벌써 사 가지고 왔지. 자, 봐라. 정말 근사하지?"

그리고는 품에서 말채찍을 하나 꺼내 들었다.

양과는 고개를 돌려 보았다. 열은 녹색의 옷을 입은 소녀가 묘안에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두 눈썹은 완만히 구부러지고, 조그만 코는 약간 솟아오르고, 백옥같이 흰 안색의 얼굴은 아침에 핀 꽃과 같았다. 바로 곱부였다. 그녀는 장식도 화장도 그다지 하지 않았고, 단지 목에 밝은 구슬 목걸이가 걸려 있을 뿐이었는데, 땀땀한 광채를 발하며 그녀를 비추는 것이 옥으로 다듬은 듯 아름답게 보였다. 양과는 그녀를 한 번 힐끗 쳐다본 뒤 얼른 고개를 돌렸다. 어쩐지 자시의 초라하고 더러운 행색이 부끄러웠다. 무수문도 즉시 앞으로 나서서 두 형제가 함께 그녀의 비위를 맞추었다.

무돈유는 곱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양과를 생각하고는 고개를 돌려 말했다.

"영웅연(英雄宴)에 참석하러 온 것입니까?"

양과는 영웅연이 뭔지 잘 몰랐지만, 그렇다고 응답을 했다. 무돈유는 한 거지를 손짓으로 불러서 말했다.

"이 친구를 잘 보살펴 드리고 내일 이분을 불러 대승관(大勝關)에 올라오도록 해라."

말을 마치고는 다시 곱부의 비위를 맞추는 데에만 신경을 쓰느라고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 거지는 대답을 한 뒤, 양과를 불러 이름을 물어 보았다. 양과는 사실대로 말을 했다. 그는 아직 무림에서 이름을 얻지 못했으므로 그 거지도 자연 양과의 이름을 들은 적이 없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 거지는 자칭 왕십삼(王十三)이라고 하는데 개방의 2대 제자였다.

"양형은 어디에서 오셨소?"

"섬서(陝西)에서 왔습니다."

"아, 양형은 그러니까 전진파 문하로군요?"

양과는 <전진파>라는 세 마디를 듣자 머리가 어지러워 급히 고개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오 !"

"양형의 영웅첩은 물론 몸에 지니고 계시겠죠 ?"

양과는 놀라 말했다.

"소제는 강호를 떠돌아다니는 몸인데 어찌 무슨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다만 귀 방의 황방주와 이전에 만난 적이 있어 특별히 와서 만나고자 할 따름입니다. 여비나 얼마간 빌려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만."

왕십삼은 눈썹을 한 번 찌푸리고 잠시 중얼거리더니 말했다.

"황방주께서는 한창 천하의 영웅들을 접대하시느라 아마 당신을 볼 겨를이 없을 거요."

양과는 원래 특별히 공손해 하는 태도를 취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갈수록 비웃는 태도를 보이자, 속으로 더욱 득의양양하여 가련한 표정을 더하여서 간절하게 애원했다.

개방의 방중은 모두가 출신이 빈궁하고 줄곧 곤액(困厄)을 겪어온 사람들이라 결코 궁한 사람을 경시하거나 천시하지 않았다. 왕십삼은 그가 애절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말했다.

"양형제, 우선 식사를 하고 내일 함께 대승관에 올라가지. 형님이 우선 장로께 보고하고 다시 방주께 보고하여 어떻게 분부하는지 기다려 보자구, 어때 ?"

왕십삼은 처음에는 그를 <양형>이라고 불렀었다. 이제 그가 영웅연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나이도 자기가 훨씬 많은지라 말투를 바꾸어 <양형제>라고 부른 것이다. 양과는 계속해서 고맙다는 말을 했다. 왕십삼은 그를 무너진 묘에 들어가도록 하고 밥과 반찬을 내어 손님을 접대했다. 개방의 방규는, 본방의 제자는 경사스러운 잔치를 만나면 먼저 닭과 생선, 소와 양을 잘게 썰어서 먹다 남은 국이나 안주처럼 만들어 먹음으로써 영원히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정신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손님을 접대할 때에는 제대로 된 술상과 밥상을 차려 주었다.

양과는 한참 먹고 있는데 눈앞이 돌연 번쩍 했다. 껍부가 웃으며 사뿐히 전(殿)으로 들어오고 무씨 형제가 좌우에서 나누어 모시고 있었다. 무수문의 말소리가 들렸다.

"자, 우리는 오늘밤 밤길을 가서라도 어서 대승관에 도착해야해. 내가 가서 홍마를 끌고 나올게."

세 사람은 제각기 이야기에 열중하여 땅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양과에게는 눈길 한 번 보내지 않았다. 세 사람은 후원으로 들어가 주머니에 무기를 싸서 부서진 묘를 나갔다. 말발굽 소리가 섞여 들리더니 이미 사라진 듯했다. 양과는 젓가락을 밥그릇에 꽂아 놓고 말발굽소리가 은은히 멀어져가는 소리를 들었다. 온갖 감정이 교차했다. 시름인지 한인지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그런 감정이었다.

다음날 왕십삼이 그를 불러 함께 길을 나섰다. 도중에는 개뿔뿔 방중 이외에도 적지 않은 무림의 인물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타고 어떤 사람은 걷고 있었는데 모두가 영웅연에 가는 것 같았다. 양과는 그 영웅연, 영웅첩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지만 왕십삼도 더 이상 얘기하려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멍하고 어리석은 흉내만 내고 있었다.

저녁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대승관에 도착했다. 대승관은 예(豫)와 악(鄂) 사이의 요해처로 지세가 험악하여 시장도 그리 번성하지 않았다. 여기로부터 북쪽은 바로 몽고병이 점거하고 있는 땅이었다.

왕십삼은 양과를 이끌고 시진(市鎭)을 지나 다시 7,8 리를 갔다. 에 수백 그루의 오래 된 왜나무가 한 커다란 장원(莊院)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각기 다른 길로보터 온 영웅들은 모두가 장원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장원은 방들이 영이어서 몇겹으로 되어있어서 얼마나 많은지 한눈에는 똑바로 볼수가 없었다. 보아하니 수천의 빈객을 접대하고도 남을 듯했다.

왕십삼은 개방에서도 아주 낮은 제자에 불과했다. 방주가 지금 한참 정신없이 바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어찌 감히 여비나 빌린다는사

소한 일을 보고할 수 있겠는가 ? 양과의 거처를 돌보아 주고는 자기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며 가 버렸다.

양과는 이 장자(莊子)의 기세가 대단하고 못 장정들이 오가며 객을 대접하는 것이 물 흐르듯 끊임이 없는 것을 보니 은근히 괴이한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주인이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이토록 위세를 부리는지 매우 궁금했다. 갑자기 평 평 평, 세 번의 총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북을 치며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말했다.

"장주 부부께서 친히 손님을 맞으시니 우리 빨리 보러 가자. 그분 영웅들이 오셨는지 모르겠구나."

손님과 장정이 두 줄로 늘어섰다. 모든 사람들이 길 옆으로 물러섰다. 대청의 병풍 뒤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타났다. 모두 40 안팎의 나이였다. 남자는 몸에 금포(錦袍)를 입고 턱에는 약간 수염이 났는데 기백이 당당하여 자못 위엄이 있었고, 여자의 피부는 백석(白皙)같아서 고귀한 귀부인 같았다. 빈객들이 여기저기에서 소곤거렸다.

"육장주와 육부인께서 직접 나오셔서 대빈을 영접하시는구나."

두 사람 뒤에는 또 한쌍의 부부가 있었다. 양과는 그들을 보자 성칫 놀라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들은 바로 광정, 황용 부부였다. 몇 년 동안을 보지 못한 사이에 광정의 기백은 더욱 깊어 보였고, 황용은 옹골게 미소를 띄고 있는 모습이 예전의 아름다움과 변함없었다.

(원래 광백모는 이토록 아름다운데, 어렸을 때라 내가 느끼지 못했구나.)

광정은 몸에 조포장포(粗布長袍)를 입고 있었고, 황용은 옅은 자색의 조삼(調衫)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개방의 방주이기 때문에 삼(衫)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몇 군데 기운 표시를 했다. 광정과 황용의 뒤에는 광부와 무씨 형제가 서 있었다. 이때 대청에서 무수히 많은 휘황찬란한 촛불이 켜지더니 불빛이 밝게 비추자 남자는 더욱 늠름해 보였고 여자는 더욱 어여쁘게 보였다. 빈객들은 하나하나 가리키

며 말했다.

"이분이 곽대협이시고 저분이 바로 황방주이시다."

"저 꽃같이 예쁜 아가씨는 누구지?"

"곽대협 부부의 딸이야."

"저 두 소년은 그들의 아들인가?"

"아니야, 제자야."

양과는 사람들 틈에서 곽정 부부와 얼굴이 마주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한 커다란 사람의 뒤로 몸을 움츠리고 슬그머니 밖을 내다보았다. 음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네 명의 도인이 들어오고 있었다. 양과는 그들을 보자 저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먼저 들어온 자는 백발에 하얀 눈썹의 늙은 도인으로 얼굴이 온통 자색이었다. 바로 전진칠자 중의 하나인 광녕자 학대통이었다. 그 뒤에는 회백색 머리칼의 늙은 여도인이었는데 양과는 그녀를 본 적이 없었다. 뒤에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중년의 두 노인이 들어왔다. 하나는 조지경이고 하나는 윤지평이었다.

육장주 부부는 어깨를 나란히 하여 절을 하고 늙은 여도인에게 사부라고 불렀다. 이어서 곽정 부부, 곽부, 무씨 형제 등이 하나 하나 앞으로 가 예를 올렸다. 양과는 사람들이 뻥뻥한 가운데 한 노인이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 늙은 여도사는 전진교의 여자 검협(劍俠)으로 성은 손(孫)이고 이름은 불이(不二)지."

"아, 저 사람이 바로 대강의 남쪽에 명성을 떨치는 청정산인(淸淨散人)이군요."

"맞아. 그녀는 육부인의 사부야. 하지만 육장주의 무예는 그녀가 전해 준 것이 아니지."

원래 육장주의 두 자(字) 이름은 관영(冠英)이었다. 그의 부친 육승풍(陸乘風)은 황용의 부친 황약사의 제자였다. 따지고 보면 그는 곽정, 황용보다 한 등급이 낮았다. 육관영의 부인 정요가(程瑤迦)는 손

불이의 제자였다. 그들 부부는 본시 태호(太湖) 귀운장(歸雲莊)에 거처하였다. 뒤에 장자(莊子)가 구양봉의 화공에 모두 타 버리자 육승풍은 화가 나서, 아들에게 다시는 태호 군도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지 말도록 하고 집안 식구를 데리고 북상하여 대승관에 거처를 정한 것이다. 이제 육승풍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 해 정요가가 위난을 만났을 때 광정, 황용과 개방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아서 그녀는 개방에게 줄곧 감사하고 있었다. 이때 개방에서 영웅첩을 널리 돌려 천하의 영웅들을 불러 모으고 육관영 부부가 힘을 합하여 이렇듯 영웅연을 육가장에서 베푼 것이었다.

광정 등의 예가 끝나자 육관영은 학대통, 손불이를 대동하여 대청으로 돌아와 못 영웅들과 만나도록 했다. 학대통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마(馬), 유(劉), 구(丘), 왕(王) 네 분 사형께서도 황방주의 영웅첩을 받으시고 모두 응당 오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마사형께서 요즘 몸이 불편하시어 유사형과 다른 분들이 운공치료를 도와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몸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 황방주께 사죄드립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선배님들께서는 너무 겸손하시군요."

황용의 말이었다. 그녀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천하 제일의 개방의 방주여서 학대통 등도 자연히 그녀를 지극히 존중해 주었다. 광정과 윤지평은 소년 시절부터 서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만나자 모두가 떨 듯이 기뻐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갔다. 광정은 마옥의 병세를 물어보며 매우 걱정을 했다. 대청의 연석이 열린 곳은 촛불이 붉게 사방을 비추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죽 끓듯 했다.

윤지평은 동쪽으로 서쪽으로 바라보며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를 찾는 듯했다. 조지경이 희미하게 냉소를 날리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윤사제, 그 용(龍)가는 부탁도 들어줄 줄 모르나 보지?"

윤지평은 안색이 변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광정은 그들이 말

한 자가 소용녀라는 것도 모르고 끼여들었다.

"그분, 성이 용이라는 영웅은 두 분 사형의 친구 되시는지요 ?"

조지경이 말했다.

"윤사제의 좋은 친구죠. 빈도는 감히 사귀지도 못합니다."

곽정은 두 사람의 안색이 괴이한 것을보고 뭔가 다른 사정이 있음을 알아채고는 다시 묻지 않았다.

돌연 윤지평이 사람들 틈에서 양과를 발견했다. 윤지평은 온몸이 떨리는 게 벼락에 맞은 것 같았다. 그는 양과가 여기에 있다면 소용녀도 반드시 왔으리라고 생각했다. 조지경은 그의 눈빛을 쫓아가 보다가 순식간에 안색이 변하며 노하여 소리쳤다.

"양과 ! 양과다 ! 이....., 이놈.....도 왔구나 !"

곽정은 <양과>라는 소리를 듣고 얼른 고개를 돌려 보았다. 두 사람이 몇 년 떨어져 있는 동안 양과는 이미 많이 자랐기 때문에 곽정은 하마터면 그를 알아보지 못할 뻔 했다. 그러나 조지경이부르는 소리를 듣고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곽정은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재빨리 다가서서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과아야, 너도 왔느냐 ? 나는 너의 수련을 방해할까 봐 너를 부르지 않았었지. 네 사부께서 너를 데리고 오셨으니 더 이상 좋은 일이 없구나."

양과가 중앙궁을 도망한 사실을 전진교에서는 위와 아래가 모두 본교의 수치라고 생각하여 어느 누구도 밖으로 누설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곽정은 그 일을 도화도에서 줄곧 알지 못했던 것이다.

조지경은 이번 영웅연에 참석하여 곽정에게 이 일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전혀 뜻하지 않게 양과와 마주친 것이다. 그는 곽정이 양과 쪽의 말만을 듣고 자신을 탓할까 봐 걱정했는데 곽정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도 처음 만나는 것임을 알았다. 즉시 안색이 파랗게 질리더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말했다.

"빈도가 무슨 덕과 능력으로 감히 양도령의 사부가 되겠습니까 ?"

곽정은 크게 놀라 급히 물었다.

"조사형께서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 이 어린 아이가 감히 가르침을 듣지 않았습니까 ?"

조지경은 대처에 많은 영웅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이 일을 꺼내면 형세가 반드시 양과와 다투어야 할 판이라, 그렇게 되면 전진파의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어서 단지 <흥, 흥 !> 냉소만 흘릴 뿐 다시 말을 꺼내지 않았다.

곽정이 양과를 자세히 살펴보니 눈에 멍이 들고 코가 시퍼렇게 되었으며 얼굴에는 몇 줄기 핏자국이 나 있고, 옷은 누더기에 온몸에 진흙과 오물이 묻어 있어 적지 않은 고난을 겪었음이 분명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 그를 품으로 끌어당겼다. 양과는 그에게 잡히자 즉시 전신에 내공을 몰래 움직여 요해처를 보호했다. 그러나 곽정은 여전히 그에 대한 애정은 품고 있었으므로 조금도 해칠 의사가 없었다. 곽정은 황용에게 외쳤다.

"여보, 누가 왔는지 아시오 ?"

황용은 양과를 보고 역시 놀랐다. 그러나 그녀는 곽정처럼 기뻐하지는 않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 너도 왔구나."

양과는 곽정의 품을 가볍게 뿌리치며 말했다.

"나는 몸이 더러워요. 당신의 옷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요 !"

이 두 마디는 너무나 냉담하였으며 말투에는 가시가 돋혀 있었다. 곽정은 약간 당황해 하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애비도 에미도 업신여기더니 그의 사부도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의 손을 끌어 자기와 한 탁자에 앉도록 했다. 그러나 양과는 그들에게서 떨어져 대청 모퉁이에 있는 구석진 자리의 영웅연과 가장 상관이 없는 무리들과 함께 앉아서 말했다.

"나는 여기에 앉는 것이 좋아요. 곽백부는 가서 손님이나 접대하세

요."

곽정도 인사를 해야 할 손님이 매우 많음을 느끼고, 옆 사람을 따로 남겨 둘 수 없어 그의 어깨를 툭툭 가볍게 두드리고는 주빈의 자리로 돌아와 경주(敬酒)를 올렸다.

세 순배 돌아 황용이 일어나 낭랑한 소리로 말했다.

"내일은 영웅대연이 열리는 날입니다. 아직도 여러 곳의 영웅호한께서 이곳에 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오늘밤 여러분께서는 회포를 풀고 마음껏 드시고 취하도록 하십시오. 정사(正事)는 내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못 영웅들이 옳다고 요란하게 떠들어 댔다.

연석에는 고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 술이 시냇물 흐르듯 하여 어떤 호걸은 술 마시기 시합을 하고, 어떤 이는 소리 놓여 지나간 옛일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날 육가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돼지와 양을 잡고 얼마나 많은 미주(美酒)를 마셨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술자리가 파하고 장정들은 각처의 호한들에게 방을 정해 주어 편히 쉬도록 했다.

조지경이 학대통에게 조용히 몇 마디를 건네자 학대통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지경은 몸을 일으켜 곽정에게로 가 두 손을 모으고 말했다.

"곽대협, 빈도는 중요한 부탁을 어기어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죄를 청하러 온 것입니다."

곽정은 급히 예를 갖추며 말했다.

"조사형께서는 지나친 겸양의 말씀이십니다. 어디 서재에 잠시 들어가 얘기를 나눕시다. 아이가 조사형에게 득죄한 것이니 소제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요. 조사형께서는 부디 화를 푸시기 바랍니다."

양과는 그와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지만 그의 이 몇 마디말이 낭랑하게 울려서 똑똑하게 들을 수가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작정을 하고 있었다.

(그가 욕을 한마디라도 한다면 나는 영영 떠나 버려서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나를 때린다면 나의 무공이 비록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자 오히려 편안해져서 처음 조지경을 봤을 때 놀란 것과는 판판이 되었다. 광정이 그를 손짓하여 부르는 것을 보고 그의 뒤를 따라갔다.

광부는 무씨 형제와 다른 탁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처음에는 양과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부모가 서로 아는 체를 하자 비로소 도화도에서 어릴 때 함께 놀던 친구임을 기억해 냈다. 둘은 이미 오랫동안 서로 떨어져 있었다. 소년 시절에는 인상이 가장 크게 변화하여 몇 달을 보지 않아도 모습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수년을 떨어져 지낸 데다가 양과가 고의로 곤궁하고 실의한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으니 광부는 자연히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녀는 양과가 돌아온 것을 보자 어쩐지 가슴이 뛰며 그때 도화도에서 서로 다투던 일을 떠올리고는 그가 아직도 옛날의 원한을 품고 있는지 매우 궁금했다. 그가 이토록 곤궁한 모습을 보니 무씨 형제의 풍채가 빼어난 모습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 저도 모르게 마음이 일어나서 무돈유에게 낮은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께서 그 애를 전진파로 보내어 무예를 배우도록 하셨는데 우리보다 더 나을까?"

무돈유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수문이 이어서 말했다.

"사부의 무공은 천하무적인데 그를 어떻게 우리와 비교할 수 있겠니?"

광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는 이전부터 기초가 좋지 않았으니 무슨 진전이 있기는 어려울 거야. 그런데 어찌면 저렇게 낭패스런 모습을 하고 있지?"

무수문이 말했다.

"저 도인들께서 모두 그에게 눈을 부라리며 집어삼킬 듯 노려봤어. 그 아이는 성질이 아주 못돼서 틀림없이 또 무슨 큰일을 저질렀을 거

야."

세 사람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곽정이 학대통 등에게 서재에 가서 얘기하도록 권하고 양과를 중책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곽부는 호기심이 일어났다.

"우리가 먼저 서재에 들어가 숨어서 그들이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 들어보자. 자, 빨리 일어나요."

무돈유는 사부의 꾸중이 두려워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무수문은 좋다고 말하며 곽부에게로 다가섰다. 곽부는 오른발을 한 번 구르며 은근히 화가 난 기색을 띠고는 무돈유에게 말했다.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무돈유는 그녀가 이렇게 발끈 화를 내면서도 눈가에 미소를 머금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가슴이 뛰어 더 이상 거역할 수가 없었다. 급히 그녀를 따라갔다.

세 사람이 막 서가 뒤로 몸을 숨기자 곽정, 황용이 학대통, 손불이, 윤지평, 조지경 네 사람을 이끌고 서재로 들어와 쌍방이 손님과 주인으로 나누어 앉았다. 양과는 이어 뒤따라 들어와 한쪽 옆에 서 있었다.

곽정이 말했다.

"과아야, 너도 앉아라."

양과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나는 안 앉겠어요."

무림의 여섯 고수를 면전에 두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일이 이 순간에 이르러서는 저도 모르게 불안하기만 했다.

곽정은 언제나 양과를 자기의 친조카처럼 여겼고 전진칠자에 대해서도 매우 공경을 했다. 마음속으로든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질 것 없이 어린 아이가 당연히 잘못을 했다고 여겨 양과에게 굳은 얼굴로 말했다.

당시 군신, 부자, 사도 사이의 명분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어서 임금

이 신하에게 죽으라고 하면 감히 죽지 않으면 안 되었고 부모가 자식에게 죽으라고 하면 감히 죽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무림중에서 사도의 높고 낮음의 구분도 역시 조금도 차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곽정은 이렇게 꾸짖었지만 실제로는 그가 외로운 것을 가엾게 여기어 말투는 충분히 온화했다.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벌써 <이놈의 새끼, 잡종 같은 자식이>하면서 마구 욕을 해대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렸을 것이다.

조지경이 벌떡 일어나 냉소를 흘리며 말했다.

"빈도가 어찌 감히 망령되게 양도령의 존사가 되겠습니까 ? 곽대협, 제발 놀리는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전진교는 결코 곽대협께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면전에서 이렇게 욕을 보이십니까 ? 양도령, 소도사가 당신께 머리를 조아려 배례하옵니다. 아마도 제 눈을 흘기어 영웅 호한을 알아 보지 못하고....."

곽정, 황용 부부는 그의 안색이 크게 변하고, 말하면 말할수록 노하는 것을 보고 자꾸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도제가 잘못을 범하면 사부가 꾸짖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인데 어찌 이토록 체통을 잃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황용은 양과가 범한 일이 보통 중대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곽정이 어떻게 했으면 하고 바랐지만 소리를 낼 수도 없어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조사형께 심려를 끼쳐 드렸으니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사형께서도 너무 화만 내지 마시고 이 아이가 어떻게 사부께 죄를 지었는지 알아서 차근차근 말씀해 보시죠."

조지경은 큰소리로 말했다.

"저, 조지경, 이 보잘것 없는 자가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의 사부가 되겠습니까 ? 어찌 천하 호한들이 비웃도록 놔두시지 않습니까 ? 그렇게도 제 말을 믿지 않으려 하십니까 ?"

황용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마음속으로 불만을 느꼈다. 그녀는 본디 전진교와 크게 정을 나눈 적은 없었다. 당년에 전진칠자가 천강북두진

으로 그녀의 부친 황약사를 포위하여 공격했고 구처기도 일찌기 목염자를 광정의 배필로 주려고 고집한 적이 있어서 모두가 그녀에게는 매우 불쾌한 기억으로 남아 있던 터였다. 지나간 일이라 이미 개의치 않고 있기는 했지만 지금 조지경이 그녀의 면전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대며 대드는 것은 여간 무례한 일이 아니었다.

학대통과 손불이도 비록 조지경이 화를 내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는 했으나 이렇게 시끄럽게 소란을 떠는 것은 본디 출가한 사람의 본색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손불이가 말했다.

"지경, 자 어서 광대협과 황방주께 자세히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소란을 피우다니 무슨 것이냐? 우리 수도하는 사람들이 닦는 것이 무슨 도이더냐?"

손불이는 비록 여자였지만 성품이 엄하여 못 소인배들도 그녀를 몹시 경외하고 있었다. 그녀가 이렇게 부드럽게 몇 마디 말하자 조지경은 감히 다시 떠들지 못했다. 다만, 계속 <예, 예> 소리만 하며 물러나 자리에 돌아가 앉았다.

광정이 말했다.

"과아야, 사부께서 웃어른께 법도를 지키는 것을 보아라. 왜 그대로 따라 배우지 못하느냐?"

조지경이 다시 <나는 그의 사부가 아니오>라고 말하려다가 손불이의 눈빛을 보고 꼭 눌러 참고 있는데 양과가 크게 소리쳤다.

"그는 나의 사부가 아니에요!"

이 한마디가 나오자 광정, 황용은 물론 크게 놀라고 서가 뒤에 숨어서 엿듣고 있던 광부와 무씨 형제도 깜짝 놀랐다. 무림에서 사도의 인연은 어찌나 엄명한지 항상 <하루라도 사부가 되면 종신토록 아버님과 같이 섬긴다>고 말할 정도이다. 광정은 어려서부터 강남칠괴에게 부양을 받아 성장했고, 또한 홍칠공으로부터 무예를 전수받아 사부의 은혜가 매우 깊었다. 어려서부터 사부를 존중하는 도는 실로 천경지의(天經地義)라고 굳게 믿어 왔는데, 양과가 끝내 감히 사부를 부인하고 이

토록 겨역의 말을 할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 그는 벌떡 일어서 양과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떨었다.

"너....., 너....., 너 방금 뭐라고 했느냐 ?"

그는말에 재주가 없어 사람을 적합한 말로 욕하지도 못하도 다만 얼굴만 새파랗게 질리며 분노로 몸을 떨었다. 황용웅 평소에 그가 이토록 화를 내는 것을 본적이 매우 드물어 낮은 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 아이는 원래 본성이 좋지 못하니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말아요."

양과는 본래 그를 매우 두려워했는데 이제 평소에 가슴이 아프도록 자기를 사рам하던 곽백부까지도 이토록 호통을 치고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생각했다.

(죽는 것 외에는 대단한 일도 없다. 나를 죽이면 될 거 아냐 ?)

그리하여 낭랑하게 말했다.

"나는 본성도 원래 좋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무예를 전수해 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모두가 무림의 관록이 있는 인물들인데 하필이면 잔피를 부려 왜 이 애비도 에미도 없는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

그는 <애비도 에미도 없는>이라는 말에 이르자 스스로 신세를 한탄하며 눈가가 붉어졌지만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생각했다.

(오늘 당장 죽을 텐데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려서는 안 된다 !)

곽정이 노하여 말했다.

"너의 곽백모와 사부가....., 진....., 진심으로 너에게 무예를 전해준 것은 모두가 나와 너의 죽은 아버지의 정을 보고 그런 것인데 누가....., 무슨 잔피를 부렸단 말이나 ? 누....., 누가..... 또 너....., 너를 해쳤단 말이나 ?"

그는 본디 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더욱 더듬거렸다.

양과는 그가 서두르는 것을 보고 더욱 천천히 말했다.

"곽백부께서는 저를 정말로 잘 대해 주셨어요. 저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황용은 천천히 말했다.

"이 곽백모는 당연히 너를 못되게 대했다. 네가 일생의 한으로 여기더라도 그것은 모두 너로 말미암은 것이다."

양과는 여기까지 이르자 솔직하게 말했다.

"곽백모께서는 나를 좋게 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나쁘게 대하지도 않았어요. 당신은 무예를 전수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가르친 것은 책이나 읽는 것이고 무공은 하나도 전해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책 읽는 것도 좋은 일이었어요. 이 조카는 글자를 많이 알게 되었고 많은 옛 사람들의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나 이 늙은 도인들은....."

그는 손가락으로 학대통과 조지경을 가리키며 한스럽게 말했다.

"결국 언젠가는 내가 그 혈해심구(血海深仇)에 보답을 할것이다."

곽정은 크게 놀라 황급히 물었다.

"뭐....., 뭐라고 ? 무슨 혈해....., 이..... 이건 무슨 말이나?"

양과가 말했다.

"이 조가라는 도인은 자칭 나의 사부라면서 내게 무예는 조금도 전수해 주지 않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는 도리어 많은 소도사들에게 나를 때리게 했어요. 곽백모도 내게 무공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전진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 나는 자연히 얻어터지기만 했지요. 또 이 학가는 한 노파가 나를 아끼는 것을 보자 도리어 때려서 죽였어요. 학가놈 이 더러운 도사야, 내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말해 보아라."

손할머니가 자기를 위하여 죽은 것을 생각하자 양과는 이를 갈며 당장이라도 대들어 학대통과 목숨을 다툴 기세였다.

학대통은 전진교의 고사로 도학과 무공이 모두 매우 높은 겨지에 이

르렀고 역의 이치에도 정통하여 전진교 중에서도 그를 따를 자가 없었다. 다만 한때의 실수로 손노파를 죽여서 수년 동안을 우울하게 보내 평생의 한스러운 일이 된 터였다.

전진칠자는 평생에 적지 않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들이 죽인 자들은 모두 간악한 무리들로서 결코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 지금 양과가 사람들 앞에서 곧바로 추궁을 하자 학대통은 저도 모르게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날 일장에 손노파가 미친 듯 선혈을 뿜는 광경이 분명하게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그는 몸에 무기를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왼손을 뻗어 조지경의 허리에서 장검을 뽑았다.

못 사람들은 단지 그가 검으로 양과를 찌르려고만 하는 줄 알았다. 걱정이 한 걸음 나서서 그를 보호하려 하는 데 그는 장검을 돌려서 칼자루를 양과에게 건네 주며 말했다.

"옳다. 내가 잘못하여 사람을 죽였다. 너는 손노파의 원수를 갚아라. 나는 결코 손을 쓰지 않겠다."

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자 대경실색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걱정은 양과가 검으로 채칠까 봐 외쳤다.

"과아야, 무례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

야와는 걱정, 황용의 면전에서선 결코 이 원한을 갚을 수 없음을 알고 냉랭하고 말했다.

"당신은 콧백부가 당연히 내가 손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호기를 부리는 것이오. 진정으로 내가 당신을 죽이기를 원한다면 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게 검을 건네 주지 않는 거요 ?"

학대통은 무림의 선배이다. 이 소년이 몇 마디 찌르는 말에 애답할 말이 없었다. 손에 장검을 쥐고 건네 주지도 못하고 다시 거두지도 못하여 손에 힘을 주자,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장검이 두 동강으로 부러졌다. 그는 부러진 검을 바닥에 버리고 길게 한 숨을 내쉬고는 말했다.

"그만두지, 그만뒤 !"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서재를 나갔다. 광정이 만류하려 했지만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가 버렸다.

광정은 양과를 바라보고 또 손불이 등 세사람을 바라보고 이 아이의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한참이 지나서 말했다.

"왜 전진교의 사부들이 너에게 무공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 이 몇 년 동안 너는 어디에서 뭘 했느냐 ?"

이 두 마디를 물어볼 때는 말투가 이미 많이 누그러져 있었다.

"곽백부께서 종남산에 올라가셔서 중앙궁의 수백 도사들을 꿈쩍 못 하게 만들었을 때 마, 유, 구, 왕 등의 진인들은 개의치 않으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한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 그들은 곽백부를 속이지는 못하지만 이 어린 아이에게도 화풀이를 못 할 것 같습니까 ? 그들은 나를 죽여서 찢어 버리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텐데 어떻게 내게 무공을 전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 이 몇 년 동안 나는 어둡고 어두워 태양도 없는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다시 살아서 돌아와 곽백부를 뵈는 것도 정말 하늘이 도운 것입니다."

그는 가볍게 몇 마디 하면서 자기가 전진교를 뛰쳐나온 이유를 하나 하나 광정에게 들려주었다. 그가 말한 <어둡고 어두워 태양도 없는 나날>이라는 말은 결코 허황된 말이 아니었다. 그는 고묘에 기거하면서 햇빛을 보지 못했다. 광정은 이 말을 듣자 가련하고 애석한 마음이 뭉클 일어났다.

조지경은 광정이 도리어 양과의 말을 거의 믿는 것을 보고 조급해져서 말했다.

"너....., 너....., 이 잡종 같은 녀석이 제멋대로 지껄이다니... .., 너....., 흥, 우리 전진교의 빛이 쇠락하면....., 그....., 그....."

광정은 오직 양과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었다. 황용은 유심히 양과의 행색과 안색을 살피다가 양과의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니

영리하고 꾀 많은 표정이 얼굴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

(이 아이는 교활하기 짝이 없으니 그 중에는 반드시 거짓이 있을 것이다.)

황용이 물었다.

"네 말대로라면 너는 무공은 하나도 모른단 말이 아니겠느냐 ? 너는 전진교 문하에서 이 몇 년 동안 그저 세월만 보냈단 말이나 ?"

한편으로는 물어보면서 천천히 일어나 돌연 팔을 뻗어 손바닥을 휘둘러 그의 천령개를 곧장 내리쳤다.

이 일장의 손가락이 뇌문의 정중앙인 백회혈(百會穴)을 향했고 손바닥 아랫부분은 이마에서 머리카락이 난 부분으로 1촌(寸)쯤 들어간 상성혈(上星穴)을 향했다. 이 두 요처는 모두가 치명적인 곳이어서 이중으로 얻어맞는다면 즉시 목숨이 날아가 구제할 수 없을 위치였다.

"여보 !"

곽정이 크게 놀라 소리 질렀지만 황용의 내려치는 손은 너무나 빨랐다. 이 일장은 그녀의 가전 낙영신검장(落英神劍掌)이었다. 아무런 조짐도 없다가 불시에 가한 공격이라 곽정이 급히 구출하려 했지만 이미 한순간이 늦었다.

양과는 몸을 살짝 뒤로 하여 올려다보고서 피하려고 했지만, 황용은 이미 무슨 무공인지 모를것으로 공격을 해 와 피할 겨를도 주지 않았다. 단지 수장이 그의 뇌문을 내리치고 있었다. 양과는 크게 놀라 급히 서둘러 손을 뻗어 얹으려고 하다가 머릿속에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스친 듯 오른손을 서서히 움직여 다시 내려 놓았다. 곽정과 같이 무공은 높고 강하지만 지혜가 둔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아채지 못하여 이미 손을 뻗었을 것이다. 양과는 눈치가 매우 빨라 즉시 생각해 보았다.

(곽백모는 지금 나의 무공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만약 이 일장을 막아낸다면 스스로 내가 한 모든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만다.)

하지만 황용의 이 일초는 실제로 극히 위험한 살수였다. 만약 그녀가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데 방어를 하지 않는다면 이 어찌 헛되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 이 전광석화같은 일순간에 양과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 까짓 것 ! 죽으면 그만이지 !)

그는 지금 무공은 비록 황용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손을 뺀어 그녀의 이 일장을 막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끝내 생사의 모험을 걸기로 하고 손을 늘어뜨리고 움직이지 않았다.

황용의 이 일초는 과연 그의 무공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수장이 그의 정수리를 치려 하는데도 힘을 더하지 않고, 그가 놀라고 당황하면서 손뼉을 뺀어 반격을 하지 않고, 더우기 몰래 내공을 움직여 요혈을 보호하지도 않는 것을 보니 분명히 무공이라고는 조금도 모르는 모습이었다. 황용은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너에게 무공을 전수해 주지 않은 것도 다 너를 위해서다. 전진파의 도사들도 아마 나와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다시 좌석으로 돌아가 곽정에게 낮은 소리로 말했다.

"그는 분명히 전진파의 무공을 배우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하다가 황용은 마음속으로 갑자기 부르짖었다.

(아아, 아니다 ! 아마도 이 소귀(小鬼)에게 속은 것 같구나.)

양과가 도화도에 있을 때 일찌기 함마공으로 무돈유를 다치게 한 것을 그녀는 생각했다. 그의 무공은 이미 기초가 되어 있었으니 이 몇 년 동안 조금도 진전이 없었다고 해도 자기의 수장이 그의 뇌문을 공격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격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어리디 어린 녀석이 이토록 총명할 수가..... ? 하지만 너는 너무 똑똑했어. 만약에 허둥지둥 나의 일초를 막으려 했다면 결국 너에게 속아넘어 갔을지도 모르지. 지금 너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지만 그래서 도리어 탄로가 나고 말았어.)

황용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계책을 써서 그를 다시 시험

해 볼까 하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지경을 바라보고 또 양과를 바라보며 미소만 흘릴 뿐이었다.

조지경은 황용이 일초를 시험해 보아도 양과가 반격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황용이 이미 그에게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자기에게는 더욱 불리한 일이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노기충천하여 큰소리로 말했다.

"이 조그만 녀석은 잔피가 많습니다. 황방주께서 시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니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과의 면전으로 가서 그의 코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돼지 같은 녀석아, 네가 정말로 무공을 모르느냐? 네가 만약 반격을 하지 않으면 이 도야(道爺)의 손은 사정을 보아 주지 않을 것이다. 죽든지 살든지 네놈이 알아서 하란 말이다."

그는 양과의 무공이 실제로 자기의 위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가 재빨리 살수를 뺏는 것은 그가 진상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만약 여전히 가장을 한다면 단 일초로 그의 목숨을 빼앗게 되어 마침내는 곽정 부부와 얼굴을 돌리고 교주와 사부의 엄한 질책을 받을 것이었다. 화가 치밀어 견딜수가 없었다.

(너는 황방주가 너의 목숨을 해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대답하게도 그럴 듯한 흉계를 꾸미고 있지만 어디 내게도 감히 연극을 꾸미는지 두고 보자.)

소매를 휘둘러 손을 쓰려고 했다.

"잠깐 !"

곽정이 외쳤다. 그가 양과의 목숨을 해칠까 봐 앞으로 나서서 막은 것이다. 황용이 그의 소매를 잡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상관하지 마세요."

그녀는 조지경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공격이 반드시 엄중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양과가 모험을 하여 요행을 바라지 못할 경우 만약 반격을 한다면, 그때는 모든 진상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었다. 곽정은 그

안에 이토록 많은 곡절이 있음을 알 턱이 없어 걱정되기만 했다. 그러나 부인이 평소 계획에 실수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다만 한 걸음 나서서 만약 정말로 위험이 닥치면 즉시 구출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었다.

조지경은 손불이, 윤지평 두 사람에게 말했다.

"손사숙, 윤사제, 이 놈이 무공을 할 줄 모르는 것처럼 가장을 하니저는 다른 방법이 없어 시험을 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그가 끝까지 버틴다면 제가 일장으로 그를 때려눕힐 것이니 여러분께서 장교사백, 구사백과 우리 사부님 앞에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양과가 전진교를 뛰쳐나온 연유를 손불이는 하나하나 알고 있었다. 그가 지금 자신의 교활한 잔꾀에 의지하여 조지경을 꼼짝못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이는 분명히 전진교에게 불리해지는 것이라 그녀도 조지경에게 어서 그의 진상을 드러내도록 하라는 눈짓을 하면서 차갑게 말했다.

"이렇게 사부를 업신여기고 교과를 반역하는 역도는 죽여도 좋다."

그녀는 도를 지닌 고인(高人)이다. 어찌 사람들에게 멋대로 살계(殺戒)를 내릴 수 있겠는가? 이 말을 한 것은 사실 양과에게 겁을 주어 그가 감히 계속하여 연극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조지경은 사숙의 허락도 있고 하여 더욱 용기를 내서 오른발을 들어 양과의 소복(小腹)을 향하여 맹렬히 걷어찼다. 이 천산비도(天山飛渡)의 일초는 강중유유(剛中有柔)요, 양경(陽)이 음경(陰)을 겸하여 싸고 있어 실로 무시무시했다. 그러나 다리의 힘은 비록 강하지만 결코 그다지 심오한 것은 아니어서 전진과 무공 입문의 제 1과였다. 출초(出招)가 평범하고 기이한 것이 없어 무공을 약간만 할 줄 알아도 풀 수 있는 것이었다. 전진교 제자가 맨 첫날 무예를 배울 경우 반드시 먼저 천산비도를 배우고 이어서 퇴마세(退馬勢)를 배운다. 그것은 천산비도를 피하는 일착으로 한 번 공격하고 한 번 방어하는 가장 간단한 것이었다. 조지경은 이 일초를 내면서 광정, 황룡에게 분명히 보

여 주고 싶었다.

(내가 그에게 높고 심오한 무공은 전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입문의 제 1과도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나 ?)

양과는 그가 다리를 날려 오는 것을 보자 그 퇴마세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쿠 !> 소리를 지르며 왼손을 내려 배를 막았다. 조지경은 그가 끝내 대담하게 피하려 하지 않는 것을 보았지만 일각(脚)도 양보할 수는 없었다. 곧장 차면서 그의 발끝이 그의 배와 겨우 3촌 정도의 거리에 이르렀을 때 등불 아래 문득 그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살짝 구부러지며 자기의 오른발 안쪽에 있는 대활혈(大豁穴)을 노리는 것을 보았다.

이 일각(脚)을 강하게 내쫓았다면 발끝이 상대방의 몸에 채 닿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혈도를 눌릴 뻔했다. 이는 상대방이 손을 뻗어 혈도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혈도를 상대방의 손가락에 갖다 대 주는 꼴이었다. 그는 전진교 제 3대 제자 중의 제 1고수였다. 위급한 중에 즉시 변초를 하여 다리를 뻗는 방향을 바꾸어 오른발이 양과의 옆으로 스쳐갔다. 이 곤란을 피한 것을 생각하니 몸둘 바를 모르고 얼굴이 온통 붉게 상기되었다.

곽정과 황용은 모두 양과의 뒤에 있어서 그의 손가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지경이발을 뻗다가 사정을 보아 주어 마지막에 공격의 기세를 돌린 것으로 알았다. 손불이와 윤지평은 이미 똑똑히 보았다. 윤지평은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불이가 벌떡 일어나 호통을 쳤다.

"어린 녀석이 이토록 교활하다니 !"

조지경은 좌장을 허초로 날리고 우장을 양과의 왼쪽 뺨으로 비스듬히 내려쳤다. 이 자전천운(紫電穿雲)의 일초는 극히 정묘한 상승의 초수이다. 손이 중도에 이르러 가는 듯하다가 돌연 되돌아오며 왼쪽 뺨을 베려고 하는가 했더니, 손목으로는 적의 오른쪽 목을 치려고 하는 것이었다. 양과는 이미 옥녀심경을 살살이 익혔다. 이 심경(心經)은

바로 진진무공의 대적수이다. 왕중양의 매 한 초마다의 무시무시한 권술과 장법에 그때 임조영(林朝英)은 교묘한 격파의 비결을 강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때 양과는 그의 좌장이 번쩍 움직이는 것을 보고 급히 손을 뺀어 머리를 감싸고 극히 두려운 표정을 지으면서 왼손 식지를 몰래 오른쪽 목에 감춰 두고 오른손으로만 막아내서 조지경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했다. 그의 손목이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돌연, 오른손이 약간 비스듬해지더니 폭, 하는 소리와 함께 왼손 식지로 바로 그의 손목 한가운데에 있는 후계혈(後溪穴)을 눌렀다.

이 일각도 조지경이 스스로 수장을 그의 손가락에 보내 그에게 혈도를 눌린 것이다. 양과는 단지 적이 기선을 잡을까 봐 손가락을 정확한 위치에 놓고 있었을 뿐이다. 조지경은 손바닥의 혈도가 눌리자 즉시 팔이 마비되어 와 계략에 빠진 것을 알고 화가 치민 나머지 왼발을 비껴 날렸다.

"안 돼 !"

양과는 크게 소리치면서 왼팔을 살짝 구부려 팔꿈치의 끝을 왼쪽 허리 위의 2촌 반쯤 되는 곳에 갖다 댔다. 조지경은 왼쪽 다리를 날리다가 발목에 있는 조해(照海), 태계(太溪)의 두 혈도가 동시에 양과의 팔꿈치에 부딪혔다. 그는 화가 치민 나머지 발로 내찔기 때문에 힘도 이미 거세게 들어 있어서 혈도에 받은 충격도 대단히 컸다. 왼쪽 다리가 온통 마비되면서 땅에 무릎을 꿇었다.

손불이는 사질이 추한 모습을 보이자 왼팔로 더듬어 팔을 뺀어 당겨 일으켜서 그의 등을 몇 번 쳐서 혈도를 풀어 주었다.

양과는 이 늙은 여도사가 손놀림이 정확하고도 빨라 무공이 조지경보다 훨씬 높음을 알고 은근히 두려워하며 한쪽 옆으로 물러섰다.

손불이는 비록 수년에 걸쳐 수도를 했지만 성질은 여전히 강경했다. 양과의 무공이 더 할 나위 없이 괴기한 것을 보니 바로 본문 무공의 상극이라 자기가 손을 써도 반드시 이기지는 못할 것 같았다.

"가자 !"

곽정, 황용 두 사람에게 작별을 고하지도 않고 소매를 휘두르며 서재의 창문으로 뛰어나가 지붕으로 올라갔다.

윤지평은 줄곧 혼백이 달아난 듯하다가 곽정과 황용에게 원인을 설명해 주려고 했다.

"또 무슨 할 말이 있어?"

조지경이 통명스럽게 말하며 그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두 사람은 차례로 창을 뛰어나가 손불이를 따라서 떠났다.

곽정과 황용, 두 사람의 눈으로도 당연히 조지경이 누군가에게 혈도를 눌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거나 양과는 분명히 손도 손가락도 뻗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옆에 고수가 있어서 몰래 그를 도와 주었던 말인가?

곽정이 즉시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살폈지만 누가 있을 리가 없었다. 그는 단시 조지경이 정말로 살수를 내어 치려다가 차마 치지 못하고 혈도에 눌린 척하고 떠나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황용은 도리어 양과가 무슨 흥계를 꾸몄으리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녀는 줄곧 양과의 등 뒤에 있어서 아무리 해도 그의 손가락과 팔꿈치가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에 옥녀심경이라는 일문의 무공이 있어 적의 기선을 잡아서 전진파의 무공을 조금도 반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문이 일어났다. 그녀는 곽정처럼 군자의 마음으로 사람을 헤아리지 못해서 전진교의 네 도사가 소매를 휘두르며 떠나가 버려 예의가 크게 손상되자 은근히 화가 났다.

그녀는 한참 고심을 하고 있다가 몸을 돌리는데 서가에 곽부의 흑록색 신발이 드러난 것을 보고 외쳤다.

"부아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곽부는 히죽 웃으며 괴상한 얼굴을 하고 나와 말했다.

"오빠들하고 여기서 책을 찾아 보고 있었어요."

황용은 그들 세 사람이 평소에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오늘은 어쩐 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

았다. 딸의 안색을 보고는 그들이 분명히 먼저 숨어서 엿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마악 꾸짖으려고 하는데 개방의 제자가 멀리서 손님이 왔노라는 보고를 했다. 황용은 양과를 한 번 쳐다보고는 곽정과 함께 손님을 맞으러 나갔다.

곽정이 무씨 형제에게 말했다.

"양형은 너희들 어렸을 때의 단짝이었으니 너희들이 잘 대해 주어라."

무씨 형제는 이전부터 양과와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누추한 차림에 전진교에서도 무공이라고는 배우지 않은데다가 또 사부에게 <돼지 같은 놈, 잡종>이라는 욕을 듣는 것을 보고 더욱 경시하여, 장정을 하나 불러서 그에게 양과를 보살피 잠잘 곳을 마련해 주도록 지시했다.

곽부는 양과에게 매우 호기심이 일어 물어보았다.

"양오빠, 사부가 왜 오빠를 원하지 않는 거지?"

"이유는 많아. 나는 둔하고, 게으르고, 성질도 좋지 않고, 또 난장이처럼 사부의 친한 사람이나 모시면서 말채찍인가 나귀채찍인가 뭐가 하는 것들을 사다 바치는 짓도 잘 못하고....."

무씨 형제는 양과의 말이 귀를 찌르자 모두 안색이 변했다. 무수문이 먼저 참지 못하고 말했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나는 사부의 환심이나 사려고 하는 짓은 않는다고 했다, 왜?"

곽부가 예쁘게 웃으며 말했다.

"오빠의 사부는 도사인데 설마 딸이 있을라구?"

양과는 그녀가 이렇게 웃는 것을 보자, 한 떨기 매괴가 홀연 활짝 핀 듯 밝은 눈썹에 교태가 서려있어 가슴이 저도 모르게 뛰며 얼굴에는 붉은색이 감돌아 고개를 돌렸다. 곽부는 지금껏 무씨 형제를 마음대로 조종하며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 지금 양과가 고개를 돌리는 것을 보고 그가 자기의 미모에 매료되었다고 생각하고 마

음속으로 은근히 득의양양했다.

양과가 서쪽을 바라보니 벽에 한 폭의 대련(對聯)이 걸려 있었다. 윗연은 <도화영락비신검(桃花影落飛神劍 : 복숭아꽃 그림자 지니 신검이 날고)>이었고, 아래 연은 <벽해조생안옥소(碧海 生按玉簫 : 푸른 바다에 물결 이니 옥통소 분다)>라는 내용이었다. 이 대련은 그가 도화도의 시검정(試劍亭)에서 본 적이 있었다. 바로 황약사가 쓴 것이었다. 그러나 이곳의 대련에는 아래에 서명한 것이 <오호폐인 병중도아(五湖廢人病中塗鴉)>였다. 그는 나이가 이들 세 사람에 비해서 그다지 많지는 않았지만 생각에 있어서는 10 여 년 더 나이를 먹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오호폐인(五湖廢人)>이라는 네 글자를 보자, 친했던 사람이 혹은 죽고 혹은 헤어져서 자기는 동서로 떠다니니 바로 폐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금 조지경을 곤궁에 빠뜨려 도망가게 한 후련한 감정도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처량하고 괴로운 심정이 엄습해 와 양과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였다.

곽부가 소리를 낮추어 부드럽게 말했다.

"양오빠. 자, 오늘은 그만 쉬어요. 내일 내가 다시 찾아와 얘기할게요."

양과는 담담하게 말했다.

"응, 그러렴 !"

양과가 장정을 따라 서재를 나서는데 곽부가 무씨 형제에게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내가 찾아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오빠들이 무슨 간섭이에요 ? 그는 무공이 그다지 좋지 않으니 내가 아버지께 그를 가르치도록 말씀드려야겠어요."

*** 영웅대연(英雄大宴) ***

다음날 양과는 방에서 아침을 먹은 뒤, 곽부가 뜰에서 손짓하는 것을 보았다. 이때 무씨 형제는 집을 먹은 채 옆에서 슬그머니 엿보고

있었다. 양과는 살며시 웃으면서 다가갔다.

"나를 불렀니 ?"

"그래요,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가요. 요 몇 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요."

양과는 긴 한숨을 쉬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다 말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3일 동안 말을 한다고 해도 다 끝낼 수 없을 텐데 어찌 그간의 일을 너와 함께 말할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했다.

양과는 곽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대문을 나가면서 고개를 비스듬히 돌려 무씨 형제가 뒤쪽에서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보았다. 곽부는 그것을 벌써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못 본 체 양과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했다. 양과가 별 일 아닌 것을 가지고 이것저것 지껄이자 곽부는 매우 즐거워했다. 그녀도 양과가 허튼소리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매우 재미있어 했다.

두 사람이 천천히 걸어서 버드나무 아래에 이르자, 갑자기 긴 말음 소리가 들려왔다. 한 마리 말라빠진 말이 쏜살같이 달려와서 매우 친숙하게 양과의 몸에 머리를 비벼 댔다. 무씨 형제는 이 추한 말을 보고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두 사람 곁으로 달려왔다.

무수문이 웃으면서 말했다.

"양형, 이 좋은 천리마를 어디서 채수종게 찾았소 ? 언제 나에게도 한 마리 찾아 주시지요."

무돈유가 정색을 하면서 끼여들었다.

"이것은 대식국(大食國)에서 온 이를 데 없이 귀한 말인데, 얼마를 주고 사셨습니까 ?"

곽부는 양과를 쳐다보고, 다시 추한 말을 쳐다보니 둘 다 모두 더럽고 처량하자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다.

"내가 이 모양이니 말도 역시 추하여 서로 짝이 맞지 않은가 ? 그대들 무씨 형제의 말은 매우 날렵하겠지 ?"

무수문이 대꾸하였다.

"우리들의 말도 너의 말라빠진 말에 비해서 썩 좋은 편은 못 되지.
곽부의 흥마가 진짜로 좋은 말이다. 이전에 너도 도화도에서 보지 않았는가?"

"원래 곽백부가 그 말을 그녀에게 주려고 하셨지."

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걸어갔다. 곽부가 갑자기 서쪽을 가리켰다.

"저것 봐 ! 우리 엄마가 또 봉법(棒法)을 전수하러 가는구나."

양과가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니 황용과 늙은 거지가 산기슭을 향해 나란히 걷고 있었다. 두 사람의 손에는 모두 한 자루씩의 봉이 들려 있었다.

무수문이 중얼거렸다.

"노장로는 정말로 우둔해. 이 타구봉법(打狗棒法)을 것처럼 오래 배웠는데 아직 할 줄 모르다니....."

양과는 <타구봉법>이란 네 자를 듣고서 오싹해졌지만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이 고개를 돌려서 다른 곳을 쳐다보며 마치 풍경을 구경하는 것처럼 탄전을 피웠다.

곽부의 말소리가 들렸다.

"타구봉법은 개방의 보배야.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길, 이 봉법은 이를 데 없이 신묘해 천하에 제일 가는 동작으로, 십여 일이나 보름만에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래. 오빠는 그를 우둔하다 했는데, 오빠 그럼 얼마나 총명하지?"

무돈유는 한숨을 쉬었다.

"애석하게도, 개방의 방주(幫主)를 제외하고는 이 봉법을 누구에게도 전해 주지 않으니....."

"장래에 만약 큰오빠가 개방의 방주가 된다면 노방주가 오빠한테 전수해 줄거야 ! 이 봉법은 우리 아버지조차 하지 못하니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방주가 되지 ? 누이는 사모(師母)께서 왜 노

장로를 선택하셨는지 알고 있지 ?"

"요 근래에 우리 엄마는 비록 명의를 갖고 있었지만 개방의 모든 일은 계속해서 노유각 장로께서 대신 처리하셨어. 엄마는 개방의 많은 자질구레한 일을 듣고는 골치가 아프고, 항상 이처럼 유명무실하니 차라리 노장로를 정식으로 방주로 삼느니만 못하다고 말씀하시곤 했지. 노유각 장로께서 타구봉법을 익히시면 우리 엄마는 정식으로 방주의 자리를 그에게 넘겨 주실 거야."

무수문이 물었다.

"동생, 그 타구봉법은 도대체 어떻게 치는 거야 ? 본 적이 있어 ?"

"본 적이 없어....., 아 참 ! 본 적이 있군."

곽부는 땅에서 나뭇가자를 집어들고 그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이렇게 치는 거야 !"

"좋아. 너는 내가 개란 말이지 ! 나를 그렇게 보다니 용서할 수 없지 !"

무수문은 손을 뻗어서 그녀를 잡으려 했다. 곽부가 웃으면서 달아나자 무수문은 그녀를 쫓았다. 두 사람은 원을 그리면서 다시 돌아왔다.

"작은오빠 ! 화내지 마세요. 이제부터 안 그럴께."

"좋다. 그럼, 어디 말해 봐 !"

"우리들이 가서 몰래 보면 되잖아. 도대체 타구봉법이 어떤 무공인지 빨리 가서 봐 !"

무수문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무돈유는 고개를 흔들었다.

"만약 사모께서 우리가 몰래 봉법을 배우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야단을 치실 텐데....."

곽부가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는 단지 구경만 하는 것이지, 결코 몰래 배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 그 신묘한 무공을 단지 몇 번 보고서 그대로 할 수 있겠어요 ? 큰오빠, 그런 생각은 그만 해요."

무돈유는 그녀에게 한 방 맞고는 조용히 웃을 따름이었다.

"어제 우리가 서가에 숨어서 몰래 엿들었는데도 우리 엄마가 야단치지 않았잖아요 ! 큰오빠 너무 소심해요. 작은오빠 ! 우리 둘이 가요."

"좋아, 네 말이 다. 같이 가자."

"천하 제일의 무공을 설마 보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겠죠 ? 가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배워 갖고 와서는 이 봉법으로 오빠를 치지요."

말하고는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그에게 던졌다.

그들 세 사람은 타구봉법에 대해서 일찍부터 관심이 있어 그 명성을 들은 지 오래였으나 도대체 어떤 모양인지 본 적이 없었다. 광정이 일찌기 황룡이 군산(君山)에서 있었던 개방의 대회에서 어떻게 타구봉법으로 군웅을 물리치고 방주의 자리를 탈취했는지 이야기하자, 그들 세명은 부러운 눈초리로 들었었다. 이때 마침광부가 몰래 가서 볼 것을 제안하자 무돈유는 입으로는 반대하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바라고 있던 바였다. 단지 나중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함이었을 뿐, 광부의 의견을 듣고서 만일 사건이 생겨도 사모는 결코 자기를 나무라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양오빠도 우리와 함께 가지 ?"

양과는 먼산을 쳐다보며 마치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아무것도 못 들은 체했다. 광부가 다시 한번 부르자 멍청한 눈빛으로 고개를 돌렸다.

"좋아 ! 함께 가자. 그런데 어디로 가지 ?"

"그런 것은 물을 필요가 없어. 우리와 함께 가면 돼 !"

무돈유가 말했다.

"누이, 그가 가서 뭘 하겠어 ? 봐도 모를 텐데..... 만약 멍청하게 소리라도 지른다면 공연히 사모님한테 들키잖겠어 ?"

"괜찮아 ! 내가 그를 살피면 되지, 뭘. 오빠들 두 사람이 먼저 가고 나와 양오빠는 뒤를 따라갈게. 네 사람의 발소리는 너무 크니까....."

무씨 형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광부의 말이 틀리지 않자

어쩔 도리가 없었다. 두 사람은 먼저 출발했다.

"우리는 지름길로 가서 먼저 그 나무 위에 숨을께. 모두가 소리나지 않게 조심하면 우리 엄마도 알 수 없을 거야."

무씨 형제는 고개를 흔들며 대답하며 재빨리 움직였다.

곽부는 양과의 옷이 너무나 낡아빠진 것을 보고 말했다.

"돌아가서 엄마에게 새옷을 달라고 해 갈아입으면 이처럼 보기 싫지는 않을 텐데....."

"나는 원래 못생겨서 옷을 갈아입어도 소용이 없어."

곽부는 그래도 안심을 하지 못하고 무씨 형제의 뒷모습을 보고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왜 한숨을 쉬지?"

"나는 몹시 괴로운데 양오빠가 어찌 안단 말이야?"

양과는 그녀의 불그스레한 뺨과 찡그린 눈썹을 보고 확실히 그녀가 육무상, 완안평, 야율연보다 미녀라는 것을 알고서 마음이 설레었다.

"나는 네가 왜 그렇게 괴로와하는지 알고 있어."

"흥, 웃기지 마! 네까짓 게 어찌 알겠어? 허튼소리 하지마!"

"좋아, 만약 내가 알아맞히면 너는 절대로 부인해선 안 돼!"

곽부는 희고 부드러운 작은 손가락을 뻗어서 오른쪽 뺨을 가리키며 일순간 입술에 웃음을 띠었다.

"좋아, 어디 한 번 맞춰 봐!"

"그런 식은 죽 먹기야. 무가 성을 가진 두 형제가 다 널 좋아하여 네게 잘 보이려 한다. 그러나 넌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지? 그렇지?"

곽부는 그가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맞히자 일순간 안절부절 못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 일은 그녀도 알고, 무씨 형제도 알며, 그녀의 부모도 알고, 심지어 사공(師公)인 가진악도 알고 있었으나 모두들 감히 내색하지 못하고, 모두 마음속으로만 생각할 따름이었다. 이때 돌연 양과가 이 말을 꺼내자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

며 한편으로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난감해졌다. 웃음이 나오면서 울음이 터져나와 눈물이 두 볼을 타고 굴렀다.

"큰오빠는 우아하고 고상한 반면 작은 오빠는 고민을 풀어 줄 줄 알지. 두 사람 모두 소년 영웅으로 무공도 뛰어나며 온순하고 나에게 공손해. 큰오빠는 큰오빠로서 좋고, 작은오빠는 작은오빠로서 좋아. 그러나 나는 혼자이니 어찌 두 사람의 신랑에게 시집을 가겠어?"

곽부는 양과의 이 말을 듣고 놀랐으며, 특히 마지막 몇 마디를 듣고는 침을 뱉었다.

"함부로 마구 지껄이는구나. 누가 너 같은 사람을 상대해 줄까!"

양과는 일찌기 그녀의 표정을 보고서 정확히 맞힌 것을 알고는 가볍게 농담을 했다.

"나는 혼자인데, 어찌 두 사람에게 시집을 가겠어?"

그가 몇번 계속 지껄이자 곽부는 신경을 쓰지 않아 마치 못 들은 체했다. 얼마 후 비로소 말을 꺼냈다.

"양오빠, 누가 더 좋은지 말해 봐."

이 물음도 매우 갑작스런 것이었다. 그녀와 양과는 비록 어릴때 같이 놀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이가 나뻘었으며, 다시 오랫동안 보지 못하다가 이제 이렇게 자라서 만난 것이었다. 이처럼 계집애가 마음속의 일을 마구 토로한다는 것은 의외의 일이었다. 그러나 양과는 천성이 쾌활하여 누구하고든지 유쾌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해 잠시만에 사람들로 하여금 춘풍(春風)에 좋은 술을 마시는 듯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곽부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고민했는지 모른다. 확실히 두 사람 모두 장점이 있었다. 매일 웃으면서 노는 것은 무수문과 비교적 의기가 투합했으며,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돈유가 확실히 뛰어났다. 계집애는 가슴속에 야릇한 감정이 생긴 이후 두 사람에게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웃어 주면서 그들 형제를 품어 주었지만, 내심으로는 정말 자기가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침 이때 양과와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일을 물었던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둘 다 모두 좋지 않은 것 같애."

곽부는 놀라면서 물었다.

"왜 그렇지 ?"

"만약 그들 두 명이 모두 좋다면, 나 양과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

그는 늘 육무쌍과 말장난하던 것이 버릇이 되어 사실 어떤 나쁜 뜻도 없이 이때 곽부와 웃으면서 이 말을 한 것이다.

그녀는 어리광을 부리며 자라온 아가씨로 지금껏 감히 누구도 그녀에게 단 한 마디라도 이처럼 경박한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한 터여서, 이 말을 듣고는 잠시 멍청해져서 화를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다. 잠시 후, 정색을 하고는 말했다.

"말을 꺼내지나 말 것이지, 누가 양오빠의 말에 웃을 줄 알고 ? 자, 이제 빨리 가자."

하고 말하고는 경궁을 전개해서 조그만 길을 돌아서 산허리를 향해 달렸다.

양과는 그녀에게 외면당하자 침울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들 세 명 사이에 끼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 차라리 멀리멀리 가 버리자 !)

양과는 몸을 돌려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무씨 형제들은 각기 그녀를 하늘처럼 받들며 그녀가 자기에게 시집 오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하루 종일 저렇게 버릇없는 계집애와 있으면 정말로 힘들 거다. 나 같은 멍청이는 정말로 웃음거리지.)

곽부는 어느 정도 달려가면 반드시 양과가 와서 그녀에게 사과할 줄 알았으나 뜻밖에도 그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았다. 즉시, 자기가 온 길을 돌아보자, 그가 오히려 반대쪽으로 멀리 가는 것이 아닌가 ! 곽부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그의 면전으로 재빨리 달려갔다.

"어째서 따라오지 않는 거야 ?"

"꼭소져, 어머님 아버님께 내가 떠났다고 안부나 전해 줘."

곽부는 매우 놀랐다.

"무슨 까닭으로 가는 거지 ?"

양과는 담담하게 웃었다.

"별 것 아니야 ! 나는 원래 별 이유 없이 왔으니 마땅히 가고 싶을 대 가야지."

곽부는 원래 떠들썩한 것을 좋아했으나 속으로는 양과를 깔보았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으며 무찌 형제의 말과는 달리 신선한 감이 있는 것을 느끼고는 사실 그가 가지 말기를 희망했다.

"양오빠 ! 우리는 그 동안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서 물어 볼 말이 많아 ! 참, 오늘 저녁에 영웅대연을 개최하는데 사방에서 각파의 영웅 호걸이 모두 참석하지. 양오빠는 왜 참석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거지 ?"

"나는 영웅이 아니야. 만약 내가 참석한다면 어찌 그들영웅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

"무슨 소리야 ?"

잠시 생각하더니 곽부가 말했다.

"오히려 육가장(陸家莊)에는 무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양오빠는 청지기나 하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음식을 들면 돼 !"

양과는 크게 화를 내었다.

(좋다. 너는 나를 여전히 우습게 대하는구나.)

그러나 얼굴에는 조금도 화가 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웃으면서 말했다.

"정말 팬찮겠니 ?"

그는 가 버리려던 생각을 이때에 바꾸어 그녀에게 망신을 한번 주려고 고쳐 생각했다.

곽부는 어리광을 부리면서 자라나 철이 들지 않았다. 그녀의 이 멧

마디는 사실 악의는 없었으나 무의식중에 다른 사람에게 큰 실례를 범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양과가 결심을 바꾸자 웃으면서 말했다.

"자, 빨리 가자, 늦지 않게. 엄마가 먼저 오시면 몰래 쳐다볼수 없게 돼."

그녀는 앞서서 재빨리 달려갔다. 양과는 숨을 헐떡이며 발걸음도 무겁게 일부러 매우 우둔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황용이 평소 노유각에게 봉법을 전수해 주는 장소에 겨우 이르자, 무씨 형제는 이미 나무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고 있었다. 광부가 나뭇가지에 뛰어올라서 손을 뻗어 양과를 끌어올렸다. 양과는 숨같이 부드러운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움찔해지며 생각했다.

(네가 열 배 이상 예뻐도 우리 용아가씨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광부가 조용히 물었다.

"우리 엄마는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무수문이 서쪽을 가리키며 낮게 소리쳤다.

"노장로가 저기에서 봉을 연습하셔. 사모님과 사부님은 서로 말씀을 나누러 가셨어."

광부는 평소 아버지 한 사람만은 두려워해 그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약간은 불안해 했다. 그러나 노유각이 봉을 들고 동쪽으로 찌르고 서쪽으로 휘두르는 때 동작에 절묘하지 않은 곳이 없음을 보고는 낮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타구봉법인 모양이지?"

무돈유가 말했다.

"아마 그럴 거야. 사모께서 지도하고 계셨는데 사부가 다가와서 사모를 모시고 한쪽으로 갔어. 그러자 노유각 장로는 혼자서 이처럼 맹렬하게 연습하고 있지."

광부는 다시 몇 동작을 보았으나 아직 어려서 그 오묘함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싫증이 났다.

"노장로가 아직 잘 하지 못하니 재미가 없구나. 우리 그만 가자."

양과는 노장로가 사용하는 봉법이 그때 홍칠공이 화산(華山)꼭대기에서 전해 준 것과 조금도 틀리지 않음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조그만 계집애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지껄이다니.....)

무씨 형제는 곽부의 말을 충실히 이행해, 그녀가 가자는 말을 하자 막 나무 아래로 뛰어내리려 할 때였다. 갑자기 나무 아래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더니 곽정 부부가 나란히 걸어왔다.

곽정의 말소리가 들렸다.

"부아의 결혼은 자연 가볍게 처리할 순 없지. 그러나 과아가 아직 어려서 장난기를 면하기가 어렵더군. 전진교에서의 소란도 보아하건대 모두 그의 잘못만은 아니지 않겠소?"

황용이 말했다.

"그가 전진교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아무것도 아녜요. 당신이 곽, 양 두 집안 조상 대대로의 친분을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조그만 양과는 지나치게 교활해서 그를 보면 볼수록 그의 아버지를 닮았는데 내가 어찌 안심하고 부아를 그에게 맡기겠어요?"

양과, 곽부, 무씨 형제, 네 명은 이 말을 듣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네 명은 비록 곽, 양 두 집안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처럼 긴밀한 사이일 줄은 몰랐으며, 더우기 곽정이 자기의 딸을 양과에게 시집보내려는 뜻이 있는 줄은 생각도 못 했다. 이 말과 그들 네 명은 깊은 관계가 있어서 그들 모두는 정신을 집중하여 듣고는 모두 마음이 설다.

다시 곽정이 말이 들렸다.

"양강 형제는 불행하게 금국왕부에 들어가서 악인들과 교유하여 마침내는 그같이 비참하게 죽어갔고, 사체마저 온전할 수 없었소. 만약 그를 어려서부터 양철심 숙부가 교육시켰다면 결코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요."

황용은 한숨을 쉬며 가흥 철창묘의 일을 떠올리고는 등골이 오싹해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네, 그 말이 맞아요."

양과는 자기의 출생에 대해 지금껏 잘 몰랐으며 단지 아버지가 타인의 손에 일찍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원수가 누구이며 자기의 생모가 누구인지 잘 몰랐다. 이때 광정이 그의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왕부에 들어가 악인들과 교유하고> 또 <사체도 온전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자 즉시 격분해서 온몸이 떨리고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광부는 살짝 결눈질해서 그의 모습을 보고 돌연 그가 나무 아래로 굴러떨어져 죽을까 봐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졌다.

광정과 황용은 큰 나무를 등지고 나란히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광정이 가볍게 황용의 손등을 어루만졌다.

"당신이 두번째 임신을 하고 나서 최근 몸이 예전 같지 않소. 빨리 개방의 골치 아픈 모든 일을 노유각에게 맡기고 얼른 몸이나 조속해야지."

광부는 매우 기뻐했다.

(아, 엄마가 아기를 가졌구나. 내게도 동생이 생긴다니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엄마는 어째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지?)

"개방의 일은 내가 원래 별로 신경쓰지 않아요. 그러나 부아의 결혼은 절대 방심할 수 없어요."

"전진교가 비록 과아를 받아 주지 않았지만, 내가 그를 잘 지도하면 돼요. 내가 보기에 그놈은 몹시 총명하니 장래에 나의 무공을 모두 그에게 전수시켜 나와 그의 아버지가 맺은 결의를 헛되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요."

양과는 이때 비로소 광정이 원래 자기의 아버지와 금란형제(金蘭兄弟)임을 깨달으면서 <광백부>나 <광아저씨>라는 호칭에 그렇듯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양과는 광정의 말 가운데 자기를 동정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고는 감격스러워 몇 번 눈물이 나올 뻔 했다.

"나는 그의 충명이 오히려 흐려질까 두려워 그에게 글을 읽게만 하고 무공은 전해 주지 않았어요. 그가 앞으로 밝은 진리를 알고 정정당한 남아가 된다면 비록 조금도 무예를 하지 못하도 우리는 부아를 그에게 시집보내어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역시 치밀하여 마음씀이 대단해. 그러나 부아는 아직 장난꾸러기이고, 무공도 이 정도인데 그애가 평생 문약한 서생을 지키며 그를 존경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 이 같은 모습의 부부는 화합하기 어려워."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 부부도 이처럼 화합하니..... 단지 당신의 무공이 늘 나를 능가하니, 곽대협(郭太俠), 우리 한번 오랜만에 겨루어 볼까요!"

"좋아, 황방주."

과, 하는 소리와 함께 황용이 곽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잠시 후 황용이 말했다.

"아! 이 일은 말하면 말할수록 복잡하니 잠시 옆으로 미루어 두고, 무씨 형제의 일은 어떻게 처리하죠? 당신은 형이 좋아요, 아니면 동생이 나아 보여요?"

곽부와 무씨 형제, 세 사람의 마음은 크게 뛰기 시작했다. 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나 두 사람에게 대한 곽정의 평가를 듣고 싶었다.

곽정은 음, 하는 소리를 내고 한참이 있어도 말이 없다가 비로소 말문을 열었다.

"조그만 일로 어찌 알 수 있겠소? 큰일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성품을 알 수 있지."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좋다, 부아의 나이도 아직 어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야기해도 늦지 않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소. 당신은 노장로를 지도하는 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오. 요사이 나는 당신의 호흡이 거친 것을 볼 때 매우 걱정이 되오. 나는 과아를 찾아서 이야기나 좀더 나

누겠소."

곽정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다.

황용은 바위 위에 앉아서 호흡을 조정하고 노유각이 연습하는 곳으로 갔다. 이때 노유각은 이미 36 로의 타구봉법을 모두 배웠으며, 단지 어찌 사용해야 하는지 그 구결을 모르고 있었다. 황용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 타구봉법의 동작은 오묘하고, 구결심법은 이를 데 없이 신묘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그만 봉이 어찌 개방의 최고 무기가 되겠는가? 황용은 이미 1 개월 반 정도의 시간을 쏟아 겨우 모든 동작을 노유각에게 전수해 주었으며, 이때 다시 구결과 변화심법을 몇 번 중얼거리려 그가 단단히 기억해 자유롭게 구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수자의 자질과 총명함의 문제이지 사부가 능히 전수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곽부와 무씨 형제는 봉법을 알지 못했으므로 들어도 아무 재미가 없었다. 심지어 <봉(封)>의 구결이 무엇인지, <전(纏)>의 구결이 무엇인지 제 18 동작이 어떻게 19 동작으로 가는지, 19 동작이 어떻게 20 번째 동작으로 변해 가는지 흥미가 없었다. 세 사람은 몇 번이고 나무에서 내려가려고 하였지만 황용에게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그녀가 빨리 구결을 끝내고 노유각과 함께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황용은 오늘 저녁에 열리는 영웅대연 이전에 방주의 자리를 그에게 넘겨 주려고 그때까지 봉법의 구결을 모두 그에게 가르쳐 주려 했다. 만약 그가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 준단 말인가! 개방의 규칙에 의하면, 방주의 자리를 이어받을 때 이미 타구봉법을 익혀야 하는데 한 시간 정도 말했지만 다 못 한 상태였다. 노유각은 원래 똑똑하지 못했는데다가 나이도 이미 들 만큼 들어서 기억력이 감퇴되어 한번에 도저히 그 많은 것을 다 기억할 수 없었다. 황용은 반복해서 다시 한 번 차근차근히 말했지만 그는 항상 완전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황용은 15 살 때 이미 똑똑하지 못한 곽정을 만났고 이런 부류의 사

람들은 이미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코 실증을 내지 않았다. 방규의 제한으로 이 구결심법은 반드시 입으로 전수해야지 결코 기록으로 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않았다면 글을 써서 그에게 천천히 익히도록 해 능히 수고를 덜 수 있었을 테지만.

그때 홍칠공은 화산 꼭대기에서 구양봉과 무예를 겨루어서 내력이 소모된 뒤에 이 봉법의 한 동작 한 동작을 모두 양과에게 가르쳐 주었으나 적을 만났을 때 사용하는 구결은 한 마디도 전수해 주지 않았다. 그는 양과가 동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법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동작의 전수가 방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양과는 그곳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알아들었다. 그는 총명함이 노유각의 백 배에 이르러 단지 세 번만 들으면 곧 한 자도 빠지지 않고 기억하였으나, 노유각은 몇 번을 반복해도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황용이 두번째로 임신한 후, 이렇듯 내공을 연습할 때 조심하지 않아서 태기를 상하고 그로 인해 크게 허약해졌다. 이날 황용은 한나절을 지도하자 매우 피곤하여 잠시 바위에 기대어 휴식을 취하려고 두 눈을 감아 정신을 집중했다.

"부아, 유아, 문아, 과아야 ! 모두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곽부 등 네 사람은 크게 겁을 먹었다.

"어떻게 해서 표정도 변하지 않았지 ? 원래 알고 있었으면서도 !"

곽부가 웃으면서 말했다.

"엄마, 정말 훌륭하신데요. 정말로 엄마는 속일 수 없어요."

곽부는 유연투림(乳燕投林)을 사용해 황용의 앞에 가볍게 내려왔다. 무씨 형제도 뒤를 따라서 뛰어내려 왔으나 양과는 천천히 나무를 기어 내려왔다.

"너희들은 너희가 배운 무술을 이용해서 몰래 훔쳐 보러 왔지 ? 만약 너희들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강호에 가서 며칠을 버티지도 못하고 악인에게 당할 것이 두렵구나."

곽부는 어색한 듯 미안해 했다. 그러나 엄마의 도량을 믿고서 그녀

의 훈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웃으면서 말했다.

"엄마, 내가 그들 세 명을 데리고 왔어요. 천하가 두려워하는 타구 봉법을 보려고요. 그런데 노유각 장로한테는 조금도 볼 것이 없으니 엄마가 우리들에게 보여 주세요."

황용은 웃으면서 노유각의 수중에 있는 봉을 받아 쥐었다.

"좋아, 조심해라. 내가 조그만 개 한 마리를 감싸지."

곽부는 매우 조심하면서 봉이 다가오기를 기다려 즉시 뛰어올라서 그녀에게 감기지 않도록 했다. 황용의 봉이 움직이자 곽부는 급히 뛰어올랐으나 두 다리가 땅에서 반 척도 떨어지기 전에 봉에 걸려서 당에 쓰러졌다. 곽부는 천천히 땅에서 일어났다.

"아, 아이쿠. 내가 잘못했어요."

"좋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곽부는 간신히 일어서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큰오빠, 작은오빠. 두 사람이 내 옆에 서 봐요 !"

무씨 형제는 이 말에 따라 섰다. 곽부는 팔을 뻗어서 두 사람의 팔을 잡아 한 패가 되어 세 사람의 힘을 모으자 마치 태산이 서 있는 것 같았다.

"엄마, 이제 무섭지 않아요. 아빠의 강룡십팔장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우리를 밀칠 수 없을 거예요."

황용이 웃으면서 봉을 휘두르니 세 사람의 얼굴을 스치며 바람이 일어났다. 그들은 매우 다급해졌다. 세 사람이 뒤를 보며 피하자 그들의 힘은 자연히 느슨해졌다. 황용은 봉을 가다듬으며 <전(轉)>의 구결로 세 사람의 다리를 치자, 그들은 흔들리며 동시에 땅에 쓰러졌다. 세 사람의 무공은 이미 어느 정도 기본 수련이 되어 있어서 잠시 땅을 스치면서 즉시 일어났다.

"엄마,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요 ?"

"방금 내가 노장로에게 전해 준 반(絆), 벽(劈), 전(纏), 착, 도(挑), 인(引), 봉(封), 전(轉) 등 8결로, 내가 사용한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네가 방금 사람을 속인다고 했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 무공 가운데 십중팔구는 모두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능히 고수를 속여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바의 강룡십팔장은 정말로 강한 진짜 무공으로 결코 가벼운 속임수를 쓸 수 없지. 그러나 그러한 경지까지 연습할 수 있는 사람이 천하에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

이 몇 마디를 듣고 양과는 고개를 끄덕이며, 황용이 말한 타구봉법의 심법과 홍칠공이 가르쳐 준 동작을 다시 비교하여 생각하자 실로 오묘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곽부 등 세 사람은 비록 황용의 이 말을 이해했지만 그 가운데에 있는 오묘한 뜻은 깨닫지 못했다.

"이 타구봉법은 무림 중의 최고 특이한 공부로, 워낙 탁월하여 마침내 일가를 이룬 뒤 다른 파의 무공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았다. 이것은 홀로 동작을 배우는데 만약 구결이 명확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너희들 뛰어난 총명으로도 스스로 구결을 만들 수 없으니 반드시 동작과 함께 배워야 한다. 그러나 만약 구결만 알고 내가 직접 동작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단지 <반, 벽, 전, 착, 도, 인, 봉, 전> 등 여덟 자를 암기하는 데 그칠 뿐이니 너희들 네 명이 몰래 듣는 것은 그리 두려워할 바가 아니지. 만약 내가 다른 무공을 가르친다면 나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후에는 절대로 몰래 듣고 몰래 배워서 안 된다 ! 잘 알겠느냐 ?"

"엄마, 어찌 엄마의 무공을 몰래 배워요 ? 설마 우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

황용은 봉으로 곽부의 엉덩이를 가볍게 쳤다.

"자, 무씨 형제와 가서 놀아라. 과아야, 너와 할 말이 좀 있다. 노장로 ! 천천히 가서 생각해 보고 한 번에 기억하지 못하면 다시 가르쳐 주겠소."

노유각, 곽부 등 네 사람은 황용에게 인사를 하고 육가장으로 돌아가고 양과만 서 있었다.

양과는 마음이 몹시 불안했다. 양과는 황용이 이미 그가 몰래 타구

봉법을 배운 것을 알고는 그녀의 매서운 한 수로 자기의 목숨을 노리지 않나 두려워했다.

황용은 그가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의 손을 잡고 그녀의 옆에 앉았다.

"과아야,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느냐 ? 나는 잘 모르지만, 만약 묻더라도 네가 대답할 것 같지 않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탓하지 않겠다. 나도 어렸을 때 성질이 몹시 괴팍했는데 운 좋게 너의 곱아저씨가 모두 용서해 주었지."

이렇게 말하고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 입가에 미소를 띄면서 자기의 개구장이 시절의 일을 떠올렸다.

"내가 너에게 무공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은 원래 너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 때문에 네가 많은 고초를 겪은 것 같구나. 곱아저씨는 너를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기는데 너는 여기에 힘을 다해 보답해야 한다. 그는 너에게 큰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장차 네가 위풍당당한 사나이가 되는 것이다. 나는 힘을 다해서 네가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어 그의 희망을 이루도록 애쓸 작정이다. 과아야, 너는 결코 그를 실망시켜서는 안 되다. 알았느냐 ?"

양과는 지금까지 이처럼 온화하게 자기에게 충고하는 황용의 말을 듣지 못했고, 그녀의 눈 가운데 애정이 가득 찬 것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크게 감동해서는 가슴에 뜨거운 열기가 용솟음치며 울지 않을 수 없었다.

황용은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과아야, 나는 조금도 너를 속이지 않겠다. 나는 이전에 너의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아서 덩달아 너도 좋아하지 않았었지. 그러나 오늘 이후 나는 반드시 너를 잘 대해 주마. 내가 다시 몸이 가벼워지면 내 온몸의 무공을 모두 너에게 전해 주겠다. 곱아저씨도 너에게 무공을 전해 주시겠다고 하셨단다."

양과는 더욱 감격해서 소리를 내면서 울었다. 잠시 후, 훌쩍거리며

말했다.

"곽백모, 나는 여러 번 백모님을 속였어요. 나....., 나....., 나는 이제 모두 말씀드릴게요."

황용은 다시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오늘 매우 피곤하구나. 며칠 있다가 다시 말해도 늦지 않아. 너는 착한 아이니까. 나는 너를 좋아한다. 개방 대회가 열리면 너도 와서 보아라."

양과는 홍철공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 큰 사건을 대회에서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눈물을 닦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나무 밑에서 한 대화는 모두 진실로 가득 차 그 동안 서로 불만스러웠던 감정이 일시에 사라졌다. 말이 여기에까지 이르자 양과는 마침내 울음을 멈추었다.

양과는 곽정의 말 가운데에 자기에 대한 기대와 깊은 배려가 있음을 생각하고는 소용녀와의 이별 이후 처음으로 이처럼 따뜻한 온정을 느꼈음에 흐뭇해 했다.

황용은 말을 마치고 뱃속에서부터 조금씩 통증이 오는 것을 느끼고는 천천히 일어났다.

"자, 우리 돌아가자."

황용이 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양과는 홍철의 사망 소식을 먼저 알리려고 생각했다.

"곽백모, 매우 중요한 할 말이 있는데요."

황용은 점차 호흡이 순조롭지 못하자 눈썹을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다.

"내일 말하자. 나....., 나는 좀 불편해 !"

양과는 그녀의 얼굴이 사색이 된 것을 보고는 덜컥 겁이 났다. 그는 그녀의 손이 찬 것을 느끼고는 대담하게 운기를 해서 뜨거운 힘을 손바닥을 통해서 그녀에게 전해 주었다. 양과는 종남산에서 소용녀와 함께 옥녀심경을 연습할 때 이 같은 장심전공(掌心傳功)의 방법을 이미

잘 연습해 두었다. 그러나 황용의 내고과 자기의 내공이 서로 충돌할 것을 두려워해 처음에는 단지 조금씩 전해 주었으나 아무런 저항이 없음을 알고는 비로소 내력을 증가시켰다.

황용은 그에게서 전해 오는 꾸준한 내력을 느끼고는 전진파의 내력과 전혀 다른 것을 알았으나 그 부드러움과 두터움은 전진고수와 비할 바가 아니었다. 몸 속에 내력을 크게 받아서 순식간에 그녀의 역전된 기혈을 바로 받아 양불이 불그스레해지고 마음이 이상해졌다.

(이 아이가 어디에서 이런 고급 내공을 익혔을까 ?)

황용은 그에게 웃으면서 매우 고마워했다.

막 물어보려 하자 곽부가 저 멀리에서 급히 달려왔다.

"엄마, 엄마 ! 누가 왔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오늘 천하 영웅의 모임이 있지 않느냐 ! 나는 누가 왔는지 알자."

갑자기 마음을 가다듬으며 기쁜 듯 외쳤다.

"으음, 무씨 형제의 사백과 사숙들이지 ?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데."

"엄마는 정말로 총명하시군요. 어떻게 한 번에 알아맞히셨어요 ?"

"그게 뭐 어렵니 ? 무씨 형제는 조금도 너와 떨어지지 않는데 갑자기 너와 함께 오지 않았으니 반드시 그들의 친척이 온 것이지."

양과는 지금까지 스스로를 총명하다고 생각했으나 황용의 귀신같은 보고는 자기보다 훨씬 위인 것을 알고는 탄복했다.

"부아야, 네가 다시 한 가지 고급 무공을 배우게 됐으니 축하한다. 그런데 엄마는 배워도 네가 하지 못할까 걱정이야."

"무슨 무공요 !"

양과가 입을 열었다.

"일양지(一陽指) !"

곽부는 그를 상대하지 않고서 계속 물었다.

"양오빠가 뭘 안다고 그래 ? 엄마, 무슨 무공이에요 ?"

"양과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

"아 ! 이제 보니 엄마가 그에게 말했군요."

황용과 양과는 가볍게 웃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과아의 총명은 무씨 형제보다 열 배 정도는 능가한다. 부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언급할 필요도 없지. 그는 일양지가 일등대사(一燈大師)의 무공으로서 무씨 형제의 사백들이 와서는 그들 형제가 외로운 것을 보고는 반드시 그것을 전수해 주리라는 것과 그들은 곽부에게 아침하기 위해서 그들이 배운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그애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곽부는 그러나 엄마가 이 일은 먼저 양과에게 알려준 것으로 알고는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설마 나를 이 누더기 거지 소년에게 시집보내려는 것은 아니겠지?)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자기도 모르게 양과를 흘겨보며 얼굴을 찡그렸다.

대리국(大理國)의 일등대사 밑에는 어부, 나뭇꾼, 농부, 서생 등 4대 제자가 있었다. 무씨 형제의 아버지 무삼통은 세번째로 농부였다. 그는 이막수와의 일전에서 부상당한 뒤, 지금까지 종적이 묘연하여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때 영웅대연에 참가한 것은 어부 사수어은(泗水漁隱)과 서생 주자류(朱子柳)였다.

사수어은, 주자류 두 사람은 황용과 서로 인사를 나눈 뒤, 과연 조용한 방을 찾아가 일양지의 입문 공부를 무씨 형제에게 전해 주려고 했다.

이날 오전 육가장에는 많은 영웅 호걸이 도착했다. 육가장이 비록 컸으나 많은 사람들로 가득 붐비고 있었다.

점심을 먹고 개방의 사람들은 육가장 앞에 있는 숲속에 모였다.

신구(新舊) 방주의 교체는 개방의 가장 큰 의식으로, 사방의 고수와 제자들이 모두 모이고, 육가장에 와서 영웅대연에 참가하는 호걸들로부터 모두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10 여 년 동안 노유각은 계속해서 황용을 대신해 개방의 일을 처리하며, 공평 정직하여 개방 중의 오의(汚衣)와 정의(淨衣)의 양파로부터 모두 열렬한 환영을 받아 왔다. 이때 정의파의 간장로(簡長老)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양장로 또한 나이가 많아 허약했으며, 팽장로(彭長老)는 반란을 일으켜서, 개방 중에 다른 개방의 방주 자리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이번의 교체는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황용은 방의 규칙을 선포한 이후, 역대 방주에게 전해 오는 타구봉을 노유각에게 전해 주었다. 모든 제자들은 그를 향해 침을 뱉아서 그의 얼굴 전체와 온몸은 모두 침투성이가 되었다. 그렇게 신규 방주의 교대식은 끝났다.

양과는 방주의 교대식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막 일어나서 홍칠공의 사망 소식을 알리려고 했으나 돌연, 한 늙은 거지가 큰 바위 위로 뛰어올랐다.

"홍노방주(洪老幫主)의 명ियो ! 내가 그것을 여러분께 전달하겠소."

모두들 이 말을 듣고서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10 여년 동안 옛 방주의 소식을 듣지 못하여 항상 근심하였는데, 돌연 그가 명을 내렸다는 것을 알고는 모두 미친 듯이 기뻐했다. 무리 중에서 한 거지가 큰소리를 질렀다.

"홍노방주님 만세 !"

모든 거지들이 함께 소리치자 천지가 흔들렸다. 환호성이 계속되더니 한참 후에야 비로소 멈추었다.

양과는 개방의 사람들이 감동하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이처럼 곤란한 때를 당하다니 ! 모든 사람이 이같이 좋아하는데 내가 어찌 홍노방주의 사망 소식을 말할 수 있겠는가 ? 내가 가벼이 이 중대한 사건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서로 지껄이다 결국은 난장판이 될 것이니, 이 또한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내 어찌 그들의 흥을 깬단 말인가 ?)

양과는 다시 생각했다.

(그들은 홍노방주의 사망 원인을 틀림없이 물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의부와 그가 한판 겨룬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지. 무찌 형제는 내가 의부(義父)에게 합마공을 배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들이 어찌 그 까닭을 말하지 않겠는가 ? 이 많은 거지들은 필경 내가 옆에서 거들어 홍노방주를 죽였다고 생각할 텐데 그때는 정말로 변명할 재간이 없지. 대회가 끝난 후에 자세하게 곽백모에게 말씀드려 그녀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

양과는 조용히 그 늙은 거지가 하는 말을 들었다.

"반 년 전에 나는 광남동로(廣南東路)의 운주(韻州) 시흥군(始興郡)에서 홍노방주를 만났는데 그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소. 그의 몸은 건강하였고 식욕도 매우 좋았으며, 주량도 이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지요."

모든 거지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여러 소리를 내며 즐거워했다.

"노방주께서는, 나라를 망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무도한 관리를 요즘 적지 않게 죽였대요. 최근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다섯 명의 무도한 장변오추(藏邊五醜)라 불리는 놈들이 몽고 오랑캐들의 명을 받고 천동(川東), 호광(湖廣) 일대에서 적지 않은 나쁜 일을 저지르며 횡행하는 것을 알고는, 그가 직접 가서 조사해 이것이 사실이면 그들의 목숨을 처리하겠다고 하셨소."

한 명의 중년 거지가 일어났다.

"장변오추는 마음대로 날뛰며 이곳저곳을 노략질해 우리 산동의 여러 형제들이 시종 그들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지요. 그런데 근래에 그놈들의 소식이 뜸하더니 이제 보니 노방주께서 놈들을 제거하러 가셨군요."

개방의 제자들과 의식에 참가한 호걸들은 계속해서 박수를 쳤다.

(너희들이 어찌 홍노방주와 나의 의부가 장변오추를 처치한 이 후,

그들 두 사람이 싸우다 곧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알겠는가 !)

늙은 거지가 말했다.

"홍노방주께서는, 지금 천하는 몹시 혼란하여 몽고의 오랑캐가 점점 남으로 침입해 우리의 대송(大宋) 천하를 잠식하고 있으니, 우리 형제들은 반드시 충의의 마음을 갖고 죽기를 맹세하여 적에 대항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지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호응하니 분위기는 극히 고양되었다.

"조정의 정사는 점점 문란해지고 간신이 날뛰고, 썩어빠진 관리들이 어찌 보국호민(保國護民)을 하겠소 ? 눈앞에 외한이 점점 심해지니 우리들은 모두 몸을 바쳐 국가에 보답할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요. 홍노방주의 명을 받들어 충의(忠義)를 잘 기억해야 할 것이요."

모든 거지들은 이에 호응했다.

"죽기를 맹세하여 홍노방주의 교훈을 따르자 !"

양과는 어려서부터 배우지 못하여 <충의> 두 글자의 뜻을 몰랐으나, 모든 거지들이 위풍凜凜한 모습을 보고는 크게 느끼는 바가 있었다. 양과는 일전에 개방의 제자들을 희롱한 것을 매우 후회했다.

개방 대회는 이후,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등 밖에서 온 손님들이 함께 하기에는 거북한 것이어서 사람들은 분분히 인사를 하고 흩어자 육가장의 안팎에는 등불이 하나 둘 걸려서 휘황찬란했다. 정청(正廳), 전청(前廳), 후청(後廳), 상청(廂廳), 화청(花廳) 등의 각처에 200 여 석이 준비되고 천하의 이름 있는 영웅 호걸들이 거의 다 연회에 참가했다. 이 영웅대회는 10 여 년에 한 번 개최되는 성대한 대회로서 만약 방주의 교제가 광범하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면 결코 이렇게 많은 영웅 호걸들이 모이지 못한다.

곽정, 황용 부부는 함께 주빈석에 앉았으며, 정청에 자리잡았다. 황용은 양과를 차석에 앉힘으로써 그녀의 옆에 두었다. 곽부와 무씨 형제는 오히려 멀리 떨어져 앉았다.

곽부는 처음에 매우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양과는 무공도 하지 못하는데 엄마가 어찌 그에게 저 자리를 땀 했지 ?)

돌연 생각을 바꾸자 곽부는 자기도 모르게 오싹해졌다.

(아, 아버지가 나를 그에게 시집보낸다고 하셨는데, 설마 엄마가 아버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아니겠지 ?)

그녀는 생각하면 할수록 두려웠다. 방금 엄마가 양과의 손을 잡고 다정스럽게 지나가는 것을 본 것이 생각났다. 또한 엄마와 아버지는 서로 존중하여, 아버지가 이처럼 집요하게 요구한다면 엄마도 승낙하지 않을 수 없음을 생각했다. 그녀는 양과를 바라보며 걱정이 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내가 어찌 저런 거지에게 시집갈 수 있겠는가 ?)

참을 수 없어 곽부는울음이 터져 나왔다. 무수문이 때마침 말했다.

"아우야 ! 양과란 놈이 저기 앉아 있는 것 좀 봐 ! 그가 도대체 무슨 영웅이라고 ?"

"오빠들 실력이 그를 따라갈 수 있어 ?"

무씨 형제는 양과를 원래 무시하고 있던 차에 나무 위에서 곽정이 곽부를 그에게 시집보낸다는 말을 듣고는 이미 그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 무수문은 곽부의 이 말을 듣고 互翬目杉裏

(내가 한 번 그를 골탕먹여야지 ! 그래서 그를 영웅들 앞에서 큰 망신을 줘야겠다. 사모는 원래 이기는 것을 좋아하니 양과가 대중 앞에서 망신을 당할 경우, 사모는 결코 그를 사위로 삼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마침 사백으로부터 일양지의 무공을 배웠기 때문에 한 번 써먹으리라 생각했다.

"그가 이미 영웅을 사칭하여 허세를 부리고 있으니 내가 체면을 크게 한번 깎아 내려야겠다."

무수문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두 잔에 가득히 술을 부어서 양과의 곁

으로 갔다.

"양형, 가까운 시일 내에 좋은 일이 있겠지요 ? 축하드립니다 !"

양과는 무수문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는 즉시 곱부를 쳐다보니, 그녀의 얼굴 표정에 교활한 빛이 어른거리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은 뜻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가 축하주를 가져오는 것이 웬일인지 장난기가 있다. 설마 술에다 독을 타지는 않았겠지 !)

"고맙소 !"

양과는 단숨에 잔을 비웠다. 이때 무수문이 돌연 오른손의 식지를 뻗어서 그의 허리를 누르려 했다. 그는 몸으로 옆 사람의 눈길을 피하며 양과의 소요혈(笑腰穴)을 겨냥하였다. 사백의 말에 의하면 일양지법으로 적의 소요혈을 누르면 상대방은 큰 소리로 웃으면서, 혈도가 풀어지지 않으면 결코 웃음을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양과는 진작부터 신경을 써서주의했기 때문에 능히 그의 공격을 예측했다. 사실 상대방의 이러한 기습은 이때 그의 무공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었다. 만약 양과가 평소 당하지 않으려는 성격대로 행동했다면 격심하게 반격을 해 무수문을 쓰러뜨리지 않고 오히려 그의 소요혈을 눌렀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황용과 다감한 이야기를 나눈 이후라 양과의 마음은 유쾌하고 편안했다.

(네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려 해도 곱백부와 곱백모의 제자로서 나는 너 따위는 상대하지 않겠다.)

즉시 구양봉이 전해 준 내력을 작용시켜 전신의 경맥을 순식간에 모두 역전시켜 모든 혈도를 바꾸었다. 그러나 머리와 발끝의 혈도를 모두 바꿀 수는 없었는데 그것은 아직 공부가 약했기 때문이었다. 경맥이 잠시 역전되었다가도 이내 정상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양과는 다시 내공을 사용하여 겨우 다시 역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이 무수문의 공격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만들고 말았다.

무수문은 손가락을 찌른 후 양과가 웃으면서 제자리로 돌아가자 아

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서 무수문이 말했다.

"형님, 어째서 사백이 가르쳐 준 무공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까요 ?"

"설마 아무런 소용이 없을라구 ?"

무수문은 지금까지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무돈유는 비웃으며 말했다.

"너의 방식이 틀렸든지 혹은 혈을 잘못 찾았겠지 !"

"틀리다뇨 ? 자, 보십시오."

무수문이 손가락을 뺏아서 형의 허리를 찌르려는 동작을 취하자, 자세는 정확하여 사백이 전해 준 것과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곽부는 작은 입을 삐죽거렸다.

"일양지조차 별 게 아니구나. 흥 ! 오빠들의 무공도 아무 소용없군."

그녀는 무씨 형제가 일양지를 배우고 나서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나중에 가르쳐 준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별 흥미가 없었다.

무돈유는 즉시 일어나서 술잔에 술을 가득 따라 양과에게 다가갔다.

"양형, 우리들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요. 이처럼 다시 만나니 제가 축하드립니다."

(네 동생의 실력은 이미 보았는데, 너는 얼마나 고수인가 어디 보자 !)

양과는 젓가락으로 커다란 쇠고기 한 점을 들고 그것을 놓지 않은 채 왼손으로 술잔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무돈유는 바람을 일으키며 오른팔을 뺏아서 양과의 허리를 찌르려 했다. 양과는 그의 손가락이 매섭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자기의 경맥을 역전시키는 공부에 한계가 있으므로 막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 다시 운기를 해서 맥을 역전시키지 않고 손을 아래로 늘어뜨려 쇠고기 한 점이 자기의 소요혈을 막도록 했다. 그의 이 동작은 다소 늦었지만

무돈유보다 먼저 소요혈에 이르렀다. 무돈유는 그것을 전연 알지 못하고 식지로 쇠고기를 찢었다. 양과는 웃으면서 젓가락을 놓았다.

"술을 먹고 안주로 쇠고기를 먹는 것이 제일 좋지 !"

무돈유가 손을 들어올리자 다섯 손가락에 큰 쇠고기 한점이 잡혀 있는 것을 보았다. 물이 똑똑 떨어져 쳐들자니 그렇고, 버리자니 떼지지 않아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무돈유는 양과를 노려보며 제자리로 돌아갔다.

곽부는 그의 손에 쇠고기 한 점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서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게 뭐야 ?"

무돈유는 얼굴이 붉어지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때 개방의 신임 방주 노유각이 술잔을 들고 일어났다.

그는 잔을 들어 영웅들에게 예를 올리면서 큰소리로 말했다.

"본방의 홍방주께서 명령을 내리셨소. 몽고의 남침이 점차 심해지니 개방의 형제들은 힘을 다해 외적을 막아야 한다고. 현재 천하의 영웅이 이곳에 다 모였으니 사람마다 충의를 품고, 묘책을 생각해서 몽고 오랑캐가 다시는 우리 강토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겠소 !"

그가 말을 마치자 영웅들은 분분히 일어나서 한 마디씩 지껄이며 모두 찬성의 표시를 했다. 이때 영웅대연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끓는 젊은이들로 국세가 날로 기울어짐을 보고서 깊이 근심해 온 바라 누군가 이 일을 제기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 이에 호응했다.

은발의 늙은 거지가 일어나서 말했다.

"우리들의 충의지의(忠義之意)도 만약 좋은 지도자가 없다면 큰 일을 이루기 어려울 거요. 오늘 호걸들이 모두 여기에 모였으니 덕망이 높고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는 호걸을 추천해서 그를 수령으로 해 모든 사람은 그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어떻겠소 ?"

군웅들이 웅성거리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쳤다.

"당신을 우리의 수령으로 삼는 것이 좋겠소 !"

"뭐 굳이 다른 사람을 추천할 필요가 있겠어 ?"

그 노인은 웃었다.

"이 늙은 내가 어찌 수령이 될 수 있겠소 ! 무림의 고수는 원래 동사(東邪), 서독(西毒), 남제(南帝), 북개, 중신통(中神通)을 수령으로 했소. 중신통의 중앙진인은 이미 신선이 되었고, 동사의 황도주는 혼자 왔다갔다 하고, 서독은 우리 사람이 아니고, 남제는 저 멀리 대리국에 있으니 우리 송나라 백성이 아니지요. 군웅의 맹주는 자연히 북개의 홍노방주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오."

홍칠공은 무림 중의 태산북두(泰山北斗)로 모든 이들의 명망을 얻고 있었으므로 군웅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다른 사람이 뛰쳐나왔다.

"홍노방주는 원래 군웅의 맹주이십니다. 그를 제외하고 무공이뛰어나며 덕망이 높은 사람을 뽑아서 이 대임을 맡기도록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의 말소리가 우렁차서 사람들은 모두 소리나는 곳을 쳐다보았으나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말한 사람의 키가 매우 작아서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거, 누가 말씀하셨소 ?"

그 조그만 거지는 탁자 위로 뛰어올랐다. 그의 키는 고작 3 척정도였으며, 나이는 40 여 세로 온 얼굴에 강렬한 힘이 넘쳤다. 어떤 사람이 그가 강서호한인 왜사(矮獅) 뇌맹(雷猛)인 것을 알아보았다. 사람들은 순간 웃음이 나왔으나 그의 두 눈에서 나오는 용맹한 눈빛을 보고서 웃음소리가 뱃속으로 넘어갔다.

"홍노방주께서 신출귀몰하시어 십여 년 동안 한 번 보기도 힘드니, 적에게 대항해야 하는 큰일에 일일이 그의 지시를 받기가 어려우니 어찌하면 좋겠소 ?"

(맞는 말이다.)

"우리들이 오늘 하는 일은 모두 국가에 보답하는 일이므로, 조금도

사심이 없소. 한 사람을 추대해 부맹주로 하여 홍노맹주께서 사방을 주유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의 명령에 따르는 게 어떻겠소 ?"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자 한 사람이 소리쳤다.

"곽정, 곽대협이 좋겠소 !"

"노방주가 제일 적격이라 생각하오."

"개방의 전 방주인 황방주가 지혜도 많고 홍노방주의 제자이니, 나는 황방주를 추대하겠소."

"육장주를 추대하오 !"

"전진교의 마교주..... 장춘자 구진인 !"

일시에 의론이 분분했다. 이때 네 사람의 도인이 급히 걸어들어왔다. 그들은 학대통, 손불이, 조지帙 윤지평이었다. 양과는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흥, 나와 다시 한 번 붙어 보자는 생각인가 ?)

곽정과 육관영은 크게 기뻐하며 황망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영접했다. 전진파의 호칭은 천하 무술의정통으로 오늘 영웅대연 가운데 만약 전진파의 고수가 참가하지 않는다면 자연 영웅대연의 명성이 크게 감소될 판이었다.

학대통은 곽정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적이 앞에 와서 소란을 피우려 하니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특별히 달려와서 이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곽정이 생각하기를, 광녕자(廣寧子) 학대통은 전진교의 고수로서 강호에서 무공이 그를 능가하는 사람이 몇 안 되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보고는 상대는 반드시 무서운 인물이라 느꼈다.

"구양봉 ?"

"아니, 내가 한 번 겨룬 바 있는 몽고인이오."

"아 ! 곽도(藿都) 왕자로구나 !"

*** 라마승 금륜법왕(金輪法王) ***

학대통이 채 대답하기도 전에 대문 밖에서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바위치는 소리가 계속 울려왔다.

육관영이 소리쳤다.

"귀빈이 오신다 !"

대청 앞에는 크고 작은 수십 명이 무리를 이루고 서 있었다. 안에는 술을 마시던 군웅들은 많은 사람이 몰려오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모두 영웅연에 참가한 인물로 알고 비록 낯설은 인물들이지만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

곽정은 낮은 소리로 황용에게 학대통의 말을 전해 주고 일어서서 육관영 부부와 함께 마중 나갔다. 곽정은 용모가 단정하고 귀공자 모양의 사람이 몽고의 곽도 왕자인 것을 알아챘다. 키가 작고 마른 라마승은 곽도의 사형인 달이파(達爾巴)였다. 이 두 사람은 일찌기 종남산 중앙궁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그들은 비록 일류 고수이지만 무공은 자신에게 떨어지니 곽정은 그들에게 겁을 먹지 않았다. 두 사람은 양쪽으로 나누어 쪼고, 중간에는 홍포를 걸친 키가 크고 비쩍 마른 대나무같이 생긴 라마승이 있었다. 그의 머리는 움푹 들어가 마치 접시와 같았다.

곽정과 황용은 서로 쳐다보았다. 그들은 일지기 황약사로부터 서장(西藏) 밀종(宗)의 기이한 무공을 들은 적이 있었다. 서장 밀종은 무공을 단련해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정수리가 움푹 들어간다고 황약사가 말했었다.

(이 사람의 정수리는 깊이 들어갔으니 혹시 무공의 최고 경지에 이른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어찌 강호에서 서장에 이 같은 고수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을까?)

두 사람은 마음속으로 매우 조심하면서 동시에 허리를 굽혀서 예를 올렸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잔을 받으시지요."

그는 그가 적인 것을 알고는 감히 <환영한다>는 따위의 말은 하지

않았다. 육관영은 하인들에게 분부해 자리를 마련하고 잔을 채웠다.

무씨 형제는 계속해서 사부 사모가 하는 일을 도왔는데, 특히 무수문은 일을 재빨리 아주 잘 하는 사람이었다. 무씨 형제는 하인들을 지휘하여 제일 좋은 곳에 자리를 마련하고 매우 미안한 표정으로 그들 귀빈을 안내했다. 광부는 양과가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네가 무슨 영웅이나 ? 천하 영웅이 모두 죽어도 너는 영웅이 아니다.)

광부는 마침 무수문과 눈이 마주치자 양과를 쏘아보며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애써 지어 보였다. 무수문은 광부의 뜻을 알아채고 양과의 앞으로 가서 말했다.

"양형, 자리를 옮기시지 !"

무수문은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이미 하인을 시켜서 그의 잔과 젓가락을 쳐마필 가장 외진 곳으로 옮겼다. 양과는 속으로 화가 치밀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볍게 웃었다.

한편, 광도왕자는 그 키가 크고 마른 라마승에게 말했다.

"사부님, 제가 중원의 이름 높은 두 분 영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정은 긴장했다.

(원래 그가 이 몽고 왕자의 사부로구나.)

그 라마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쯤 뜨고 있었다.

"이분은 우리 몽고서정우군의 원수를 지내신 광정 광대협 어른이고, 이분은 광부인, 즉 개방의 황방주이십니다."

이 라마승은 <몽고서정우군의 원수>라는 말을 듣고서 두 눈을 크게 뜨고는 갑자기 광정의 얼굴을 그윽히 쳐다보고 다시 눈을 반쯤 감고는 개방의 방주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광도왕자가 낭랑하게 소리쳤다.

"이분은 나의 스승이며 서역의 성승(聖僧)으로 모든 사람이 금륜법

왕(金輪法王)으로 존경해 부르며, 지금 대몽고국 황후가 제일호국대사로 봉하셨소."

이 몇 마디는 매우 우렁차서 모든 영웅들이 모두 똑똑하게 들었다. 모든 사람들은 놀라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우리가 여기서 몽고의 남침을 막을 방법을 상의하고 있는데 어찌 몽고의 무슨 호국대사가 여기에 나타난단 말인가 ?)

양과는 오싹하며 그때 화산 꼭대기에서 의부와 홍칠공이 모두 장변 오추의 무공이 대단함을 칭찬한 것이 생각났으며, 그들이 금륜법왕과 한번 겨루어 보려고 했던 것도 생각났다. 이제 금륜법왕과 장변오추의 스승인 달이파가 함께 이곳에 왔으나, 의부와 홍칠공이 이 세상에 없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 양과는 이 크고 마른 라마승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음을 알았다.

곽정은 이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저 담담하게 이야기 했다.

"여러분은 먼 곳에서 오셨는데, 아무쪼록 많이 드시지요."

술잔이 세 번 돌자 곽도 왕자가 일어서서 부채를 펼치자 부채속에 요염한 모란이 드러났다.

"우리 사제는 오늘 초대장 없이 이곳 영웅대연에 왔으니 모두가 얼굴을 찡그리는 불청객이요. 그러나 군웅 현자가 모인다기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왔다오. 성대한 잔치는 어렵고, 좋은 시절은 다시 오지 않으니, 이곳에 천하의 영웅이 모두 모였으니 내가 보기에는 반드시 한 분 군웅을 맹주로 추대하여 무림의 영수로 해 천하 호걸의 수장으로 삼음이 어떨지요 ?"

왜사 뇌맹이 소리쳤다.

"그 말이 옳소 ! 우리는 이미 개방의 홍노방주를 군웅의 맹주로 선출하고, 지금 다시 부맹주를 추대하려고 하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떠한지 ?"

"홍칠공은 이미 죽었소. 귀신을 맹주로 추대하다니 우리가 모두 죽

은 사람들이란 말인가 !"

이 말이 튀어나오자 군웅들은 모두 한 마디씩 지껄여서 떠들썩 해졌는데, 특히 개방의 형제들은 더욱 화가 나서 분분히 소리쳤다.

"종소. 만약 홍칠공이 죽지 않았다면 어디 그를 데리고 와 보시오 !"

노유각은 타구봉을 높이 두 번 들었다.

"홍노방주께서는 지금 천하를 유람하시어 행로가 일정하지 않다. 네가 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가볍게 만날 수 있을 줄 아느냐 ?"

"지금 홍칠공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만약 그가 이곳에 앉아 있다고 해도 그의 무공이나 덕망이 어찌 나의 사부인 금륜법왕에 미치겠는가 ? 지금 천하의 맹주는 금륜법왕을 제외하고 또 누가 있겠는가 ?"

군웅은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이 온 이유를 명백하게 알았다. 즉, 영웅대연이 몽고에 불리한 것을 알고는 맹주의 자리를 차지하려 온 것이다. 만약 금륜법왕이 무공으로 맹주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중원 호걸들이 비록 그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해도 몽고에 대한 한인의 저항을 약화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모두 황용이 지략이 많은 것을 알고는 약속한 듯 동시에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 십여 명의 무공이 강하지만 결코 여기에 있는 수천 명을 대적할 수는 없다. 한 사람씩 대결하든지 혹은 무리끼리 대결하든지 우리 모두는 단지 황방주의 명령을 따르면 된다.)

황용은 오늘 무공을 쓰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자연히 무리끼리 싸워야 할 텐데 그들을 심복시키기 어려움을 깨달았다.

"지금 군웅들이 이미 홍노방주를 맹주로 추대했는데 이 몽고 오랑캐가 와서 가로막으며 종래에 듣지 못하던 무슨 금륜법왕인가를 추대하려고 하고 있소. 만약 이곳에 홍노방주가 계신다면 원래 금륜법왕과 자웅을 겨루어야 하지만, 지금 홍노방주께서 천하를 주유하면서 곳곳

에서 몽고 오랑캐를 죽이고, 몽고에 아첨하는 한인 관료를 제거하는데 뜻밖에도 이들이 찾아와서 공손하지 못하니 홍노방주께서 다음에라도 아신다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실 것이요. 마침 홍노방주와 금륜법사가 모두 제자에게 무예를 전해 주었으니 두 제자들이 스승을 대신해 무예를 겨루면 어떻겠소 ?"

중원의 군웅들은 대부분 광정의 무공이 대단한 것을 알고 있었다. 광정은 이미 당대 제일의 대인으로서 이때에는 홍칠공도 그를 능가하지 못하여 만약 금륜법왕의 제자와 대결한다면 승리는 바로 손 안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여 군웅들이 소리를 지르자 기와가 들 거렸다.

이곳저곳에서 술을 마시던 군웅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분분히 달려와서는 일시에 주위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위세를 드높였지만 금륜법왕 쪽은 사람이 적어서 위세가 크게 미치지 못했다.

광도는 이전에 중앙궁에서 광정과 대결해 패한 적이 있었다. 그때 이미 그가 전진파의 문하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이후 소식을 더 들어서 그의 내력을 꿰뚫고 있었다. 사형 달이파와 광도는 백중지세(伯仲之勢)여서 홍칠공의 제자인 광대협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 만약 황용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오늘 이 맹주의 자리는 결코 탈취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뜻밖의 사태를 생각하지 못했 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이 없어 당황했다.

"좋다 ! 광도야, 네가 나가서 홍칠공의 제자와 한 판 무예를 겨루어라."

이 몇 마디의 말은 매우 신중했다. 금륜법왕은 계속 서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광도의 무공 정도면 중원에는 대단한 상대가 적어 복개, 동사, 서독 등은 제자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그는 제자가 광정에게 한 번 혼줄이 난 것을 모르고 있었다. 광도는 대답을 하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사부님 ! 저 홍칠공의 제자는 실로 대단합니다. 제가 이기지 못할

까 두렵습시다만, 결코 사부님의 명예를 손상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설마 싸우지 않겠다는 소리는 아니겠지 ? 빨리 나가거라."

곽도는 곽정과 의 일을 지금껏 사부에게 속여서 지금 갑자기 감히 밝힐 수도 없었다. 그는 사부의 뛰어난 무공은 누구도 필적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이곳 영웅연에 와서 맹주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인데 어찌 곽정과 대결할 줄 알았겠는가. 그가 당황하자 몽고의 관원 복장을 한 뚱뚱한 사나이가 다가와서는 곽도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는 몇 마디 속삭였다. 곽도는 크게 기뻐하며 일어서서 부채를 몇 번 부치더니 큰소리로 말했다.

"듣건대 개방의 보물로 무슨 타구봉인가가 있어 그鑢妍聆텨 최고로 무서운 무기라 하는데 내가 이 부채로 그것을 깨뜨리겠소. 만약 깨진다면 홍칠공의 무공 또한 별 것 아닌 게 아니겠소 ?"

황용은 처음 몽고 관원이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일 때 주의해 보지 않았지만 갑자기 그가 타구봉법을 언급하여 무공이 제일 강한 곽정을 교묘하게 피하는 것을 보고는 누가 이 같은 꾀를 생각했는지 궁금했다. 그 몽고인을 보자 그가 곧 개방의 4대 장로 중의 하나인 팽장로란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원래 그는 몽고에 투항해 몽고 의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수염을 길렀으며 모자를 내려 써 눈까지 가려서 신경을 써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었다. 그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타구봉법이 개방의 방주에게만 전해지고 있고, 곽정의 무공이 비록 높다고 해도 이것만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곽도의 이 말은 명확하게 노유각을 자기의 상대로 지명하는 것이었다. 노유각의 봉법은 배운 지 얼마 안 되고 잠시 연습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나 자기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곽정은 황용의 타구봉법이 천하 제일이란 것을 알고 있어 능히 곽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녀는 요새 태기가 있어서 호흡이 순조롭지 못하니 함부로 싸워서 안 되었다. 그래서 곽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홍노방주의 타구봉법은 이처럼 경솔하게 사용할 수 없으니 내가 그 대에게 강룡십팔장을 가르쳐 주겠소."

금륜법왕은 눈을 반쯤 뜨고 광정이 우뚝 서서 말하는 것을 보고서 그의 기세가 대단한 것을 알고 겁을 먹었다.

(과연 대단한 사람이구나.)

광도는 하하, 웃었다.

"종남산 중앙궁에서 그대와 나는 안면이 있는데, 그때 그대는 마옥, 구처기의 문인이라 칭하였는데, 어찌 다시 홍칠공의 제자를 사칭한단 말이오?"

광정이 막 대답하려 하자 광도가 다시 말을 가로막았다.

"한 사람이 여러 사부를 모시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오. 그러나 오늘은 금륜법왕과 홍노방주의 무공을 겨루는데 그대의 무공의 비록 강하다고 해도 여러 문하에서 수련하였으니 어찌 홍노방주의 진짜 무공이 나올 수 있겠소?"

이 말은 매우 이치에 맞는지라 광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군웅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다.

"광대협과 상대하라. 그렇지 않으면 꼬리를 감추고 꺼져라."

"광대협은 홍노방주의 수제자로 만약 그가 홍노방주를 대신하지 못하면, 누가 대신할 수 있단 覺 혼 揚 榻 따끔한 맛을 보고 다시 타구봉법의 맛 보아도 늦지 않다."

광도는 하늘을 쳐다보며 내력을 이용하여 하하하, 허허허, 긴 웃음을 웃어서 군웅들의 잡소리를 제압하자 대청의 촛불이 흔들렸다. 군웅들은 매우 놀라서 서로 쳐다보았다.

(나이 어리다고 깔보았는데 제법 상당하구나.)

순식간에 장내는 조용해졌다.

광도가 금륜법왕을 쳐다보았다.

"사부님, 우리가 속았습니다. 오늘 천하 영웅의 모임이 있다고 하길래 아득한 길을 서둘러 와서 보니 모두가 살기만을 탐하고 죽기를 두

려워하는 무리들인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 어서 가십시다. 사부님께서 만약 불행하게도 이들의 맹주가 된다면 천하의 호걸들이 사부님을 거지떼의 우두머리라 칭할 것이니 어찌 사부님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

군웅들은 모두 그가 상대방을 자극시켜 황용으로 하여금 출전하게 하려는 저의임을 알고 있었으나, 그가 이처럼 오만하게 말하자 실로 참기 어려웠다. 여러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노유각이 봉을 한번 흔들며 나아갔다.

"나는 개방의 신임방주 노유각이다. 타구봉법의 열 가운데 아직 하나도 제대로 익히지 못했으니 원래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대가 타구봉법의 맛을 한번 보고 싶어하니, 내가 한번 맛보도록 해 주겠다."

노유각의 무공은 이미 매우 심오하여, 비록 타구봉법을 완전히 익히지는 못했다고 하나 그의 원래 무공에 적지 않은 위력을 더해 주었다. 광도를 보건대 나이가 겨우 30 정도로, 설령 그가 훌륭한 스승에게서 무공을 전수받았다 하더라도 그 공력이 반드시 깊지는 않을 것 같이 보였다. 노유각은 황용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기에 자신의 승패가 어찌 되건, 그녀로 하여금 이 위험한 일에 말려들게 할 수는 없었다.

광도는 단지 광정과 대결하는 것이 두려웠을 뿐 다른 사람들은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아서 즉시 두 주먹을 맞잡고 몸을 굽혔다.

"노방주, 아주 잘 되었소. 당신께 가르침을 받게 되니 영광입니다 !"

황용은 암암리에 조금해졌으나 노유각 신임 방주가 이미 도전하기로 말을 꺼낸 이상, 자신이 더 이상 저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만약 그들의 싸움을 가로막게 되면 노유각의 위풍이 손상될 뿐더러 자신의 권세가 여전히 개방 방주보다 위에 있다는 걸 보이게 되는 것이니 그것 또한 좋은 일이라 할 수 없었다. 황용은 단지 그들이 우선 한바탕 싸우게 놔 둘 수 밖에 없었다.

육가장의 청지기는 하인들을 지휘하여 술자리를 한쪽으로 밀어 내어 대청에 탁자 7, 8 개가 놓일 만한 자리를 비우고, 붉은 촛불을 밝혀서 대청 한가운데가 마치 대낮처럼 밝도록 했다.

"자, 이제 겨루어 볼까 ?"

말을 막 꺼내며 광도가 부채를 휘두르자 한 줄기 광풍이 노유각의 정면으로 몰아쳐가면서 그 속에 희미한 향기가 풍겼다. 노유각은 바람 속에 독이 있을까 두려워 재빨리 옆으로 몸을 피했다. 광도가 부채를 한 번 휘두르며 이압 ! 하는 소리를 지르니, 부채가 8촌 정도의 점혈필(點穴필)로 접혀서, 즉시 상대의 옆구리를 찔러 들어갔다. 노유각은 봉을 들어올려 조금도 그의 점혈을 상대하지 않으면서 두려움의 기법으로 반격했다. 이 타구봉법은 정말로 기묘해서 공격해 들어가는 곳을 다른 사람이 예측할 수 없었다. 광도가 가볍게 피하기는 했으나 어찌 봉의 맹렬함에 찔리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마침내 그의 정강이에 적중하고 말았다. 그는 비틀거리면서 세 걸음쯤 펄쩍 뛰어서야 넘어지는 것을 간신히 면할 수 있었다. 곁에서 관전하던 군웅들은 소리를 모아 갈채를 보내며 고함을 질렀다.

"개자식한테 적중했다."

"타구봉법의 위력을 보여 줘라 !"

이렇게 한 번 꺾이고 나자 광도의 얼굴은 귀밑까지 붉어졌으나, 가볍게 몸을 돌려 왼손을 휘두르며 공격해 들어갔다. 노유각이 왼발을 날리면서 봉을 비스듬히 휘두르자 즉시 봉의 그림자가 난무하면서 그 변화를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과연 타구봉법의 명성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

광도는 정신을 바짝 집중하여 오른손에 부채, 왼손은 손을 써서 전력으로 대응했다. 이때 노유각의 봉법은 완전히 배운 것은 아니어서, 이미 여러 차례 손에 익히기는 하였으며 완성하지는 못했었다. 광정과 황용이 옆에서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다.

(아깝구나 !)

10 여 동작을 더 겨루자 노유각의 봉법은 갈수록 약점이 드러났다. 양과는 매 동작을 확실하게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다. 다행히 타구봉법이 먼저 기선을 잡아서 상대방의 정강이를 명중시켜, 광도가 두려워하여 감히 접근을 하지 못하게 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노유각은 이미 패했을 것이다. 황용은 형세가 좋지 않음을 보고 막 그만 하라고 외치려 하자 노유각은 갑자기 사타구배(斜打狗背)의 동작을 사용해 광도의 머리와 얼굴을 포위하며 봉을 휘둘러 왼쪽 이마를 내리쳤다. 그러나 이 공격은 너무 둔탁해서 가볍고 교묘함이 없었다. 광도는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으나 손을 급히 뺏아서 봉을 손안에 움켜쥐고 즉시 더 이상 생각할 나위도 없이 사납게 일장을 펼쳐 노유각의 가슴에 명중시켰다. 곧이어 한쪽 발을 비스듬히 휘두르며 크악 ! 하는 고함을 지르니 노유각의 다리 뼈가 부서지며 붉은 피가 용솟음치며 앞으로 쓰러졌다. 일곱 개의 마포자루를 멘 두 명의 제자가 급히 앞으로 튀어나와 그를 부축했다. 군웅들은 광도가 이처럼 잔인하게 손을 쓰는 것을 보고는 화가 치밀어 분분히 욕설을 해 댔다.

광도는 양손에 푸른 빛이 감도는 봉을 비스듬히 잡고서 득의양양해 했다.

"개방의 보물이라는 타구봉이 알고 보니 겨우 이 정도로구나."

그는 중원의 의협심 있는 개방을 모욕할 생각으로 두 손을 봉의 양 끝으로 갖다 대고 곧 봉을 부러뜨리려고 했다.

갑자기 푸른 그림자가 번쩍 하고 움직이더니 청아한 젊은 부인이 먼 전에 섰다.

"잠깐만 !"

바로 황용이었다. 광도는 그녀의 신법이 무척 민첩함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당신이..... ?"

황용은 왼손을 가볍게 휘두르며 오른손으로 그의 두 눈을 찔렀다. 광도가 급히 손을 들어 가로막았으나 황용은 이미 봉을 가볍게 나뺐다.

뒤였다.

봉을 빼앗은 이 수법은 바로 오구탈장(樊口奪杖)으로 타구봉법중 가장 훌륭한 동작이다. 일전에 개방의 동정호(洞庭湖) 군산(君山)대회 때에 황용은 일찌기 이 수법을 사용하여 양강의 수중에서 세 차례나 봉을 빼앗았던 것이다. 이 동작은 변화를 예측할 수 없어, 봉을 빼앗으면 백발백중이니 더 강한 고수라 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여기저기에서 군웅의 갈채 소리가 크게 일어났다. 황용은 자리로 돌아와 앉으면서 봉을 곁에다 기대어 놓으니 혼자 남겨진 광도는 그 자리에 매우 낭패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의 무공이 비록 심오하다고 하나 황용이 도대체 어떤 수법으로 봉을 뺏아갔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했다.

(설마 이 여자가 요술을 부리는 것은 아니겠지 ?)

여러 사람들이 분분히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광도는 눈을 비스듬히 해 안색이 시퍼런 사부의 모습을 보고는, 이런 미모의 젊은 부인의 무공은 반드시 한계가 있으리라 예상하고 즉시 큰소리로 외쳤다.

"황방주님, 내가 이미 봉을 돌려 주었으니 이제 다시 한 번 저와 겨루어 봅시다. 결코 사양하시지는 않겠죠 ?"

이렇게 말을 하자 과연 어떤 이들은 방금 황용이 결코 봉을 빼앗은 게 아니라 그가 봉을 되돌려주고서 무예를 겨루어 보려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단지 무공이 극히 높은 사람만이 황용이 봉을 빼앗았던 것을 눈치챘다.

광부는 지금껏 자기의 어머니에게 이토록 무례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그가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는 크게 화가 치밀어서 즉시 <발칙한 것 !> 하고 욕하며 패검을 끄집어냈다.

"누이동생, 내가 울분을 풀어 주지."

무돈유도 같은 생각이라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대청 가운데로 뛰쳐나갔다.

"내 사부님은존귀한 분이시다 !"

"어찌 네 놈 같은 야만인과 싸울 수가 있겠는가 ? 나의 가르침을 일단 받고 나서 다시 이야기해 보시지."

곽도는 두 사람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신법이 극히 안정된 것을 보고, 확실히 훌륭한 스승에게 지도를 받았음을 알았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은 빼어난 무공으로 명성을 떨쳐 한인 무사들의 예봉을 꺾으려 함인데, 다만 저들은 많고 우리는 적으니..... 다 두들겨 혼내 주기는 매우 어렵겠구나.)

"천하의 영웅 여러분, 이 두 젓비린내 나는 아이들이 나와 무공을 겨루자고 하는데, 만약 내가 그들에게 손을 대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른이 아이를 기만했다 할 것이고, 만약 내가 겨루지 않는다고 하면 무서워서 그런다고 할 것이니,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세 번 무공을 겨루는데 어느 편이든 두 번을 이기면 맹주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합시다. 방금 내가 노유각과 겨룬 것은 따지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겨루자는 얘지요. 여러분, 내 말이 어떻소 ?"

이 몇 마디 말은 공연히 그의 품위를 높여서 순간 그가 아주 대범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곽정, 화용 과 여러 귀빈들은 낮은 소리로 서로 상의하면서 상대방의 이 제의를 거절하기가 힘들다고 느꼈다. 오늘 모인 사람들중에서 화용이 출전하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곽정, 학대통, 그리고 일등대사의 네째 제자인 서생 주자류, 이렇게 세 사람의 무공이 가장 강하였다. 주자류는 대리국의 사람으로 결코 송나라 사람이 아니었으나 대리국과 송은 마치 이빨과 입술 같아 서로 의지하는데다가 근년에 와서 계속해서 몽고의 탄압을 받아 왔던 터이니 따져 보면 같은 원수를 가진 셈이었다. 하물며 그는 곽,황 부부와 사이가 좋았으니 자연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즉시 상의하여 제일 먼저 주자류가 곽도와 싸우고, 그 다음에 학대통이 달이파와 싸우고, 마지막으로 곽정이 금륜법왕과 싸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순서로써 승리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었다.

만약 금륜법왕의 무공이 정말로 극히 높아 걱정마저도 상대가 안 된다고 하면 세 번 계속 패할지 모르는 일이니,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재기불능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토론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황용이 말했다.

"제게 필승의 방법이 있어요."

걱정이 크게 기뻐하며 막 물어보려는 찰나에 갑자기 칼날이 바람을 가르며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머리를 돌려 바라보니 무씨 형제가 각각 장검을 들고는 이미 광도의 부채에 맞서서 싸우고 있었다. 걱정, 황용 부부와 일등대사 문하의 점창어은과 주자류는 모두들 제자의 무사가 염려되어 시선을 집중하여 싸움을 관전했다.

원래 무씨 형제는, 광도의 언행이 불손하여 자신들을 짓비린내 나는 어린애라고 비웃는 말이 자신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어 자신들의 체면이 형편없이 손상되었다고 느꼈다. 게다가 방금 사모에게 봉을 빼앗기는 것을 보니, 광도가 비록 노유각을 패배시켰다고는 하지만 그의 무공이 별로 대단찮아 보였다. 오히려 노유각이 아니라 자신들이 싸우면 더 나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두 형제는 이미 사부의 무공을 전수 받았으니 한 사람이라면 그를 못 당할지 모르지만 두 명이 힘을 바치면 결코 패하지 않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그가 세 번이건 네 번이건 싸우고자 해도 그것은 마치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격이라 생각하며 두 형제는 눈빛을 번득이면서 쌍검을 내짚었다. 그러나 광정의 무공이 비록 높다고는 하지만 제자를 잘 가르치지는 못해서, 자신은 고급 무학의 요체를 터득했으면서도 전수할 때에는 제 뜻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명확하게 말해 주지 못했던 것이다. 무씨 형제의 자질은 보통이었으니 몇 년밖에 안되는 단기간에 배웠다 한들 얼마나 배웠겠는가 ! 단지 몇 동작만에 두 사람의 장검은 광도에게 위협당하여 조금도 무공을 펼치지 못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광도는 군웅들 앞에서 자신의 솜씨를 자랑하여 이름을 날리고 싶어

하는지라, 무수문의 장검이 찢려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그의 왼손 식지를 앞으로 밀어올리면서 칼날을 움켜쥐고는 부채를 휘둘러 그 가운데 부분을 칼날에 대고 치자 쨍그랑, 하면서 장검이 두 조각 났다. 무씨 형제는 크게 놀라며 무수문은 황급히 몸을 피하였고, 무돈유는 형이 다칠까 봐 검을 바로 세워 광도의 조끼를 찢러 그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광도는 이미 이러한 공격을 예측하고는 머리로 돌리지 않은 채 접은 부채를 회전시키니, 부채의 양끝이 합해지면서 곧바로 칼에 걸리게 되었다. 그가 손가락을 움직이며 흔들자 무돈유의 수중에 있던 장검이 부채를 따라서 흔들리며 건곤이 빠질 지경이 되어 할 수 없이 칼에서 손을 놓고 뒤로 피하는 수밖에 없었다. 바라보니 장검은 공중으로 곧장 날아 올라가서, 휘황찬란한 촛불 속에서 몇 번 칼빛을 번뜩이더니 바닥에 떨어졌다.

무씨 형제는 놀라면서도 울화가 치밀어 비록 적수공권이었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돈유는 왼손을 공중으로 향하여 강룡십팔장의 첫 동작을 펼쳤다. 무수문은 반대로 오른손을 아래로 늘어뜨리며 식지를 약간 굽혀서, 적이 공격해 오기만 하면 일양지를 써서 대응하려고 했다.

광도는 두 사람의 자세를 보고 감히 경시하지 못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여기까지 이겨 났으니 이제는 충분하다. 팬찮을 때 그만두어야지, 까딱하다간 재미없게 되겠는걸.)

강룡십팔장과 일양지는 모두 무학의 제일 가는 무공으로서, 무씨 형제의 무공이 비록 낮기는 했지만 펼쳐 보이는 자세는 매우 정밀하고 훌륭해서, 보통 사람이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광도와 같은 고수들은 오히려 쉽게 겨룰 수 없는 것임을 알았다. 광도는 즉시 하하, 웃으면서 두 손을 맞잡았다.

"두 분께서는 그만 물러나시지 ! 우리는 다만 승패를 겨룰 뿐 생사를 겨루는 게 아니니까....."

무씨 형제의 얼굴에는 창피한 기색이 가득 차 올랐다. 빈손으로 그와 싸우려 했다는 것을 생각하자 더욱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 맥빠진 모습으로 옆으로 물러났는데 감히 곽부의 곁으로는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곽부가 급히 앞으로 나섰다.

"오빠들 ! 우리 셋이 같이 싸워 봐요 !"

사람들이 쳐다봤다.

곽부는 오른손에 검을 쥐고 왼손을 휘두르면서 고함 질렀다.

"우리 사형 둘과 나, 이렇게 셋이 같이 한 번 싸워 보자."

"부아야, 소란피우지 마라 !"

곽정이 소리치자 곽부는 할 수 없이 뒤로 몇 걸음 물러서면서 화난 기색으로 곽도를 쳐다보았다. 곽도는 그녀의 빼어난 미모를 보고는 음흉하게 웃으면서 머리를 끄덕거렸다. 곽부는 그를 한번 흘겨보고 나서는 고개를 돌려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다. 무씨 형제는 본래 곽부가 비웃을까 매우 걱정했으나 이렇게 그녀가 마음을 기울여 그들을 비호해 주는 것을 보고는 매우 만족해 했다.

곽도는 부채를 몇 번 접었다 폈다 했다.

"방금 시험은 자연히 없었던 걸로 하지요. 곽대협 ! 저희 측은 사부와 사형, 그리고 하찮은 저,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제 무공이 가장 뒤지니 제일 먼저 겨루고자 하는데 그쪽에서는 누가 나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 이기고 지는 것은 장난이 아니지요."

곽정은 아내가 필승의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녀의 지혜와 계략이 뛰어남을 잘 알고 있었기에, 비록 그녀가 어떤 묘책을 쓸지는 몰라도 믿는 바가 있어 그리 두렵지 않았다.

"좋아, 우리 한번 세 차례에 걸쳐 무공을 겨루어 보자."

곽도는 상대방 중에 무공이 가장 뛰어난 자가 곽정이지만 사부가 그를 능히 이길 수 있고, 황용은 비록 봉을 빼앗는 괴이한 무공을 펼쳐 보였으나 그녀의 겁먹은 듯한 연약한 모습을 보니 정말 불게 된다면 겁낼 것이 없을 것 같고, 그 밖의 사람들은 별 대수로울 것 같지 않아

한 번 눈으로 쏘아 보면서 말했다.

"여러분, 이의가 있으면 어서 말하십시오. 승패가 결정되면 반드시 맹주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군웅들은 응답하려 하였으나 그가 노유각과 무씨형제를 연달아 패배시키고도 여전히 기력이 있음을 보고, 그가 아직도 얼마나 많은 재주를 갖고 있는지 몰라 감히 입을 열지 못하면서 모두 고개를 돌려 곽, 황 부부를 쳐다보았다.

"귀하께서 제 1 장을 겨루고, 사형으로 하여금 제 2 장, 존사께서 제 3 장을 겨루는 것은 확정된 것이며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황용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삭였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금이군지하사, 여피상사.....(今以君之下駟, 與彼上駟.....)하고는 주자류를 쳐다보았다. 주자류는 웃으면서 계속 그 뒤를 이어 말했다.

"취군상사, 여피중사. 취군중사, 여피하사(取君上駟, 與彼中駟. 取君中駟, 與彼下駟). 세 번의 질주가 끝나자 전기(田忌)는 한 번 지고 두 번 이김으로써 마침내 천금을 얻었도다 !"

곽정은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았으나,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황용이 그의 귓가에다 살며시 말했다.

"병법에 정통한 당신이 병법의 노조종(老祖宗)이신 손빈의 묘책을 잊으셨나요?"

곽정은 즉시 소년 시절에 읽은 무목유서와 황용이 일찌기 그에게 말해 준 이야기가 생각났다.

.....제국(齊國)의 대장인 전기와 제왕이 경마를 하면서 천금 내기를 했다. 손빈은 전기에게 한 가지 필승의 방법을 알려 주었으니 바로

하등의 말로써 제왕의 상등마와 겨루게 하고, 상등마로는 제왕의 중등마와 겨루고, 중등마로는 제왕의 하등마와 겨루게 해 결국 2승 1패로 천금을 받게 되었다.

지금 황룡이 바로 이 옛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주사형, 당신이 이 일장지 무공으로 이 몽고 왕자를 이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주자류는 그때 대리국에서 장원을 해 재상을 지낸 학문이 있는 선비라 그 지혜와 재주가 월등했다. 대리단씨 일파의 무공은 평소 철저히 연구해 이해하고 있었다. 주자류는 처음 남제의 문에 들어설 때는 무공이 어초경독 4대 제자의 끝자리에 놓였으나, 10년 후에는 이미 제 2위로 올라섰으며, 지금의 무공은 오히려 다른 사형들보다 한참 위에 놓여 있었다. 일등대사는 네 명의 제자를 똑같이 사랑하여 그의 제반 무공을 모두 전수해 주었으나, 훗날 주자류가 가장 많이 터득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일양지는 그의 절기가 되었다. 지금 그의 무공은 광정, 마옥, 구처기에 비해서는 아직 못 미치지만 이미 왕처일, 학대통의 수준보다는 높았다.

광정은 아내가 이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즉시 말했다.

"학도장께 청하건대 무척 위험한 일이지만 저 금륜법왕을 맡아 주십시오. 물론 승부는 대국과 무관하나 다만 적들이 잔인한 수를 써서 막 아내가 어려울까 걱정됩니다."

광정은 마음먹은 것은 곧바로 입 밖에 내뱉는 솔직한 성미라서 자신을 상등마로, 학대통을 하등마로 간주하는 무례한 언사를 조금도 꺼려하지 않았다.

학대통은 이 한차례의 무술 시합이 국가의 운명에 관계되며, 무림중에 흔히 보는 명예 다툼과는 크게 달라서, 만약 몽고 국사에게 천하 영웅의 맹주 자리를 빼앗기면 한인 무사들의 면목을 잃게 될 뿐 아니라 인심이 흩어져서 다시는 결맹을 해 적에게 대항하기가 힘들어져 마침내 국난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아는지라 주저하지 않고 곧 말했다.

"그것은 신견쓰지 않으셔도 되겠소. 단지 나라에 이익이 된다고만 하면 이 노인네는 설사 중놈의 손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소."

"우리가 세 번 싸움 중에서 먼저 두 번을 이기면 이 세번째 싸움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황용의 이 말을 듣고 광정은 크게 기뻐하며 소리쳤다.

주자류도 말했다.

"제가 중책을 맡았으나 만약 이 몽고 왕자를 이기지 못한다면 천하 영웅들이 평생 동안 저에게 침을 뱉으며 욕을 할 것입니다."

"너무 겸손해 하지 마시고 어서 나가서 싸워 보세요."

주자류는 대청 가운데로 나가서 광도에게 두 손을 모아 보이며 말했다.

"이 첫번째 시험은 제가 먼저 가르침을 받기 원하오. 내 성은 주, 이름은 자류라고 하오. 평생 시 읊기를 좋아하고 경서를 읽으니 무공은 조잡하기 짝이 없소. 청컨대 많이 가르쳐 주시오."

고개를 숙이고 소매에서 붓 한 자루를 꺼내어 공중에다 반원을 그리니 그 모습이 마치 세상사를 모르는 학자같이 보였다.

(이런 사람일수록 심오한 무공을 지닌 법이니, 실로 가볍게 대해서는 안되겠구나.)

광도도 즉시 두 손을 모으고 예를 갖추었다.

"제가 선배님께 가르침받기를 원합니다. 청컨대 무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몽고는 오랑캐의 나라로서 아직 성인의 교화를 받지 못하였으니, 귀하가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이상 내가 당연히 좀 가르쳐 드려야죠."

광도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다.

(네가 우리 몽고를 욕하다니 ! 내 결코 용서할 수 없지.)

광도는 접은 부채를 펼쳤다.

"이것이 나의 무기인데 당신은 단도를 쓰시겠소, 아니면 칼을 쓰시겠소 ?"

주자류는 붓을 들어 공중에다 <필(筆)>자를 쓰고 웃었다.

"내가 일생 동안 붓자루와 더불어 살아왔으니 어찌 무기를 쓸수 있겠소 ?"

곽도가 정신을 집중해 그 붓자루를 쳐다보았으나 대나무 몸통과 양털이 보이고, 붓끝에 반 촌 가량의 먹물이 묻어 있을 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이것은 무림에서 점혈에 사용하는 강필과도 크게 다른지라 막 물어보려고 할 때 밖에서 흰 옷의 소녀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대청에서 한 번 멈춰 서더니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 여러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기 시작했다.

자리에 모인 군웅들은 원래 다들 주자류와 곽도,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가 이 백의의 소녀가 들어서자 자기도 모르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안색은 마치 병든 사람처럼 창백해서 비록 흐릿한 촛불 아래서이지만 얼굴에 혈색이라곤 조금도 안 보이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욱 청아해 비할 나위 없이 아름다와 보였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늘의 선녀처럼 아름답다>는 말로 여자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선녀가 어떻게 얼마나 예쁜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나, 지금 그 소녀를 보니 사람들마다 <하늘의 선녀처럼 예쁘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 그녀의 몸 주위에는 얇은 안개가 자욱하여 정말로 속세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였다.

양과는 그 소녀를 쳐다보고는 미친 듯이 기뻐서 가슴이 쇠망치에 얻어맞은 듯이 뛰었다. 즉시 구석에서 뛰쳐나와 그녀를 껴안고는 울었다.

"용아가씨, 용아가씨 !"

이 소녀는 바로 소용녀였던 것이다.

그녀는 양과와 헤어진 후 산야의 주위를 돌아서 다시 고묘의 석실로 되돌아갔다. 그녀는 18 세 전까지 고묘에서 살아서 마음이 고여 있는 물과 같아 조금도 파문이 일지 아니했다. 그러나 양과를 알게 된 후 여러 곡절을 겪고 다시 예전처럼 잡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매번 한옥상 위에 정좌하고 연공하면서도 양과가 일찌기 이 상 위에서 잠을 자고 탁자 곁에서 밥을 먹은 것과 식사 때마다 양과가 곁에 있었던 것을 떠올리곤 했다. 연공도 얼마 하지 못하고는 이내 마음이 번민에 빠져 초조해져서 집중하기가 힘들곤 했다. 그런 식으로 한 달 남짓 지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양과를 찾으리라 결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를 찾은 후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세상사에 대해서는 마치 심산의 야인과 같이 조금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느닷없이 만나게 되자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산을 내려오면서 보이는 것마다 새로우니 그녀가 어찌 길을 알겠는가? 길 가는 사람만 만나면 곧 <양과를 보셨어요?> 하고 물었다.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의 음식을 집어먹으면서도 마땅히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 여기까지 오면서 적잖은 웃음거리를 남겼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의 천진한 아름다움을 보고는 스스로 그녀에게 양보해 아무도 그녀를 귀찮게 하는 사소한 음식 점에서 두 사나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천하의 영웅들이 모두 대승관 육가장의 영웅대연에 참석한다고 하길래, 양과도 아마 틀림없이 거기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곧 길을 물어 육가장에 오게 된 것이었다.

학대통, 윤지평, 조지경 등 세 명을 제외하고는 대청에 있는 2천여 명의 사람들은 모두가 소용녀가 어떤 내력을 지녔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그녀의 아름다움이 약간 기괴함을 보고는 모두 마음속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손불이는 비록 소용녀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었으나 아직껏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윤지평은 안색이 창백해지며 몸을 떨었다. 조지경은 눈을 비스듬히 해 윤지평은 쳐다보며 냉소했다. 광정과 황용은 그녀에 대한 양과의 거동을 보고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소용녀가 말했다.

"과아아, 네가 과연 여기 있었구나. 아아, 내 마침내 너를 찾았구나."

양과는 눈물을 떨구며 흐느꼈다.

"다시는, 다시는 저를 버리지 않으시겠죠 ? 용아가씨 !"

"그건 잘 모르겠구나."

"오늘부터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겠어요."

대청에는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으나, 그 두 사람은 오히려 곁에 아무도 없는 듯이 얘기를 나누었다. 소용녀는 양과의 손을 잡으면서도 기쁜지 슬픈지를 몰랐다.

곽도는 소용녀의 모습을 보고는 비록 마음속으로 뭔가 움직이는 바가 있었지만, 그녀가 바로 자신이 종남산에 올랐을 때 구혼했던 그 아가씨인 줄은 모르고, 다만 의복이 남루한 양과가 그녀와 이야기 나누는 태도가 매우 친숙한 것을 보고는 공연히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따름이었다.

"우리는 무예를 겨루려고 하니 당신네들은 어서 자리를 비켜주세요."

양과는 별로 그에게 대꾸할 마음이 일지 않아서 소용녀의 손을 감싸 쥐고는 옆으로 가서 대청 기둥 밑의 석대에 어깨를 나란히 하여 앉으니, 기뻐서 가슴이 곧 터질 것만 같았다.

"당신이 이미 병기를 쓰지 않기로 한 이상 우리 둘 다 주먹과 다리로 승패를 겨뤄 봅시다."

"안 되오 ! 우리 중화는 예의의 나라이니, 몽고 오랑캐와 같을 수가 없소이다. 군자는 문(文)을 논하고, 붓으로써 친구를 삼는 법이니, 내 어찌 붓만있고 칼이 없다고 해서 무기를 지닐 수 있겠소 ?"

"정 그러시다면 내 동작을 받아 보시구요 !"

곽도는 접었던 부채를 펼치면서 그에게 휘둘렀다. 주자류는 발을 옆으로 몇 걸음 디디고 머리를 흔들더니 왼손바닥을 몸 앞에서 왼쪽으로 뻗으면서, 오른손의 붓으로는 즉시 곽도의 얼굴을 향해 그어 댔다. 곽

도는 머리를 비껴 피하면서 상대방의 신법이 경쾌하고 아름다우며 그 동작이 매우 특이한 것을 보고는,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서서 그의 무공의 동작을 일단 명확하게 본 다음에 다시 대책을 세우려 했다.

"내 붓자루는 천군(千軍)을 끌어내니 귀하께선 조심하시오."

주자류는 말을 하면서 붓끝을 앞으로 찰러 들어갔다.

곽도는 비록 서장에서 무예를 배웠으나 금륜법왕의 마음속이 넓고 깊음이 마치 바다와 같아서 중원의 이름난 대가의 무공에 대해서는 모르는게 하나도 없었다. 곽도가 무예를 배울 때 이미 중원에 가서 명성을 얻기로 결심하자 금륜법왕은 일찌기 중원의 저명한 무학대가의 첫 동작 중 마음에 드는 것을 낱낱이 그에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어찌 주자류를 만나게 될 줄 알았으랴! 그가 쓰는 무기는 괴이한 데다가 펼쳐 보이는 첫 동작이 오랑캐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여태껏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것이었다. 자세히 바라보니 그의 붓끝은 공중에서 비스듬히 글씨를 쓰는 듯이 구부러지는데 그 붓끝이 가리키는 곳은 모두 사람의 대혈(大穴)이었다.

대리의 단씨는 양주의 무위군 사람으로 대리에서 나라를 얻어 왕이라 칭하고는 중화의 문물을 남쪽으로 전했다. 주자류는 천남(天南)의 제일 가는 서법(書法)의 명인으로 비록 무를 배웠으나 문을 버리지 않았으며, 후에는 무예를 연습하면 할수록 정통하여서 일양지와 서법을 하나로 융합시켰다. 그의 이 무공은 독창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의 무공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문학의 기본이 없으면, 실로 문무가 결합되어 훌륭하고 교묘한 경지에 다다른 이 무공을 당해 내기가 힘든 것이었다. 다행히 곽도는 어릴 적에 일찌기 유학자로부터 경서와 시사를 배운 적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이력저력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상대의 붓이 흔들리는데 서법 가운데 점혈(點穴)이 있고, 점혈 가운데 서법이 있으며 그 필력이 무척 굳세고도 무서우면서 그 웅대한 가운데에 아름다움이 배어 있었다.

곽정은 문학을 모르는지라 보면서 기묘하다고 생각했다. 황용은 아

버지의 전수를 받아 문무를 겸비해서 주자류의 이 기묘한 무공을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곽부가 황용 곁으로 다가갔다.

"엄마, 저 사람이 붓을 가지고 이리저리 그어 대는데 저게 무슨 장난이에요?"

황용은 정신을 집중하여 관전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대답했다.

"방현령비(房玄齡碑)!"

곽부가 이해를 못하고는 당황해 했다.

"방현령비가 뭐예요?"

황용은 관전에 취해 다시 대답하지 않았다.

원래 방현령비는 당조(唐朝)의 대신인 저수량이 쓴 비문으로서 해서(楷書)의 백미이다. 예전 사람들이 그의 글을 평하여 <하늘의 선녀가 꽃을 뿌렸다(天女散花)>라고 하였는데, 그 서법이 강건하면서도 부드럽고 위풍이 있어, 붓놀림이 하늘을 찌르면서도 그 역량이 자유스러운 묘비였다. 주자류의 이 일양서지(一陽書指)는 엄숙하기가 마치 해서와 같아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 곽도잔비록 일양지의 심오함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일찌기 <방현령비>를 가까이서 본 적이 있었으므로 주자류가 가로로 한 번 긋고는 저쪽으로 곧바로 나간다는 것 등을 예측할 수 있었다. 곽도는 방비를 정연하고 조리 있게 해 조금도 패색이 보이지 않았다.

주자류는 그가 이 서법을 알고 있는 것을 느끼고는 말했다.

"조심하시오, 초서(草書)가 나갑니다."

갑자기 머리에 쓴 모자를 벗어서 땅에 내던지면서 긴 소매를 어지럽게 날리며 미친 듯이 질주하니 그 동작이 전혀 규칙이 없었다. 그러나 미친 듯이 흔들며 술 취한 듯, 귀신들린 듯하면서도 때가 무르익자 손가락으로 초서를 쓰는 게 보였다.

곽부가 깜짝 놀라 웃으면서 말했다.

"엄마, 저 사람 미쳤어요?"

"응, 만약 술을 세 잔만 들게 되면 필세(筆勢)가 더욱 좋아질거야."

황용은 술병을 꺼내 세 잔의 술을 따르면서 외쳤다.

"주형, 삼배(三杯)해 흥을 돋우세요."

왼손으로 잔을 쥐고는 오른손 중지로서 그 가운데를 튕기니 그 술잔은 안정된 모습으로 평평히 날아갔다. 주자류는 붓을 들어 오른쪽으로 빠져서 꺾도가 몇 발자국 피하도록 해 놓고는 술잔을 가로채어 한모금에 다 마셨다. 황용이 연이어 두번째, 세번째 잔을 튕겼다. 꺾도는 두 사람이 싸움판에서 술을 권하면서도 자기는 안중에 두지 않는 것을 보고는 부채를 휘둘러서 술잔을 떨어뜨리려 하였으나 황용이 주자류의 기세와 합치되어 항상 빈틈으로만 잔을 튕기는 바람에 맞출 수가 없었다.

주자류는 세 잔의 술을 연달아 마신 뒤 말했다.

"고맙소, 아주 뛰어난 탄지신통 무공이군요 !"

"무척 예리한 자언첩(自言帖)이네요 !"

(나 주자류는 평생 총명하다고 자부해 왔는데 결국은 이 어린 부인만 못하구나. 내가 십여 년 간 고생해 이기힌 절묘한 기술을 그녀는 한 번 보고서 꿰뚫어 알다니....., 아아 !)

원래 주자류가 이때 쓴 글은 바로 당대(唐代)의 장욱(張旭)이 지은 <자언첩>이었다. 곧 초서의 성인이란 뜻이었다.

두보의 <음중팔선가(飲中八仙歌)>에 이르기를,

장욱삼배초성전(張旭三杯草聖傳)

탈모노정왕공전(脫帽 頂王公前)

휘호락지여운연(揮毫落紙如雲烟)

(장욱이 삼배해 초성이라 전하도다.

모자 벗어 맨머리로 왕공 앞에 나서니

붓을 구름, 연기처럼 종이 위에 휘두르도다.)

황용이 그에게 삼배의 술을 권한 것은 첫째 이러한 무공을 사용하는 그의 신분에 걸맞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 그에게 술을 마시게 함으로

써 그 필법이 더욱 날카롭고 미세하게 되게끔 하기 위함이고, 세째 곱도의 날카로운 예봉을 꺾기 위함이었다.

주자류는 담부쟁도(擔夫爭道)의 <도>자를 씌에 이르러, 마침내 붓끝을 구부려서 곧바로 곱도를 향해 그었다. 군웅 호걸들의 웃음 속에 곱도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갔다.

*** 무 림 맹 주 (武 林 盟 主) ***

금륜법왕은 두 눈을 깜빡거리며 마치 눈앞의 결투에는 관심이 없는 양했다. 그러나 실은 그도 자세히 보고 있었다. 곱도의 얼굴에 패색이 짙어지는 것을 보자 그는 버럭 소리를 질러 댔다.

"아구스진드얼, 미마호어스릉, 치얼치얼후 !"

사람들은 그의 이러한 서장어(西藏語:티벳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다. 그러나 곱도는 사부가 자신에게 수비에만 치중하지 말라고 일깨워 주는 것임을 알았다. 그는 광풍신퇴공(狂風迅雷功)으로 상대방을 공격해 들어갔다. 순간 길게 휘파람 소리가 소매끝을 스치며 질풍 같은 바람을 일으키며 주자류를 덮쳤다.

바람의 위력이 하도 엄청나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계속해서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그 위력을 더해 주었다. 이 광풍신퇴공은 원래 이러한 기합소리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일문(一門)의 고강한 무공이었다. 주자류는 소매를 휘두르며 잽싸게 그의 장풍을 막아내면서 그와 거의 대등하게 맞서 나갔다.

두 사람은 앞치락뒤치락 1 백여 초를 겨루었다. 자연첩(自言帖) 한 편을 거의 다 써 내려갈즈음 돌연 주자류의 필체가 바뀌었다. 손이 다소 느려지며 필체가 가늘게 변했지만 힘이 있어서 기개가 넘쳐흘렀다. 황용이 중얼거렸다.

(옛말에 이르길 자획이 가늘고도 힘이 있어야 신의 경지라 하였는데, 정말 대단한 실력이구나.)

곱도는 광풍신퇴공으로 그에 대적하였으나 상대방의 힘도 무시할 수

없었다. 부채에 더욱 힘을 주며, 고함소리도 맹렬해졌다. 무공이 비교적 약한 사람들은 대청 안에 서 있지 못하고 한 발 한 발 안뜰로 물러났다.

양과와 소용녀는 여전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기둥 옆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앉아 있는 곳은 결투를 벌이는 두 사람과 불과 1여장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다. 두 사람은 정답게 얘기를 나눌 뿐 시합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며, 광도가 일으킨 바람조차 전연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단지 소용녀의 옷자락이 가끔 바람에 나부낄 뿐, 그녀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다정스런 눈빛으로 양과를 바라다보고 있었다.

황용은 보면 볼수록 신기해 광도, 주자류보다 그들 두 사람을 더 자주 쳐다보곤 했다.

(저 여자 아이는 상승의 무공을 익힌 듯한데 어느 고수의 문하생일까?)

소용녀의 나이는 그때 이미 스무 살이 넘어 있었다. 그녀는 고묘 안에서 양광(陽光)을 보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피부가 특별히 희고 부드러웠으며, 내공이 높았기에 얼핏 보면 15,6세 정도로 밖에 안 보였다. 그녀는 양과를 만나기 전에는 희로애락을 몰랐었다. 칠정육욕(七情六欲)은 사람의 신체와 용모를 가장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용녀의 2년은 보통 사람의 1년과 같았다. 만약 그녀가 사부의 가르침을 받들어 계속 수련을 해 간다면 백 살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신체와 용모는 50세의 사람과 비슷했을 것이다. 그런 이유들로 황용은 그녀를 양과보다도 어리게 보았다.

한편, 주자류의 필체는 점점 보기 흉해져 갔지만 기운은 점점 강해져 마치 벽에 거미줄을 쳐놓는 듯했다. 광도는 점점 버티기 어려워짐을 느꼈다. 금륜법왕이 또 한 번 소리를 질렀다.

"마미빠미, 구스흐스!"

이 여덟 자가 무슨 뜻인지는 몰랐으나 사람들 귓전에 음산하게 울렸

다. 주자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가 만약 또다시 변초를 쓴다면 이 대전이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구나. 나는 대리국의 옛 재상으로서 대송을 위해 앞장을 선 이상, 절대로 질 수는 없다. 우방국과 사문의 부끄러움을 초래해서는 안 될 일이지 !)

돌연 주자류의 필법이 변했다. 그것은 마치 도끼로 암석을 쳐내려가는 듯했다. 아무리 보아도 글자를 쓰는 것 같지가 않았다.

곽부가 주자류의 동작을 보다가 황용에게 물었다.

"주백부께서 지금 글을 새기는 것이지요 ?"

황용이 웃으며 말했다.

"내 딸은 역시 바보가 아니구나. 그의 이러한 지법을 바로 석고문(石鼓文)이라 하지. 그것은 춘추전국 시대에 도끼로 바위에다 글자를 새겼던 일에서 나온 말이다. 잘 보아라 ! 주백부께서 무슨 글자를 새겨 놓았는지."

곽부가 그의 필체를 따라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매 글자마다 모두 꼬불꼬불한 것이 마치 한 폭의 조그마한 그림 같아서 한 글자도 알아 볼 수가 없었다. 황용이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가장 오래된 대전(大篆:한자의 서체. 대전과 소전이 있음)으로서 나도 완전히 모르니,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

곽부는 손뺑을 치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저 몽고의 명칭이는 더욱 못 알아 보겠네요. 저것봐요 ! 얼굴이 온통 땀투성이에다 허둥대는 꼴이라니....."

곽도는 정말 이런 오래 된 전자를 한 자도 알아 보지 못했다. 상대방이 무슨 자를 쓰는지 알 수가 없게 되자, 자연히 서법 사이의 초식을 막아내기가 어려워졌다. 주자류는 계속해서 한 자 한 자 새겨 나갔다. 문자가 오묘하기도 했지만 서법의 기본이 되는 일양지가 기세를 더해 주었다. 곽도가 부채를 휘두르려는 순간 주자류의 붓이 움직이더니 부채 위에 글자 하나를 썼다.

곽도가 보더니 망연히 물었다.

"이것은 <망(網)>자렸다 !"

주자류가 웃으며 대답했다.

"틀렸어 ! 이것은 바로 <이(爾)>자이지."

순간, 붓을 뺀 부채 위에 한 자를 더 써 버렸다.

곽도가 물었다.

"이것은 아마 <월(月)>자일걸 ?"

"또 틀렸어. 그것은 <내(乃)>자야."

곽도는 기분이 상했다. 그가 더 이상 글자를 부채에 써 놓지 못하게 곽도는 미친 듯이 부채를 휘둘러 댔다. 순간 주자류의 좌장이 급히 공격해 들어오자 곽도는 얼른 장을 뺀어 막아 냈다. 그 순간을 이용해 주자류는 이미 부채에 두 글자를 썼다. 너무 급하게 썼기 때문에 대전체가 아닌 초서체였다. 곽도가 알아보곤 소리쳤다.

"만이(蠻夷) !"

주자류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맞았다. 바로 <이내만이(爾乃蠻夷:너는 오랑캐이다)>이다 !"

사람들은 모두 몽고의 철기병이 침입해 들어와 백성들을 괴롭힌 데 대해 마음속으로 분개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자류가 <이내만이>라고 욕을 해 대는 소리를 듣자 모두들 큰소리로 칭찬을 했다.

곽도는 주자류의 일양서지(一陽書指)를 막아 내기가 어려워 이미 겹을 먹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고함소리를 듣자 마음이 더욱 심란해졌다. 주자류는 붓을 찹찹 휘둘러 공중에 글씨를 써 내려갔다. 무슨 글자인지 생각할 틈도 없었다. 곽도는 오로지 무채를 들어 얼굴과 가슴의 급소를 막아 낼 뿐이었다. 돌연 무릎이 뺨뺨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미 상대방의 붓자루에 혈도를 찍힌 것이었다.

곽도는 정강이에 힘이 쑥 빠져 버려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일단 무릎을 꿇는다면 이는 패배를 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급히 기를 끌어올려 무릎의 혈도로 내려보냈다. 그러나 주자류는 번개같이 붓

을 휘둘러 또다시 혈도를 찍어 버렸다. 그가 손가락 대신 붓자루로 일양지법을 잇달아 격출해 내자 광도는 당해낼 재간이 없어 결국에는 꿀어앉아 버렸다. 얼굴에는 이미 핏기 한 점 없었다.

군웅들의 환호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광정이 황용에게 말했다.

"당신의 묘책이 성공했구료."

황용은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무씨 형제는 곁에서 시합을 지켜보면서 주사숙의 일양지법이 변화무쌍한 것을 알고는 모두 크게 감복했다.

(주사숙의 무공이 이처럼 심후고강한 줄은 몰랐구나. 서법을 사용해 서도 이처럼 오묘한 변화를 사용해 낼 수 있다니..... 나는 언제나 이처럼 실력을 갖추게 될 것인가.)

모두들 그의 무공에 혀를 내두르는 순간 갑자기 주자류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급히 고개를 돌려 보니 그는이미 길게 자빠져 누워 있었다.

너무나 창졸간에 생긴 변화라 모두들 놀람을 금치 못했다. 광도가 패배를 한 후, 주자류는 일양지법으로 혈도가 눌린 사람은 이 점혈법이 보통과 크게 달라서 다른 사람이 풀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손을 뻗어 광도의 옆구리를 몇 차례 눌러서 그의 혈도를 풀어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광도는 혈도가 막 풀리는 순간, 오른손 엄지로 부채 손잡이 끝을 눌러 버렸다. 그 순간 부채살에서 4개의 독침이 격출되어 주자류의 몸에 맞아 버린 것이다.

본래 고수들의 대전에서는 승패가 나뉘지면 결코 다시 공격하지 않는 것이 상례였다. 게다가 대청 안의 군웅 호걸들이 눈을 버젓이 뜨고 있는데, 어찌 그가 비겁하게 암습할 줄을 알았으랴! 광도가 만약 시합중에 암기를 격출했다면 부채살에 감추어진 독침이 비록 제아무리 정교하다 하더라도 결코 주자류를 해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때는 주자류가 혈도를 풀어 주기 위해 그와의 거리가 불과 1촌 정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무공이 높은 자라도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었다.

4 개의 독침에는 티벳의 설산에서 나는 독극물을 발라 놓았기 때문에 일단 독침에 맞자 곧바로 전신에 고통이 엄습해 와 주자류가 비명을 질러 댔던 것이었다.

군웅들은 노기에 찬 얼굴로 곽도를 바라보며 비겁한 놈이라고 욕을 해 댔다. 곽도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패배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무엇이 부끄럽단 말인가 ? 우리들이 시합을 벌이기 전에 암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잖아 ! 만약에 상대가 먼저 암기를 사용해 나를 무너뜨렸다 해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군웅들은 그가 지금 억지로 강변을 한다고 느꼈지만 즉각 반박할 방법이 없었다.

곽정이 급히 주자류를 끌어안았다. 독침은 모두 그의 가슴에 박혀 있었으며 그의 얼굴이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암기의 독약이 매우 괴이하다고 느껴 즉시 그의 대혈을 눌러 경맥을 봉쇄해 버렸다. 독기가 심장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황용이 다가섰다.

"어때요 ?"

곽정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이 없었다. 독을 풀기 위해서는 필히 곽도나 금륜법왕이 만든 약을 써야 할 텐데 어떻게 해독약을 빼앗을지 좋은 방도가 생각나지 않았다.

점창어은은 사제의 중독이 심한 것을 보자 걱정이 되면서 또한 화가 치밀어 도포자락을 호주머니에 쑤셔넣고 달려나가 곽도와 겨루려고 했다. 황용은 이 시합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았다.

(상대방이 한번 이겼으니 어인 사형이 나선다면 상대방에선 달이파가 응전하게 되니 우리 쪽이 승산이 없게 될 것이다.)

"사형, 잠깐만요 !"

점창어은이 물었다.

"왜 ?"

황용의 지모가 비록 뛰어났어도 언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 한번 졌기 때문에 다음번 비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었다.

곽도는 간교한 꾀로 주자류를 이기고 나서는 대청 입구에 득의양양하게 서서 잔뜩 뽐내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소용녀와 양과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손을 맞잡고 앉아서 정답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자신의 이번 승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자, 순간 화가 치밀어올라 부채로 양과를 가리키며 냅다 고함을 질러댔다.

"야, 이 건방진 놈아, 일어나 봐라 !"

양과는 다시는 소용녀와 헤어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소용녀에게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 때문에 방금 곽도와 주자류의 요란스러운 싸움을 보고도 못 본 체, 듣고도 못 들은 체하고 있었다. 소용녀와 함께 수년을 고묘 안에서 지냈지만 실은 그녀에 대한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다. 당시 소용녀가 자신을 아내로 맞이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그에게 물었을 때에는 그 질문이 너무나 갑작스러웠기에 또한 그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던 것이다. 이후에 소용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는 마음속으로 몇천 번이나 다짐을 했는지 모른다.

(맞이할 것이다 ! 설령 내가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소용녀를 아내로 맞이하고야 말 테다.)

그와 소용녀 사이의 감정은 두 사람 모두 아주 천천히 자연스럽게 자라났었다. 그 뒤, 이별을 한 후로는 더욱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양과는 세상 일에 거리낌이 없었고 소용녀 또한 세속의 예법에 관해 조금도 아는 것이 없어 그저 좋으면 좋은 것이지 옆의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으랴 싶었다. 그런 이유들로 그들은 두 사람의 군웅이 결에서 악전고투를 하거나 말거나 수수방관하며 정답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곽도가 욕을 했는데도 양과는 여전히 듣지 못했다. 곽도가 한마디 더 하려는 순간 금륜법왕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측이 한 차례 이겼으니 두번째 대결을 해 보자."

곽도는 양과를 노려보고는 자리로 돌아와 큰소리로 말했다.

"우리 측이 한 번 이겼으니 이제 두번째 대결에서는 우리 사형이신 달이파가 나설 것이요. 그 쪽에선 어느 영웅이 맞설 작정이요?"

달이파가 붉은 법의 속에서 병기를 꺼내 들고 대청 중앙으로 나섰다. 사람들은 그의 병기를 보고 모두들 속으로 놀라는 눈치였다. 달이파의 병기는 길고 굵은 금방망이였다. 이 금강항마저(金剛降魔杵)는 불교에서 호법존자(護法尊者)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서역승들이 종종 이것을 무기로 사용하곤 했다. 달이파의 항마저는 길이가 4 척이나 되었으며 굵기가 사발 주둥이만 했다. 번쩍번쩍 금빛으로 빛나는 것이 아마도 순금으로 만든 것 같았다. 무게도 강철보다 더 무거운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대청으로 나와서 군웅들에게 인사를 한 후, 방망이를 위로 뻗어 집어던졌다. 콰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대청 위의 2개의 커다란 청색 무늬 기왓장이 산산조각 났다. 방망이는 진흙 속에 떨어져 1척이나 쏙 들어가 버렸다. 깡마른 체구에 이렇게 육중한 방망이를 놀릴 수 있는 걸로 보아 그의 무공을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황용이 생각했다.

(부야 아버지가 이 말라깽이 티벳승을 능히 제압할 수 있겠지. 그러나 세번째는 법왕이 나설 텐데,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당해낼 사람이 없게 된다. 할 수 없이 내가 힘을 다해 이놈을 맞아야겠구나.)

타구봉을 들면서 황용이 말했다.

"내가 나서마!"

곽정이 깜짝 놀라 급히 말했다.

"그건 안 돼! 안 돼! 당신은 지금 몸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대결을 한단 말이요?"

황용도 사실 이길 자신이 없었다. 만약에 이번 판마저 지게 된다면 제 3 판은 해 볼 건덕지도 없게 되는 것이다. 망설이는 순간 점창어은

이 소리쳤다.

"황방주, 내가 저 못된 중놈을 막게 해 주시오."

그는 사제가 독침에 맞아 고통스러워하는 참상을 보자 화가 불같이 일어나 빨리 복수를 하려 했다. 황용도 별 뽀족한 계책이 없어 생각에 잠겼다.

(그가 만약 티벳승을 이겨 준다면 광정이 금륜법왕을 상대하면 되겠구나.)

"사형, 조심하세요 !"

무씨 형제는 사백이 사용하던 철폐로 된 노(櫓)를 꺼내 점창어은에게 갖다 주었다. 그는 노를 옆구리에 끼고는 중앙으로 걸아갔다. 그는 불같이 타오르는 눈빛으로 달이파를 노려보면서 그의 주위를 한차례 돌았다. 그가 주위를 돌자, 달이파는 무슨 속셈이 있을지도 모르므로 따라서 몸을 돌렸다. 점창어은이 맹렬하게 기합을 놓으며 2개의 노를 휘둘러 정수리를 곧바로 베어 내려쳤다. 달이파는 재발리 몸을 눌러 땅에 떨어져 있던 방망이를 쳐들어 그의 공격에 맞섰다. 떠잉, 하는 소리가 사람들 귓전에 요란하게 울렸다. 두 사람의 병기가 서로 부딪치자 두 사람의 손목이 모두 시큰거렸다.

달이파는 티벳어로, 어은은 대리국 사투리로 서로에게 욕을 퍼부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뜻을 알지는 못했다. 순식간에 몸을 날리니 다시 철폐와 방망이가 서로 맞부딪쳐 요란한 소리를 냈다.

이번 대결은 주자류와 광도의 비무처럼 시원시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있는 힘을 다하여 상승 외공으로 서로 대항하였기 때문에 방망이와 노에서 바람이 일어났다.

점창어은의 팔 힘은 본래 알아주는 것이었다. 호남성에서 일등대사를 모시고 은거할 다이시 날마다 철폐를 저어 격류 속을 거슬러 올라갔으므로 두 팔뚝의 근골은 철폐와 같이 단련되어 있었다. 그는 일등대사의 대체자로 사문에서 전수를받은 지가 가장 오래되었다. 일등대사는 그의 순박한 성품 때문에 그를 매우 사랑하였으나 그의 천부적

자질이 부족하여 내공은 주자류에게 못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외공에 있어서는 상당한 경지에 와 있었다. 지금 그가 티벳승 달이파와 외공으로 겨루는 것도 외공이 바로 그의 장기이기 때문이었다. 그의 2개의 철노는 춤을 추듯 아래위로 맹공을 가하고 있었다. 그는 무게가 50여근이나 되는 철노를 보통 사람들이 몇 근짜리 검을 휘두르듯 가볍고 민첩하게 놀렸다.

달이파는 스스로의 힘에 자부심을 갖고 있던 터였는데 뜻하지 않게 중원땅에서 이처럼 강한 신력(神力)의 장사를 만나게 된 것이다. 상대방은 힘도 강할 뿐만 아니라 초식 또한 정교하여 전력을 다해 금강저를 휘둘러 댔다. 방망이와 노, 노와 방망이, 두 사람 모두 공격에 치중하는 편이었다.

주자류와 광도가 대결을 할 때에는 대청 안에서 관전하던 군웅들이 모두 바람을 피해 흩어졌었다. 지금 무거운 중무기로 사생결단을 내려고 뒤엎키자 그 기세를 당해 내기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 이 병기들이 서로 부딪치며 내는 금속성 마찰음은 더더구나 견뎌 내기가 힘들었다. 사람들은 모두 귀를 꼭 틀어막고 관전했다. 촛불이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황금빛 방망이에서 누런빛이 번쩍였고 철노에서는 두 줄기 흑기(黑氣)가 뻗어나와 서로 어지럽게 뒤엎켜 대결은 점점더 격렬해져 갔다.

이러한 호결투는 실로 평생에 한 번 보기도 힘든 것이었다. 더 위험스러운 광경이 비록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고수들이 내공을 이용하면 속으로는 그 힘의 부딪침이 대단할지 모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대수롭지 않게 보이곤 했다. 세상에는 점창어은같은 무서운 신력을 지닌 사람도 흔치 않았지만, 두 사람의 힘과 무공 또한 서로 비슷해서 그런 사람끼리 서로 이처럼 악투를 벌이는 것은 더더욱 보기 힘든 일이었다.

광정과 황용 모두 손에 땀이 흥건해 있었다. 광정이 말했다.

"우리 편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광정이 그들의 승부를 쉽게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어찌 모르겠는가 ! 다만 아내의 <어은이 이길 것이에요.>라는 말 한 마디를 들으면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 물어 본 것이었다.

다시 수십 초를 겨루었지만 두 사람의 힘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힘이 더욱 솟구치는 것 같았다. 점창어은이 노를 번갈아 공격하며 기합소리를 질러 댔다. 달이파가 물었다.

"뭐라고 지껄이느냐 ?"

그가 쓰는 말은 티벳어이기 때문에 점창어은은 알아듣지 못하고 되물었다.

"넌 뭐라고 헛소리를 주절대느냐 ?"

달이파도 알아듣지 못했다.

두 사람이 서로 욱을 해 대며 어지럽게 다투는 통에 대청 안의 탁자들이 모두 부서져 나무조각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다. 군웅들은 그들이 혹시 정신없이 기둥이라도 치는 날에는 천장 전체가 내려앉을까 걱정이 되었다.

금륜법왕과 광도도 속으로 놀람을 금치 못하였다. 보아하니 이처럼 악전고투를 계속해 간다면 설령 달이파가 승리한다 해도 힘이 떨어져 필경 중상을 입을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너무 격전중이라 어떻게 정지시킬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이 종횡무진 격전을 치르는 통에 누런 빛과 흑색 기운이 촛불 아래 어지럽게 난무하고 있었다. 돌연 고함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동시에 맞부딪쳤다. 점창어은의 오른손에 든 철노와 금강저가 동시에 맞부딪쳤다 두 사람 모두 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비교적 가느다란 철노가 금강저를 당해내지 못하고 두 동강이 나 버렸다. 철노의 한 동가리가 휙 날아서 소용녀의 발 앞에 떨어졌다.

소용녀는 양과에게 정신이 팔려 있다가 느닷없이 철노 조각이 왼쪽 발가락 위에 떨어지자 아얏, 하며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비명소리에

양과가 정신이 펄떡 들어 황급히 물었다.

"괜찮아요 ?"

소용녀는 몹시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찡그리며 발가락을 어루만졌다.

양과는 화가 치밀어 누가 이 철노 조각을 던져 소용녀를 다치게 했는지 알아 보려고 했다. 점창어은이 오른손에 부러진 철노를 들고 달이파와 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달이파는 상대방의 무공이 자신과 엇비슷하여 만약 재대결을 한다면 이기기 어렵다고 여겨, 병기로 따져 볼 때 자신이 이겼다고 우겼다.

곽도가 일어나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쪽이 두 번을 거꾸 이겼으니 무림 맹주의 자리는 당연히 우리 사부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양과가 점창어은에게 말했다.

"당신 철노가 어찌해서 부러지게 되었소 ? 우리 용아가씨가 그때문에 다치지 않았겠소 ?"

"그건....., 그건....."

당신 철노가 튼튼하지 못해 그렇게 된 것이니 빨리 사죄하십시오."

어은은 그가 아직 새파란 소년임을 보고 대꾸를 하지 않았다. 양과가 돌연 손을 뻗어 그의 부러진 철노를 빼앗아 들며 소리쳤다.

"빨리 소용녀에게 사죄하십시오."

곽도가 그의 말을 가로채며 소리 질렀다.

"이 촌놈아 ! 어서 꺼져 버려 !"

"어느 자식이 감히 누구에게 욕을 하는 것이냐 ?"

곽도가 이 말을 듣고 바로 대답했다.

"바로 네놈한테 욕을 했다. 어쩔 테냐 ? 이 촌놈아 !"

그는 남방 출신의 소년이 이러한 어투로 자신을 희롱하는 줄은 생각도 못 했다. 양과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래, 바로 이 촌놈이 나를 욕하는 것이로군 !"

대청 안의 정세는 원래 상당히 긴장되어 있었는데, 이 소년이 갑자기 끼여들어 말장난을 하자 군중들은 모두 웃어 버렸다. 광도는 화가 치밀어 부채를 들어 양과의 정수리를 향해 쳐들어갔다. 군웅들은 방금 광도의 무공이 대단한 것을 보았기에 그가 만약 양과의 머리를 공격해 들어간다면, 양과가 죽지 않으면 크게 중상을 입으리라 생각해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손을 멈춰라 !"

"약한 자를 건드려선 안 되요 !"

광정이 급히 몸을날려 부채를 빼앗으려고 했다. 양과는 머리를 숙여 이미 광도의 팔꿈치 안으로 파고들어가 타구봉법의 <전>자 구결을 사용해 철노를 휘둘러 광도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광도는 휘청거리며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그의 무공이 고강하여 넘어지려는 순간 높이 펄쩍 뛰어올라 사뿐 내려앉았다.

광정이 크게 놀라 물었다.

"양과야, 어찌 된 일이나 ?"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뭐 대단치 않아요. 타구봉법으로 그를 냅다 넘어뜨리려고 했더니만 그가 피해 버렸군요."

광정이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네가 어떻게 타구봉법을 사용할 줄 알지 ?"

"방금 노방주와 그가 대결할 때 보고선 몇 초 배웠지요."

광정은 자신은 비록 아둔하지만 세상에는 총명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양과의 말을 그대로 믿어 버렸다.

광도는 양과에게 비록 넘어질 뻔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실수라 여겼다. 스무 살도 안 된 소년의 무공이 그토록 고강한 경지에 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 광도는 목전에 맹주 자리를 차지하려는 대사를 앞두고 이런 어린 아이 때문에 일을 지연시키고 싶지가 않았다. 바로 광정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낭랑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곽대협 ! 오늘의 시합은 우리가 이겼소이다. 우리 사부 금륜법왕이 바로 무림 맹주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 불복하는 자가 있다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양과가 살금살금 그의 뒤에 다가섰다. 철노를 들어 질풍같이 그의 엉덩이를 찔러 들어갔다. 바로 타구봉법의 제 4 초인 <작>자 구결이었다.

곽도처럼 무공이 고강한 자가 어찌 등뒤에서의 갑작스런 암습을 모를 리 있겠는가 ? 그러나 비록 그가 알아차리긴 했어도 타구봉법이 워낙 오묘스러워 결국은 엉덩이에 찍, 하고적중되고 말았다. 그의 내공이 심후하고, 엉덩이 부분은 또 근육이 많은 부분이긴 했지만 매우 아팠으며, 뜻하지 않게 당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아얏, 하고 비명을 질렀다. 양과가 소리쳤다.

"뭐라고 ? 내가 불복하겠다 !"

순식간에 대청 안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이 소년이 지독한 개구장이 일 뿐 아니라 담력도 상당히 커 몽고왕자를 두 번씩이나 농락했다고 모두들 생각했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자 곽도는 화가 날 대로 났다. 일장을 휘둘러 따귀를 후려 갈겨 울화부터 먼저 풀려고 했다. 그는 다만 손을 휘둘렀을 뿐이지만 장력이 워낙 대단했다. 서장과 무공의 정수로 일장이면 이 소년을 까무라치게 할 수도 있을 판이었다. 곽정이 얼른 왼손을 뻗어 그의 손을 거머쥐며 노숙하게 말했다.

"너 어찌 어린 아이와 상대하려고 그러느냐 ?"

곽도는 그에게 손이 잡히자 순간 몸이 떨려 움을 느꼈다. 놀람과 동시에 화가 치밀었다.

양과가 이 틈을 이용해 얼른 철노를 휘둘러 곽도의 엉덩이를 또 한 차례 갈기며 소리쳤다.

"이놈의 자식, 말을 안 들으니 아버지가 이렇게 엉덩이를 치는게 아니겠느냐 ?"

곽정이 소리쳤다.

"양과, 어서 물러서라. 날뛰지 말고 !"

그러나 군웅들은 길길거리며 한바탕 웃음바다를 이루었다.

몽고 측의 무사들이 여기저기에서 한마디씩 해 댔다.

"두 놈이 한 명을 상대하느냐 ?"

"철면피 !"

"이것도 비무라 하느냐 ?"

곽정이 순간 멍청하니 곽도를 놓아 주었다.

황용은 방금 양과가 사용한 무공이 확실히 타구봉법의 초식임을 알아보고는 심히 의심스러워했다.

(그가 어디서 타구봉법을 훔쳐 배웠을까 ? 설마하니 이 몇 개월간 내가 노방주에게 가르칠 때 훔쳐 봤단 말인가 ? 그러나 주위를 확실히 살펴보고 그에게 타구봉법을 가르쳤는데 그가 어찌 훔쳐 볼 수 있었을까 ?)

"여보, 이리 와 봐요 !"

곽정이 아내 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양과가 당할까 봐 걱정이 되어 시선은 여전히 두 사람을 떠나지 않았다.

곽도는 연달아 손발을 날려 양과를 공격하였다. 양과는 계속 피하면서 약올렸다.

"엉덩이를 더 맞고 싶냐 ?"

양과는 노를 휘두르며 계속 그의 엉덩이를 때리려 했다. 곽도는 신법을 전개했지만 그를 맞추지 못하고 허공만 내리쳤다. 곽도는 부채로 양과의 머리통을 치려고 했으며, 양과는 철노로 그의 엉덩이를 치려 하였다. 두 사람이 서로 쫓아가며 대청 안을 돌자 이상한 원을 그리게 되어 누가 누구를 대리려 하는지 모르게 되었다.

관전하던 사람들은 두 사람이 몇 차례 원을 그리며 도는 것을 보자 모두들 놀라기 시작했다. 나이도 어린 양과의 발놀림이나 민첩한 행동들이 곽도와 거의 비등하였던 것이다. 곽도가 몇 차례 번개같이 달려

들었으나 매번 실패로 끝났다.

점창어은과 달이파는 병기를 거머쥐고 서로 노려보면서 다시 한 번 격돌하려고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광도가 이처럼 어린 소년 하나를 어찌지 못하고 찢찢매는 것을 보게 되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점창어은이 그만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킬킬대며 웃었다. 달이파는 티벳어로 중얼중얼 욕을 해 대는 것 같았다.

순식간에 광도, 양과 두 사람은 세 차례나 원을 돌았다. 광도는 상대방의 경공이 뛰어난 것을 알아차렸다. 계속 쫓아만 가다가는 끝이 없을 것 같았다. 돌연 몸을 돌려 좌장을 뺀어 그의 철노를 빼앗으려 했다. 광도는 오른손의 부채로 그의 허벅지 옆의 환도혈(環跳穴)을 찍으려 했다. 이 같은 공격은 그를 더 이상 개구장일 보지 않고 정식으로 초식을 사용해 공격한 것이었다.

양과는 여전히 그와 정면 대결을 앞두고 몸을 틀어 부채를 피한 후, 계속 철노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엉덩이를 때릴 테다 ! 두 번 때렸으니 아직 한 번이 남았지 !"

대결을 할 때 이렇게 희롱하는 수단을 사용하려면 적어도 상대방의 무공보다는 월등히 뛰어나야 위험하지 않은 것이다. 양과가 비록 상승의 무공을 익혔다고는 하나 공력에 있어서는 광도에 훨씬 못 미치므로 이처럼 행동하는 것은 극히 위험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군웅들의 격려와 환호성이 양과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광도는 천하의 영웅들의 면전에서 자신의 엉덩이가 이 개구장에게 또 얻어맞는다면, 설령 당장 이 녀석을 처치한다 해도 이미 크게 체면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얼른 피하려는 생각 때문에 순간 반격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때 황용은 이미 양과가 어느 고수의 가르침을 받아 무공이 꽤나 높다는 것이라고 알아차렸다. 또 일전에 그가 내공으로 자신의 운기 조식을 도와 주었던 일이 생각나 그의 내공 수준도 여간 비범하지 않다는 것을 떠올렸다. 황용은 그의 이러한 한바탕의 마구잡이 행동으로

인하여 잇달아 꽤한 열세를 슬기롭게 만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양과야 ! 그와 한번 겨루어 봐라. 내가 보니 그는 네 적수가 안 되는 것 같구나."

양과는 곽도에게 허를 넌름거리며 말했다.

"어디 해 볼테냐 ?"

곽도는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이를 참아내지 못하여 대사를 그르치게 될까 염려되었다. 이미 연승을 거두어 무림 맹주 자리를 거의 다 차지했는데 한 소년 때문에 소란을 피울 필요가 어디 있는가 !

"이놈 ! 너 같은 개구장이에게 한 차례 따끔한 교훈을 줘야겠지만 그것은 뒤로 미루겠다. 지금은 천하 무림 맹주이신 금륜법왕께서 여러분께 말씀이 있을 것이니 여러분들은 모두 이분의 명령을 들으시오."

군웅들이 순간 왁자지껄하게 항변했다. 곽도가 큰소리로 외쳤다.

"우리가 먼저 약속하길 삼판 양승제라 했소.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을 스스로 어길 셈이오 ?"

군웅들은 모두 강호에서 이름 있는 인물들로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신용을 저버린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방금 두 차례의 대결은 정말 억울하게 졌다. 첫번째는 압승을 당하여 승리를 패배로 만들었고 두번째는 단지 무기가 부러졌을 뿐이다. 그렇다고 지지 않은 것이라고 우겨 대는 것도 군웅들의 곧은 성격으로는 힘든 일이긴 했다. 모두들 곽도의 이 한 마디 물음에 그만 입을 다물었다. 양과가 소리쳤다.

"이 화상은 키다리애다 몸은 비쩍 말랐고, 모양 또한 괴상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무림 맹주가 수 있겠소 ? 내가 보기엔 그는 아무래도 자격이 없소이다."

곽도가 화난 듯이 말했다.

"이 꼬마놈의 사부는 누구시오 ? 어서 데려가 예의부터 가르치시오. 다시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그땐 인정사정 보지 않을 것이요."

양과가 말했다.

"우리 사부야 무림 맹주에 합당하지. 당신 사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

"네놈 사부가 누구냐 ? 어디 한번 만나 보자 !"

곽도는 양과의 몸놀림이 비범한 것으로 미루어 그의 사부도 필시 고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양과가 말했다.

"오늘의 무림 맹주 자리는 제자들이 모두 사부를 대신해 겨룬 것이 아니겠느냐 ?"

"그렇고 말고, 우리가 세 번 중 두 번을 이겼으니 우리 사부님이 단연 맹주이시다."

"그래, 그들을 이겼다고 해서 그게 뭐 어쨌단 말이나 ? 우리 사부의 제자들을 당신네들이 아직 이기질 못했는데....."

"네 사부의 제자가 누구냐 ?"

양과가 웃으며 대답했다.

"명칭이 같으니라구 ! 내 사부의 제자는 바로 나지, 누구긴 누구란 말이나 ?"

군웅들은 그가 재치 있게 곽도에게 무안을 주자 모두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도 세 번 겨루어 너희가 두 번 이기면 그 화상이 맹주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만약 내가 두 번 이기면 미안하지만 이 무림 맹주의 자리는 내 사부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어떻겠느냐 ?"

사람들은 양과가 이처럼 말하는 것을 듣자 그의 사부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금륜법왕이 무림 맹주 자리를 빼앗아 가려는 이 마당에 그의 사부가 누구이든간에 한인(漢人)일 것임에 틀림없었다. 이 소년이 곽도에게 이길성싶지는 않았지만 몽고 국사에게 맹주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는 않았다. 또한 이미 패배가 기정 사실화 된 상태에서 어떤 새로운 전기가 생길지도 몰라 여기저기서 소리를 질러 댔다.

"맞다, 그 말이 맞다 ! 너희들 몽고인이 또 두 번 이겨야 된다."

"이 소협이 말이 맞다."

"중원은 고수들이 많은데 너희들이 운이 좋아 겨우 두 번 이긴 것인데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설쳐 대느냐 ?"

곽도가 깊이 생각하였다.

(상대편의 최고수 두 명에게 이겼는데 다시 겨룬다고 해서 뭐가 두려우랴 ! 단지 그들이 인해 전술로 우리를 밀어붙일까 그게 걱정되는 군.)

"우리 스승이 맹주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천하의 영웅들이 자꾸만 겨루자고 한다면 어느 세월에 끝이 나겠느냐 ?"

양과가 머리를 쳐들며 말했다.

"누가 맹주를 하든 우리 사부는 상관치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네 사부에게 유감이 있지."

"사부가 누구시냐 ? 그 어르신네도 여기 계시냐 ?"

"그 어르신네는 바로 네 눈앞에 있지. 용아가씨, 이 사람이 안부를 묻네요."

소용녀는 응,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군웅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소용녀의 용모가 옛되게 보였으며, 나이도 양과보다 어려 보이는데 그녀가 어떻게 그의 사부가 될 수 있을까 ? 이 익살스러운 소년은 우스갯소리로 곽도를 놀리는 것이라고 군웅들은 생각했다. 단지 학대통, 조지경, 윤지평 등 몇 사람만이 양과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황용이 비록 지혜가 뛰어났지만 이처럼 나약하고 어린 소용녀가 그의 사부라고는 결코 믿기 어려웠다.

곽도가 성을 내며 힐책했다.

"이놈, 무슨 헛소리냐 ! 오늘은 여러 군웅들이 집회를 가지는 중요한 날이거늘 어찌 이처럼 방자하게 날뛰는 것이냐 ? 어서 썩 물러나거라."

"당신 사부는 못생겼고 또 음흉하며 말도 우물우물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다. 내 사부는 얼마나 아_아아_아아_아 얼마나 청아한 기품을 지녔는지 눈썹이 있다면 보면 모른단 말이나? 그녀를 무림 맹주로 추대하는 것이 그 못생긴 화상보다 몇천 배 당연한 도리이지 않겠느냐?"

소용녀는 양과가 자신의 미모를 칭찬해 대자 기쁜 나머지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웃자 이름 모를 신비로운 꽃이 피어나듯 정말 미색이 뛰어나 보였다.

군웅들은 양과가 점점 더 대담하게 상대를 희롱하는 것을 보자 모두들 통쾌하게 여겼다. 몇몇 나이트 사람들은 광도가 돌연 살수를 뻔쳐 양과의 생명을 앗아 버릴까 걱정이 되었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자 광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영웅 제위 여러분, 소왕(小王)이 이 개구장이를 죽인다 해도 이는 그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소왕을 욕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오."

말을 끝내기 바쁘게 광도는 부채를 휘두르며 양과의 정수리를 치려했다. 양과는 가슴을 쪽 찌며 그의 말을 흉내냈다.

"영웅 제위 여러분, 개구장이가 이 버릇없는 왕자를 죽인다 해도 이는 그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개구장이를 욕하지 말아 주십시오."

군웅들이 폭소를 터뜨리는 순간 양과가 돌연 철노를 휘두르며 광도의 엉덩이를 쳐내려갔다.

광도는 몸을 틀어 피하며, 부채를 비스듬히 휘두르며 좌장을 번개같이 뻗어 상대의 머리를 쳤다. 부채를 휘두른 것은 허세였고 좌장공격이 진짜였다. 이 일장은 십성의 공력을 다하여 그의 머리통을 부스러뜨리려는 속셈이었다. 양과는 번개같이 으로 피하며 둥근 탁자를 밀어넣었다. 팡, 하는 소리와 함께 광도의 일장은 탁자 위에 격중되었다. 순간 나뭇조각이 튕겨 나가며 탁자는 두 조각으로 쪼개졌다. 군웅들이 그의 장력을 보자 그만 입을 딱 벌렸다. 광도는 곧바로 탁자를 발로 찬 뒤, 잇달아 공격해 들어갔다.

양과는 그의 장력이 대단한 것을 보고 더 이상 소홀히 상대할 수 없

다고 생각했다. 양과는 철노를 춤추듯 휘두르며 타구봉법을 이용해 그와 격돌하기 시작했다. 양과는 타구봉법의 초식을 홍철공에게 이미 완전히 전수받아 그날 화산 정상에서 구양봉에게 며칠간 시전한 바 있었다. 그는 초식 중 가장 오묘한 것까지도 모두 연습하였고 구결과 변화도 또한 황용이 노유각에게 전수하는 것을 들었던 터였다. 이때 양과는 두 가지를 합쳐 시전했는데 모두가 사리에 꼭 맞았다.

단지 철노가 너무 무겁고 또 반으로 부러져 짧았으므로 심히 불편할 따름이었다. 10 여 초가 지나자 광도에게 점차 수세에 물리게 되었다.

양과가 시전하는 것이 모두 타구봉법이며, 비록 초식이 익숙치 못하고 정수를 다하지 못하였지만 시전 자세는 완전한 타구봉법임을 본 황용은 즉시 대청 가운데로 뛰어들어 타구봉을 양과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과아야, 이 타구봉을 이용하여라. 노방주의 이 타구봉을 너에게 빌려줄 테니 못된 강아지를 때리고 난 후에는 즉시 돌려주어야 해 !"

타구봉은 바로 개방 방주의 신물(信物)이므로 빌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양과는 기뻐하며 타구봉을 받아들였다. 황용은 그의 귓전에다 속삭였다.

"해독약을 배앗도록 하여라."

말을 마치고 즉시 돌아갔다. 양과는 방금 주자류가 암기에 당한 상황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다. 해독약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몰라 다소 멍청해진 순간, 광도가 손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양과는 타구봉을 쳐들어 그의 아랫배를 찍었다. 이 죽봉은 단단한데다가 길이나 무게 또한 꼭 알맞아 타구봉법의 위력은 자연 배가되었다.

광도가 양과의 머리를 쳐내려가는 순간 타구봉이 날아들며 자신의 배꼽 아래 관원혈(穴)을 찌르려 하지 않는가. 이 혈도는 임맥의 요혈인데 이 조그만 개구장이가 이처럼 정확하게 혈도를 찍어내자 광도는

자신도 모르게 놀랐다.

곽도는 양과를 이미 몇 차례 다루어 보았기에 그가 몸놀림이 재빠를 뿐만 아니라 이미 고수의 지도를 받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다 양과의 점혈 공격을 받게 되자 그를 필적할 만한 상대로 여겨 더이상 가볍게 대할 수가 없었다. 즉시 몸을 틀며 부채를 펴 자신의 몸을 보호하였다.

곁에서 관전하고 있던 고수들은 곽도가 수세에 몰리는 것을 보자 더욱 놀람을 금치 못했다. 양과가 말했다.

"잠간만, 나는 결코 공연히 남과 대결하지 않는다. 뭔가 내기를 걸어야 신이 나지 않겠어?"

곽도가 말했다.

"좋다. 만약 내가 진다면 절을 세 번 하며, 널 보고 할아버지라고 세 번 부르겠다."

양과는 또 강남 지방 어린 아이들의 말투를 흉내내며 짐짓 못들은 체하며 다시 물었다.

"뭐라고 한다고?"

너무나 갑작스레 어린애 말투로 말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속시무시했다. 곽도는 몽고와 티벳에서 성장하였기에 일상생활에서 순박, 소박한 것만 보며 자랐었다. 그가 어찌 이처럼 교활한 강남 어린아이의 속셈을 알 수 있으랴! 곽도가 곧바로 대답했다.

"할아버지라 부르겠다!"

"으음, 귀여운 손자야! 다시 한 번 불러 보렴!"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리자 곽도는 자신이 또 우롱당한 것을 알았다. 곽도는 이를 악물고 오른손의 부채와 좌장을 마구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양과가 힘을 대해 막으며 말했다.

"만약 네가 진다면 해독약을 내게 주어야 한다."

곽도가 성을 버럭 냈다.

"내가 너한테 저 ? 꿈에서 깨거라. 이 촌놈의 자식아 !"

곽도는 금륜법왕의 수제자로 이미 서장 무공의 정수를 익힌 몸이었다. 그는 일등대사의 최강의 제자 주자류와 근 1 천여초를 겨룰 정도로 무공이 심후했다. 양과와는 비교할 위인이 아니었다. 양과는 처음에 그를 약올리게 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며, 곽도 또한 처음에는 자신의 전력을 다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가 정말로 손을 쓴다면 20 여 초 후면 양과는 낭패를 당할 일이었다. 그러나 군웅들은 이 조그만 소년이 이토록 오랫동안 견뎌 내는 것을 보자 모두들 칭찬을 하며 수군거렸다.

"이 소년은 정말 대단한데....."

그들은 분분히 서로에게 이 소년이 어느 문하인지를 물었다.

곽도는 상대방의 열세를 눈치채고 장력에 더욱 힘을 가했다. 양과가 사용한 타구봉법은 신묘하기 그지없어 곽도의 부채나 장법이 미칠 바가 안 되었다. 그러나 홍칠공이 전수해 준 것은 단지 초식뿐으로 봉법의 구결이 오묘하여, 다행히 양과가 총명했기에 황용이 말한 것을 듣고 겨우겨우 이 둘을 합쳐 시전해 본 것이었다. 비록 위력이 더해졌다고 하지만 양과의 봉법이 완전히 연성된 상태는 아니었다. 한 차례 격돌을 한 후, 양과는 이리저리 피하며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곽부와 무씨 형제는 대청에서의 비무가 시작된 후, 줄곧 정신없이 관전하였다. 셋은 머리를 맞대고 조용히 소곤거렸는데 양과가 돌연 출현하자 모두들 의외로 여겼다. 무씨 형제는 그가 필경 크게 낭패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부는 호히려 그들과는 반대로 양과의 용감성을 칭찬했다. 무씨 형제는 곽부의 반응이 꽤나 거북하게 들렸다. 소용녀가 느닷없이 나타나 양과와 친한 것처럼 보이자 이들 형제는 공연히 기분이 상쾌해졌었다. 그러나 양과가 그녀에게 사부라 부르자 그진위 여부를 몰라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다. 지금 양과가 곽도에게 몰려 허둥거리는 꼴을 보자 두 형제는 비록 적이 이기길 바라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양과가 크게 낭패를 당하는 꼴을 보고 싶기도 했다. 두 사

람은 득실 관계를 따져서 기뻐다가 우울했다가 마음이 순식간에 몇 번이나 뒤바뀌고 있는 중이었다.

곽부는 양과에 대한 별다른 호감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리 싫은 마음도 없었다. 단지 그를 못나고 무능한 사람으로 여겼었는데, 자신을 이미 그와 짝지어 놓았다는 부친의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났으나, 그런 일은 결코 실현되기 어렵다고 믿어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무공이 이처럼 대단한 것을 보자 크게 놀랄 뿐이었다. 그가 위기에 몰리자 곽부는 그를 걱정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양과는 이렇게 싸우다가는 10 여 초 이내에 적에게 질 것 같았다. 소용녀는 여전히 주춧돌 위에 앉아 있었지만 등은 아까처럼 기둥에 기대지 않고 있었다. 태도를 보니 여차하면 뛰어들어 도울 심산이었다. 양과는 생각한 바가 있어 돌연 타구봉을 휘둘러대며 비스듬히 몸을 꺾어 소용녀 쪽으로 내달았다. 곽도가 고함을 질렀다.

"어닐 가느냐 ?"

하고 말하며 냅다 뒤쫓아왔다.

소용녀가 두 발을 가볍게 들어 왼발 끝으로 곽도의 오른발 복사뼈의 곤륜혈(崑崙穴)을 걷어차며, 오른발 끝으로는 그의 왼발바닥의 용천혈(湧泉穴)을 걷어찼다. 소용녀가 두 발을 약간 들어올려 신속하게 공격한 것을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곽도는 급한 김에 원양연환퇴 일초를 사용하여 공중에서 두 발을 엇갈리게 하여 간신히 소용녀의 점혈 공격에서 벗어났다.

양과는 소용녀 옆에서 뛰어오르며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적이 내려앉기도 전에 타구봉을 휘둘렀다. 곽도는 부채로 타구봉을 쳐내며 소용녀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내려앉았다. 그녀의 두 눈을 바라다보며 생각했다.

(중원은 역시 사람이 많구나. 이 두 남녀는 불과 10 여 세의 나이로 어찌 이처럼 뛰어난 무공을 지녔단 말인가 !)

양과는 이 일초의 힘을 빌어 타구봉법 중의 살초, 삼초를 연달아 격

출하자 광도는 크게 당황해 전력으로 막아 냈다. 그러나 이어지는 사초에서는 양과가 계속 오묘한 봉법을 구사할 수가 없게 되어 그에게 반격을 받아 또다시 열세에 놓이게 되었다.

사람들은 봉법을 몰라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황용은 애만 태우다가 결국 소리를 질렀다.

"봉으로 땅을 스치며 곧장 찢러 들어가라."

이 봉법은 실로 괴이하여 비록 그가 사용하면서도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몰랐다. 봉법이 격출될 때 마침 상대방이 부채를 비스듬히 휘둘렀다. 광도는 이 일초를 예사롭지 않다고 여겨 황급히 피하려 들었다. 황용이 또 소리쳤다.

"개가 담장으로 도망할 때 어떻게 때리지 ? 빨리 개 엉덩이와 꼬리를 쳐라 !"

이 봉법은 개방 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것으로서 모든 동작이 실제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군웅들은 황용이 적을 개라고 욕을 해대는 줄 알았지, 양과의 무예를 지도하고 있는 것인 줄은 몰랐다. 이 타구봉법은 비록 개방 방주 이외에는 남에게 전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첫째 양과가 이미 스스로 배웠으며, 둘째 이 시합이 워낙 중대해 반드시 이겨야 했기 때문에 황용도 어쩔 수 없이 규약을 어겨 가며 계속 지도하였던 것이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구결을 정수가 숨겨져 있었다. 게다가 양과의 총명으로 인하여 몇 차례 지도를 받자 황용이 구결을 다 말하기도 전에 처음 지도받은 몇 자를 시전해 냈다. 그러자 타구봉법의 위력은 점점 강해져 광도는 죽봉 한 자루에 찢찢 매며 반격할 짬을 얻지 못했다. 몇 초만 더 지나면 무공이 고강했던 광도가 패할 듯이 보이자 군웅들은 놀람과 기쁨이 겹쳐 시끄럽게 떠들어 대기 시작했다.

광도가 급히 부채를 휘둘러 맹공을 퍼부어 양과를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나게 한 후 소리쳤다.

"잠깐만 멈추어라 !"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뭐라고 ? 손자야, 이제 패배를 인정하겠느냐 ?"

곽도는 얼굴색을 붉히며 소리쳤다.

"너는 사부를 대신해서 맹주 자리를 빼앗겠다고 말해 놓고 어제서 홍칠공의 무공을 사용하느냐 ? 만약 홍칠공이 사부라면 이미 두 번 겨루었다. 너희들이 멍청해서이냐, 아니면 무슨 까닭이 있는 것이냐 ?"

황용이 생각해 보니 틀린 소리가 아니라 적절한 항변을 하지 못하고 억지로 때를 써 볼 생각을 하려는데, 양과가 벌써 그 말을 받고 있었다.

"네 말이 옳지. 이 봉법은 내 사부가 전수해 준 것이 아니다. 설령 너를 이겼다 해도 승복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의 사부의 무공을 보고 싶다면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 내가 방금 남의 무공을 썼던 것은 실은 본문의 무공을 사용한다면 네가 너무 비참하게 깨질까 우려해서였다. 다 널 생각해서였으니 인사나 하시지 !"

원래 양과는 곽도의 말을 듣는 순간, 이미 소용녀를 힐끗 쳐다보았었다. 순간, 양과는 깨달은 바가 있었다.

(다행히도 그가 나를 일깨워 주었구나. 만약 내가 타구봉법으로 그를 이겼다면 어떻게 용아가씨의 능력을 여기에서 나타낼 수 있었겠는가 ? 그랬다면 아가씨가 얼마나 나를 섭섭하게 여겼을까 ?)

사실 소용녀는 천진무구하여 마음속에는 양과에 대한 정념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오로지 그만 바라보고 있으면 웬지 마음이 넉넉해져서 만사를 개의치 않았다. 그가 이기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 저도 상관없었다. 그가 본문의 무공을 사용하든, 안 하든 황용의 지도를 듣든 말든 그녀는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이다.

곽도가 생각하였다.

(네가 만약 타구봉법을 사용치 않는다면 네까짓놈의 생명을 취하는 것쯤 어려운 일이 아니지.)

바로 냉소를 띠며 곽도가 말했다.

"그래요 ? 그렇다면 귀하의 사부에게 전수받은 무공을 어디 보여 주실까 !"

양과가 소용녀에게서 전수받은 가장 정묘한 무공은 검법이였다.

"어느 어르신네께서 검 한 자루 좀 빌려주시렵니까 ?"

대청 위의 2천여 명 중 약 3백 명 가량이 검을 차고 있었다. 양과의 한 마디를 듣자 군웅들은 일제히 대답하며 분분히 검을 뽑았다.

학대통과 손불이는 왕중양을 스승으로 모시기 전부터 충의심이 깊은 사람들이였다. 후에 왕중양의 영향을 받아 더욱더 오랑캐에 저항하는 마음이 강렬해졌다. 양과가 전진교를 떠나 버려 그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가 강적을 맞이하여 애써 분투하고 있는 것을 보자 일체의 사사로운 감정은 눈녹듯이 사라져 버렸다.

손불이의 무공은 전진칠자 중 가장 약해 왕중양이 임종할 때 전진교에서 가장 예리한 보검을 그녀에게 주어 무공의 부족함을 보충하라고 하였다. 양과가 검을 빌려 적을 막겠다고 하자, 그녀는 맨 앞에 나서며 푸른 빛이 번쩍거리며 한기가 감도는 보검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말했다.

"이 검을 써라 !"

양과가 보니 검은 비취빛이 감도는 단금절옥(斷金切玉)이라고 할 수 있는 보검이였다. 이걸 사용해 곽도와 겨룬다면 상당한 이익이 될 것이였다. 그러나 손불이의 몸에 걸친 도포를 보자 자신이 중양궁에서 당한 굴욕이 생각나기 시작했다. 또한 손할머니가 학대통의 손에 횡사당한 일이 생각났다. 양과는 눈을 핵 까뒤집으며 손불이의 보검을 받지 않았다. 몸을 돌려 개방 제자의 칼집에서 거쿠틱틱한 녹이 슨 검을 골라 잡고는 말했다.

"싫어요, 나는 이 검을 빌려 쓰겠어요."

*** 달 이 파 의 착 각 ***

손불이는 그 자리에 서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녀가 비록 출가를 해서 수도하는 몸이긴 했지만 무림인의 불 같은 성질을 전부 정화시키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자신은 호의로 검을 빌려주려 했는데도 양과가 이처럼 무례하게 나오자 울화가 치밀어 욕을 해 주고 싶었지만 강적의 면전인지라 억지로 분을 삭이고 인과 속으로 돌아갔다.

양과는 고집이 너무 센데다가 애증의 표현이 지나치게 강렬해 전진교와 화해할 수 있는 이처럼 좋은 기회에 일이 이렇게 되어버리자 쌍방의 알력은 더욱 심해졌다.

양과가 보검을 취하는 대신 점점이 녹이 쓴 철검을 골라잡는 것을 보자 광도는 속으로 한층 걱정되었다. 무릇 무공이 최고의 경지에 다르면 꽃잎 한 조각으로도 능히 사람을 해칠 수가 있는 것이니, 이는 병기의 예리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이처럼 녹슬고 무딘 검을 취하자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광도는 부채를 짝 펴고 두 차례 가볍게 휘두르며 개전(開戰)을 말하려고 했다.

양과는 검을 들어 부채 위에 주자류가 썼던 네 글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내만이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굳이 선전할 필요가 없지."

광도의 얼굴이 붉어졌다. 부채를 집어 양과의 견정혈(肩井穴)을 찍어 가며 좌장을 함께 격출했다. 양과는 철검으로 옥녀검법을 이용하여 반격해 갔다.

임조영은 석묘 안에서 수련하면서 옥녀심경의 무공을 창안해 오직 그녀의 측근 몸종에게만 전수했다. 그것이 소용녀를 거쳐 양과에게 전수되었던 것이다. 그 몸종은 비단 무림에 나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남산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 이막수는 비록 소용녀의 사자이지만 이 검법을 얻지 못했다. 그녀는 다만 불진과 장법으로만 암암리에 강호에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지금 양과가 시전한 고묘파의 검

법은 대청 위에 각양각파의 고수들이 모두 모여 있었지만 소용녀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었다.

이 일파의 무공 창시자는 여자로서, 계속 연이어 양대의 제자도 모두 여자였다. 따라서 이 무공은 자연 가벼우며 부드러운 감을 배제할 수 없어 강맹한 점이 다소 부족했다. 소용녀가 양과에게 전수해 준 것도 모두 매우 여성적인 풍모를 띠고 있었다. 양과는 완전히 연성하고 난 후에, 스스로 여성적 부분을 제거시켜 이 무공을 날렵하고 민첩하게 만들었다.

고묘파의 경공은 당세무비(當世無比)로 양과는 대청 안을 누비며 일초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초가 들어갔다. 검초가 격출될 때 왼편에 사람이 있었는가 싶었는데, 검초가 적에게 막혔을 때에는 벌써 오른편으로 돌아서 있었다. 도대체 검은 검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따로 노는 것 같았다. 10 여 초가 지나자 입을 벌리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곽도의 부채 무공도 원래는 무림 절세로 날래고 빠른 것이 특기였다. 그러나 지금천하에 둘도 없는 고묘파의 절정 경공을 맞이하게 되자, 시전도 제대로 못 하고 있었다. 게다가 부채 위에 씌어진 주자류의 네 글자 때문에 양과로부터 희롱을 당해 그것을 두 번 다시 펼쳐 들기가 싫어 제대로 부채 무공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곽부와 무씨 형제는 양과의 검법이 이처럼 뛰어난 것을 보자 눈동자가 휘둥그래져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다. 관전하는 군웅들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곽정이라고 볼 수 있었다. 고인의 아들이 이처럼 훌륭히 무공을 연마해 자신조차도 그의 종파를 알아내기가 힘들다니.... ..! 자신의 곽가 집안과 양가 집안이 누세에 걸쳐 인연을 맺는다 생각하니 저절로 희비가 엇갈렸다.

황용이 남편을 힐끗 바라보니, 남편의 눈동자가 약간 충혈되어 있으며 입가에는 미소를 띄고 있었다. 그의 마음을 알아차린 황용은 손을 뻗어 그의 오른손을 꼭 잡았다.

곽도는 적을 잡지 못하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만약 오늘 이 꼬마

녀석에게 당한다면 명성을 걸레처럼 땅에 떨어질 것인데 그렇다면 무엇으로 중원에 위세를 떨친단 말인가 ? 양과의 장검이 비스듬히 날아들며 계속해 세 곳을 찢러 들어왔다. 만약 번개같이 피하지 않는다면 나가떨어질 판이었다. 즉시 부채를 펴서 그의 삼초를 막아내고는 일성을 내지르며, 광풍신포공으로 반격했다.

부채와 왼쪽 소매에서 휘익, 하고 바람을 일으켰다. 소매 안에는 철장이 숨겨져 있었다. 무림고수의 신분으로 어린 소년과 대결하며 고향을 내지른다는 일은 너무나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는 오로지 패배하지 않으려는 생각뿐으로 다른 것을 돌아볼 틈이 없었다. 일초 일초 고향을 내지르며 광도는 악랄하게 공격해 들어갔다.

양과의 검은 날렵했으며, 검초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양과의 검법은 우아하면서도 깨끗하여 마치 선경을 거니는 것 같았다. 이 미녀검법은 본래 운자가묘(韻姿佳妙)를 장기로 하는 것이라 상대방이 마구 날뛰게 되자 더욱 그 모습이 빼어나 보였다. 양과가 비록 낡은 옷을 입었지만 이 검법을 오묘하게 사용하며 사람들 눈앞에서 번쩍 번쩍거리자 마치 속세를 떠난 청아하고 우아한 공자처럼 보였다.

그러나 양과는 자세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거의 위력을 제대로 내기가 쉽지 않았다. 광도가 점점더 흉폭하게 달려들자, 양과는 점점 힘이 들었다. 광정, 황용은 그가 수세에 밀리자 눈썹을 찌푸렸다. 광도의 부채와 소매 사이에서 바람이 더욱 거칠어지자 그들은 속으로 말했다.

(큰일이군 !)

순간 양과가 철검을 누르며 소리쳤다.

"조심해 ! 암기를 발사할 테다 !"

광도는 이미 자신이 독침으로 주자류를 처치하였기에 그가 이처럼 말하는 것을 듣자, 그의 철검도 자신의 부채와 마찬가지로 암기가 숨겨져 있는 줄로 알았다. 그가 보검 대신 녹슨 철검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고 광도는 생각했다. 자신이 이미 이 수단으로 아슬아

슬하게 승리했으므로 상대방도 능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광도는 양과의 철검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키는 것을 보고는 왼쪽으로 급히 몸을 피했다. 그러나 양과는 왼손으로 철검을 찢러 들어올 뿐 암기라곤 없었다.

광도는 속은 것을 알고 욕을 내뱉었다.

"개자식 !"

광도는 급히 장력을 휘둘렀다. 양과가 왼손을 들며 소리쳤다.

"암기 공격이다 !"

광도가 오른쪽으로 황급히 피하자 양과의 검이 기다렸다는 듯이 오른쪽에서 질풍같이 찢러 들어왔다. 광도는 급히 허리를 굽혀 아슬아슬하게 피해 냈다. 이 일초는 너무나 아슬아슬하게 스쳐지나가 군웅들은 모두 애석해 하는 표정이 역력했고, 몽고쪽 무사들은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광도는 너무도 놀라서 등뒤에 식은 땀이 짹 흘렀다. 양과가 왼손을 들며 또 소리쳤다.

"또 암기다 !"

광도는 더 이상 그의 고향에 현혹되지 않고 장을 뺀어 맞공격을 했다. 과연 이번에도 또 거짓말이었다. 양과는 검을 허공에다 찢러 대며 앞으로 달려들었다. 왼손을 들며 또 소리쳤다.

"암기 !"

광도가 욕을 하였다.

"개....."

두번째 말이 채 입 밖에 나오기도 전에 별안간 눈앞이 번쩍했다. 이번에는 거리도 가까웠고, 또 상대방이 세 번이나 거짓말을 한 후였기에 광도는 조금도 방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황급히 몸을 움직이려는 순간 다리 쪽이 약간 뜨끔하였다. 이미 몇 개의 미세한 암기에 적중된 것이다. 그는 암기가 매우 미세해 비록 맞긴 했어도 크게 깨념하지 않아 화를 내며, 이 교활한 어린 놈을 당장에 요절을 내려고 서둘렀다.

양과는 이미 자신이 이겼음을 알고 단지 수비만 해 가면서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서너 번씩이나 암기를 발사한다고 일깨워 주었는데도 너는 결국 믿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 내가 너를 속인 것은 아니겠지 ? 후했 !" !"

곽도가 장법을 격출하려는데 갑자기 큰 모기에게 물린 것처럼 암기를 맞은 다리가 뜨끔했다. 얼른 기를 끌어들여 악으려 했으나 더욱 뜨끔거렸다.

(제기랄 ! 이제 보니 이놈의 암기에 독이 있었구나 !)

머리를 한차례 올리는 순간 다리의 가려움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적 앞이었지만 손을 뻗어 가려운 곳을 만졌다. 단지 한 번 긁었을 뿐인데 가슴속까지 가렵기 시작했다. 곽도는 그만 소리를 지르며 넘어져 버렸다. 고묘파의 옥녀봉침의 독은 천하에 희귀한 것으로 한 개만 맞아도 감당해 내기 어려운데, 하물며 격투중에 혈액 순환이 급하게 돌아갈 때 여러 개에 맞았으니 그 가려움증이 오죽하랴 !

서장승 달이파가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사제를 안아서 사부에게 건네 주고는 몸을 돌려 양과에게 말했다.

"이놈, 어디 나하고 겨루어 보자 !"

달이파는 금강저를 휘두르며 벼락같이 양과의 허리로 쳐들어왔다.

금빛 찬란한 금강저는 매우 무거웠는데도 그가 손을 뻗칠 때마다 금광이 빠르게 번쩍거리 그의 팔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었다. 양과는 꿈쩍도 않고 허리만 뒤로 약간 젖혔다. 금강저는 아슬아슬하게 그의 허리 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자 달이파는 손목에 힘을 주어 곧바로 금강저를 끌어들여 양과의 허리를 다시 찔러 들어갔다. 이처럼 무거운 병기를 이렇게 가볍게 다루며, 중간에서 방향을 틀어 공격해 오다니 ! 사람들은 모두 달이파의 힘에 혀를 내둘렀다. 양과도 크게 놀라 철검을 금강저 위에 찍어 누르며 몸을 날렸다.

달이파는 그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따라와 금강저를 휘둘렀다. 양

과의 철검이 다시 한 번 금강저를 눌러 몸을 날렸다. 달이파가 소리를 냈다 질렀다.

"어디로 도망기느냐 ?"

달이파는 금강저를 휘두르며 다시 쫓아왔다. 양과는 공중에서 몸을 틀기가 어려웠다.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갔다. 다행스럽게도 양과는 돌연 손을 뻗어 금강저 끝을 잡고는 검을 곧바로 찔러 댔다. 만약 그의 힘이 점창어은 만큼만 됐어도 달이파는 금강저를 놓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달이파의 힘이 양과보다 몇 배는 더 강하여 힘껏 잡아당기며 급히 뒤로 물러섰다. 양과는 이 틈을 타서 금강저를 놓고 사뿐히 땅에 내려섰다. 그는 잇달아 공중에서 공격을 받아 하마터면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다. 이때 비록 적의 무기를 빼앗지는 못했지만 위험한 위기를 벗어나자, 모두들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달이파는 그의 경공이 뛰어나고 민첩한 것을 보고 말했다.

"꼬마의 무공이 상당하구나. 누가 널 가르쳤느냐 ?"

그가 말한 것은 티벳어로 양과는 당연히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는 이 화상이 자신에게 욕을 해 대는 것이라고 여겨 달이파의 발음을 흉내내어 몇 마디를 그대로 따라 했다. 양과의 발음이 정확하게 데다 순서도 맞아 달이파가 들어 보니, 자신에게 묻는 말이었다.

"꼬마의 무공이 상당하구나. 누가 널 가르쳤느냐 ?"

"내 사부는 금륜법왕이시다. 나는 꼬마가 아닌고로 너는 내게 대화상이라고 불러라 !"

양과는 조금도 기가 죽지 않고 생각했다.

(그가 어떠한 악랄한 욕을 한다 해도 내가 그대로 되돌려 준다면 말싸움에서는 질 리가 없지. 그가 티벳어로 내게 개자식이라는 욕을 한다면 나도 그대로 따라서 개자식이라고 욕을 하면 그만이지 뭘 !)

그의 말을 신경써서 듣고 있다가 그가 말을 마치자, 티벳어로 어물어물 따라 했다.

"내 사부는 금륜법왕이시다. 나는 꼬마가 아닌고로 너는 내게 대화

상이라고 불러라 !"

달이파가 괴이하다는 듯이 고개를 좌우로 가우뚱거리며 양과를 살피 보았다. 그는 분명 어린 꼬마인데 어찌 대화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 그리고 어째서 사부가 금륜법왕이란 말인가 ?

"나는 법왕의 일대 제자인데 너는 도대체 몇 대 제자냐 ?"

양과도 따라 말했다.

"나는 법왕의 일대 제자인데 너는 도대체 몇 대 제자냐 ?"

서장이 라마교 중에는 일찌기 사람이 죽은 다음 다시 환생한다는 것을 믿는자가 많았다. 금륜법왕이 소년 시절 한 대제자를 거두었는데 이 제자는 스무 살이 채 못 되어 죽었었다. 달이파와 광도, 모두 만나 보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일에 대해선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 달이파가 법왕의 밑에서 제 2의 자리를 차지하고, 광도가 제 3인 것은 이 같은 연유에서였다. 지금 달이파가 양과의 이 같은 말을 듣자 양과가 진짜로 대사형의 전신인 줄 알았다. 만약 전신이 아니라면 일개 소년이 어찌 이처럼 고강한 무공을 지닐 수 있으랴 싶었다. 게다가 그는 중원의 소년인데 티벳어를 어찌 이처럼 고강한 무공을 지닐 수 있으랴 싶었다. 게다가 그는 중원의 소년인데 티벳어를 어찌 이처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 그런 생각을 하며 그를 자세히 뜯어 보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 것 같았다. 돌연, 달이파는 금강저를 놓고 양과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며 말했다.

"대사형, 동생 달이파가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나오자 양과는 괴이한 생각이 들었다. 이 화상이 자기에겐 고개를 숙여 매우 공손한 태도로 말하는 것을 보니 분명 욱설이 아니라 공경어였다. 이는 따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양과는 고개만 끄덕거리며 미소를 지어 흡족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관전하고 있던 군웅 호걸들은 그만 어안이 병병해졌다. 그들은 티벳어를 못 알아들어 양과가 그와 뭐라고 주절했는지 모르지만 몇 마디 뭐라고 하자, 이 신력 괴인의 서역승이 이처럼 공손하게 행복하지 않

겠는가 !

이들 중 오직 금륜법왕만이 이 일의 앞뒤를 자세히 알고 있었다. 이 2 대 제자는 사람됨이 솔직 순박하여 양과에게 속았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금륜법왕은 큰소리로 달이파에게 소리쳤다.

"달이파야, 그는 네 대사형의 전신이 아니다. 어서 일어나 그와 겨루어라."

달이파가 놀라 벌떡 일어서며 물었다.

"사부님 ! 제가 볼 땐 틀림없는 대사형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이토록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리도 무공이 고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

금륜법왕이 말했다.

"네 대사형의 무공은 너보다도 훨씬 강하다. 저 꼬마는 네게 미치지 못해 이 열간아 !"

달이파는 고개를 저으며 사부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금륜법왕은 그의 성미가 우직해서 제대로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말했다.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그와 대결을 다시 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달이파는 사부의 말에 대해서 평소 신명처럼 받들어 모시던 터였다. 사부가 양과는 대사형의 전신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대사형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무공이 이토록 고강하며, 게다가 스스로 대사형이라고 자칭하니 믿지 않을 수도 없었다. 어쨌든 사부의 분부를 따라서 그와 몇 초 겨루어 그의 진짜 무공을 알아 본다면 바로 진위가 판명될 일이었다. 달이파는 손을 들며 양과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제가 한번 겨루어 보아 승패에 따라 진위를 결정하지요."

양과는 그가 몸을 일으키며 뭐라고 몇 마디를 중얼거리는데 태도를 보아하니 상당히 공손했다. 그가 예의를 갖춘 말을 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자신도 한 음도 빠짐없이 그대로 따라 말했다. 달이파는 양과의

말을 듣고서는 두려움을 느꼈다.

(사부께서 대사형의 무공은 나보다 훨씬 강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아무래도 그를 당해 내지 못하겠군.)

양과는 그의 얼굴에 두려워하는 빛이 일자 생각했다.

(내가 그를 한 번 더 놀라게 하여 물러가게 만들어야 되겠군.)

"장변오추라 불리는 너의 다섯 제자들이 며칠 전 화산 정상에서 내게 무례하게 대들어 그들의 무공을 폐기시켜 버렸는데, 이들이 아직 살아 있느냐?"

그가 한어(漢語)로 말했으므로 달이파는 자연히 알아듣지 못했다. 그들과 동행했던 무사 한 명이 양과의 말을 통역해 주었다. 달이파는 이 말을 듣자 대경 실색을 했다.

장변오추는 홍칠공과 구양봉 양대 고수의 협공을 받아 전신의 근골이 모두 망가져 돌아와선 말도 제대로 못 했던 것이다. 달이파가 이들 다섯 명의 상세(傷勢)를 살펴보고는 사부 금륜법왕도 이같은 무공을 지니지 못했다고 생각했었다. 다섯 명의 전신 근골을 모두 폐기시켜 놓고도 그들의 목숨을 보전케 할 수 있다는 것은 신의 경지에 도달한 자라야 가능한 대단한 무공실력이었다. 그가 어찌 홍칠공, 구양봉의 내공이 금륜법왕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게다가 그들 고수들이 협공을 했으니 자기 사부보다 훨씬 뛰어난 흔적을 남긴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양과가 이처럼 말하자 두려운 마음은 더욱 커져 달이파는 금륜법왕을 쳐다볼 뿐이었다. 금륜법왕의 얼굴에 노기가 서리는 것을 보자 야오가와 겨루지 않을 수도 없어 달이파는 간신히 말했다.

"살수는 쓰지 말아 주십시오."

양과가 그의 티벳어를 따라서 말했다.

"살수는 쓰지 말아 주십시오."

두 사람이 계속 티벳어로 말을 하는 것을 보고서는 곽부가 황용 결으로 다가와 물었다.

"엄마, 저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

황용은 양과가 단지 장난을 치려고 따라 하는 것뿐이라고 느꼈었다. 그러나 달이과가 그에게 절까지 해 대자 자세한 속사정을 알 길이 없었다. 그래서 곽부가 물어보자 순간 대답했다.

"양과오빠는 그와 지금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

이때 달이과가 돌연 금강저를휘두르며 양과에게 덤벼들었다. 사전에 이미 자세히 말했으므로 상대방이 방비를 했으리라 생각했다. 양과는 그가 공손한 태도를 보이다가 느닷없이 공격을 해오자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양과는 급히 물러서며 잇달아 검을 찔러 댔다. 달이과는 은근히 겁이 났다.

달이과는 양과를 사부와 오랫동안 같이 지내며 무학으로 신의 경지에 오른, 이생에 전신한 몸으로 여겼다. 때문에 그는 금강저로 수비에 치중할 뿐 감히 나서서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몇 초가 지나자 양과는 그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공격은 않고 수비만 계속 하는 것을 눈치챘다. 양과는 신나게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이리저리 공격을전개했다.

어느새 그들은 1 백여 초를 겨루었다. 금륜법왕이 보다 못해 소리를 냈다 질렀다.

"달이과 ! 어서 반격을 해라. 그는 네 대사형이 아니란 말이다 !"

달이과의 무공은 양과보다 훨씬 위에 있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다 무공도 약 절반의 힘을 쓰고 있는데, 양과는 전력으로 공격을 했다. 한편이 득의양양해지면 한편은 더욱 움츠러들었다. 그러나 비록 양과가 우세하긴 했지만 그를 다치게는 못했다. 달이과는 오히려 대사형이 사정을 봐 주는 것으로 여겼다.

금륜법왕이 대로(大怒)하여 고함을 질렀다.

"즉시 반격하라 !"

이 한 마디는 대단한 기세로 사람들의 귓전에 위잉, 하고 울렸다.

달이파는 사부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어 금강저를 치켜 들고 맹공탕되며 손목이 시큰 거려움을 느꼈다. 쩌앵, 하는 소리
리와 함께 철검이 두 쪽으로 쪼개졌다. 달이파가 소리쳤다.

"내가 이겼다 !"

달이파는 금강저를 땅바닥에 세워 놓고는 합장을 하며 예를 갖추고 말했다. 그는 비록 이겼지만 대사형에게 실례를 범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양과도 티벳어로 말했다.

"내가 이겼다 !"

반 토막 검을 달이파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달이파는 몸을 틀어 피하며 순간 멍해졌다.

(어째서 대사형이 이긴 것일까 ? 그의 이 일초는 그럼 거짓이란 말인가 ?)

순간 양과가 빈 몸으로 뛰어올랐다. 그는 조금도 소홀히 대처할 수 없어 금강저를 들어서 몸을 보호했다. 양과는 고묘 안에서 장법을 익힐 때 99마리의 참새를 잡아 놓고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법을 익혔었다. 이 천라지망세 장법은 임조영이 독창한 비법으로서 종남산 밑의 세상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다. 지금 시전해 보자 과연 빈틈없는 것이 비록 맨손이지만 그 위력은 실로 손에 검이 있을 때와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

달이파는 금강저를 요란하게 소리 내며 휘휘 휘둘렀다. 양과는 고강한 경공을 이용해 금강저 사이를 이리저리 피하며 공격했다. 비록 아슬아슬하기는 했어도 금강저는 그의 몸을 조금도 건드리지 못했다.

다시 한바탕 겨루자 달이파의 신력은 더욱 강해졌고 양과도 뛰면 뛸수록 민첩해졌다. 양과가 고묘 안의 한옥상에 누워 연마한 실력이 이제서야 나타나는 것 같았다.

소용녀는 기둥 옆 주춧돌 위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이 겨루는 것을 바라다보았다. 그러나 양과가 오랫동안 견뎌 내지 못할 것

같이 소용녀는 품에서 흰 장갑 한 쌍을 꺼내 들며 소리쳤다.

"과아아 ! 이걸 받아라 !"

오른손을 들어 장갑을 던졌다.

그녀의 이 장갑은 극히 미세하고 강인한 백금철사로 짠 것으로 비록 얇고 부드러웠지만 어느 보검 못지 않았따. 장갑이 날아가는 것을 보자 학대통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녀와 중앙궁에서 대결했을 때 소용녀의 이 장갑에 자신의 장검이 부러졌었다. 그로 인해 자신이 하마터면 죽을 뻔하지 않았던가.

양과는 장갑을 받아 들고 한걸음 물러나 신속하게 끼고서는 허리를 틀어 고묘파 무공 중 가장 기묘하고 교묘한 미녀권법(美女拳法)을 격출시켰다. 이 권법은 이미 육무쌍을 도와 한차례 사용하여 개방 제자들을 내쫓은 적이 있었다. 이 권법의 매 일초는 모두 고대 미녀들의 자세를 모방한 것으로 남자가 사용하게 되면 정말 꼴불견이었다. 그러나 양과는 연마할 당시 자세를 종잡을 수가 없어 춤추는 듯한 자세에서 돌연 우뚝 선 모습으로 태도를 이리저리 바꾸어 연마했었다. 양과의 동작은 상당히 기괴망측하게 보였다.

이는 본래 여성의 마음과 심성을 알아야만 그 변화무쌍한 정수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 무른 역대의 유명한 여자들의 성격중 비범함 장점만을 골랐으니 천 백여 년 간 미녀들의 변화무쌍한 심성이 모조리 이 무공 안에 섞여 있어 그 변화는 실로 놀랄 만한 것이었다.

양과는 홍옥격고의 초식으로 두 팔을 재빨리 뻗었다. 달이파가 금강저를 휘둘러 막자, 즉시 홍불야분의 초식으로 바꾸어 곧바로 찔러 들어갔다. 달이파가 금강저를 세워 막았다. 양과는 곧바로 녹주추루의 초식으로 적의 아랫도리를 쓸어 버렸다. 달이파는 그만 놀라 당황했다.

(대사형의 초식은 정말로 예측하기가 어렵구나.)

금륜법왕은 자신의 제자의 무공이 분명 이 소년보다 높았는데, 단지 겁을 집어먹고 계속 적에게 당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보다 못해 엄하게

꾸짚었다.

"어서 무상대력저법(無上大力杵法)을 전개해라 !"

달이과는 예, 하고 대답을 하며 두 손으로 금강저를 잡고 춤추듯 휘둘러 댔다. 그가 한 손으로 금강저를 휘두를 때도 신력이 뛰어났는데, 지금은 두 손을 다 사용하니 완력이 더욱 강해져 금강저에서 발출되는 공기 가르는 소리가 위력을 가일층 더해 주었다.

이 무상대력저법은 변화가 단순했다. 단지 휘두르는 법 8초식, 곧바로 찌르는 8초식, 합이 16초식이었다. 그러나 이 16초식을 계속 반복해 시전하자, 양과는 멀찌감치 피해 정면 공격을 중지한 채 금강저의 초식을 살피고 있었다.

점창어은은 철노가 부러진 후 줄곧 화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가 이 무상대력저법을 보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탄복을 금치 못했다.

대청 위의 홍축은 이미 7,8개가 금강저의 바람에 꺼져 버렸다. 양과는 오직 경공에 의지해 금강저에 맞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하기에 바빴다.

중원 무림인들은 모두 놀람을 감추지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 하였으며 몽고 중인들은 환호성을 질러 댔다.

양과는 금강저에 밀려 계속 후퇴해 결국 대청 구석에까지 밀리게 되었다. 이 무상대력저법은 본래 매우 광란적인 기질을 띠고 있었다. 달이과는 흥분이 되자, 눈앞의 사람이 대사형의 전신이라는 생각을 잠시 잊어버렸다. 그가 대청 구석에 몰려 움쭉달싹을 못 하게 된 것을 보자 벼락같이 고함을 질렀다.

"죽어라 !"

금강저를 뱉다 휘두르자 짹, 하는 굉음과 함께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며 벽돌조각이 어지럽게 날렸다. 대청 담벽은 이미 구멍이 뚫려 버렸다.

양과는 위기 일발로 펄쩍 뛰어올랐다. 너무도 황급하여 티벳어로 되받아 말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의 이 도약은 바로 구름진경 중의 무

공이었다. 그가 소용녀와 함께 고묘 석실 천장의 왕중양이 새겨 놓은 경전을 수련할 때 이미 어느 정도는 익혔었다. 그러나 내공은 지도해 주는 이가 없어 두 사람이 서로 수련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몰랐었다. 이때 처음으로 대적을 맞이하여 경황이 없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시전해 목숨을 건진 것이었다.

달이파의 이 초식은 너무나 악랄하여 광정이 돌연 그의 등뒤를 공격해 막으려고 했다. 순간 눈앞에 홍포자락이 어른거리더니 금륜법왕이 장법을 격출해 막아 섰다. 그의 장법이 신속무비하여 광정은 급히 건룡재전 일초를 시전해 막아 냈다. 두 사람의 쌍장이 마주쳤지만 조금도 소리가 없었으며 몸만 약간 흔들거릴 뿐이었다. 광정은 뒤로 3보나 후퇴하였지만 금륜법왕은 원래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내력은 광정보다 위에 있었고 공력 또한 심후하였으나 장법은 다소 광정에게 떨어졌다. 광정은 곧바로 뒤로 물러서며 상대의 공격을 완화시켰기 때문에 내상을 입는 것을 면하였다. 금륜법왕은 호승지심으로 억지로 이 일초를 받아 내자 가슴에 얼마간의 통증이 있었지만 억지로 참아내며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광정과 금륜법왕 등 고수는 양과가 위험에 빠진 것을 본 순간, 한 명은 달려들어 구하려 하였고 한 명은 손을 써 막으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양과가 기이한 초식으로 금강저가 몸에 와 닿으려는 순간 피해 버렸던 것이다. 두 사람은 양과가 이미 위험에서 빠져 나온 것을 보고는 모두 의아하게 여겼다. 한 명은 안심했고, 한 명은 애석하게 생각하며 각자 자리로 돌아갔다.

달이파는 일격이 적중되지 않자 몸도 돌리지 않은 채 금강저를 뒤로 휘둘러 버렸다. 양과는 적의 초식이 재빠르게 공격해 오자 순간적으로 밀으로 파고 들어갔다. 이것은 마치 제비가 처마 밑을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땅에서 약간 떨어져 쪽 스쳐지나가 금강저 바로 밑으로 파고 들어갔다. 바로 구름진경의 무공이었다.

황용이 이상하게 생각되어 물었다.

"여보 ! 당신이 가르쳐 준 것 아네요 ? 양과가 어떻게 구음진경을 시전하지요 ?"

그녀는 걱정이 고인의 정을 생각해서 양과를 종남산에 데려다 주는 도중에 그에게 구음진경을 전수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걱정이 말했다.

"아니 ! 만약 내가 전수해 주었다면 왜 당신에게 속이겠소 ?"

황용은 단지 으음, 하며 신음을 삼켰다. 평소 남편이 남들에게 옳은 말만 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하물며 자기 자신에게 허튼 소리를 할 리가 없었다. 그러나 양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음진경에 의지해 몸을 보호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아직 연성을 다하지 못하여 구음진경 무공으로 반격할 줄을 모르니 비록 목숨은 보존한다 해도 이 시험은 결국에는 질 것이 뻔했다. 황용이 속으로 탄식했다.

(양과는 정말 기재(奇才)로다. 그가 만약 나와 일년 반쯤 같이 지내 타구봉법과 진경무공을 완전히 습득한다면 어찌 저 서장승이 그의 상대가 될 수 있겠는가 ?)

한참 생각에 잠겨 있는 순간 돌연 개방의 반도 팽장로가 몽고무사의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것을 보고는 희색이 만면해져 그녀는 쩍싸게 소리쳤다.

"양과, 이혼대법, 이혼대법 !"

구음진경중에는 이혼대법(移魂大法)이라 불리는 무공이 있었다. 바로 심령력을 이용해 상대를 제압하는 무공이었다. 당시 동정호에서의 군산 개방대회에서 황용은 바로 이 대법으로 팽장로의 최면술법인 섭심술(攝心術)을 제압했던 것이었다. 이때 팽장로를 보자 그 생각이 번개같이 스쳐 지나갔던 것이다.

양과는 이혼대법의 연공법을 기억했지만 상대방을 응시함으로써 적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연공을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평소 황용의 재주를 믿고 있었기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곽백모의 이러한 말에는 필경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미 패색이 짙어졌으니 일단 한 번 시전이나 해 보자.)

그는권법을 계속 격출하며 마음속으로는 잡념을 끊었다. 구음진경 중의 지관법문(止觀法門)에 의거해, 제심지(制心止)에서 체진지(體眞止)에 이르기까지 정신을 통일시켜 조그마한 잡념도 없도록 했다. 이때 그는 단지 본능에 따라 적의 공격을 피할 뿐 눈빛은 뚫어져라 적을 응시했다.

수초가 지나자 달이파는 돌연 양과의 거동이 수상쩍다고 느껴 그를 바라보았다. 양과는 미녀권법 중의 만요섬섬(蠻腰纖纖) 일초를 전개하며 이혼대법을 운용하여,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 어떤 초식을 쓰게 되면 바로 얼굴 표정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었다. 달이파가 보아하니, 양과의 얼굴에 백면서생의 온화한 기운이 돌연 떠올랐다. 양과가 당의 시인인 백낙천(白樂天)의 첩이 춤추는 자세를 모방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선 멍하니 바라보더니 금강저를 들고 찰러 들어왔다. 양과가 몸을 틀어피하면서 다섯 손가락을 짹 펴 자기의 머리를 빗어 넘기며 손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리고는 얼굴에 가볍게 미소를 띄며 여화소장(麗華梳裝) 일초를 전개했다.

여화는 바로 이후주(李後主)의 애총으로 머리카락이 7 척이나 되었으며 빛이 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후주는 결국 그녀로 인해 정사를 팽개치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그 교태로움을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양과가 살짝 웃자 달이파도 따라서 웃었다. 그러나 양과의 뚜렷한 이목구비에 웃음이 더해지자 그 풍채를 더해 주었지만, 달이파는 광대뼈가 불거져 나왔고 뺨이 쑥 파인 얼굴에 양과를 따라 웃음을 짓자 보는 이들의 모골이 송연해졌다.

양과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며 손가락을 뺨에 평희침신 일초를 전개했다. 달이파는 몸을 틀며 얼굴에 그를 따라서 조심해서 웃음짓는 모양을 나타냈다.

황용은 양과가 자신의 의사를 알아차리고는 이혼대법으로 적을 감응시키게 만들자 대단히 기뻐했다. 황용은 곽정에게 조용히 말했다.

"양과는 정말 비범한 애예요. 당신이 저만한 나이였을 때에도 이 같은 무공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곽정도 희색이 만면하여 고개를 끄덕이며 대청 중심의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이 이혼대법은 단순히 심령력으로 제압하는 것으로 만약 상대방의 태도가 분명하다면 이 법은 종종 쓸모가 없게 된다. 또한 상대방의 내공이 높아 오히려 반격이라도 해 오면 도리어 시술자가 당하게 되는 것이다. 두 사람의 비무시합에서는 무공이 비교적 강하고 무기도 상대방보다 능히 뛰어나다면 굳이 이 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내공이 뒤떨어진다면 더더욱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때문에 이 법은 비록 오묘하고 심오하지만 적에 맞서서는 오히려 쓸모없기가 일쑤였다.

달이과는 양과가 티벳어를 말하는 것을 들었기에 이미 십중팔구는 그가 대사형의 전신이라고 믿어, 마음 한구석에 두려워하는 기색이 있었기 때문에 감응속도가 빨랐던 것이다. 그리하여 양과가 한번에 성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만약 곽도에게 시전하였다면, 이 술법은 양과가 사전에 연공하지도 않았었고, 또한 내공도 상대에 뒤떨어져 필히 큰 낭패를 당했을 것이다.

이때 양과는 미녀권법을 시전해 가며 연실을 따기도 하며, 버드나무처럼 하늘하늘거리기도 했다. 달이과가 그대로 따라서흥내를 내자 사람들은 놀랍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했다.

곽부는 배꼽을 잡으며 웃었다.

"엄마, 양과오빠의 이 무공은 정말 오묘한데요. 왜 내겐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네가 만약 이혼대법을 익힌다면 필히 미쳐 날뛰게 되어 스스로 다치게 될 거야."

곽부의 손을 잡으며 황용은 신중하게 말했다.

"절대로 장난거리로 생각지 말아라. 양과오빠는 지금 이 화상과 목숨을 걸고 서로 겨루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검을 쓰는 것보다도 훨씬 위험한 일이야 !"

곽부는 혀를 날름거리며 정신없이 양과를 바라다보았다.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았다. 양과가 웃으면 달이파도 웃고, 양과가 성을 내면 달이파도 화를 냈다. 그래서 곽부는 따라서 배우려고 했다. 이혼대법의 무서움을 잘 모르고서 두어 개 따라 해 보니 마음이 어지러워져 한 발 한 발 대청 가운데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황용이 놀라 급히 손을 뻗어 딸을 잡았다. 이때 곽부는 이미 마음이 제압되어 엄마를 힘껏 떨쳐 버리려고 했다. 황용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곤 그녀의 얼굴을 돌리게 해 양과를 쳐다보지 못하게 했다. 곽부가 몇 번 앙탈을 부리다 맥문이 잡히자 꿈쩍못하다가 순간 어지러워져 엄마 품에 엎드려 잠이 들어 버렸다.

달이파는 이미 완전히 양과에게 제압당해 그가 하는대로 계속따라할 따름이었다. 금륜법왕이 계속 소리를 질러 일깨우려 했으나 달이파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양과는 때가 왔음을 알고 돌연 조령할비의 초식을 전개해 자신의 얼굴을 비스듬히 깎아내렸다. 오른손, 왼손 계속해서 쳐내려갔다.

옛날 조문숙(曹文叔)의 처인 영(令)이 남편이 죽자 자신의 코를 베어 버려 책가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장법 중의 이 초식은 원래 적의 장법이 눈앞까지 왔을 때 자신의 면전에서 쓸어 버리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었다. 양과는 수장을 매우 가깝게 뺨 위로 쓸어 버려 마치 대단히 강하게 손을 쓴 듯 보였지만, 실은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가볍게 만졌을 뿐이었다. 달이파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쌍장으로 자신의 얼굴을 힘껏 내리쳤다. 1 백여 근이나 나가는 근력으로 계속 10 여 차례를 치더니, 결국 버티 내지 못하고 스스로 기절해 쓰러졌다.

양과는 살며시 몇 보 물러나 소용녀의 곁에 가 앉았다. 왼손을 가볍

게 흔들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얼굴엔 다소 적막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는 미녀권법 중 최후의 초식으로 고묘유거(古墓幽居)라 부르는 것인데, 양과가 스스로 독창해 냈으므로 소용녀도 할 줄 모르는 것이었다.

당시 양과는 미녀권법을 다 습득하고 난 후에 조사 할머니의 은덕을 생각해서 이 고대 미녀에게 지지 않는 새로운 무공을 조사 할머니를 넣어서 만들려고 했다. 비록 말로는 임조영을 그려서 만든 것이라고 하지만 행동이나 태도는 모두 사부 소용녀를 모방한 것이었기 소리를 지르면 서 환 했다.

"두번째에도 우리가 이겼다 !"

"무림 맹주는 대송의 고수이다 !"

"몽고족들은 어서 꺼져 버려라. 다시는 중원 땅에 나타나지 말아라 !"

두 명의 고 무사가 뛰어들어 달이파를 메고 돌아갔다.

금륜법왕은 두 제자가 모두 이 소년에게 무공은 떨어지지 않으나 억울하게도 엉망으로 지게 되자 무지무지하게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얼굴색은 조금의 변화도 없이 의자에 앉은 채로 말했다.

"너의 사부가 누구냐 ?"

그의 무공은 절륜무비할 뿐만 아니라 박학다재하여 한어를 할 줄 알았다.

양과는 오른손으로 소용녀를 가리키며 웃으면서 말했다.

"내 사부는 바로 이 분이시죠.어서 와서 무림 맹주께 인사드리시지요 !"

금륜법왕은 소용녀가 양과보다도 어리게 보이는 야들야들한 소녀이므로 양과의 사부로 믿으려 들지 않았다.

(중원 사람들은 피가 많고 약아빠졌다더니 감히 나를 속이려 들다니.....)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딸랑 딸랑, 소리를 내며 품에서 금륜 한개를

꺼냈다. 이 금륜은 직경이 약 반 척 가량 되며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고리 위에는 티벳 글자로 밀종진언(宗眞言)이 새겨져 있었으며, 가운데에는 9 개의 구슬이 박혀 있어 한 번 흔들면 소리가 오랫동안 끊이지를 않았다.

금륜법왕이 소용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흥, 이 어린 계집애가 무림 맹주를 해 낸단 말이지 ? 만약 네가 나의 이 금륜의 십초만 받아 넘긴다면 내 너를 맹주로 인정하지."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이미 두 번 이겼거늘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를 하려는 것이오 ?"

"나는 그녀의 무공을 시험해 보아 맹주에 마땅한지를 알아 봐야겠다."

소용녀는 금륜법왕의 무공이 얼마나 고강한지 몰랐으며 또한 무림 맹주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따라서 자기가 합당한지 합당치 않은지도 생각해 보지 않았었다. 단지 자신이 금륜법왕의 금륜 십초를 받아 낼 수 있을지를 시험해 보겠다는 말을 듣고는 바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럼 해 보시지요."

"만약 네가 나의 십초를 받아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작정이냐 ?" 소용녀가 대꾸했다.

"못 받아 내면 못 받아 내는 것이지 뭘 어떻게 해 ?"

그녀는 이때 양과에게 폭 빠져 있어 다른 사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 중원의 군중들과 몽고 무사들은 모두 이것이 그녀의 속마음인 줄을 몰랐다. 그녀가 금륜법왕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고 보는가 하면, 그녀는 정말로 무공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라고도 수군거렸다. 게다가 양과가 이혼대법으로 달이파를 격퇴시키자 그녀는 요법을 사용한다느니, 요녀라느니 의견들이 분분해졌다.

금륜법왕은 그녀가 정말로 요법을 사용할까 두려워 계속 중얼거리며

밀종진언인 향요복마주(降妖伏魔呪)를 읽었다.

양과는 곁에서 듣자니, 이 화상이 또 티벳어로 자기 사부를 욕하는 줄로 알고 신경을 써서 외기 시작했다. 한 자 한 자 모두 또렷이 기억했다.

금륜법왕은 주문을 다 외더니 금륜을 흔들어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말했다.

"소년은 물러나라. 자, 공격이다 !"

이 두마디는 한어로 말했다.

양과는 손을 저으며 말을 하지 않았다. 그가 억지로 애써 던 티벳어를 잊어버릴까 걱정이 되어 곧바로 다시 한 자 한 자 외기 시작했다. 이때 마침 달이파가 서서히 정신이 들고 있었는데, 그는 사부가 금륜을 들고 격투를 벌이려고 하는 것과 양과가 밀종진언인 향요복마주를 외는 소리를 들었다. 이는 본문의 비법으로 절대로 남에게는 알리지 않는 것이었다. 양과가 만약 대사형의 전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주문을 외 수 있단 말인가 ? 다급해진 나머지 달이파는 황급히 뛰어나가 사부의 면전에 꿇어 앉으며 말했다.

"사부님 ! 그는 정말 대사형의 전신입니다. 그를 거두어 다시 입문케 하십시오 !"

금륜법왕이 화를 내며 말했다.

"헛소리 ! 그가 너를 속였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 이 미련한 것아 !"

달이파가 말했다.

"그래요. 이 일은 확실한 것이지요. 결코 틀릴 수 없어요."

금륜법왕은 그가 여전히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자, 그의 덤미를 잡아 대청 옆으로 집어던졌다. 1백 근이 넘는 무게의 달이파는 그가 잡아던지자 가볍게 나가떨어졌다.

중인들은 이미 점창어은, 양과와 달이파의 격투에서 달이파의 힘을 알고 있는 터라 그가 이처럼 가볍게 나가떨어지자, 금륜법왕의 무공을

새롭게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몽고 무사들은 전에 금륜법왕의 무공을 보았기 때문에 크게 놀라는 것 같지 않았다. 소용녀가 비록 적이지만 그녀는 미모의 어린 소녀인지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측은지심이 생겨났다. 설령 그녀가 요술을 사용한다 해도 법왕의 무공을 당해 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며 그들은 속으로 금륜법왕이 살수를 펼치지 말기를 바랐다.

양과가 주문을 다 외고 나서 소용녀에게 속삭였다.

"용아가씨, 저 화상을 조심해요."

금륜법왕은 그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외는 것을 보자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하고 말했다.

"대단히 총명하구나."

양과가 되받았다.

"화상도 대단하십니다."

법왕이 두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내가 뭐가 대단하다는 거냐?"

"당신이 간도 크게 내 사부와 겨루려고 하니 대단하지요. 그녀는 보살의 전신으로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달통했으며 용호(龍虎)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력이 있으니 당신은 조심하지 않으면 박살이 날 것이요."

양과는 그 화상의 무공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함부로 공격하
堞못하게 하면, 사부가 대항하기

용이해질까 해서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것이다. 그러나 금륜법왕은 서장의 불세출의 영웅으로 문무를 겸비하고 있었다. 그가 어찌 쉽사리 양과의 엄포에 호락호락 속겠는가? 금륜법왕이 소리쳤다.

"제일초가 들어간다. 아가씨, 어서 병기를 들어라!"

양과는 장갑을 벗어 소용녀에게 끼어 주고서 물러났다. 소용녀는 품에서 새하얀 주단을 꺼냈다. 주단 끝에는 금빛 원구가 매달려 있었는데 원구 속에 무엇인가 들어 있어, 주단이 바람에 흔들리자 원구T는

방울처럼 딸랑딸랑 깨끗한 소리를 냈다. 사람들이 보자 두 사람의 병기가 모두 기이했다. 하나는 매우 짧고 하나는 또 매우 길었다. 하나는 극히 견고한 것이며, 하나는 극히 부드러운 것으로 이 두 병기는 똑같이 딸랑딸랑, 소리를 내고 있었다.

금륜법왕이 사용하는 금륜은 상대방의 병기를 빼앗는 것이 특징이었다. 도창검극(刀槍劍戟)은 물론 철퇴나 곤봉, 방망이, 채찍 따위로 부딪치기만 하면 꼼짝달싹못하게 되는 것이었다. 보통 사람은 무기를 단일초만 사용해도 곧 수중의 병기를 잃게 된다. 만약 그가 양과의 무공 실력을 보지 않았더라면 결코 10 초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의 평생 중 그의 금륜의 삼초 공격을 받아넘긴 자는 거의 없었다.

소용녀는 주단을 흔들며 먼저 공격했다. 법왕이 물었다.

"이것은 무슨 무기냐 ?"

왼손으로 띠를 휘감아 쥐며 살펴보니 변화무쌍할 듯이 보였다. 이렇게 잡고 있으면 주단이 상하좌우 중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해도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주단 끝의 원구가 소리를 내며 그의 손등의 중저혈(中渚穴)을 쳐들어왔다.

금륜법왕이 신속히 손바닥을 뒤집으며 원구를 붙잡으려 했다. 소용녀가 손목을 살짝 흔들자 원구는 밑에서 위로 움직이며 손등의 엄지와 검지 사이의 함곡혈(合谷穴)을 쳤다. 금륜법왕은 손바닥을 뒤집어 이번에는 식지와 중지로 원구를 잡아내려 했다. 소용녀가 보고서는 원구로 그의 팔굽 안에 있는 곡택혈(曲澤穴)을 찍어 갔다.

이러한 변초는 진짜 손바닥만 갖고 시전한 것이었다. 금륜법왕은 수장을 두 번 뒤집었고 소용녀는 손목을 세 번 가볍게 흔들었다. 벌써 다섯초가 지난 것이다. 양과가 보고서는 크게 세었다.

"일이삼사오....., 오초다 ! 이제 다섯초가 남았다 !"

금륜법왕이 소용녀에게 말한 10 초란 금륜의 열 번의 공격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양과가 약삭빠르게 쌍방이 교환한 공격수를 함께 계산해 버린 것이었다. 일대의 무학 종사인 금륜법왕이 어찌 교활한 어린애와

공격 회수를 갖고 따질 수 있으랴 ? 곧바로 왼팔을 젖혀 원구를 피한 다음 금륜을 뺐었다.

따따당, 하는 급한 소리와 함께 금륜이 번쩍 하며 어느새 소용녀 먼 전에까지 쳐들어왔다. 이 일초는 정말 변화를 예측할 수 없어 피해 내기도 막아 내기도 힘든 판이었다. 급한 김에 소용녀는 손목을 흔들며 주단을 감아들여 법왕의 머리 뒤쪽 중앙의 풍지혈(風池穴)을 원구로 쳤다. 이 혈도는 인체요혈로 제아무리 무공이 고강하다 해도 일단 맞으면 생명을 보전키 어려운 것이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녀는 양패구상의 위험스러운 초식을 써서 그가 금륜을 건어들이도록 했다. 과연 금륜법왕은 양패구상을 당하기를 원치 않아 머리를 숙여 피했다. 그가 머리를 숙이는 순간 손에 든 금륜도 자연 느려졌다. 소용녀는 쥘쥘 주단을 끌어들며 원구로 금륜을 부딪치게 하여 금륜의 공격을 와해시켰다. 지극히 순간적인 일이었지만 소용녀는 사지에서 벗어난 셈이었다. 급히 경공을 펼쳐 뒤로 물러섰다. 얼굴에는 두려운 빛이 역력했다.

금륜법왕은 이처럼 단지 일초를 공격하였을 뿐인데 양과는 크게 소리쳤다.

"육칠팔구십....., 됐다 ! 우리 사부는 이미 당신의 십초를 받아냈다.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소 !"

몇 번의 공격에서 금륜법왕은 이미 이 소녀의 무공이 비록 높지만 자신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정식으로 공격한다면 10 초 안에 그녀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양과가 옆에서 교란 작전을 써 자신의 심기를 흔들며 놓자 생각했다.

(이 소년의 말에 신경쓰지 말자. 우선 이 여자애부터 이겨 놓고 나서 보자.)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벼락 같이 금륜을 쳐들고 공격해 들어갔다. 야오가가 다시 소리쳤다.

"철면피 ! 십초라 말해 놓고 계속 공격하다니..... 십 일, 십 이,

십 삼....."

그는 쌍방의 공수의 초수는 상관하지 않고 멋대로 숫자를 읽어 나갔다.

소용녀는 일초를 받아 넘긴 후, 너무 겁이 나 그의 두번째 공격을 감히 정면에서 받아 낼 엄두를 못 냈었다. 그녀는 경공을 전개해 손에는 주단을 흔들며 대청 안을 날듯이 누비고 다녔다. 하얀 안개 속에 원구는 한 줄기의 금빛을 뿜어 냈다. 금빛 원구는 느려졌다 빨라졌다, 경쾌하면서도 빠르게 소리를 내는 것이 마치 연주하는 것 같았다.

예전에 그녀가 고묘 안에서 살 때 그녀는 임조영이 남겨 놓은 악보를 보고 비파를 뜯었었다. 후에 이 주단의 금구슬을 연마할 때 구슬에서 내는 소리에 음절이 있음을 알아채곤 어린 마음에 무공의 중간에 음악을 배합해 놓았다. 무릇 천지간에 세시(歲時)의 순서나, 초목의 자람, 그리고 인체의 맥박, 호흡 등 일정한 음률을 지니지 않은 것은 없다. 음악이란 천지의 조화를 따라 사람과 자연의 박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을 들으면 즐거워지며, 잡음은 심기를 어지럽힌다. 무공이 음악과 합치니 더욱 부드럽게 마음먹은대로 응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묘파의 경공은 무림 일절(一絕)로 여하한 다른 파의 경공도 이에 미치지 못했다. 넓은 평원에서라면 그 장점을 발견하기 어렵겠으나 지금처럼 대청 안에서 시전하니 확실히 대단해, 소용녀의 환영이 만방에서 어른거렸다. 그녀는 일생 동안 무덤의 석실안에서 연공을 하였기에 더더욱 그녀의 경공은 신의 경지에 달해 있었다.

금륜법왕의 무공이 비록 그녀보다 월등히 높았지만 그녀가 이처럼 경공을 시전하니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었다. 딸랑거리는 소리를 몇 차례 유심히 들어 본 금륜법왕은 그녀의 음악에 따라 급히 금륜을 휘둘러 대며 잡음을 만들어 섞이게 하였다. 잠시 동안 대청 위에는 두가지 소리가 엇갈려 뒤범벅이 되었다. 깨끗한 종소리를 사람의 심기를 즐겁게 해 주었지만 금륜에서 발출되는 소리는 말할 수 없이 시끄러우며

괴이했다.

곽정과 황용은 옆에서 관전하며 어렸을 적 도화도에서 홍칠공, 구양봉, 황약사 세 사람이 악성으로 결투를 하던 정경이 떠올랐다. 생각해 보니 격세지감이 들었다. 눈앞의 두 사람의 무공이 비록 정교하다고는 해도 악성으로 격투하는 무공으로 말하자면 아직 이들 세 사람에 훨씬 뒤떨어지는 것이다.

이때 양과는 계속 수자를 세고 있었다.

"천 오, 천 육, 천 칠....."

그러나 소용녀는 적과 정면에서 맞서지를 앓았으며, 금륜법왕도 10초가 안 되었다고 여겼다.

곽부는 황룡의 품안에서 잠을 자다가 금륜의 소음 소리에 잠이 깨서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살펴보았다. 잠에서 막 깨어난 곽부는 뭐가 뭔지 몰라 하는 표정을 지었다.

금륜법왕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일대 종주의 신분으로서 일개 계집애를 당해 내지 못하고 있으니, 더 이상 끌다가는 설사 이기더라도 얼굴에 먹칠을襟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냅다 왼손과 금륜을 동시에 내리쳤다. 장법은 왼손 아랫쪽 방향에서 격출시켰고, 금륜은 오른편 윗방향에서 내리쳤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대결하였기 때문에 소용녀의 경공은 이미 적에게 절반쯤은 탐색된 터였다. 금륜법왕은 이 같은 초식으로 그녀의 진퇴로를 차단시켜 그녀가 전면으로 나오게 하도록 했다.

소용녀는 위기를 느끼며 주단을 흔들어 말고 몸을 공중으로 날렸다. 금륜법왕은 금륜을 회전시켜 얼른 주단을 봉쇄했다. 만약 보통의 병기였다면 벌써 빼앗겼을 것이었으나 주단은 부드러웠기 때문에 스르르륵 가볍게 금륜구멍을 미끄러져 나왔다. 금륜법왕이 소리쳤다.

"제 이초에 이어 제 삼초다 !"

그는 한 발 크게 내디디며 별안간 금륜을 소용녀에게 던져 버렸다.

이 같은 초식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금륜은 소용녀를 향하

여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며 달려들었다. 소용녀는 급히 몸을 숙여 뒤로 몸을 젖히자 딸랑딸랑 소리와 함께 황금빛의 금륜이 얼굴을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금륜법왕이 긴 팔을 뻗어 금륜 모서리를 슬쩍 만지자 금륜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공중에서 느닷없이 방향을 바꾸어 재차 소용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소용녀는 금륜이 움직이는 기세가 심히 괴이해 주단으로 말아 버릴 생각을 감히 못 했다. 단지 절정경공으로 이리저리 피할 뿐이었다. 금륜법왕은 두 차례 공격이 적중되지 않자 소리쳤다.

"경공이 참으로 놀랍군 !"

하는 말과 함께 돌연 좌권을 뻗어 금륜 곁을 땅, 하고 치고서는 동시에 쌍장을 격출시켜 그녀의 전면을 가로막자, 금륜이 어느새 그녀의 머리 뒤쪽에서 날아들었다.

금륜이 내습하는 기운은 그렇게 신속하지는 않았으나 금륜이 채 오기도 전에 바람의 세력이 무시무시하게 압도되어 왔다. 그가 금륜을 주먹으로 쳤을 때에는 이미 상대방의 도망칠 방위를 먼저 예측하고 금륜을 날린 것이었다. 금륜은 마치 눈이 달린 양 공중에서 반원을 그리며 그녀의 몸 뒤로 따라왔다. 소용녀는 이리 뛰고 저리 피하며 이미 배운 경공을 시전해 보았다. 눈앞에 그의 쌍장이 몸을 막아서는 것을 보자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양과는 소용녀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자 땅에 떨어져 있던 금강저를 황급히 잡고 뛰어들어 금륜을 힘껏 막아냈다. 따양, 하는 소리와 함께 금강저는 공교롭게도 금륜 구멍에 끼워졌다. 금륜의 기세가 하도 세서 그의 두 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의 손가락이 찢어졌다. 순간 선혈이 길게 흘렀다. 사람과 금륜, 그리고 금강저가 함께 땅에 쓰러졌다.

소용녀는 금륜이 땅에 떨어져 버려 뒤쪽의 위험은 사라졌으나, 자신은 아직도 공중에 있으니 어떻게 몸 앞의 적의 공격을 피할 것인가 난감해졌다. 소용녀는 주단을 휘둘러 서쪽의 기둥을 감아쥐고 힘을 주어 몸을 기둥 쪽으로 비스듬히 날려 가볍게 기둥 뒤로 내려섰다. 간발의

차이로 금륜법왕의 장력을 피해 낸 것이었다.

금륜법왕은 자신의 공격이 양과에 의해 중간에 가로막혀 상대방을 피해 버리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천하 무적의 병기도 그에 의해 땅에 떨어지자 불같이 화가 치밀었다. 이와 같은 일은 그의 평생에 없었던 대좌절이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양과가 채 일어나기도 전에 양과에게 일장을 격출했다. 그는 일파의 종사요, 상대방은 후배이며 또한 땅에 넘어져 아직 일어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은 그의 신분과 평소의 자부와는 실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행위였다. 그러나 금륜법왕은 앞뒤를 재 볼 여유가 없을 정도로 격앙되어 있었다.

곽정은 금륜법왕이 양과를 노려보더니 느닷없이 맹공을 퍼붓는 것을 보자 급히 앞으로 나서며 비룡재천 일초를 그의 정수리를 향해 격출시켰다. 금륜법왕이 만약 장력을 회수하지 않는다면 비록 양과를 처치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도 이 엄청난 강룡장에 심한 상처를 입을 판이었다. 그는 급히 장력을 전환시켜 곽정과 맞부딪쳤다.

이는 당대의 두 무학 대사의 두번째 장력 접촉이었다. 곽정은 공중에서 상대의 장력을 받아 공중회전을 하여 뒤로 내려섰다. 금륜법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자리에 꺾꽂이 서 있었다.

학대통, 손불이, 점창어으 등 평소 곽정의 무공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화상의 무공은 실로 예측할 수가 없다고 모두들 생각했다. 사실 곽정이 뒤로 물러선 것은 상대의 장력을 해소시키는 자연적인 반응으로서 이는 무학의 정도(正道)였다. 금륜법왕은 가슴이 다소 고통스러웠지만, 상대가 사람을 구하는 데 신경을 써 계속 공격해 오지 않음을 알고 입을 다물고 내공을 운기시켜 가슴에 생긴 정체된 기를 뚫어 버렸다.

양과는 구사일생으로 몸을 일으켜 소용녀 곁으로 다가갔다. 두 사람이 동시에 물었다.

"괜찮아요 ?"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마주 잡고 기뻐했다.

양과는 금강저를 쳐들어, 그것에 끼워진 금륜을 돌려 딸그락 소리를 내며 크게 외쳐 댔다.

"몽고의 무림 제위들은 들으시오. 당신네 대국사의 병기가 이미 내 수중에 들어와 있는데도 천하의 무림 맹주라 우길 수 있겠소 ? 어서 빨리 냄새나는 몽고로 돌아가시오 !"

몽고 무사들은 모두 불복하여 분분히 소리쳤다.

"너희들은 삼 대 일로 싸우고도 부끄럽지 않느냐 ?"

"버보양이 스스로 금륜을 내던진 것이지 어찌 네가 빼앗은 것이라 할 수 있단 말이나 ?"

"일 애 일로 싸워라. 절대로 곁에서 끼여들지 말고..... !"

"맞다 ! 다시 싸워야 한다."

중인들이 왁자지껄 몽고어로 지껄여, 광정을 제외하고는 중원의 군웅들은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중원의 군웅들은 무공으로 논한다면 금륜법왕이 소용녀 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그러나 무림 맹주란 명호는 누가 뭐라해도 절대로 몽고 국사에게 내줄 수는 없는 것이었다. 혈기왕성한 젊은 무사들은 몽고무사들이 욕을 하며 떠들어 대자 그들과 함께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다. 쌍방이 무기를 꼬나 잡고 사뭇 기세가 험악해졌다.

양과가 금강저와 금륜을 높이 치켜들고 금륜법왕에게 말했다.

"아직도 패배를 인정치 않으려는 거요 ? 병기를 잃어버리고서도 아직 무슨 엄치가 있어 잔말이오 ? 세상에 병기를 남에게 뺏긴 무림 맹주도 있단 말인가 ? 우아아 !"

금륜법왕은 내공은 운기하고 있는 중이라 양과가 한 말을 분명히 | 들었지만 감히 대꾸를 할 수가 없었다. 양과는 상황을 살펴보며, 이 같은 내막을 얼른 짐작하고서는 급히 서둘러 말했다.

"영웅 제위 여러분. 만약 내가 세 차례 그에게 물어 그가 대답하지 않으면 패배를 인정하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양과는 공연히 시각을 끌어 그가 운기 조식을 마치게 될까 두려워

단숨에 물었다.

"패배를 인정하는가 ? 무림 맹주라 여기는가 ? 대답을 안 하면 패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렷다 !"

금륜법왕은 막 정제된 기를 뚫어버려 이제는 가슴의 가벼운 통증이 사라졌다. 급히 대답을 하려는 순간, 양과는 그의 입술이 찢룩거리는 것을 보고 잽싸게 말을 꺼내 버렸다.

"좋다 ! 당신이 패배를 인정한 이상 우리도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소. 어서 무리를 이끌고 돌아가시오."

양과는 쳐들었던 금강저와 금륜을 광정에게 건네 주었다. 그는 원래 사부에게 주려고했으나 금륜법왕이 빼앗으려 덤벼들면 그녀가 다시 곤욕을 치를까 걱정되었던 것이다.

금륜법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얼굴이 붉어졌다. 금륜이 이미 광정의 손에 들어갔으니 자신이 맨손으로 빼앗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일단 물러섰다가 다음 기회에 보복하는 수밖에 없었다.

"중원의 야만인들은 간교한 꾀를 써서 승리를 했으니, 이는 영웅 호걸의 짓이 아니다. 자, 가자 !"

그가 오른손을 흔들자 몽고 무사들은 일제히 대청 밖으로 나갔다. 그는 광정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다.

"광대협, 황방주 ! 오늘의 가르침은 세월이 변하지 않는 한 다시 만날 날에 반드시 갚게 되겠지요."

광정이 답례를 하며 말했다.

"대사의 심후한 무공에 감탄해 마지 않습니다. 무기를 돌려 드리지요."

광정은 금륜과 금강저를 건네 주려 했다. 양과가 소리쳤다.

"금륜법왕, 염치도 없이 넘죽 받을 것이요 ?"

광정이 꾸짖으며 소리쳤다.

"양과, 허튼소리 말아라 !"

금륜법왕은 몸을 돌려 뒤도 안 돌아보고 성큼성큼 대청을 걸어나갔

다.

양과가 갑자기 한 가지 일이 생각나 소리쳤다.

"여보시오. 당신 제자 광도가 암기의 독에 중독되었는데 어서 해약을 작고 와 내 해약과 바꿉시다 !"

법왕은 어떤 독극물도 능히 처리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 무례하고 교활한 양과의 말에 대꾸도 않고 가 버렸다. 황용은 주자류가 두 눈을 감고 깊이 잠든 것을 보자 생각하길, 독과 암기를 이용하는 명가들을 모두 소집하면 그의 상처를 능히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금륜법왕이 해독약을 교환하려 하지 않자 그녀도 그리 개워치 않았다.

이때 육가장 주위는 온통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모두들 양과와 소용녀가 금륜법왕을 누른 것을 칭찬했다. 두 사람 주위를 수백명이 에워싸고 한마디씩 해 댔다. 광도가 진 것은 자기의 꾀에 자신이 넘어간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소용녀의 경공이 초일한 경지라 것처럼 흉악한 금륜 공격을 피해 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혼대법을 이용해 상대를 기절시킨 것에 대해선 자세히 물랐다. 어떤 이가 혹시 물어 오면, 양과는 그냥 얼버무려 대답했다.